

기호학 연구 제69집

기호학 연구 제69집
Semiotic Inquiry No. 69



한국기호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2021

차례

강지연 : 제주도 무속신화의 구술성을 통해 본 신화의 감성 미학	7
김휘택 :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과 ‘구조’ 개념에 대한 비판과 활용	37
서명수 :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i>Fragment d'un discours amoureux</i>)』 에서 ‘대답 없음’(Sans réponse)에 관한 연구	75
송태미 : 분열증적 시대의 주체성(1) - 우엘벡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105
윤예영 :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의 주체 -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을 중심으로	133
정의진 :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사상에 대한 재해석 - 산업, 기술, 노동, 자연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71
조창연 :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197
최용호 : 들뢰즈와 퍼스 -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	225
표정옥 : 김유신 설화의 영웅성과 신화담론 구축의 기호학적 상징 질서 연구	251
홍정표 : 프랑스 아폴리네르 시 「행렬」과 「나그네」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277

제주도 무속신화의 구술성을 통해 본 신화의 감성 미학*

강지연**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본풀이의 구술 발화 방식
 - 1. 텍스트적 층위: 반복과 대구의 발화
 - 2. 의례적 층위: 감정 발화
 - 3. 인식론적 층위: 잉여적 발화
- III. 본풀이의 미학의 원리와 효과
- IV. ‘씻김’의 미학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의 무속신화인 본풀이를 대상으로 구술성이 구현하는 감성 미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학의 주된 관심사가 예술에서 미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것이라면 본고에서는 무속신화의 표현 방식인 구술성이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제로부터 본풀이의 미학을 해명하는데 주력하였다. 본풀이는 글로 읽어서 대상 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의례에서 구송하는 심방의 발화 행위를 통해 신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믿음으로써 담화의 의미를 구축한다. 결국 본풀이의 감성 미학은 특별한 발화 전략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본고는 이를 본풀이의 언어인 구술성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본풀이의 발화가 감성을 전하는 특별한 의미화의 전략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발화의 수사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본풀이의 소통을 보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6765).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iampg@nate.com

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확인하는 작업과 통한다. 2장에서는 본풀이의 소통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적 층위, 의례적 층위, 인식론적 층위에서 지배적인 발화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먼저 텍스트적 층위에서는 병행적 발화에 기반을 둔 반복과 대구의 방식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유사성의 원리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술 발화의 수사 전략은 신화적 사건과 장면을 극대화하여 독자가 서사의 내용을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수용하는데 미적 효과를 갖는다.

다음으로 의례의 층위에서는 인접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발신자인 본풀이의 구송자는 수신자인 청중으로부터 신화의 사건에 감정을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감정의 동기화’라는 미적 효과로 읽을 수 있다. 감정 표출의 관습적인 발화는 인물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시뿐만 아니라 굿 의례를 지배하는 감정의 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신의 소통에는 관념의 구체화 및 상투적인 발화에 주목하였다. 상투적인 발화를 통해 신화의 허구성은 현실에서 신뢰할 만한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신화의 사건과 현실은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과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분석의 결과 본풀이의 구술성은 모두 “의미의 과잉”이라는 점으로 수렴된다. 즉 본풀이의 구술성은 서사를 지연시키고 인물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발화를 생각하더라도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잉여적인 의미는 담화의 감성 영역에서 긴장의 이완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 될 본풀이의 미학을 구성한다. 이러한 감정의 이완으로부터 본풀이의 구술성은 찻김의 미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열쇠어 : 구술성, 본풀이, 미학, 진행중인담화, 발화, 담화, 커뮤니케이션, 발화 방식, 발화 전략, 병행, 대구, 감정, 잉여적, 상투적, 심방, 인간, 신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제주도의 무속신화인 본풀이를 대상으로 구술성이 구현하는 감성 미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학의 주된 관심사가 예술에서 미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것이라면 본고에서는 무속 신화의

표현 방식인 구술성이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제로부터 본풀이의 미학을 해명하는데 주력한다. 본풀이는 글로 읽어서 대상 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의례에서 구송하는 심방의 발화 행위를 통해 신을 감각적으로 수용한다. 나아가 본풀이의 전승집단은 본풀이의 내용, 즉 신화적 사건을 믿음으로써 본풀이 담화의 의미를 구축한다. 결국 본풀이의 감성 미학은 특별한 발화 전략으로 실현되는데, 본고는 이를 본풀이의 언어인 구술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는 신의 본(本)을 풍다는 의미에서 ‘본풀이’라고 부른다. 본풀이라는 말에는 신의 내력에 대한 신화적 의미와 함께 의례를 구성하는 제차(祭次)명을 뜻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본풀이라는 명칭에는 기술언어와 구술언어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여, 이 둘은 각기 다른 성격의 것으로 구분 짓기 어렵다. 이때의 기술성과 구술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굿 텍스트의 언어를 구성한다.

한편, 제주에서는 본풀이를 구송하고 의례를 주관하는 자를 심방이라 부르는데, 숙련된 심방만이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본풀이를 구송한다. 심방은 본풀이를 구송함으로써 신과 소통하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며, 동시에 굿 참여자들에게 굿의 효험을 믿게 하는 소통 전략을 필요로 한다. 무속 신에 대한 청중의 믿음이 마련되어야 기원하는 바를 신에게 비는 한편, 인간의 정성이 신에게 전달되었다고 확인함으로써 굿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풀이의 구송자는 발화를 통해 신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과 인간의 소통을 주재한다고 여긴다. 이때 청중과의 소통은 위로와 믿음, 슬픔의 해소와 같이 특별한 감성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본풀이는 어떻게 인간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가? 본풀이가 신화의 사건을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라는 내적 이유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인간의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화의 사건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행위를 금기하거나 행

위를 유도하는 데에는 이야기 외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방의 구술 능력이 굿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본풀이는 그 자체로 의례에서 특별한 미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풀이의 구술성은 본풀이와 의례를 아우르며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본풀이의 구술성에 주목하여 발화 전략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본풀이의 미적 담론이 안정된 의미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술 발화의 특별한 방식에 의해 역동적으로 수행됨을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현장과 이론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논의되어 왔다. 먼저 현지 조사에 입각하여 제주의 무속 자료를 집대성한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¹⁾을 근간으로 제주굿과 본풀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장 연구는 본풀이와 제주굿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며 특히 강소전의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²⁾는 굿의 진행방식부터 세부 제차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고 있어 후속 연구 양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1차 현지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에 이어 제주굿과 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신화적 의미와 의례의 상관성³⁾을 규명하고, 신의 자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의례 절차와 가창 방식⁴⁾을 살펴거나 다른 무가와 비교 연구⁵⁾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

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개정판).

2) 강소전의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3) 현용준,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김은희,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 『한국무속학』 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김현선, 「제주도 굿이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강정식, 『제주 굿 이해의 길라잡이』, 민속원, 2015.

4)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95~130쪽.

5) 김현선, 「제주도(濟州島)와 유구(琉球)의 무조신화(巫祖神話) 비교 연구(比較 研究)」,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111~139쪽.; 「濟州島와 아이누(アイヌ)

구를 통해서 개별 본풀이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많은 부분 해명되었지만, 연구 대상으로는 대부분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상정하는 기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의례 상황과 맥락에 주목하는 한편, 2차적 의미에 대한 해명(신화적 의미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탐색)은 본풀이라는 텍스트, 즉 기술 언어에서 빚어지는 인식의 측면만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구술성의 특징에 주목하여 의례 맥락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미적인 것의 탐색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관점을 지닌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두 가지 연구 관점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풀이를 그것이 글로 쓰인 텍스트로 읽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본풀이가 구술적 사유로 이루어진 텍스트라는 점이다. 텍스트가 놓인 상황에 따라 본풀이는 역동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본고의 논의는 담화 기호학에서 제시하는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에서 구술 발화가 어떻게 감성 미학을 조직하고 배열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주력한다. 담화 기호학은 ‘활동 중인 담화’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⁶⁾으로 프랑스의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J. Fontanille)이 제시한 기호학적 방법론이다. 그가 저술한 『기호학과 문학(Sémiotique et littérature : essais de méthode)』(PUF, 1999)에서 “담화란 의미 작용의 과정”, 이자 “실현된 특정한 발화 작용의 행위”라고 설명한다.⁷⁾ 또한 담화에서 의미의 생성은 고립된 항에

의 口碑故事詩 比較 研究』,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109~172쪽.; 「한국문학 :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韓國思想과 文化』, 1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99~131쪽.;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함흥 <짐가계굿> 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 31집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39~271쪽.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 <김치(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9집, 비교민속학회, 2010.

6) 홍정표, 「담화 기호학 연구-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7집, 2013, 304면.

7) Fontanille, Jacques, *Sémiotique et littérature : essais de méthode* Paris :Presses

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 과정만 존재하며, 적어도 두 항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의 의미는 안전하게 고정된 채로 전달될 수 없으며, 담화는 언제나 ‘진행 중인 담화’가 될 수밖에 없다. 본풀이가 의례의 한 요소이자 살아있는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때, 담화 기호학의 관점은 본풀이에서 미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2장의 논의는 본풀이의 발화 전략을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층위에서 살피고, 소통의 층위마다 달라지는 구술성의 특징을 각각 분석한다. 대체로 본풀이의 상투적이며 반복되는 발화들은 잉여적인 발화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서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면 무의미한 발화들이 지닌 구술성의 특징들이 어떻게 담화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풀이가 채록된 각편마다 표현 방식의 두드러진 차이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구술 발화의 차이는 구송자의 개인적인 기억력과 연행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본풀이에서 미적 효과를 야기하는 일종의 예술적인 코드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구술성이 담지 하는 미적 원리에 대해서 탐색하며, 이로부터 미학의 효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겠다.

연구 대상은 일반신에 대한 본풀이 12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신의 경우 당신이나 조상신과 달리 특정 마을이나 가정을 가리지 않고 제주 전역에서 전승된다는 점에서 본풀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⁹⁾ 또한

universitaires de France, c1999. 김치수, 장인봉 역,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쪽35면.

8) 자크 폰타니유(2003), 위의 책, 23면.

9) 제주도 본풀이의 유형은 섬기는 대상 신(新)에 따라 분류한다. 각 마을과 당에 좌정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신들의 본풀이(당신본풀이), 특정 가문과 가업의 조상신에 대한 본풀이(조상신본풀이), 무조신과 농경신과 같이 누구나 모셔야 하는 신에 대한 본풀이(일반신본풀이)가 그것이다. 조상신본풀이는 현지 조사된 자료 수집이 미진하여 연

장편 서사라는 점에서도 구술성과 감성 미학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¹⁰⁾에 수록된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구술자와 각편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¹¹⁾

순번	각편명	구연자	출처
1	초공본	김명윤, 김병호	53~70쪽
2	이공본	조홀대, 고산웅	71~97쪽
3	삼공본	김계림	97~103쪽
4	문전본	이춘아, 신명옥, 고술생	103~131쪽
5	할망본	김매옥, 김해옥,	131~146쪽
6	칠성본	이무생, 고창학	146~161쪽
7	지장본	서월선, 박남하	161~165쪽
8	저승본	임원생	165~167쪽
9	맹감본	이춘아, 변신생, 한태주	167~193쪽
10	차사본	이영주, 김해춘	193~228쪽
11	천지왕본	이무생	228~236쪽
12	세경본	이달춘	236~318쪽

이 밖에도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¹²⁾과 『제주도 신화』,¹³⁾ 제주 심방의 자료집¹⁴⁾도 참고할 것이다.

구의 한계가 있으며 당신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에 비해 서사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일반신본풀이로 한정하여 논의를 예각화하고자 한다.

10)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개정판)

11)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는 8개의 자료집에 실려 전한다. 열두 개의 편명과 순서는 자료집마다 대동소이한 차이를 지닌다. 자료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지연, 「제주도 무속신화와 제의의 파토스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1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3)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14)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II. 본풀이의 구술 발화 방식

본고에서 주목하는 구술성의 의미는 문자와 말(소리)이라는 표기의 차이로 구분하기보다는 구술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것을 다룬다. 즉 기술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도 그것이 말의 속성을 염두 한 것이라면 구술언어가 될 수 있다. 가령 연설문이나 대화의 내용을 기술 언어로 표기한다고 할 때, 문자라는 표기 수단은 말로 하는 구술성의 사유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자 언어를 통해서도 구술성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말과 글의 속성은 일면 대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순수하게 청각에 의지하는 구술언어도, 시각에 의지하는 기술 언어는 성립하기 어렵다.¹⁵⁾

한편, 구술성의 특징으로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도 있다. 구술언어를 통해 문자 언어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주는 “표현수단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말이 지니고 있는 심층적 속성 혹은 구두 표현의 언어 구조, 그리고 구두 발화자의 역동적 심리상태 등을 총합하여 구술성”¹⁶⁾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풀이의 구술성은 반드시 소리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소리의 속성을 지닌 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구술성의 언어 형식으로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 이때, 구술 발화의 특징은 구연자의 기억력과 연행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신화적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미학의 원리와 효과에 주목할 수가 있다.

본풀이는 기본적으로 가창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구술성의 성격을 지닌 텍스트이다. 가령 <지장 본풀이>의 독특한 가창 방식¹⁷⁾은 실천적 층

15)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구비문학연구』 13집, 2001, 17쪽.

16)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4권, 1997, 124쪽.

17) <지장본풀이>는 독특한 가창 방식과 신화적, 제의적 측면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온 바 있다. 김현선은 <지장본풀이>의 가창 방식이 <새드림>의 무가 가창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약사와 무가 구송자가 소리를 주고받는’ 반복창과 유

위에서 담화의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장본풀이>를 하나의 기호로 볼 때, 가창 방식은 표현면에 해당하고 본풀이의 사건(지장이 새로 환생함)은 내용면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현면에 해당하는 가창 방식은 또 다시 표현면과 내용면으로 분절이 가능하다. 가령, 소리의 강약이나 장단에 따라 발신자의 심리와 감정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강약, 장단은 또 다른 표현면으로, 심리와 정서는 내용면으로 분절이 가능하다. 이처럼 본풀이의 담화를 구성하는 의미의 분절은 표현면과 내용면의 관계 설정에 따라 가변적이며 역동적인 형태를 지닌다.¹⁸⁾ 이는 단순히 본풀이의 형식을 기표로, 내용을 기의로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풀이의 발화에 주목하는 본고의 논의가 본풀이의 형식적인 부분을 논의하면서 담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구술성의 정신역학을 연구한 월터 옹(Walter J. Ong)은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람들의 사고와 표현방식이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을 따른다고 말한다.¹⁹⁾ 또한 모든 지식을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접목시켜 개념화하고, 그 어조가 논쟁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²⁰⁾ 제주도의 본풀이 역시 이러한 구술성의 특징을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풀이의 발화는 다른 구비 전승되는 텍스트와 구술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상투적(formula)발화와 병행적(parallelism) 발화 등 유사한 의미의 반복된 표현은 전설과 민

사한 방식임을 논의하였다.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 2005, 95~128쪽. ;전주희는 <지장본풀이>에서 지장이 ‘비인격체인 새(鳥)’가 되어 다른 본풀이의 주인공처럼 신이 되지 못하는 결말에 주목하였고, 다른 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장의 존재가 지닌 부정적인 자질을 제의와의 관계에서 살펴 볼 때, <지장본풀이>는 ‘지장의 내력을 풀으로써 그와 관련된 악귀, 잡귀들을 불러 모으는 주술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29집, 2009, 345~372쪽.

18) 홍정표(2013), 같은 논문, 311~312쪽 참조.

19) Walter J. 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3~96쪽.

20) Walter J. Ong(1995), 위의 책, 53~96쪽.

담, 판소리에서도 사용되는 구술문학의 보편적인 특징에 해당한다.²¹⁾ 따라서 구술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본풀이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해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 본풀이는 다른 구술 텍스트와 결이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풀이가 구송되는 의례의 맥락에서 청중이 기대하는 심리적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본풀이만의 구술 발화가 빛나는 효과의 차이일 수도 있다.

굿의 발신자는 1차적으로 굿을 의뢰하는 제주(祭主)가 된다. 굿을 마련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례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는 제주가 아닌 심방이다. 심방은 굿의 과정을 주관하며 인간의 문제를 신에게 알리는 주체이므로 심방이 굿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신자라 할 수 있다. 이때 수신자는 의례에서 모시는 대상 신이 된다. 한편 본풀이의 메시지는 신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들려준다는 점에서 발신자를 신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이때 메시지의 수신자는 심방을 포함한 전승 집단 모두가 된다. 이렇듯 본풀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설정은 한 가지로 규정되기 어렵다. 이는 본풀이의 언어가 굿의 언어와 텍스트의 언어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풀이의 문체가 구술성과 기술성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풀이의 언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통 맥락에 따라 복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별히 본풀이는 굿 의례와 함께 제주라는 특정 지역에서 전승 집단의 신념과 믿음에 기대어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문제는 발신자의 언어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의 해석 장애가 따른다는

21) 기존 연구에서 본풀이의 ‘표현 형식’에 주목하여 정리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장주근의 논의는 본풀이의 문체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운문이라는 점, ②상투어구가 많은 점, ③대화형식이 많은 점, ④현재형 서술 ⑤대구, 반복, 과장 등의 점층적 강세 표현이 많은 점, (장주근,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 무속과 무속신화』 (장주근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민속원, 2013, 91쪽.) 장주근의 논의는 본풀이의 문체가 다른 소설 및 희곡에서 보다 위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본풀이의 문체를 밝히었다.

것이다.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의미한다. 의례와 신화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풀이의 언어는 특별한 언어적 책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풀이의 미학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풀이가 소통되는 맥락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구술성의 언어 지표는 의미의 부차적인 것을 담당하는 한편 서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마다 연행 능력의 차이, 곧 발화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화의 차이는 심방의 구송 능력의 지표가 되어 더욱 성공적인 의례와 덜 성공적인 의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결국 구술성의 특징은 본풀이의 담화를 기획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요인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본풀이와 의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세 가지 양상으로 분절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텍스트적 층위, 의례적 층위, 인식론적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세 가지 층위에서 발신자-수신자의 양상을 확인하고, 각각의 소통 상황에서 구술 발화의 수사적 특징과 발화 전략을 살펴보겠다.

1. 텍스트적 층위: 반복과 대구의 발화

본풀이를 신화라는 텍스트 내적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의 발신자는 서술자, 수신자는 내포 독자가 된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묘사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것으로 수신자는 신화의 사건과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야기의 내적 차원에서 본풀이는 신의 직능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갈등을 다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풀이는 신의 기원을 풀이한다는 점에서 ‘신이한 존재의 출현과 신의 좌

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서사 구조를 송효섭은 '〈출생-재출생〉', '〈과업-시련-시련극복-과업 수행-과업〉'으로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²²⁾

열 두 본풀이의 상이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발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술했다시피, 본풀이의 발화 방식은 구술 텍스트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른다. 이는 월터 옹이 말한 구술 문화에서 비롯하는 사유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문자가 없는 구술 문화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개념을 집합화하거나 정형구에 의지해 표현한다. 또한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고 감정이입적이며 참여적인 특징을 갖는다.²³⁾ 본풀이 역시 문자 언어로 기록된 자료집이 있지만, 본래 의례 현장에서 발화자의 기억에 의지하여 전승되므로 구술 문화의 사유 방식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풀이가 구술 텍스트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때, 이러한 차별화를 갖는 데에는 특수한 전승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소통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본풀이만의 특수한 담화의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서술자와 내포독자를 상징하는 텍스트 층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화 방식은 단연 반복과 대구의 수사적 방식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구술 텍스트에서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구술 방식에 해당한다.²⁴⁾ 청각에 의지하는 텍스트의 전승 맥락에서 반복은 기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에도 유용하다.²⁵⁾

22)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8쪽.

23) Walter J, Ong(1995), 위의 책, 53~96쪽.

24) 전주희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서 걸랑 기영 험서'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반복은 구술 전승 담화의 보편적인 특성이자 본풀이의 개성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언술이라고 하였다. 이 언술이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화용론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29집, 2009, 232쪽.

25) 김현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지배적 통사구조가 있어 그것을 유용하게 반복 활용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어려움이 크게 경감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현

(가-1) 그 애기들 나이가 세 살 나아가니까/ 걷는 것도 글발이여/ 기는 것도 글발이여/ 우는 것도 글소리여/삼맹이가 글을 배우는 것이/ 일 등으로 글을 잘 하여서/ 한 일곱 살 나니까/ 열자 가르치면/ 천자(千字)를 통달하고/ 천하문장(天下文章家)이 될 듯 한다.²⁶⁾

-<초공본>, 김명운 구송

(가-2) “등허리에 물이나/ 놓아드리겠습니까고 하여서/ 질락 떠밀려 버려서/ 큰 부인이 물 위로/ 나오려고 하면 꼭 놀리고 / 나오려고 하면 꼭 놀리고 하난/ 그만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니까?²⁷⁾

-<문전본>, 이춘아 구송

(가-1)은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의 글재주를 제시하는 구절이다. 삼형제가 세 살 적에 걷는 것, 기는 것, 우는 것을 나열하면서 동시에 ‘글소리’를 반복적으로 발화하고 있다. 서술자는 삼형제의 세 가지 행동을 언급하되,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보다 삼형제의 탁월한 글재주를 강조한다. (가-2)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을 주천강 연못에 빠트리 죽이는 대목이다. 물에 빠진 여산부인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다. 반복되는 발화를 통해서 노일제대귀의 딸의 악행에 더욱 주목할 수가 있다. 아울러 내포독자는 여산부인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과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 생생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한편, 형식상 동일한 패턴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구의 표현 방식을 병행 구문이라 하는데, 이는 본풀이의 구술 방식에서 반복만큼이나 빈번하게 사용된다.

주, 「판소리 문학에서 구술성과 기술성의 관련 양상 및 의미」, 『판소리연구』 2권, 판소리학회, 1991, 24쪽.

26) 『본풀이사전』, 59쪽.

27) 『본풀이사전』, 106쪽.

- | | | |
|-------------------------------------|--------------------------|--------------------------------|
| (나-1) 상백미 일천석
중백미 일천석
하백미 일천석 | (나-2) 전선은 좋수다
후부는 나쁘다 | (나-3) 전세남 흠옵서
후새남 흠옵서 |
| (나-4) 대제김 끈이여
소제김 끈이여 | (나-5) 굴송낙 쓰는고
굴장삼 입는고 | (나-6) 동(東)으로 들어서
서(西)으로 나는고 |
- <지장본풀이> 안사인 구송

위의 인용문에서 ‘상/중/하’, ‘전/후’, ‘대/소’, ‘쓰다/입다’, ‘동/서’의 어휘들은 모두 동일한 문장 구조 안에서 대조적으로 쓰이는 병행구문이다. (나-1)에서 남산과 여산 부부가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절에 공양하는 장면이다. 부부가 백미(白米) 일천석을 바치는 사건에서 구태여 상/중/하를 나누는 것은 서사적 의미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양미에 대해 분절하여 말하기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유사 의미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데 기여한다.

(나-2)는 지장의 운수에 대해 전하는 스님의 대사이다. 초년의 운수는 좋아도 말년의 운수는 나쁘다는 것인데, 박하남 구송본에서는 ‘말년의 운수가 좋다²⁸⁾’고 말한다. 그런데 지장의 초년과 말년의 운수는 이후 새로 환생하는 사건의 결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말년의 운수가 좋든지 나쁘든 간에 이러한 발화는 사건의 인과성과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전새남↔후새남(나-3), 대제김↔소제김(나-4), 쓰는고↔입는고, (나-5) 동↔서(나-6)에서 제시하는 병행 구문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텍스트 전체를 아울러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는 구술 발화의 내용면이 텍스트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하는 그 언어 자체, 즉 형식면이 의미를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병행 구문의 각 장면은 다른 상황을 보여주지만, 하나같이 장면의 구성을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병행적 발화에서 대

28) 『사전』, 164쪽.

응하는 표현들은 동질의 의미를 변주하여 발화 그 자체로 리듬감을 자아낸다. 서술자는 서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데에 의미를 두기보다 유사 장면의 반복과 소리의 유사성으로 해당 장면에 대한 기억을 용이하도록 한다.

2. 의례적 층위: 감정 발화

의례에서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은 신의 본(本)을 풀어서 신을 청해 모시는 신성한 행위이다. 그만큼 의례적 소통 층위에서는 소통의 방식이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례 맥락에서 발신자는 실제 본풀이를 발화하는 심방이며 수신자는 의례에 참여하는 청중이 된다. 이때 심방은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어떤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굿을 시작하기 전에 심방은 굿하는 단골의 사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전 지식은 심방이 굿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굿에 깊이 관여하는 심리적 코드가 된다.

이 둘의 소통에서 물리적인 말소리가 의사소통의 실체로 작용하며 의례 상황에서 야기되는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 본풀이를 구성하는 구술성의 요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의례에서 본풀이의 구술성은 신화의 사건을 들려주는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 참여자들의 믿음, 즉 의식의 층위에서 특별한 감성을 전하는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의례가 끝난 후에 인간은 영혼을 위무(慰撫)한다고 여기거나, 의례 전에 품었던 근심과 불안감이 해소 되는 등, 의례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안도감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청중이 실제하는 현실 세계에서 굿을 하기 전과 후로 물리적 상태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감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청중의 의식 변화는 구술성의 미적 효과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의례적 층위에서 본풀이의 담화는 구술성의 미적 효과가 극적으로 제시되기 위해 의도적으로나 필

연적으로 특별한 발화 전략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본풀이의 구술자인 심방은 청자가 신화적 인물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감정을 토로하는 발화가 자주 쓰인다.

(다-1) “이 술 한잔 드십시오., 천년주우다. 만년주우다, 설운 어머니야, 아
버님야, 내 가문장아기우다. 나 술 한잔 들읍서.”²⁹⁾

-<삼공본풀이> 김만보 구송

(다-2) 여산부인이 말을 하되, “설운 남선비님야, 날 모르겠습니까? 내 여
산부인 되웁니다.”³⁰⁾

-<문전 본풀이> 안사인 구송

(다-3) “설운 어명 살아오십시오, 설운 어명 살아오십시오, 삼세법을 쓸어
때리니까 설운 어명 살아난다.”³¹⁾

-<문전본풀이> 고술생 구송

위의 인용문은 모두 가족의 호칭 앞에 ‘서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인물의 감정 상태를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발화들이다. 특히 ‘설움’이라는 표현은 본풀이마다 일종의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어으로써, 현재 인물이 직면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인물의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다-1)은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가 걸인잔치를 열어 부모와 상봉하는 장면이다. 가문장아기는 ‘자기 덕에 산다’는 말을하여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집에서 쫓겨난다. 예문은 가문장아기가 부모와 재회하여 서러운 어머니님과 아버지님을 부르며 만남의 감격을 표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서러움의 주체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가문장아기의 서러움

29)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86쪽.

30) 『무속자료사전』, 338쪽.

31) 『본풀이사전』, 130쪽.

일 수도 있고, 봉사에 걸인 행색을 하고 나타난 부모의 서러움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물의 발화에서 서러움의 개연성을 신화의 사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다-2)은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이 무곡(貿穀)장사를 하러 떠난 남선비를 찾으러 오동나라에 가는데, 우연히 남선비를 만나는 대목에서 자신의 남편을 일러 설움을 표출하는 장면이다. 남선비는 가정의 생계는 책임지지 않고 노일제대귀일 딸의 꾀에 빠져 몇 년의 세월을 보냈다. ‘설운 남선비님아’라는 감정 표출 발화는 부부의 재회 상황과 여산부인의 심리를 극적으로 제시한다. (다-3)은 죽은 여산부인을 환생꽃으로 살려낼 때, 막내 아들 녹디생이의 발화이다. 설운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의 재생(再生)을 간절히 기원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처럼 의례의 소통 층위에서 발신자인 심방은 청자에게 사건의 개연성을 중시하는 기술 언어의 사용보다 신화적 사건이나 인물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표출의 발화를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설움의 감정 표출 발화에서는 신화적 인물의 설움으로부터 고통을 마련하는 청중의 설움으로 감정의 전이가 가능하다. 의례에 참여하는 청중은 현실에서 특별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간주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의 도움을 청하는 의도가 고통을 마련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설움이란 슬픔과 비통과는 결이 다른 감정의 고통을 뜻한다. 인물의 이름 앞에 설움의 수식어를 표현함으로써 의례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청자들의 마음에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감정의 동기화를 시도하는 발화를 통해 신화적 인물과 청중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청중은 신화적 인물의 감정 상태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심방이 감정 표출의 발화를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감정 교류를 경험하게 하고 의례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심 축을 담당한다.

3. 인식론적 층위: 잉여적 발화

본풀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인식론적 층위에서 작용하는 인간과 신의 소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발신자의 메시지는 인간이 신에게 기원하는 기도의 목적과 상응하며, 인간의 기구한 사연을 신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식론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신’의 소통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해석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화 기호학에서 사용하는 ‘발화적 실천’이라는 용어는 “텍스트, 형태, 소재들이 소집되고, 선택, 조종, 변화, 창조되거나 특정한 발화 작용에 의해 재창조되는 모든 작용을 포함”하여 정의한다.³²⁾ 발화적 실천 작용에 의해 본풀이의 담화는 인간의 믿음과 의식의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신과 소통하였다고 여기는 곳을 통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관념은 무속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의미로 전환이 가능하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망자를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이 곳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관념과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본풀이의 발화 전략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추상적인 관념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잉여적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장본풀이>에서 탄생과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는 구절이다.

(라-1) 서천은 서약~국	(라-2) 여섯 살 나는 해	(라-3) 설룬 어멍
지장에 땅으로	설우신 어머님	뚝 죽어가느고
소르릉 소르릉	오독독 죽느고	여섯 살 나는 해에
지장아기 솟아난	-안사인 구송 ³⁴⁾	서룬 아방
-서순실 구송 ³³⁾		뚝 죽어가느고
		-박남하 구송 ³⁵⁾

32) 자크 폰타니유, 김치수, 장인봉 역,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183쪽.

위의 인용문은 모두 ‘삶’과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잉여적 발화가 사용되었다. (라-1)에서 ‘소르릉 소르릉’은 지장이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다. 지장의 탄생 순간을 역동적이며 감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라-2),(라-3)는 지장의 어머니가 죽는 장면에 대한 구절이다. ‘오도독’과 ‘뚝’은 단단한 물체가 깨질 때에 나는 음성 상징어로서, 생명이 끊어지고 부서지는 모양으로 죽음을 표현하였다. 이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관념을 구체화하는 발화 전략은 죽음이라는 관념적 대상을 시(청)각화하여 이미지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두 번째 발화 전략으로는 신화의 사건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야기했다고 말하는 상투적인 발화가 있다. 인간 세상의 법이 신화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투적 발화는 신화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소통을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

(마-1) 염라대왕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지고, 발엔 차꼬가 끼워지고, 몸에는 밧줄이 감겼다. 강님의 억센 발길이 염라대왕의 잔등이에 떨어졌다. …(중략)… **그때에 낸 법으로** 우리 인간도 죽어 갈 때엔 이 차사가 앞장을 서서 이 밧줄로 결박하여 데려가는 것이다.³⁶⁾

-<차사본풀이> 안사인 구송

(마-2) **그때의 일로 해서** 오늘날도 이 새가 들어서 다정했던 부부간에도 살림의 분산을 시키는 것이며, 결혼 잔치할 때 신부가 상을 받으면, 먼저 상 위의 음식을 조금씩 떠서 상 밑으로 놓는 법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서수왕 따님에 대한 대접이다.³⁷⁾

-<세경본풀이> 안사인 구송

33) 『고순안 본풀이』, 250쪽.

34) 『사전』, 241쪽.

35) 『사전』, 163쪽.

36) 『제주도 신화』, 117쪽.

37) 『제주도 신화』, 176쪽.

(마-3) 이늬를 식별할 증거로 노루 꼬리를 짚막하게 끊고, 엉덩이에 백지 한 장을 붙여 놓았다. 그때 낸 법으로 노루 몸뚱이가 아리롱다리롱 하고 노루 꼬리가 짧아졌다.³⁸⁾

-<문전본풀이> 안사인 구송

(마-1)는 <차사본풀이>에서 강님이 염라대왕을 밧줄로 묶어서 데려가는 장면이다. 염라가 강님에게 끌려가는 서사의 사건으로부터 저승 관념을 형성한다. ‘그때에 낸 법으로’라는 발화를 통해서 인간도 저승 갈 때에 염라와 같이 밧줄로 결박하여 가는 것임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마-2)는 <세경본풀이>에서 서수왕 따님 아기가 새로 환생한 후에 인간 세계에 어떤 법이 생겨났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도령은 서수왕 따님 아기와 약혼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후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서수왕 따님 아기가 부부간의 흥협을 주는 악심새로 환생하였다. 이러한 신화적 사건은 인간이 혼례를 치를 때 이 새를 달래기 위한 의례가 생긴 배경으로 작용한다. 결국 인식론적 층위에서 본풀이의 발화는 신화의 사건으로부터 인간의 행위 규범이 마련됨을 강조한다. 신부의 상 아래에 서수왕 따님을 위한 상차림은 신화와 현실을 매개하는 지표이자, 사유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데 일조한다.

(마-3)은 <문전본풀이>에서 노루꼬리의 생김새에 관한 유래를 밝히는 구절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한 칠형제는 우연히 노루 한 마리를 만나게 된다. 위기에서 벗어날 계책을 일러주는 노루를 표식하기 위해서 칠형제가 노루 꼬리를 짧게 끊어 놓았는데, 이 사건으로 노루의 꼬리 모양이 지금처럼 짧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상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때의 낸 법’으로 신화의 사건과 인간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발화를 통해 서사의 사건은 잠시 중지되고, 현실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여 신화와

38) 『제주도 신화』, 194쪽.

현실을 이어준다. 관념을 사유할 수 있도록 음성 상징어를 통한 발화나 상투적으로 쓰이는 발화 모두 서사 전개에 불필요한 잉여적인 표현이지만,³⁹⁾ 신화의 사건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에 대한 믿음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Ⅲ. 본풀이의 미학의 원리와 효과

미학에서 인간의 감성과 예술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학에 대한 탐구가 ‘삶의 세계’, ‘삶의 형식’에 관련되는 것임을 말해준다.⁴⁰⁾ 무속 신화에서 미적 현상에 주목하는 본고의 논의 역시 신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 그리고 의례의 행위에서 기대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이해하는 것과 통한다. 본풀이의 미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속 신화의 예술성을 새롭게 읽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본풀이를 구송할 때 소리가 갖는 즉흥적이며 일회적인 자질은 수신자의 기억에서 내용을 조직하고 의미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앞서 살펴본 본풀이의 발화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빚어내고, 그러한 상상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떠한 결과나 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주술의 의미까지 불러온다. 이러한 사실은 본풀이의 전승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풀이의 구술성은 신의 행적을 알리는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 감성과 인지적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39) “패리와 로드에 의해 제시된 구술상투어구 이론은 구술문학 텍스트가 상투어구라는 예측 가능한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텍스트 자체가 유표적으로 돌출되기보다는 맥락 속에 묻혀 기능화 될 가능성이 큼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담게 됨으로써, 이른바 정보이론에서 말하는 ‘잉여(redundancy)’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구비문학연구』 13집, 구비문화학회, 2001, 20쪽.

40) 김현희, 「민족신화학과 신화미학」, 『민족미학』 3권, 민족문화학회, 2005, 158~159쪽.

본풀이가 구송되는 의례 맥락에서 본풀이의 언어는 곧 곳의 언어이기도 하다. 현장성을 염두 하여 본풀이의 구술 발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서사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본풀이의 수사적 표현은 대개 잉여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로, 사건의 전개에는 아무런 의미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술 발화는 서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삭제해도 무방해 보이는 것들이다. 일면 무의미해 보이는 이러한 표현들은 서사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구술성의 미적인 차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텍스트적 층위에서 본풀이의 구술 발화는 반복과 대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의 극대화를 실현한다. 이는 유사성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언어의 시적 기능은 ‘등가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⁴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본풀이의 병행적 발화에는 야콥슨이 시적 기능으로 설명하는 유사성의 원칙을 따른다. 동일한 사건 또는 특정 장면을 제시하는 발화에서 의미 없이 중복되는 표현이나, 장면의 세분화는 등가적인 어휘들을 선택하여 병행 구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적 쓰임은 본풀이의 발화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거니와 반복을 통해 내 포독자는 서사의 내용을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수용하는데 미적 효과를 갖는다.

다음으로 의례의 층위에서 발견되는 미학의 효과는 인접성의 원리로 실현된다. 발신자인 심방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인간에게 본풀이의 내용을 바르게 수신할 수 있도록 신화의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의 감정을 강조하며 발화한다. 즉, 의례에 참여하는 수신자로부터 신이한 존재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신과 인간의 감정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접성의 원리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기여한다. 발신자의 언어 코드를 수신자가 해석할 수 있도록 발신자와 수신자는 인접

41) 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61쪽.

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해석 코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신자인 인간으로부터 신화의 사건에 감정을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를 ‘감정의 동기화’라는 미적 효과로 읽을 수 있다. 감정 표출의 관습적인 발화는 인물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시뿐만 아니라 그 의례를 지배하는 감정의 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론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신과 인간의 소통에서는 인과성의 원리가 지배적이다. ‘그때에 낸 법으로’라는 상투적인 발화는 신화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인식을 전환하는 언어 표지로 작용한다. 현실의 논리가 신화의 사건으로부터 야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화의 허구성이나 신화적 상상력으로 빚어지는 관념적인 의미들이 현실에서 신뢰할 만한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신화의 사건과 현실은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과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투적 발화가 본풀이를 신성하게 다루는 전승 집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데에는 신화의 논리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의 사건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면, 특정한 의례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금기를 지켜야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해석행위는 스토리 차원에서 전하기보다 상투적인 발화에서 도출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통 층위	발화 방식	미적 원리	미적 효과
텍스트	대구, 반복 병행적 발화	유사성의 원리	장면의 극대화
의례	감정 표출 발화	인접성의 원리	감정의 동기화
인식론적	인여적, 상투적 발화	인과성의 원리	관념의 구체성

세 가지 소통의 층위에서 언급한 발화 방식이 물론 한 가지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복과 대구의 방식은 구술 텍스트에서 쉽게 확

인이 가능하다. 다만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소통의 층위마다 미학을 담당하는 지배적인 요인을 찾음으로써 구술성이 야기하는 미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살피려는 시도라 하겠다.

IV. ‘씻김’의 미학

지금까지 본풀이의 구술성이 야기하는 미적 효과를 감성의 차원에서 확인해 보았다. 본풀이의 구술성에 주목함으로써 의미의 불안정 속에서 감성과 미학이라는 가변적인 요소로부터 미학의 일정한 체계를 세우고자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미적인 가치가 생성되는 의미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구술성의 지표가 되는 발화들의 특징으로부터 본풀이의 독자적인 미학과 그 원리를 도출해 볼 수 있었다.

본풀이는 굿 의례를 통해 소통되며 이것을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전승 집단의 믿음에 기대어 본풀이의 담론이 갖는 위상이 결정된다. 설령, 어떤 본풀이에서 신화적 주인공의 출현과 과업을 제시하고, 그 서사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본풀이의 의미를 구성하는 전승 집단의 태도와 의례의 상황에 따라 본풀이의 메시지는 인간에게 다르게 수용되기 마련이다. 결국 본풀이의 메시지는 수용자의 인식의 차원에서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며, 고정불변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본풀이의 담화는 언제나 진행중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전승자의 사회적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풀이와 굿은 고유한 신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세정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메시지’라하고, 그와 상반된 성격의 메시지를 ‘정전(正典)적 메시지’⁴²⁾라는 점에서 의례의 메시지를 두 가지

42) 이를 테면, <단군신화>의 기록은 그것이 전승되는 시대상황과 기록자에 따라 사서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화의 바탕에는 동일한 정전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본풀이의 정전적 메시지는 ‘인간이 언제나 신과 소통을 시도하며, 신은 인간의 부름에 부응한다는 믿음’으로 구성된다. 이때 본풀이의 발화는 청중의 믿음과 심리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구술 발화의 특성은 모두 “의미의 과잉”이라는 점으로 수렴된다. 즉 본풀이의 구술성은 서사를 지연시키고 인물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발화를 생략하더라도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잉여적 발화는 담화의 감성 영역에서 긴장의 이완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 될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본풀이의 구술성은 찢김의 미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찢김은 한의 정서를 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화에서 장면을 극대화하는 효과는 서사적 전개를 중지하고 긴장을 이완하는데 기여한다. 감정의 동기화는 신화적 인물에게 청중의 감정을 이입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야기는 신화적 주인공이 신직이라는 보상을 받고 모든 시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종결됨으로써 감정 이입에 몰두한 청중에게 심리적 위안을 전달한다. 관념의 구체성은 인간이 신과 소통한다는 인식론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믿음이라는 관념적 인식에 실체를 부여하여 신에 대한 인간의 기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결국 의례를 마련할 때의 한(恨)의 감정은 초월적인 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찢김’받음으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무속신화에서 감성은 의미의 생성과 해석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구술성과 감성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은 구술성의 특징을 배제하고 기술 언어에서 빚어지는 인식의 측면만을 논의했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본풀이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읽는 방식으로 신화의 상상력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감성 이론에 근거한

다. 오세정, 「신화 소통에 관한 제의적 기호작용 연구」, 『기호학』, 2010, 318~320쪽.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풀이의 구술성에서 전해오는 감성의 효과가 개인과 집단의 의식에 관여하여 신앙관, 인생관, 죽음관 등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본풀이가 감성의 측면에서 전승될 때, 신화가 전승 집단의 의식과 행위를 통제하며 개인과 집단의 행위 규범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풀이를 감성의 논리로 살핀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식과 논의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조상신이나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본풀이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풍성한 논의로 이어져야 하겠다.

한편, 무속 신화가 지닌 구술성의 특징은 다매체시대의 언어 형식과 많은 점에서 닮아 있다. 무속신화의 구술성은 현장이라는 맥락에서 언제나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굿이라는 연행에서의 언어는 실제 음성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송자의 표정과 몸짓 연기, 음악과 무용 등 컨텍스트적 요소가 모두 굿의 언어에 해당한다. 이렇듯 복합적인 매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속신화의 구술성은 다매체시대의 언어가 지닌 혼종적인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논의 결과는 다매체시대의 언어 형식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혼종적인 언어의 사용과 미학적 원리를 구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민속원, 2013.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개정판)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양창보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보고서, 2010.
『고순안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보고서, 2013.
『서순실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보고서, 2015.

2. 논저

- 강지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와 파토스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 <김치(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9집, 비교민속학회, 2010.
김현주, 「판소리 문학에서 구술성과 기술성의 관련 양상 및 의미」, 『판소리연구』 2권, 판소리학회, 1991.
_____,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4권, 1997.
김현희, 「민족신화학과 신화미학」, 『민족미학』 3권, 민족미학회, 2005.
김현선, 「제주도(濟州島)와 유구(琉球)의 무조신화(巫祖神話) 비교 연구(比較 研究)」,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_____,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_____, 「濟州島와 아이누(アイヌ)의 口碑敍事詩 比較 研究」,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_____, 「한국문학 :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韓國思想과 文化』, 1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함흥 <짐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 31집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29집, 2009.
오세정, 「신화 소통에 관한 제의적 기호작용 연구」, 『기호학』, 2010.

-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구비문학연구』 13집, 구비문학회, 2001.
- _____,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8쪽.
-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에서 ‘동의’를 나타내는 언술의 서사적·화용론적 의미 연구 - ‘어서 걸랑 기영 협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2권, 한국구비문학회 2021.
- 홍정표, 「담화 기호학 연구-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7집, 2013,
- _____,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박경리의 『재귀열』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10.
- J. L. Austin, 『말과 행위』, 김영진 역, 서광사, 2011.
- 자크 폰타니유, 『기호학과 문학』, 김치수, 장인봉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09.
- Roman Jakobson,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89.

Emotional Aesthetics in Myths Shown through the Orality of Shaman Myths in Jeju-do

Kang, Ji-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emotional aesthetics embodied by orality in Bonpuri, a shamanic myth of Jeju Island. If the main interest in aesthetics is to explore aesthetic values in art, this paper focused on clarifying Bonpuri's aesthetics from the premise that orality, the expression method of myth, realizes aesthetic values. Bonpuri does not know about the target god by reading it in writing. receive God sensuous from simbang's utterance from rituals. By believing this, the meaning of discourse is created. Eventually, the emotional aesthetics of Bonpuri are realized as a special utterance strategy. This study discussed this in orality, the language of Bonpuri.

This study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Bonpuri's utterance has a special strategy of semanticization that conveys emotions.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utterance were examined. This is to confirm the communication strategy that shows the communication of Bonpuri. In order to confirm the communication mode of this interpretation, the dominant of textual, ritual and epistemological layers are identified in Chapter 2.

First of all, the method of repetition and rhyming based on Parallelism utterance is confirmed in the text hierarchy. This is the principle of similarity. This orality utterance strategy is of maximizes mythical events and scenes and has an aesthetic effect on readers' understanding and intuitive acceptance of the narrative.

At the next level of the ritual, the principle of proximity induces the sender to immerse emotions in the mythical event from the audience, the recipient. This can be read as an aesthetic effect of 'emotional synchronization'. The customary utterance of emotion expres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nforms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ominates the emotions of ritu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of the orality properties of this bonpuri converge to the point that it is “excessive in meaning”. In other words, the oral nature of bonpuri delays the narrative and does not affect the character or event. Even if such utterance is omitted, there is no problem in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myth. However, the surplus meaning i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relaxation of tension in the emotional domain of the discourse and constitutes the aesthetics of Bonpuri, which is indispensable in itself. From this relaxation of emotions, the orality nature of bonpuri can be defined as the aesthetics of *Ssisgim*.

Keywords : Orality, *Bonpulee*, Utterance, Aesthetics, Ongoing discourse, Discourse, Communication, utterance method, utterance strategy, Parallelism, Emotion, Redundancy, Formula, Simbang, Human, God

투고일: 2021. 12. 10./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과 ‘구조’ 개념에 대한 비판과 활용

김휘택*

【 차 례 】

- I. 서론
- II. 일반 기호학과 개별 기호학
- III. 에코 기호학의 시작과 전체
- IV. 방법으로서의 기호학과 구조의 실재
 - 1. 방법으로서의 기호학
 - 2. 구조의 실재
- V. 구조의 부재와 실재
 - 1. 구조의 위상
 - 2. 구조의 보편성과 부재
 - 3. 구조의 역할과 실재
- VI.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과 구조 개념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에코의 연구는 이 일반 기호학의 특성들을 찾으려는 긴 과정이었다. 에코는 퍼스의 기호 구성 모델의 해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기호학에서 내세울 세미오시스의 전형으로 삼는다. 에코는 이 세미오시스의 기제로 자의성을, 완전한 무연성(無緣性)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 기호의 개별적 특성 넘어, 일반 기호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목한다. 에코는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의 생성 과정과 존재 양상을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런 에코의 노력은 자신의 ‘해석’ 개념의 유동성과 ‘의미’ 개념의 불확정성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종합적인 자세로 드러난다. 완

* 중앙대학교, 조교수, naussel100@gmail.com

전히 무한한 의미의 발생으로 인한 확정된 진리의 부재를 주창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에코가 ‘과해석’을 경계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을 제공했다는 것도, 그가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에코가 구조의 개념과 완전히 결별했다거나 활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모호한 관계 설정이 구조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주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더 심화하여 연구할 것을 남겨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열쇠어 : 움베르토 에코, 구조, 일반 기호학, 세미오시스, 의미작용

I. 서론

에코Umberto Eco는 『기호학 이론A theory of semiotics』에서 서론의 제목을 ‘문화의 논리를 향하여Toward A Logic of Culture’로 정했다. 여기서 ‘문화의 논리’는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혹은 문화가 가진 논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저서의 목적은 일반 기호학general semiotics을 통해 “의미작용과 (혹은) 의사소통의 개별현상에 관한 통일된 연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있다”.¹⁾ 그런데, ‘문화’는 분명 실재하지만, 그 외연은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문화가 가진 모든 실질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일도 난제이다. 따라서 문화를 연구하는 특정한 관점이 필요하다. 송효섭은 ‘문화’의 개념 안에 ‘메타언어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문화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파악할 때, “의미를 파악하는 나와 그 대상이 갖는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는 그 안에 나의 시각과 나와 그 대상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²⁾

설명하는 관점까지도 포함하는 문화는 그 자신이 메타언어이며, 다시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동원된다. 문화의 정의는 다양한 메타언어들, 즉 관점들이 투영된 결과이다. 각 관점을 통해서만 문화는 동질

1) U.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3. 이하 TS로 칭하며, 간략히 인용 페이지와 함께 표기함.

2)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5쪽.

적인 대상으로 상정될 수 있다.³⁾ 이렇게 관점이 정하는 문화의 외연은 에코가 말하는 ‘자연의 경계(natural boundaries)’(TS, p.5) 안에서 정해진다. 기호학은 문화라는 대상을 동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기호학으로 설명하면서, 이 자연의 경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호학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사회현상도 분절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에코는 대부분의 사회현상에 기호학적인 기제가 있다고 말한다. “기호-기능으로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서 비기호적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기호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너무 미리 추정된 폭넓은 현상들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자 한다. 이 현상들은 문화적 영역 속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역의 기저에 코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코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 코드들의 기호학적 성격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코드들이 계속해서 기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TS, p.6) 즉, 기호학의 임무는 문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기저에 있는 코드들을 발견하는 일이며, 이 코드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기호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다. 기호학의 최종 목표는 ‘기호학적 접근이 더 나아갈 수 없는 경계선’(TS, p.6), 즉 자연의 경계선과 기호학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일이다.⁴⁾

3) 송효섭의 언급을 보자. “우리가 문화를 전체로 본다는 것은 문화를 객관적인 전체가 아닌, 우리의 주관에 의해 인식된 전체로서 본다는 뜻이다. 객관적으로 문화의 전체를 인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떤 한정된 시각에서 우리는 문화 전체를 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한정된 시각 역시 문화와 관련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책, 22쪽.

4) 그렇지만, 문화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문화를 예술적이고 지적인 의미로 보면 당연히 혁신이 포함되지만,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는 일반적으로 습관의 문제다. 문화가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하거나 새로운 저널을 출판하는 일을 가리킬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적 사건이라는 발상은 약간 자기 모순적인 느낌을 풍긴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은 실제로 당연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당신이 전에 했던 일, 당신의 조상들이 수백만 번도 넘게 해왔던 일을 가리킨다.” 테리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21, 14쪽. 이글턴 Terry Eagleton의 위 언급에서 문화를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는 너무 익숙한 일상과 구분되기 힘들며, 문화라

기호학의 도전은 인간이 경험하는 실재 전체를 코드와 코드화로 설명할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언어 기호를 개별 기호학으로 두는 일반 기호학의 구상은 이런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는 랑그의 기호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 영역으로 분류된다. “채트먼은 언어 매체에 대한 배타적 편향을 거부하면서 문학 텍스트의 구조가 영화 등과 같은 다른 기호 체계로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같은 인식은 기호학의 영향으로 촉발된 것이다. 초기 구조주의 학파인 프라하 언어학자들은 러시아 형식주의 시대 이후에 발전한 기호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문학을 언어의 층위로 환원되지 않는 초언어적 체계로 이해했다.”⁵⁾

이 언급에서, 랑그의 기표와 기의 결합 기제를 뛰어넘는 일이 기호학에 큰 문턱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주의는 실체적 구조 개념이 모든 사회현상에 내재한다는 시각으로, 이 체계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언어학 모델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틀이었고, 현상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언어적 체계에 대한 구상은 일반 기호학을 지향하는 에코와 같은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였다.

본 논문의 목표는 에코 이론이 일반 기호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다. 에코의 기호학은 이론적 범위, 다루는 대상, 실천의 방식이 폭넓은 만큼, 소쉬르적 전통의 이론들과도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에코는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구조’는 인문학이 과학으로서 자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개념 중 하나였다. 에코도 역시 구조 개념을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우선 일반 기호학과 개별 기호학이 논의되는 방식에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구조의 개념이 기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

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상은 일종의 관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토도로프에서 데리다까지』, 소명출판, 2014, 16쪽.

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구조 개념에 대한 ‘메타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 개념이 대상을 실제로 다루는 데 활용된다기보다, 대상에 대한 주체의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한 방법임을 에코의 논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Ⅱ. 일반 기호학과 개별 기호학

에코는 학문적으로 일반 기호학을 지향한다. 그는 이 논의의 시작을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학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일반 기호학은 여기서 개별 기호학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쉬르와 에코의 논의를 통해 보편 학문으로서의 기호학을 살펴보면서 구조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해보자.

소쉬르는 언어 기호들로 구성된 체계인 랑그와 함께 이와 비교할만한 다른 체계들이 있다고 말한다. 문자 체계나 수화법, 상징적 의식, 예법, 군용신호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랑그와 비교해서 중요성이 낮을 뿐이다.⁶⁾ 그리고 알려진 대로, 기호학을 ‘사회생활 속에 있는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호’가 언어 기호를 특정하는 것이 아닐 때, 일반 기호학과 개별 기호학은 소쉬르의 다음 언급대로 구분된다.

기호학은 우리에게 기호가 무엇이며 어떤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가르쳐줄 것이다. 기호학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될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할 권리가 있고 그 위치는 미리 정해져 있다 언어학은 이러한 일반 과학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기호학이 발견하게 될 법칙들은 언어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은 인간적 현상의 전체 속에서 분명히 정의된 한 영역에 속할 것이다.⁷⁾

6)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6, p.33.

7) *Ibid.*, p.33.

윗글에서, 기호학은 기호들이 따르는 법칙에 대한 ‘일반 과학’이다. 여기서 기호학은 윤곽이 분명하지 않고, 언어학은 이 기호학의 하위 분야로 규정되어 있다. 유추해 보면, 소쉬르에게 기호학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는 일반 기호학의 원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리들, 즉, 자의성, 가치, 선적 성질 등을 소개한다. 이 원리들은 일반 기호학의 일면을 엿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언어 기호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연역적인 것이어서 일반 기호학에 전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일반 기호학은 소쉬르의 기호학적 성과를 ‘인간적인 현상’을 다루는 학문 분야들 전체에 경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으로 그 구체적 윤곽을 설정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언어 기호의 특성들을 확인하고, 이 특성들이 다른 실질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이 특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코는 동물학부터, 미학과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지적(TS, pp.9~14)하면서 기호학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다.

만약 기호학의 영역이 위와 같다면, 기호학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 학문처럼 보일 것이며, 다른 시대에는 자연 과학이나 소위 인문과학이 다른 방법으로 점유하던 모든 것에 대해 다루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호학의 관심이나 주의를 끄는 주제들의 영역을 추적하는 것은 단지 기호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총괄적인 목록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관심 영역(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학문들과 공통적인 영역) 안에서 어떻게 기호학적 관점이 고유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문제이다.⁸⁾

8) 움베르토 에코,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 책들, 2009, 31~32쪽. 이 부분은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윗글은 기호학이 나름의 방식으로 일반 과학을 지향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⁹⁾ 기호학은 자연 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영역을 대치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호학적 관점과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학문들의 대상을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윗글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이 그렇듯이 ‘기호학이 대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이며, ‘자기 나름의 적용 방식’ 혹은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도 본 논의에 많은 영감을 준다.

에코는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소쉬르의 랑그의 기호학을 넘어서는 것은 기호학의 고유한 방식을 제시하는 일과 직결된다. 에코는 소쉬르의 기호에 대한 정의에서 의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소쉬르가 기의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았다”¹⁰⁾는 점을 지적한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한다고는 했지만, 기의를 ‘심적 이미지’로 규정하는 데서 그친다. 에코는 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일종의 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코에게 소쉬르의 기호는 의사소통을 위한 정형화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쉬르가 제안한 기표와 기

9)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에코가 지향하는 것이 일반 기호학이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해두자. 디터 메어쉬Dieter Mersch은 이에 따라 에코의 기호학을 ‘기호학적 철학’으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코의 기호학적 철학은 기호의 기초이론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기호의 개념 아래에 두는 한은 기초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퍼스에 의하면-인식이론적 기초분과라고 할 수 있거나-모리스에 의하면- “모든 미래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학문영역이 기호의 특징을 가지고 기호를 사용하는 한은 이 기호이론은 모든 학문영역을 다 포함하는 “보편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디터 메어쉬, 『에코』, 인간사랑, 2006, 104쪽.

10) 에코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약속된 관계를 벗어나 이들 사이에 자유로운 인간의 사고작용, 즉 해석 활동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반 기호학을 위한 기표의 운곽을 잡기 위해서는, 소쉬르가 했던 것처럼, 언어는 문자, 상징적 의식, 수화 알파벳, 군사적 신호 등과 버금가는 시스템이라고 단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울러 사회 심리학과 일반 심리학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U.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p.6. (이하 SPL) 해석체를 하나의 기호로 보면,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결합 역시 고정된 관계에서만 벗어난다면, 인간의 사고작용으로서 기호학의 이론적 일반 원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의 결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제안이 기호학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석자의 마음 안에 심리적 사건”(TS, pp.9~14)으로 해석체interpretant 개념을 제안한 퍼스의 기호학을 도입한다. 여기서 ‘사건’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의미가 지시물, 기호와 맺는 삼원적 관계가 고정된 약속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이론의 추론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추론의 대상으로서 기호는 여러 개별적 사실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소한 외연적으로는 언제든지 새로운 의미 특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¹¹⁾

에코에 따르면, 일반 기호학은 “인간의 의미작용 행위 전체를 연구한다”.(SPL, p.12) 이때 인간의 ‘의미작용 행위’가 ‘해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는 과정을 밝히는 일을 세미오시스sémiosis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학의 과제 중 하나는 이 세미오시스의 기제를 밝히는 일이다. 이 세미오시스는 기표와 기의의 지시적, 규약적 결합을 포함하여 기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미 부여를 모두 포함하는 ‘기제’로서 상정된다. 이 기제는 소쉬르의 기호학에 기반을 둔 바르트 이론의 ‘의미작용signification’¹²⁾으로도 볼 수 있다.

에코의 기호학을 의사소통의 기호학으로 규정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수용하는 모델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이 의사소통 모델은 퍼스의 삼자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발신자의 실재는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수신자의 의미작용에 중심을 둔다. 수신자가 있다는 조건에서, 날씨의 징후와 같은 지표의 경우처럼

11) 김운찬, 『움베르토 에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54쪽.

12) 김경용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호가 인간의 마음에 격발시키는 사고작용은, 기표가 계기가 되어 기의들을 찾는 과정이다. 하나의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기호작용은 간단없이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 퍼스에 의하면 사고 하나하나가 기호이다. 퍼스는 이 무한정한 기호작용을 자아의 다른 위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적인 것으로 본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125쪽.

인간 발신자가 없는 현상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에코가 지향하는 일반 기호학은 주체에게서 일어나는 의미작용이 중심이 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의미작용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한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배제한 ‘의미작용’이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¹³⁾ 에코는 기호학의 중심이 수신자의 의미작용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호학을 의사소통 활동 이론으로 환원하려는 사람들은 징후를 기호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다른 행동 특징을 기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행동 특성으로부터 수신자는 그 발신자가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발신했는가를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발신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낸다(예로서 뷔상스Buyssens 1943; 세그레Segre 1969 등을 보라). 이 저자들은 그것들이 의미 소통에만 한정되어 논의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호 집합으로부터 많은 현상을 제외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한을 부인하기보다는 더 넓은 기호 현상의 영역을 고려할 수 있는 기호학 이론을 정립할 권리를 옹호하고 싶다.(TS, p.16)

에코의 기호학이 세미오시스 혹은 추론이라는 의미작용의 기제를 중심으로 할 때, 구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아래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다. 에코의 기호학과 구조와의 관계를 통해, 기호학이 다른 학문들과 맺는 연속성과 차별성도 살펴보겠다.

Ⅲ. 에코 기호학의 시작과 전체

에코의 『열린 예술작품*Opera aperta*』은 1962년, 1967년, 1972년 세 번에 걸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3판의 영문판 역자 서문에서 데이빗 로

13)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9쪽.

비David Robey는 이 저서가 “기호학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이전”에 현대 문학과 예술에 관해 쓴 주요한 글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에코가 기호학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부재하는 구조*La struttura assente*』(1968, 1972(프랑스어판)), 『기호*Il segno*』(1971) 등과 같은 저서들이 이 기간에 출간되고 있었다. 특히, 1976년 영어판으로 출간된 『일반 기호학 이론*A theory of semiotics*』은 에코의 기호학을 종합하고 있다. 『열린 예술작품』의 개정 이력을 통해, 이 저서가 에코 기호학의 밑그림이었고, 위 기호학 연구서들 사과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 예술작품』이 개정된 10년의 기간을 ‘기호학 이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이 저서가 에코의 기호학과 가지는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연구의 전개에 도움이 될 듯하다.

소쉬르의 진정하고 유일한 연구 대상은 기호들의 체계인 랑그였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이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기호학은 일련의 학자들이 언어 기호의 성질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면서 그 윤곽을 구체화해갔다.¹⁴⁾ 언어학에 바탕을 둔 이 기호학은 기호들이 이루는 ‘체계’ 개념이 핵심이었다. 이 체계 개념은 ‘구조’와 동일시되어 사용되었고, 이는 ‘전체’의 개념에도 직결된다. 기호는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에

14)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기호학의 원리들을 인문학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학자이다. 다음 도스의 언급을 통해 기호학의 역할과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구조주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레비스트로스가 일종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마르셀모스의 저서에 대한 서론>에서부터 표명해 온 바로서, 소쉬르적 기호 개념에서 기의가 배제되는, 다시 말해서 기표는 강화되고 기의는 약화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특히 라캉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회적인 것은 언어처럼 자율적인 (게다가 동일한) 현실이다. 상징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들보다 상징 그 자체가 더 실재적이며, 기표는 기의에 선행하고 기의를 결정한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인문사회과학 전체를 위한 총괄적인 기획이 여물어 갔다. 이를테면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어떤 광범위한 기호학 프로그램이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류학에 힘입어 활기를 띠었다. 왜냐하면 인류학만이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의 연구 활동을 종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F. Dosse, *Histoire du Structuralisme* Tome I, Paris, La Découverte, 1991, p.46.

의해서만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체계는 기호들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반면, 로비의 생각대로 『열린 예술작품』은 기호학 이전의 저서이다. 정확히는 이 저서는 예술이나 미학에 관련된 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에코의 기호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가정이 확실하다면, 그의 기호학의 시작점은 책 제목 그대로 ‘작품’이다. 작품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로부터, 랑그와 작품의 동형성을 상정할 필요는 없게 된다.¹⁶⁾

랑그의 기호학의 위상 개별 기호학으로 규정되면서, 전체와 부분을 상정하고, 부분들 간의 결합 관계를 공식화하는 방식은 여러 분석 방식 중 하나가 된다. 이 지점에서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는 랑그의 기호학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언어 기호학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창출해 낸 도구 자체에 의해, 즉 기호에 의해 봉쇄되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언어 기호의 개념을 제쳐놓을 수 없었다. 또한 최소 단위로서 기호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담화 전체에까지 언어 기호의 개념을 확대할 수 없었다.”¹⁷⁾

15) 박상진의 평가를 보자. “60년대 초반은 전반적으로 이론과 사상의 춘추전국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작품>의 출판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론적 선언서”로서 당시에 격렬한 논쟁을 도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착오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60년대를 관통하는 문제들의 해법 중 중심에 놓여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참여적 자세와 또 50년대에 수행했던 미학 이론 연구의 성과의 토대 위에서, 현대 과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차용하여 이른바 현실 세계와 그 인식의 비결정론을 받아들이면서 쓰인 <열린 작품>은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과의 긴밀한 접촉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박상진, 「기호학적 해석과 문화 분석: 움베르토 에코의 ‘열린 작품’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2권, 1995, 196쪽.

16) 다음 에코의 언급은 그런 차원에서 주목해야 한다. “예술과 언어를 동일시한 다음, 예술에 관한 내용을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양자 간의 유사성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즉 언어학자들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언어는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모든 의사소통의 토대”이다 또는 “언어는 실로 문화의 토대이다. 언어와 관련해 보면 다른 상징체계들은 부수적이고 파생적일 뿐이다.”” U. Eco, *L'oeuvre ouverte*, Paris, Editions du Seuil, 1965, p.48. 이하 책 이름은 ‘CEO’로 간략히 표기하고 인용 페이지만 내주로 밝힘.

17)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II, Paris, Gallimard, 1974,

에코가 대상을 단위로 분절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그의 기호학이 랑그의 기호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코는 “독자가 일반적인 언어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미학적 자극이라고 알려진 특수한 자극에 반응하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다른지”(CEO, p.48)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예술작품의 개방성을 규정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론을 찾는 것도 다른 하나의 목표였다. 이에 따라, 작품과 주체와의 관계가 기호학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이제 작품 혹은 텍스트는 그 자체로 주체가 수행하는 의미작용의 대상이 된다. 소쉬르의 기호학에 관한 정의는 ‘사회 속에서의 기호의 삶’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주체(들)와의 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방브니스트는 랑그의 구성단위로서 기호들과 담화의 의미작용 차원을 각각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에코의 ‘전체’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론적인 방식 le semantique과 함께 우리는 **담화 discours**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작용의 특수한 방식으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메시지의 생산자로서의 랑그의 기능이다. 그런데 메시지는 각각 식별해야 할 단위들의 연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반대로 전체적으로 구상된 의미(즉 <의도를 담고 있는 것 intenté>)로서, 이것은 개별적인 **기호들** 즉 **단어들**로 실현되고 나뉜다. 둘째로 의미론적 방식은 필수적으로 지시대상들의 총체를 책임지지만, 기호론적 의미작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시 관계 référence와 분리되어 있고 그것과 무관하다. 의미론적 질서는 발화행위의 세계 그리고 담화의 세계와 동일시된다.¹⁸⁾

이 논의는 랑그가 고유한 의미작용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pp.65~66.

18) E. Benveniste, *op.cit.*, 1974, p.64. 강조는 책의 저자.

다. 따라서 다른 분야들은 랑그의 의미작용 방식을 중요한 사고의 틀로서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철저성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윗글에서 보듯이, 담화는 예코에게 작품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담화는 전체로서, 그 자체로 의미작용의 대상이 된다. 다음 예코의 언급은 작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기호가 된다는 것, 즉 의미론적 방식으로 의미작용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학적 자극의 구조는 수신자가 순전히 지시적 명제의 의사소통과 똑같은 방식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즉 각각의 지시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명제의 모든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메시지를 해독할 수는 없다. 미학적 자극에서는 특정 기호를 분리한 다음 그것을 단선적으로 외시적 의미와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데노타툼이다. 각각의 데노타툼은 다른 데노타툼들과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하나만 보면 의미가 모호할 수밖에 없듯이, 각 기호 또한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다른 모든 기호가 있어야 해서 하나만으로는 애매모호 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CEO, pp.55~56)

기호는 계속해서 기표로서 떠오른다. 기표는 해석이라는 의미 부여를 기다린다. ‘열려 있다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더불어 더 폭넓은 의미 부여의 기제를 제시한다. 수신자는 장르나 시대 구분을 초월하여 작품을 마주한다. “초기 단계에서 예코는 열림이 현대 예술 고유의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고전 시대나 중세의 예술은 그렇게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확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그와는 달리 현대 예술은 불확정성과 모호함을 토대로 열림을 고유의 본질적 구조로 제시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시대 구분은 작품 앞에선 해석 주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전체와 확정된 단위는 당연한 것으로 해석 주체에게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열림은 작품의 보편적인 성

19) 김운찬, 위의 책, 2016, 54쪽.

격이 되며 주체들은 작품의 어느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V. 방법으로서의 기호학과 구조의 실재

1. 방법으로서의 기호학

위 논의를 종합하면 의미론적 방식은 담화를 포함하여 모든 작품과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적용될 수 있다. 언어적 특성이 있지 않은 다른 감각적 작품들의 의미는 수용자의 세미오시스에 의존하게 된다. 독자가 작품을 완성한다는 말도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랑그의 기호학은 언어 기호가 가진 특성을 설명하면서 기호학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보편적으로 이 특성들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 언어 기호의 자의성은 일반 기호학의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방브니스트가 인용한 소쉬르의 언급은 주목할만하다. “언어학을 기호학에 결부하는 것은 언어학의 중심에 상정된, 언어 기호는 ‘자의적’이라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기호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 “기호의 자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들의 총체”²⁰⁾일 것이다.

기표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일종의 은유로 규정된다.²¹⁾ 에코는 순수한

20) E. Benveniste, *op.cit.*, 1974, p.49.

21) 에코에게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는 ‘은유’는 독자의 선택 문제와 관련된다. 텍스트를 읽는 주체가 아닌 타자들(저자, 이론, 체계 등)의 은유는 배제된다. 텍스트의 의미는 오로지 독자로서의 주체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은유를 이해하는 것은 귀납적으로는 작가가 은유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석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와 관련된다. (모범적인 작가와 같은) 작가의 내적 세계는 해석 자체의 동기가 되는(즉, 텍스트 밖에서는 추출할 수 없는) 심리적 실체가 아니라 은유적 해석 행위의 구성체이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발신자의 의도 문제를 고려하게 한다. 씨얼 John Searle(1980)에 따르면 은유는 문장의 의미 *sentence meaning* 가 아니라 화자의 의미 *speaker's meaning*에 의거한다. 즉 발화체는 백과사전 구조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가가 그것을 은유로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유가 된다는 말이다.” U. Eco, *Les limites de l'interprétation*, Paris, Editions Grasset &

기표로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의미작용을 모두 세미오시스로 보고자 한다. 에코의 ‘인식론적 은유’에 관한 언급을 보자.

첫 번째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구상 예술은 분명히 열린 작품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예술의 구조와 형태는 특정 이론보다는 이미 널리 퍼진 문화적 관점, 따라서 널리 유포된 이론적 의식에 대한 인식론적 은유처럼 보인다. 그것은 형식형성 활동을 통해 현대의 과학적 방법론의 몇 가지 성과를 반영한다. 즉 자연적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확정성과 통계적 분포라는 범주를 예술 속에서도 그대로 확인해 준다. 비구상 예술은 자체에 고유한 예술적 수단을 통해 인과관계, 이원론에 기초한 논리학, 명료한 관계, 그리고 배증률의 원리를 의문시한다.(CEO, pp.120~121)

에코는 예를 들어 텍스트 화용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는 독자로서의 주체가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채우며, 다른 텍스트들과 연결하는 작업, 즉 바르트가 말하는 텍스트의 즐거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²²⁾ 에코의 관심사는 “모든 연구가, 비록 미학적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만, “열림”의 경험에 이론적인 기반을 규정하는 데 있다.”²³⁾ 이 이론적 기반의 규정은 아래에서 보겠지만, 해석의 이론이 아니라, 기호학적 방법을 마련하는 일과 일치한다. 텍스트의 즐거움에 대한 바르트의 논의에서도, 에코는 텍스트가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과 텍스트가 그 사용을 자극하는 전략을 자신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는지 구분하고자 했다. 윗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코에게서 텍스트를 규정하려는 모든 이론들은 은유로

Fasquelle, 1992, pp.162~163. 이하 책 이름은 ‘LI’로 간략히 표기하고 인용 페이지만 내주로 밝힘.

22) 움베르토 에코,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역, 열린 책들, 1996, 6쪽. 이 부분은 프랑스어 판본과 번역본의 원전이 달라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23) U. Eco, *Lector in fabula*, Paris, Editions Grasset & Fasquelle, 1985, p.7. 이하 책 이름은 ‘LF’로 간략히 표기하고 인용 페이지만 내주로 밝힘.

여겨진다. 이 은유는 일시적이며, 기표, 즉 텍스트에 대해 어떤 은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박상진은 에코의 기호학이 체계나 이론이 아니라 ‘방법’으로 자리 잡음으로서 텍스트의 해석을 방식을 고정해 놓으려는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에코의 기호학을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정치적인 변혁을 위한 강력한 실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에코의 기호학은 구조나 체계에 관한 이론에서는 멀어졌다. 에코가 멀리했던 기호학은 “궁극적으로 기호들간의 되풀이되는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인 한, 하나의 자족적인 체계이고, 따라서 사회역사성과의 긴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열린 텍스트”의 배반의 결과물이며, 더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주의와 협력하기 힘든, 자기 폐쇄적인 체계”일 뿐이다.²⁴⁾ 에코에게 기호학은 영속적인 모델로서의 구조 체계도 아니고, 한 순간의 은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에코는 기호학이 의미작용을 통해 텍스트가 주체와 맺는 관계의 보편적인 기제를 발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2. 구조의 실재

에코가 생각한 바르트의 ‘텍스트의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즐거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닫힌 텍스트로도 가능하다. 계속 답습되는 독해는 새로운 해석 없이도 독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다. 의미의 다양성은 텍스트가 ‘사용’되는 것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에코는 중세의 알레고리 이론은 성서를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성령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문제는 독자가 일정한 해석 방식만 따른다면,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기호학적 관계인 열림은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다는 데 있다. 다음 에코의 언급을 보자.

24) 박상진, 「“열림”에서 기호학으로 그 과정의 비판적 개관: 움베르토 에코의 “전기호학적” 글을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5권, 1999, 73~99 p.84.

이러한 의미[중세 알레고리 이론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작품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일정하게 “열린” 속성을 갖게 된다. [...] 실제로 그는 특정한 순간의 느낌에 따라 그 순간의 정신 상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해석의 열쇠를 고르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이 바라는 의미대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열림”은 의사소통의 무한성 또는 “불확정성”, 형식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완벽하게 자유로운 수용이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중세의 독자들은 사전에 이미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까지 정해져 있는 해석 방식을 따라야 했다.(CEO, p.19)

기호학으로 인해, 텍스트는 이론이나 그간 텍스트를 구성요소로 분할하고 다시 결합했던 사고들, 즉 실재하는 구조 개념과 결별한다. 기호학은 위에서 보았듯이 체계나 이론이 아닌 하나의 방법이다. 기호학이 대상의 형태, 그 형태를 결정하는 장르에도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일종의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에코는 기호학을 철학과 비교하는데, 기호학이 철학으로부터 ‘구성적 유아독존론(a constitutive solipsism)’(SPL, p.12)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철학이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관점으로 세계를 재편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풀어 말하면, 철학은 자신의 관점대로 재편된 세계에 대해서는 모두 말할 수 있지만, 그 관점의 대상이 되는 세계의 실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기호학도 마찬가지이다. 기호학은 “인간의 의미작용 행위, 즉 언어 행위들 전체를 연구한다. 언어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기호학적 동물이 된다”. 일반 기호학도 “그 이론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을 변형시킨다.”(SPL, p.12) 일반 기호학은 세계의 실질을 완전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작용 행위’를 연구한다. 어떤 실질적 대상이 아니라 행위를 자체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에코가 의미 부여와 해석의 기제 자체를 연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코가 퍼스의 무한 세미오시스 *Sémiosis illimitée*에 주목한 것도 그 기제로 인한 것이다. 무한 세미오시스에서 해석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호

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에 의해 설명되는 기제를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해석체의 개념을 통해 보면, 한 기호는 다른 기호의 해석에 열려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 즉 기호를 다른 기호로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은유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의 발생 가능성은 바로 기표가 기의와 결합하여 기호가 되고, 기호가 다시 다른 기호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기호가 되는 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다시 위 인용문을 참조해보면, 의미의 ‘열림’이 중요한 것은 의미 자체가 무한하게 발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는 다음과 같이 퍼스의 연구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라 방법, 즉 의미작용의 기제에 주목하고 있다.

퍼스는 속성들의 총체로서의 대상들에는 관심이 없고, 능동적 경험의 기회와 결과로서의 대상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 이 한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또는 그것의 실용적 용법을 생산하는) 작업 방식 *modus operandi*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F, p.52)

에코는 이 ‘작업 방식’이 이론적 필요 때문에 연역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경험 속에서 다져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상과 의미를 잇는 해석체는 기호학을 구성하기 위해 고안해낸 연역적 이론의 산물이 아니다. 에코는 음악이라는 대상과 의미 사이를 잇는 해석체를 통해 기호학이 경험을 종합해낸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한 소절의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 해석체는 음악의 매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지만 이 반응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력도 생산하며, 이런 종류의 반응들이 활력적 해석체이다. 활력적 반응은 해석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이어지는 반복을 통해) 하나의 습관을 생산한다. 연속적인 기호들을 받고 나면, 세상 속에서의 우리 행동 방식은 영원히 또는 잠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새로운 습관이 최종 해석체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무한

한 기호 작용은 멈추고, 기호들의 교환은 경험의 수정을 창출하였으며, 세미오시스와 물리적 현실 사이에 결핍되었던 고리가 마침내 발견된다. 해석체들에 대한 이론la théorie des interprétants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다.(LF, p.52)

음악에 대해 만들어지는 반응은 해석체이며, 음악에 대한 이 해석체들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수많은 해석체들 전체는 음악에 대한 인간의 행동양식이 된다.²⁵⁾ 이 해석체들에 대한 이론이 바로 기호학이다. 물리적 현실과 이 세미오시스의 연결 기제를 밝히는 것이 바로 기호학의 임무 중 하나이다. 언어 기호의 기표와 기의가 맺는 완벽한 자의성이라는 관계는 세미오시스의 한 경우일 뿐이며, 랑그의 기호학을 개별 기호학이 되게 한다. 반면, 해석체들의 이론은 기표와 기의 간 관계를 규정한 것이며, 이때 자의성은 절대적 무연성(無緣性)이 아니라 대상과 의미 사이의 유연성(有緣性)의 정도 차이로 다양한 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자의성은 기표와 기의라는 인식적 산물들의 관계라는 점에서 관념적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해석체들의 이론, 즉 세미오시스는 물리적인 대상들에 대한 의미작용의 기제이기 때문에 기호학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경험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된다. 이를 통해 예술작품, 문학작품이 구성소로 분석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작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기호학의 학문적 외연이 분명히 정해진다.

25) 방브니스트는 기호 체계들을 각각 해석체계와 피해석 체계로 볼 때, 이들 간의 관계를 해석 관계relation d'interprétation로 명명한다. 이에 가장 대표적이며, 특이한 성격의 해석체는 바로 랑그이다. “어떤 다른 체계도 자신의 기호론적 구별에 따라 범주화되고 해석될 수 있을 그런 ‘랑그’를 지니고 있지 않는 반면, ‘랑그’는 원칙적으로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범주화하고 해석할 수 있다.” E. Benveniste, *op.cit.*, 1974, pp.61~62.

V. 구조의 부재와 실재

1. 구조의 위상

에코는 예술작품을 하나의 전체totalité로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에 중심을 둔다. 전체는 여기서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한다.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그 경계 외부에서 작품이 파악될 수 있고,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조직을 통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주체의 경험, 특히 미학적 체험은 하나의 관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는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이 가지는 특성이기도 하다. 다음을 보자.

현대시학은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에서부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매번 전망을 바꿔야 하고 가능한 한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심지어 거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외부 장식조차도 무한한 독해를 내포하고 있어서 예술작품은 결코 닫혀있지 않다.(CEO, p.43, 강조는 책의 저자)

윗글에서 우선 구조의 개념은 단일한 것이 아니고, 인식론적인 고안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는 대상을 보는 한 방식일 뿐이다. 에코는 “왜 예술작품이 열려 있다고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열림이 그 구조에서 드러나는지, 그리고 구조의 차이에 따라 열림의 차이도 달라지는지 이해하고자 했다”(CEO, pp.43~44). 그런데, 관점으로서 구조와 열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순간, 만약 한 구조에 천착하여 작품을 파악하게 된다면, 많은 작품을 그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작품은 순수한 의미에서 열려 있지 않은 것이 되고 만다.

에코에게 있어 작품은 “그 자체로en elle-même 다양한 관점에서 매번 새로운 측면이 나타나게 하는 무한한 경험의 원천으로 정의된다”. ‘그

자체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작품이 전체로 고려되며, 주체는 그 전체에서 시작하여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얻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보편성 혹은 하나의 원리로는 대상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²⁶⁾ 의미와 관련된 주체의 경험을 대상의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조직, 즉 구조로 환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시구나 시 한 편 전체를 낭송할 때, 내가 읽는 낱말들은, 그 의미작용의 가능성들을 없애버리는 데노타툼(dénotatum: 지시대상) 속에서는 즉시 번역되지는 않는다. [그 전체 속에서] 그 낱말들은 끊임없이 심오해지는 일련의 기의들을 불러낸다. 그 낱말들이 우주 전체를 압축된 이미지로 제공한다고 할 만큼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는 크로체가 제안한, **전체**로서의 예술적 표명에 대한 이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EO, p.44)

이 전체는 한편으로, 보편적인 원리universalité, 다른 한 편으로는 특수한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체는 인식론적이다. 전체는 시각, 청각 등, 지각으로 파악될 수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상을 전체로 본다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이다. 보통 후자는 전자를 포함한다.

에코는 예술적 경험 자체가 매번 새로운 것이 되지 않고, 형식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구조’ 혹은 ‘구조주의’가 ‘방법’이나 ‘관점’에서 벗어나 인식론적 체계와 철학적 위상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미 형식화되어 철학의 한 부류가 된 구조주의와 이 사상이 활용하는 구조의 개념은 에코의 말대로 ‘인식론적인 토대의 검토’²⁷⁾를 요구받았다.

26) 에코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학적 체험은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 설명되지만 원래는 이처럼 다양한 독해방식을 열어주는 특수한 경험에서 시작된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의 합과 같다”라는 발언 또한 지구의 모든 장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특수한 한 속성만을 가리킬 뿐이다.”(EO, p.44)

27) U. Eco, *La structure absente: introduction à la recherche sémiotique*, Paris, Editions Mercure de France, 1972, p.311. 이하 책 이름은 ‘SA’로 간략히 표기하고 인용 페이지

구조라는 개념은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다. 이 개념의 활용 여부는 인식론적인 선택에 따른다. 따라서 이 선택은 학문적 맥락과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그 토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구조나 구조주의가 기호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기호학에서도 분명히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구조주의 자체와 기호학의 학문적 외연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조라는 개념의 인식론적인 토대를 밝히는 것은 기호학과 구조주의 나아가 언어학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코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런 [인식론적] 선택은 무의식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올바른” 철학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그릇된” 철학을 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철학은 그 자체를 인식하는 철학이고, 그릇된 철학은 과학적 객관성을 앞세우거나 과학적 담화의 함축적인 전제임을 자처하는 철학이다.(SA, p.322)

예코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호학이 방법으로 정립되기를 원하며, 그럴 때만, 보편 대상에 대한 세미오시스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호학을 위한 방법론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예코는 구조주의와 구조 개념은 더는 방법이 아니라 한 줄기의 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호학적 논의에 있어, 구조라는 개념을 쉽고 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학문 간의 정합한 통섭을 고려해야 한다.

2. 구조의 보편성과 부재

구조는 사실 하나의 현상이나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주체의 개입

만 내주로 밝힘.

을 조작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국면에서 필요한 모델로 활용되기 적합하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의 과감한 구조주의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²⁸⁾과 관련된 논의들로 인해, 구조 개념의 유용성도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 에코의 이에 대한 결론은 단호하다.

이렇게 도구에 불과하면서도 “문화”의 뿌리에서 움직일 수 없이, 불멸의 상태로 발견되는 “구조”는 “실체의 원리”로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즉각 민족학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즉 새로운 현상이 기존의 구조적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현상이며 제거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리는 존재론적 구조주의가 현대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할 때도 모습을 드러낸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 구조의 교리적인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여겼던 구조를 계속 파괴하고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현대 문화의 현상들에 접근하는 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다.(SA, p.34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구조가 인식론에서 ‘도구’로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구조는 공시적인 것으로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구불변하는 구조는 없다. 구조라는 개념 자체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치가 있는 인식론적 유산이다. 이때, 구조 개념이 구조주의를 통해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관념론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구조는 모델로서 대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된다. 따라서 ‘메타 언어’의

28) 도스François Dosses는 레비스트로스가 『마르셀 모스의 저서에 대한 서론Introduction à l'œuvre de Marcel Mauss』를 구조주의 프로그램의 엄밀한 방법론을 개기로 삼는다. 도스에 따르면, “처음에는 의례적인 서문으로 보였던 글은 사실은 획기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 서문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된 프로그램이 최초로 규정되어야 있다.” 즉,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적용은 인문과학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어떤 분야든 근본적인 구조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F. Dosse, *Histoire du structuralisme*, Tome I: *Le champ du signe 1945-1966*, 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1991, p.43.

지위를 갖는다. 일단 랑그와 같이 인식적인 전체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위들을 상정하는데, 단위들을 분류할 충위를 우선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부정적인 *négatifs* 것이 되어야 한다. 구조를 통해 대상을 보는 이 관점에 어긋나는 모든 다른 시각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랑그를 규정하면서 파롤과 통시적 방법론이 배제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을 연구할 만한 것으로 만든다. ‘구조’는 원래 소쉬르에게서는 체계 *systeme*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대상이 관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대상에 선행한다”.²⁹⁾는 소쉬르의 말에서, 관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험론적 관찰과 무관하다. 하지만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경험적으로 랑그와의 상동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에 그 사고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친족의 체계가 그러하다.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대상이 구조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레비스트로스를 향한 질문은 분명한 것으로, ‘분석할 현상에 숨겨진 실체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대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구조들은 보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학의 임무가 정확히 동일한 모델들로 극히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예를 들어,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를 한 모델로 환원하기 위해) 항상 더 복잡한 변형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SA, pp.349~340)

레비스트로스의 이와 같은 대답은 구조주의가 모든 대상 안에 ‘숨어’ 있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에코는 이 전제와 관련하여 구조주의에 ‘사실의 진리’가 부재할지라도, 추구하는 ‘이성의 진리 *vérité de raison*’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의 진리는 연역적인 것이어서, 이것을 증명할 경험적인 예들을 찾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29) F. de Saussure, *op.cit.*, 1916. p.19

사조는 어떤 현상이 구조로 완벽히 환원되는 예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조작적 모델이 보편적인 사고, ‘인간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본 기제’로 규정되면서 방법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에코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다른 의미와 연관시키지 않고 형식 자체로 정의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하면서, “절대적 형식주의란 단지 가면을 쓴 ‘내용주의’에 불과할 뿐”이며, “형식적 구조를 고립시킨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구조가 ‘보편적’ 가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³⁰⁾라고 지적한다. 이 언급에서 보편적 가설이 뜻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성의 진리’와 유사하다. 에코가 말하는 ‘구조의 부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체제로서의 구조주의에서 모든 대상이 그렇게 환원되어야 할 구조 개념을 비판한 것이다.

에코는 배열적 사고*pensée sérielle*와 구조적 사고*pensée structurale*를 비교한다. 여기서 배열적 사고는 ‘구조에 관한*structurel*’ 사고이고, 구조주의는 구조적 사고와 관련된다. 에코는 자신의 열린 작품론을 ‘배열적 생산성의 시학*poétique de la productivité sérielle*’(SA, p.350)으로 규정한다. 특히 배열적 사고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에코의 열린 작품론의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며, 구조주의가 기호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방가르드 작품 분석의 태도를 예로 들면서, 에코는 이 분석 과정에서 구조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고려하는 것과 구조주의를 아방가르드를 연구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론 자체로 특징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관점을 에코는 ‘순진한 꾀변*sophisme ingénu*’으로 평가하였다. 구조적 사고는 모든 분석대상에서 원형 코드*Ur-code*를 찾는 데 주력한다. 다르게 말하면, 구조적 사고가 대상을 연구하는 목적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최초의 대문자 ‘코드*Code*’와 대문자의 ‘구조*Structure*’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다.

30) 움베르토 에코, 『대중의 영웅』,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114쪽.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조주의의 **존재론적 실수**는 (상수들을 다시 수정하게 만들 수 있는) 차후의 상황적 차이를 철저히 연구하기 위한 불변의 모델을 세우기보다는, 특정한 상수들을 분석의 유일한 대상이자 최종적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새로운 확인 작업의 출발점이 아닌 결승점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존재론적 실수는 **동일성identique**의 가설을 설정한 다음 **차이différent**에 관한 통일된 연구를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동일성Identité**을 즉각 발견할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차이**의 진열대를 약탈했다는 데 있다.(SA, p.400, 강조는 책의 저자)

배열적 사고는 대상에 대한 무한한 의미작용을 말한다. 이 사고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 이 중 무엇이 먼저 존재하든 최초의 코드를 찾을 수 있더라도, 지금 코드와의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구조주의자들의 사고는 구조적 실체에 관한 연구이다. 구조주의자들은 음운론에서 발견한 규칙이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모든 대상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에코가 “반대하는 것은 실체화된-모든 영원한 상수를 역사적 현실로 전환시키는 구조주의이다”.³¹⁾ 에코의 이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정확해서, 오히려 새로운 출구를 열어준다.

이것이야말로 조작 개념을 “실체론적” 개념으로 대치하는 행위이다. 즉, “마치”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만들어진 모델이 보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실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델들이 보편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방법론이 내세울 수 있는 최상의 “진리”이다.(SA, p.340)

윗글에 따르면, 구조주의가 내세우는 구조의 개념은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라, 추구해야 할 ‘진리’가 되었다. 이 구조주의의 구조

31) 연희원, 앞의 책, 67쪽.

개념은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활용의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실재하는 구조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경직성을 걷어내고, 구조를 도구로 활용한다면, 실체들이 맺는 일시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연희원은 에코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시적 설명과 기술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나면 지워 버리고(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 [...] 에코가 볼 때 우리가 사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구조는 일시적이고 가설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³²⁾ 그렇다면, 에코가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3. 구조의 역할과 실재

리코르Paul Ricoeur는 해석학의 문제와 구조적 사고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해석은 “텍스트의 의도를 지금 여기서 자기화하는 것이다”.³³⁾ 그런데 무한하게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하는 것은 에코의 방식대로라면, 일종의 과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데, 리코르는 이 지점에서 구조분석이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텍스트에 대한 구조분석은 그것에서 멈추는 “비생산적인 놀이”³⁴⁾에서 주체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텍스트의 열림에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텍스트의 의도라고 하는 의미는 저자의 경험이나 말하려는 바가 아니라, “텍스트의 명령에 응하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이다. [...] 설명하는 것은 구조를 밝히는 것, 즉 텍스트의 정태적 상태를 구성하는 내적 의존 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

32) 연희원, 『에코의 기호학: 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한국학술정보, 2011, 66~67쪽.

33) P. Ricoeur, *Du texte à l'action: Essais d'herméneutique* 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6, p.155.

34) *Ibid.*, p.155.

에 의해 열린 생각의 통로를 따라가는 것, 즉 텍스트의 방향 제시에 따라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리코르의 구조에 관한 생각은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주의 논쟁’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리코르는 “구조들을 이해하는 것은 상징으로부터 시작하는 ‘생각하기penser’가 임무인 이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즉, 오늘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사고와 해석학적 이해력 사이에서 꼭 필요한 매개자intermédiaire”³⁶⁾라고 강조한다. 다음 김한식의 언급은 이러한 리코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 텍스트라는 매개를 거쳐 이해하는 것이 된다. 리코르 해석학이 말하는 먼 길이란 바로 이처럼 언어 이해를 통한 존재 이해라는 방법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의 존재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의미론이라는 에움길을 거쳐 존재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³⁷⁾

텍스트가 ‘에움길’이 된다는 것은 텍스트를 실체가 아니라, 방법론으로서 주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길로 상정하는 일이다. 텍스트의 구조는 의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 단계일 뿐이다. 배열적 사고에는 주체가 개입한다. 주체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코드에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촉발한다. 배열적 사고는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고정된 횡단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사고는 글쓰기 이론théorie de l'écriture으로서 텍스트가 가진 생산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 사고는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주체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일이다.(SA, pp.352~353)

에코의 구조 개념은 코드의 구성 기제와 관련된다. 즉, 세미오시스, 대

35) *Ibid.*, p.156.

36) Ricoeur P., “Structure et herméneutique”, *Esprit*, 322(11), 1963. p.627.

37) 김한식, 『해석의 에움길: 폴 리코르의 해석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9, 72쪽.

상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의 기제이다. 이 구조를 통해, 주체는 일단 1차적이라고 부르는 랑그 차원의 기표와 기의 결합은 물론, 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화된 의미작용, 즉 신화를 통해서도 의사소통한다. 주체는 이런 교육되거나 강제된 세미오시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에코의 구조 개념이 생산적인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산물로서의 코드를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다루기 때문이다. 역사성은 주체와 함께한다. 에코의 세미오시스를 바탕으로 한 배열적 사고는 이렇게 역사성과 사회성 모두를 인정한다. 에코는 코드에 다양한 층위가 있다고 본다. 문화적 속성과 관계없는 자연적 표현, 문화적 코드이면서도 관습과 기억으로 인해 자의성을 잃어버린 유연적인 코드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코드들이 그것이다.(SA, p.392)

구조는 구성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방법론으로 실재한다. 대상과 의미의 관계는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이다. 이 세미오시스의 방식은 연역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기호학은 한편으로는 실재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순수한 연역적인 체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주체들의 수많은 언어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언어적 사실들을 표상하는 귀납적 체계일 수도 있다.(SA, p.395) 따라서, 자의성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연성에서 유연성에 이르는 정도의 문제이다. 바르트의 신화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랑그 차원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단단하더라도, 개인적, 사회적 의미작용이 이 관계에 중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미오시스의 구조는 모델로서, 여기서 구성된 코드는 임시적 provisoire이다. 이 코드는 공시적으로는 확고히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통시적으로는 주체의 의미작용을 통해서 그 관계는 새롭게 변화한다. 이러한 의미작용은 주체의 대상을 향한 의미와 관련한 인식 체계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사실주의 혹은 유명론(唯名論)의 관점에서 말해야 하는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대신에, 인식론자는 우리에게 구조화의 지속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그 활동 속에서 구조들은 끊임 없는 모험들을 통해 새롭게 제안되고, 다시 균형을 이루는 변증법 덕분

에 형태를 갖추게 된다.”(SA, p.398)

대상과 의미의 은유적 결합은 계속 새롭게 변모한다. 이때 텍스트 자체의 속성보다는 주체가 대상을 보는 방식이 세미오시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플로슈Jean-Marie Floch는 드가Edgar Degas의 말을 인용한다: “데생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보는 방식이다.” 이 ‘형태를 보는 방식’은 주체가 대상을 보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관점을 통해서 의미자질들이 대조되며, 이 대조는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³⁸⁾ 중요한 것은 의미자질이 기호학적으로 주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의미자질 결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랑그의 기호학은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라, 개별 기호학으로 지위가 축소된다. 플로슈의 조형 기호학*sémiotique plastique*은 예술작품, 광고와 같은 비선형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대상 일반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과 조작의 가능성을 여는 데 실천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형 기호학에 대한 논의는 의미 생성의 조건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의도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동시에 형태, 색채, 위상적 배치를 통해 나타난 의미 대상들 속에서 단지 이들의 구상적인 차원만을 곧바로 어휘로 환원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다. 명암과 질감의 대립, 적색이나 황색의 포화상태, 화면 내부의 위상적인 배치관계 등 이러한 시각적인 자질들이 의미생성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의미 탐구에 있어서, 그리고 기호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표를 투명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까?³⁹⁾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의도성을 이해하는 일은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주체의 기호학적 사고, 즉 세미오시스가

38) J.-M. Floch, *Petites mythologies de l'oeil et de l'esprit: pour une sémiotique plastique*, Paris, Editions Hadès, 1985, p.24.

39) *Ibid.*, p.13.

다. 이때의 이해는 작가의 의도를 향하지 않는다. 그 이해에 언어와 같은 사회규범, 사회적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든 간에 그것은 오롯이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이다. ‘기표를 투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은 윗글에서 보듯이 대상의 의미자질들을 ‘어휘로 환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말한다.

플로슈는 주체의 세미오시스를 기호의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대표적인 예가 소비의 가치체계 *axiologie de la consommation*이다. 상품이라는 대상에 주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기호의 사각형의 각 항은 주체의 호불호를 담은 기질 범주가 투영된 결과이다. 플로슈의 소비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기호의 사각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사각형의 각 항은 광고 분야에서는 방대한 시장조사⁴⁰⁾를 통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각형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 시대와 관련된 것이며,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상품의 발전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는 이 사각형의 각 항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광고 분야는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소비자의 가치추구 양상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작업을 집중한다.

이러한 플로슈의 기호 사각형 활용은 파리학파의 서사 기호학과 에코의 연구가 연속적인 관계, 나아가 상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기호의 사각형은 서사 기호학을 전개하는 한 단계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체의 기호학적 사고를 기술하는 데 유효한 도구이다. 이 기호의 사각형은 플로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의

40) 로라 오즈월드는 보험회사 블루 크로스의 예를 든다. 이 회사는 조기 은퇴자에 맞춰진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 언급을 보자. “경영진은 이 떠오르는 시장의 면모를 일신해서 재정적이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세대 소비자의 감성, 가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상 욕구까지도 해결해 주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조사부는 기획 과정의 초기 단계에 기호학적 조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고, 뒤이어 콘셉트 개발, 검사, 출시 그리고 초기 평가를 실시했다.” 로라 오즈월드, 『마케팅 기호학: 기호·전략·브랜드 가치』, 엄창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44쪽.

기호학적 사고를 독립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에코의 세미오시스는 기표로서 기호에 대한 주체의 의미부여와 해석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중요한 기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각적 형태를 드러내지 못한다. 에코는 구조의 개념이 대상에서 찾아야 할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기호학적 사고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역동적인 구조화를 표시할 수 있을 때, 그 실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의 사각형 역시 의미의 기본구조라는 대립 항이 발전하여 구성된 4개 항의 관계라고 했을 때 한 계는 분명히 존재한다.⁴¹⁾ 하지만 기호의 사각형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과 기호의 사각형을 현상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박은 구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도, 에코의 구조가 실재하는 것이라면, 주체의 사고를 통해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기호의 사각형과 같은 형태가 아닐까 가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멈추고자 한다.

VI. 결론

에코는 예술작품을 읽는 방식과 해석에 대해 방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의 연구들은 그 외연의 확장이나 전체적 이해가 어렵다. 모든 연구 대상들이 그렇듯, 에코의 사유 역시 연구자의 관점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의 견해들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묶고, 요약하고, 때로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에코의 저작은 방대하다는 것을 넘어 그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는 중세와 현대의 모든 연구를 인용하면서 자

41) 박일우는 다음 논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플로슈의 독자들은, 특히 『기호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읽은 독자들은 표현체를 기호 사각형에 투영하기 위해 플로슈가 제안한 범주가 매우 자의적이라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다.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이 아무리 일반성을 가진 강력한 분석 모델이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분석 결과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4’라는 숫자에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알속에서 죽다」에서 다양한 광고 이데올로기 제공자들을 네 부류로 나누는 대목에서는 과연 이를 마케팅 전문가들이 수궁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레마스 계열의 학자들이 가진 강박관념마저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박일우, 『시각기호학』, 북코리아, 2019, 156쪽.

신만의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논의도 그러하다. 기호학적인 관점으로 에코의 연구를 묶기에는 손에 쥘 모래처럼 너무 많은 언어들에 빠져나간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에코의 기호학과 구조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는 데 있었다. 에코의 기호학과 관련된 저작들에는 구조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들어있다. 그 고민은 대부분 랑그 기호학에서 내세운 개념들에 기인한다. 에코는 퍼스가 주창한 기호 구성 모델의 해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기호학에서 내세울 세미오시스의 전형으로 삼는다. 에코는 이 세미오시스의 기제로 자의성을, 완전한 무연성(無緣性)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 기호만의 특성 넘어, 일반 기호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목한다. 에코의 연구는 이 일반 기호학의 특성들을 찾으려는 긴 과정이었다. 에코는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의 생성 과정과 존재 양상을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런 노력은 자신의 ‘해석’ 개념의 유동성과 ‘의미’ 개념의 불확정성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종합적인 자세로 드러난다. 완전히 무한한 의미의 발생으로 인한 확정된 진리의 부재를 주창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에코가 ‘과해석’을 경계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을 제공했다는 것도, 그가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의미 생성의 기제를 말하면서도, 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을 받기보다는 후학들에게 일종의 과제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에코의 논의들이 이전의 이론들과 완벽히 대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은 또 하나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 개념의 경우에서도, 에코의 사유가 이 개념과 완전히 결별했다거나 활용했다는 단정보다, 오히려 불확실한 관계 설정이 구조에 대해서도, 주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더 심화하여 연구할 것을 남겨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 기호의 사각형을 세미오시스의 기제로 가정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기호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실천적인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에코가 퍼스 이론의 추정법abduction을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 활용 방식에 따라, 문학 작품들 분석하고, 다른 분석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 김운찬, 『움베르토 에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김한식, 『해석의 에움길: 폴 리쾅르의 해석학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9.
- 박상진, 「“열림”에서 기호학으로 그 과정의 비판적 개관: 움베르토 에코의 “전기 호학적” 글을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5권, 1999, 73~99쪽.
- _____, 「기호학적 해석과 문화 분석: 움베르토 에코의 ‘열린 작품’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이문학』 2권, 1995, 195~238쪽.
- 박일우, 『시각기호학』, 북코리아, 2019.
-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토도로프에서 데리다까지』, 소명출판, 2014.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연희원, 『에코의 기호학: 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한국학술정보, 2011.
- 디터 메어쉬, 『에코』, 인간사랑, 2006.
- 로라 오즈월드, 『마케팅 기호학: 기호·전략·브랜드 가치』, 엄창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움베르토 에코, 『기호학과 언어철학』, 김성도 역, 열린책들, 2009.
- _____, 『대중의 영웅』,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 _____,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역, 열린 책들, 1996.
- _____,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 책들, 2009.
- 테리 이글턴,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21.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II, Paris, Gallimard, 1974.
- Dosse F., *Histoire du structuralisme*, Tome I: Le champ du signe 1945-1966, 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1991.
- Eco U.,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 Eco U., *La structure absente: introduction à la recherche sémiotique*, Paris, Editions Mercure de France, 1972.
- Eco U., *Lector in fabula*, Paris, Editions Grasset & Fasquelle, 1985.
- Eco U., *Les limites de l'interprétation*, Paris, Editions Grasset & Fasquelle, 1992.
- Eco U., *L'oeuvre ouverte*, Paris, Editions du Seuil, 1965.
- Eco U.,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Floch J.-M., *Petites mythologies de l'oeil et de l'esprit: pour une sémiotique plastique*, Paris, Editions Hadès, 1985.
- Ricoeur P., “Structure et herméneutique”, *Esprit*, 322(11), 1963. pp.596~627.
- Ricoeur P., *Du texte a l'action: Essais d'hermeneutique 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6.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6.

Umberto Eco's Semiotics and Criticism and Application of Concept of 'Structure'

Kim, Hui-Tea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cussions on semiotics and structural concepts of Umberto Eco. Eco's research was a lengthy process to discover the properties of this general semiotics. He introduced the notion of interpretant in the sign construction model advocated by Peirce and uses it as the epitome of semiosis to be put forward in general semiotics. Eco paid attention to arbitrariness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general semiotics beyond the characteristic of linguistic signs based on complete unmotivated relationship. This semiosis makes arbitrariness a characteristic of general semiotics bey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signs based on complete unmotivated relationship. Eco made various attempts to describe the creation process of meaning and its mode of exis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These efforts are revealed in a comprehensive attitude that does not make an extreme choice between the fluidity of his concept of 'interpretation' and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meaning'. Under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which advocated the absence of definite truth due to the occurrence of completely infinite meanings, it i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why Eco is appreciated for providing theoretical discussions that can guard against 'overinterpreta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Eco completely broke with the concept of structure or utilized it. Rather, such an ambiguous relationship setting makes it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structure concept it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Keywords : Umberto Eco, Structure, General semiotics, Semiosis, Signification

투고일: 2021. 11. 24./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Fragment d'un discours amoureux*)』에서 ‘대답 없음’(Sans réponse)에 관한 연구*

서명수**

【 차 례 】

- I. 들어가는 글
- II. “사랑해”의 대답
 - 1. “사랑해”의 두 차원
 - 2. “사랑해”의 대답과 ‘대답 없음’
 - 1) 대답을 하는 경우
 - 2) ‘대답 없음’의 경우
- III. ‘대답 없음’의 메시지
 - 1. 종속화
 - 1) 화자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화행(=청자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화행)
 - 2) 화자 자신의 지위를 하강시킬 수 있는 화행(=청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화행)
 - 2. 선택가능의 일루전(illusion du choix possible)과 이중제약(double contrainte)
 - 3. 존재의 무효화(annulation)
- IV. 나가는 글

* 이 논문은 2020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 논문임.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전공, 교수, semiocom@naver.com

사랑의 주체가 그 대상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나도 사랑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자 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해”에 대하여 ‘대답 없음’의 ‘대답’을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대답 없음’이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말 듣기” 또는 “거리감 있는 말 듣기” 또는 “인색한 대답”을 말한다. 바르트는 이런 ‘대답 없음’으로 인하여 사랑에 빠진 주체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특유의 상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선 ‘대답 없음’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에게 “미칠 듯이” 매달리게 함으로써 둘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변질시킨다. 주체는 자신의 모든 자질들을 발휘하여 그의 관심을 끌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무관심과 무시로 인해 결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주체는 “사랑해”를 말했으나 말하지 않은 자, 대상 앞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 즉 존재가 지워진 자로 전락하게 된다. 바르트는 ‘대답 없음’으로 인해 사랑의 주체가 처하는 이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역으로 “사랑해”의 대답이 갖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가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이 인정은 주체로 하여금 삶의 허무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 또 “사랑해”에 대한 대답은 마치 두 연인이 이중창을 부르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강한 연대감으로 나가고, 이 연대감은 주체와 대상의 존재론적 고독을 극복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주체와 대상은 모두 자신들이 보유한 자질들을 인정받음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열쇠어 : ‘대답’과 ‘대답 없음’, 무효화, “사랑해”, 선택가능의 일루전, 이중제약, 종속화

I. 들어가는 글

바르트는 사랑의 주체가 그 대상에게 “사랑해(*je t'aime*)”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나도 사랑해(*Je t'aime aussi*)”라는 형태로, 즉 내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 “자신의 말 만큼 긍정적이고 완전하게 분절된(*aussi affirmative, aussi complète, aussi articulée que la sienne*)” 대답을 듣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말이 “사랑의 말의 원형(*l'archétype du mot d'amour*)”이며, “사랑해”에 “한 덩어리로 기표와 기표가 일치하는(*en bloc, coïncidant signifiant par signifiant*)” 대답일 수

있고, 또 다소 외설적(*obscène*)이지만 “입술을 벌려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ouvres tes lèvres et que cela en sorte*)”이 가능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입술의(*physique, corporel, lavial*)”¹⁾ 대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바르트는 이런 ‘대답 없음(*sans réponse*)’으로 인하여, 사랑에 빠진 주체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특유의 상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르트는 ‘대답 없음’을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대답 없음’이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말 듣기(*l’écoute fuyante*)” 또는 “거리감 있는 말 듣기(*l’écoute distante*)” 또는 “인색한 대답(*une réponse parcimonieuse*)”이라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대답 없음’은 우선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우정이나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가 대상에게 “미칠 듯이(*éperdument*)” 매달리게 되는 종속적 관계로 변질시킨다. 그리고 이런 종속적 관계 속에서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바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질들(*qualités*)”을 발휘하지만, 그 자질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pour rien*)”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러면 주체는 자신에 대한 “비열한 상념(*pensée sordide*)” 속에서 대상의 대답을 얻기 위한 고뇌(*angoisse*)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의 고뇌란 상념 속에서 무한히 일어나는 가능한 선택들로 인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가능성 속에 갇혀 버리고 마는, ‘선택가능의 일루전(*l’illusion du choix possible*)’을 말한다. 한편 주체는 대상의 ‘대답 없음’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답 없음’은 “사랑해”라는 말을 무효화(*annulation*)하면서 동시에 이 말의 전제가 되는 발화자, 즉 주체의 존재성도 무효화한다. 주체는 “사랑해”를 말했지만 말하지 않은 자가 되고,

1) 이 문단의 파운표 부분은 모두 Roland Barthes, *Fran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aris, Eds. du Seuil, 1977의 동일한 쪽(p.181)에서 인용했음.

대상을 갈망하는 자로 분명히 그 앞에 존재하지만 지워진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존재가 무효화된 주체는 어린 프루스트(Marcel Proust)가 어머니로부터 ‘대답 없음’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미쳐버린 것과 같은 광기에 빠져들고 만다.

본 논문은 ‘대답 없음’으로 인해 주체가 겪는 종속화와 선택가능의 일루전과 존재의 지워짐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사랑해”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소통학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물론 ‘대답 없음’은 여러 문형들(figures) 중에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항목으로 다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대답 없음’이 “사랑해”에 대한 반응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²⁾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사랑해”와 그의 대답이 갖는 의미,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것의 가치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랑해”의 대답

1. “사랑해”의 두 차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즉 주체와 대상이 로미오(Roméo)와 줄리엣(Juliette)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든지, 샤를롯트(Charlotte)에 대한 베르테르(Werther)처럼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관계(짝사랑)이든지, 돈 주앙(Dom Juan)처럼 모든 여인들이 구애(또는 유혹)의 대상이 되는 관계이든지, 다양한 사랑의 담화는 모두 “사랑해”로 수렴된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대상에게 하는 모든 담화는 결국 “사랑해”의 변주(variation)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이 “사랑해”가 세 개의 스펙트럼

2) 실제로 『사랑의 단상(Frangments d'un discours amoureux)』에는 이처럼 서로 한 쌍을 이루는 문형들이 다수 있다. ‘부재(absence)’와 ‘기다림(attente)’, ‘감추기(cacher-les lunettes noires)’와 ‘표현할 수 없는 사랑(inexprimable amour)’, ‘유령선(le vaisseau fantôme)과’ 왜?(pourquoi)’ 등이 그러하다.

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았다.³⁾ 주체가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념의 상태를 알리는 말이거나 주체가 대상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 달라 그래서 좀 더 내밀한 관계를 갖자/는 구애(청원^{requête})의 말이다. 혹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오직 분석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둘을 모두 동시에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랑해”는 사랑에 대한 주체의 기쁨이나 슬픔 등을 소리를 통해서 표현해낸 것일 수도 있다. 이 마지막 경우는 문장으로 쓸 때 감탄사 “!”를 붙인다. 처음의 두 경우는 언어학-기호학적 차원에서 “사랑해”를 발화한 것이고, 마지막의 경우는 언어학-기호학적 차원과는 무관하게 그냥 소리를 지른 것이다. 전자는 프랑스어로 “Je t’aime(나는 너를 사랑한다)”이라는 문장형식으로 ‘말을 하는(dire)’, 즉 ‘발화하는(énoncer)’는 차원이고 후자는 바르트가 “Je-t-aime”이라고 단어의 형식으로 표기하기를 제안한, 발화가 아니라 ‘발성하는(proférer)’ 차원이다.

우선 문장형식의 “사랑해”는 다시 <고백aveu>과 <선언déclar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사랑의 주체(sujet amoureux)가 사랑의 대상(objet aim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리기 위한 정보(information)에 초점을 맞춘 발화이고, 후자는 사랑의 주체가 대상에게 ‘가까운 관계(relation intime)’를 갖자고 요청하는 구애나 청혼과 같은 발화, 즉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발화이다. ‘언어행위 이론(théorie de l’acte de langage)’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단정문(phrase assertive)’이고 후자는 ‘수행문(phrase performative)’이며, ‘대화분석 이론(théorie de l’analyse conversationnelle)’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명시 내용(contenu explicite)’, 후자는 ‘함축 내용(contenu implicite)’이다.⁴⁾

3) 줄고,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에서 «사랑해(Je t’aime)»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제41집』, 한국기호학회편, 2014.

4) “사랑해”의 명시적 내용과 함축적 내용은, ‘발화행위 이론(théorie de l’acte de langage)’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단정문과 수행문에 대응한다. 발화행위이론에 의하면 단정문은 수행문에 흡수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매우 답군.”은 형식상 단정문이지만 이 발화가 지향하는 내용은 “에어콘을 켜시다”라는 수행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정보를 전하거나 또는 원하는 관계를 청원하기 위한 발화가 아니라, 바르트가 ‘소리 지름’ 또는 ‘외침(*profération*)’이라고 명명한 바와 같이, 내용이 없는, 설령 있다고 해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와 같이 자기 소리를 반사하는 내용⁵⁾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그냥 감정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다. 다만 형태에 있어서 “충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문장화되어 있고, 문장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외치는 듯(*trop phrasée pour relever de la pulsion, trop créée pour relever de la phrase*)”(p.177.)하기 때문에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주체의 내적인 정서가 기호라는 매체(*support*)에 실려서 외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 본질적인 언어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르트는 “그것의 심급은 차라리 음악(*son instance serait plutôt la Musique*)”(p.177)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뭉크의 그림 <절규>와 같이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실재의 소리와 유사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만 “사랑해”의 경우는 둘을 분리해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베르테르는 샤를롯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는 것만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돈 주앙은 속마음을 전하는 것 보다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만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베르테르는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떨면서 뭐라고 우물거리는 샤를롯트의 입술에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고”(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터의 고뇌』, 홍성광 역, 펭귄 카페, 2014, 190쪽.), 돈 주앙은 돈느 엘비르에게 “걱정과 눈물과 한숨으로”(1막2장) 그녀의 “향복하기를 꺼리는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과 싸우고, 한발 한발 반대하는 가냘픈 저항을 넘어서서” 그녀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겨내고는 부드럽게 원하는 곳으로 옮겨놓으려”(1막2장) 열정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녀와 떨어져 있는 고통은 영혼과 분리된 육신이 겪는 고통과도 같고 불타는 마음으로 재회를 기다린(1막3장) 자라는 점에서 진정한 정념의 가졌던 것도 맞다. 하지만 최종 지향점의 관점에서 보면, 베르테르는 속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돈 주앙은 구애(유혹)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돈 주앙의 유혹에 관하여는 줄고, “유혹의 담화의 연극적 전략 : 돈 주앙의 돈느 엘비르에 대한 유혹을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제25집, 2014를 보시오.

- 5) 바르트는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J-t’aime veut dire j-t’aime*)”(p.182.)라고 했다.

2. “사랑해”의 대답과 ‘대답 없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가 대상에게 하는 말이 모두 “사랑해”로 수렴이 된다면, 대상이 하는 말은 모두 “사랑해”에 대한 대답(réponse)⁶⁾으로 수렴될 것이다. “사랑해”가 세 개의 변별적인 차원 또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답도 이 세 개의 변별적인 차원에 대응할 것이다. 물론 “사랑해”의 대답에는 “나도 너를 사랑해”, “응,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날 사랑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 마”, “그래서, 바라는 게 뭐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네가 싫은 걸” 등등 수많은 대답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랑해”가 언어학-기호학적 발화행위에 해당되진, 비언어학-비기호학적 발성행위(profération)에 해당되진, “사랑해”의 최초로 만나게 되는 변별성은 “사랑해”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인 것처럼 대답의 경우도 최초의 변별성은 (1)대답을 하느냐와 (2)대답하지 않느냐, 즉 ‘대답 없음’이냐이다. 이 대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한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에 대답을 하는 경우와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1) 대답을 하는 경우

“사랑해”의 대답은 긍정 대답과 부정 대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 대답은 또 다시 “사랑해”의 발화가 대상에 대한 주체의 마음 상태를

6) 우리가 réponse에 대한 역어로 채택한 ‘대답’은 다분히 분절적인 언어 또는 기호의 사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랑해”의 ‘소리 지름(profération)’의 측면, 즉 비언어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réponse가 ‘대답’이라는 역어 보다는 ‘반응’이라는 역어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응’의 의미가 더 포괄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대답’의 역어를 채택한 이유는 ‘반응’이 ‘자극(stimulus)’에 대한 즉각적인 상대어로 떠오르며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생리적(biologique)인 현상인 것처럼 생각될 것 같은 걱정으로 인해 ‘대답’으로 채택했다.

알리고자 하는 정보전달의 차원과 주체가 대상에게 서로 내밀한 관계를 갖고자 부탁하는 청원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르다.

① 정보전달 차원에서의 긍정 대답은 “나 역시(Moi aussi) 너를 사랑해”와 이 이 대답과 의미론적으로 동일하고 통사론적으로는 다른 변주들이고, 부정 대답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와 이와 의미론적으로 동일하고 통사론적으로는 다른 변주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청원 차원에서의 긍정 대답은 “너의 청원을 받을 께(나도 너와 내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이고, 부정 대답은 “너의 청원을 거부해(나는 너와 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 두 대답과 의미론적으로는 동일하고 통사론적으로는 다른 변주들이다.⁷⁾

한편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언어학적이지도 기호학적이지도 않은 주체의 소리 지름이기 때문에 굳이 발화의 형식으로 본다면 독백적인 발화이다.⁸⁾ 다시 말해서 외침의 “사랑해”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지향하는 소통적인 발화가 아니다. 따라서 이 외침의 “사랑해”에 대한 대답을 상정하는 것은 그렇게 관여적(pertinent)이지 않다. 게다가 누군가가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통행위의 차원에서 어떤 대답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년센스이기도 하다. 다만 소통행위에 있어서 ‘협력의 원칙(principe de coopération)’⁹⁾에 입각하여 ‘상호동기화 반응(intersynchronisation)’¹⁰⁾

7) 여기에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발화만 예를 들었는데, 실제 소통행위 중에는 이 발화의 다양한 변주들(variations)이 가능하다. 명시 내용의 경우, “나도 알고 있어”, “응, 그랬구나”....., 함축 내용의 경우, “그래서 무엇을 바라는 거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결혼하자는 거니?” 부정적 반응의 경우에도, 위의 긍정적 반응의 경우와 같이 매우 다양한 변주들이 가능하다.

8)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언어학-기호학적 “사랑해”는 대화(dialogue)의 범주, 즉 대상의 대답을 지향하는 소통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발화인 반면에, 외침의 “사랑해”는 “유일하게 독백이 가능한 발화”임을 밝혔다. 줄고,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에서 «사랑해»에 관한 연구”, op.cit, pp.186~187를 보시오.

9) 협력의 원칙은 소통행위의 참여자들이 대화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공동목표 또는 목표들 전체, 혹은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방향(Nos échanges de paroles [...] sont le résultat, jusqu'à un certain point au moins, d'efforts de coopération; et chaque participant reconnaît dans ces échagènes (toujours jusqu'à un

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대답은 ‘외침’과 같이 비분절적인 발성이라고 보아야 옳고 따라서 언어적이고 분절적인 대답이라기보다 반응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장-자크 베넥스(Jean-Jacques Beneix)의 영화 <베티 블루(37.2° le matin)>에서 조르그와 베티는 그들이 살던 방갈로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얻어 타고 파리로 향하는데, 앞자리에 있던 베티가 뒤를 돌아보며 “사랑해!”를 반복하여 외칠 때에는 짐칸에 타고 있던 조르그도 큰 소리로 “계속 해!(Encore!)”를 반복하는데, 베티가 “그를 사랑해!(Je l’aime)”를 허공에 대고 외칠 때에는 조르그가 대답 없이 미소로만 반응한다. 하지만 이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그 심급이 독백일 뿐만 아니라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의 이중창처럼 “동시에 말해져서(soient dites en même temps)”(p.179.), “유일한 섬광(l’éclair unique)”(p.179)으로 합쳐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대답이 될 수 있다.¹¹⁾

2) ‘대답 없음’의 경우

바르트는 ‘대답 없음’이 “가장 확실한 거부(le vrai rejet, c’est «il n’y a pas de réponse»)”(p.177)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답 없음’도 하나의 메

certain point) un but commun ou un ensemble de buts, ou au moins une direction acceptée par tous).”(Grice, “Logique et conversation” in 『COMMUNICATIONS』, Paris, Seuil, N° 30, 1979, p.60)을 추구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원칙을 말한다. Grice는 이 협력의 원칙을 다른 ‘대화격률들(maximes de conversation)’을 포섭하는 가장 상위의 원칙으로 보았다.

- 10) 소통행위에 있어서 발화의 상대자(interlocuteur)는 발화자에게 소통행위에 잘 참여하고 있고 또 그의 발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응”, “그래”, “그렇군!” 등의 말언어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은 시선이나 얼굴표정, 고개의 끄떡임, 어깨의 움직임 등의 몸언어(langage non-verbal)가 해당된다. 코스니에(Jacques Cosnier)는 이처럼 “수신자가 자신의 신체기관의 운동성을 발화자의 언어적 리듬에 맞추는 것(le récepteur règle lui-même sa motricité sur le rythme parolier de l’émetteur)”을 ‘상호동기화 반응’이라고 했다. J. Cosnier et A. Brossard (dir.),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Delachaux & Niestlé, Neuchâtel et Paris, 1984, p.17.
- 11) “사랑해”에 대하여 바르트가 꿈꾸는 이상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줄고, op.cit, pp.188~189를 보시오.

시지이고 따라서 대답의 범주 안에서 파악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소통학(communilogie)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우리가 타인과의 접촉의 상황, 특히 타인과 상호작용의 상황¹²⁾ 하에 있을 때에는 “원하건 그렇지 않건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on ne peut pas ne pas communiquer)”¹³⁾이다. 이 명제가 성립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존재성(existence)이란 양성적(+)인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comportement)¹⁴⁾도 음성적(-) 범주가 아니라 양성적 범주 안에서만 파악된다. 즉 우리의 행동에는 음성적 행동이나 <행동 아님(non-comportment)>은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양성적인 것만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천원을 빌렸다가 곧 천원을 돌려주었다면, 논리 수학적으로는 <천원 - 천원 = 0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행동 아님’이 없는 인간의 소통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천원을 빌리고 갚은 행위는 <빌린 행위 1 + 갚은 행위1 = 두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 몸을 움직이건 정지하고 있건, 어떤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소통행위에 있어서는 모두 양성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억양(intonation), 음색(tone), 긴장도(tension), 강세(accent) 등, 발성적(vocal) 요소들, 자세(posture), 표정(mime), 몸짓(geste) 등의 신체적 요소들, 분장(maquillage), 머리모양(coiffure), 의상(costume)과 같은 외모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기침, 웃

12) 프랑스의 몸 언어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인 코스니에(Cosnier)나 미국의 미시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같은 학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 또는 만남을 “한 개인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서(mise en présence)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항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남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의 물리적(physique)이고 실질적인(positif) 접촉을 뜻하며, 이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전제 조건이 된다. 즉 접촉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것이다. Jacques Cosnier, “l'éthologie du dialogue”, in J. Cosnier et C. Kerbrat-Orecchioni (éds.), *Décrire la conversation*, Lyon, P.U.L., 1987, p.304를 보시오.

13) P. Watzlawick et al., *Une logique de la communication*, traduit par Janine Morche, Edt. du Seuil, 1972, p.46.

14) 프랑스어 comportement을 행동으로 번역함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comportement에는 태도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음, 눈물 등과 같이 자율신경계의 반응들이 모두 다 언어- ‘몸 언어 (langage non-verbal 또는 langage corporel)’-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몸 언어는 ‘말 언어(langage verbal)’와 달리 우리의 의식적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이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과의 접촉의 상황에 있다며 우리는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런 우리의 태도나 행동은 해석되어야 할 어떤 “메시지의 가치”¹⁵⁾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접촉의 상황에 있을 경우 바라건 그렇지 않건 소통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접촉의 상황에서는 ‘대답 없음’도 하나의 대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 없음’도 완전한 무반응의 ‘대답 없음’이란 있을 수 없는데, “사랑해”에 대하여 최소한 외면하는 행동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답 없음’은 대부분은 “모순적 발언, 비일관성, 또는 급작스럽게 주제를 바꿈, 몰래 도망감(빠져 나감), 혹은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음, 오해, 말의 스타일을 모호하게 하거나 기교를 너무 부림, 은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인 것을 은유로 해석하는 것 등등”¹⁶⁾, 주체가 한 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대답들, 협력의 원칙과 관여성의 법을 어기는 대답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¹⁷⁾

15) *ibid.*, p.46.

16) *ibid.*, p.75.

17) Catherine Kerbrat-Orecchioni는 Grice의 ‘대화의 격률(maximes de conversation)’을 토대로 ‘수사-화용론적 규칙(règles rhétorico-pragmatique)’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적 담화원칙(principes discursifs généraux), 2)특수 담화법(lois de discours spécifique)이 그것이다. 일반적 담화원칙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통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원칙을 말한다. 그 하위 원칙으로 ①협력의 원칙, ②관여성의 법(*loi de perinence*), ③성실성의 법(*loi de sincérité*)가 속한다. 특수 담화법은 (1)언어적 특질과 관련된 법과 (2)언어적 특질과는 무관하고 사회적 특질과 관계된 법으로 나뉘는데, (1)에는 ①정보성의 법(*loi d’informativité*), ②총망라성의 법(*loi d’exhaustivité*), ③방법의 법(*loi de modalité*)이 속하고, (2)에는 예절의 법(*loi de politesse*)이 속한다.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implicite*, Paris, Armand Colin, 1986, pp.196~251을 보시오.

“사랑해”의 발화		대답의 경우		‘대답 없음’의 경우
		긍정	부정	
언어학- 기호학적	명시 내용	나 역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무시 또는 협력의 원칙과 관여성의 법을 어기는 행동
	함축 내용	너의 청원을 받을 께	너의 청원을 거부해	
비언어학-비기호학적		긍정적 상호동기화 반응	부정적 상호동기화 반응	무시하는 태도

Ⅲ. ‘대답 없음’의 메시지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먼 거리를 여행할 때를 만약에 우리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소통학에 의하면 접촉의 상황 하에서 소통행위, 즉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대답은 다음의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 수용(acceptation), ② 거부(rejet), ③ 무효화(annulation)가 그것이다. 수용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면서 “지금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래서 대화를 피하는 것이다. 무효화는 ‘무시(déni)’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상대방의 ‘말 걸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 왓츠라윅(Watzlawick)은 “자신의 소통행위이나 타자의 소통행위를 무력화시키는 /.../ 의미 있는 기술적 수단(*frappe de nullité sa propre communication ou celle de l'autre /.../ moyen d'une technique significative*)”¹⁸⁾이라고 하였다. 수용과 거부는 소통행위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긍정-부정의 대답이라면, 무효화는 소통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대답으로, ‘대답 없음’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바르트가 <대답 없음>의 문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랑해”가 ‘대답 없음’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주체가 겪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

18) P. Watzlawick et al. *op.cit.*, p.75.

기하고 있다.

1. 종속화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행위를 ‘대답 없음’의 예로 들었다.

“그가 X...에게 무슨 주제에 관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X...는 뭔가 주변을 탐색하듯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듣는 것 같았다.lorsqu'on lui parlait, lui tenant un discours sur quelque sujet que ce fût, souvent X... avait l'air de regarder et d'écouter ailleurs, guettant quelque chose alentour”(p.199.)

이런 “회피하는 말 듣기(*écoute fuyante*)”는 사실상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위이다. 이처럼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 때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자는 서열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이고, 이렇게 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그런데 서열관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무효화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협력의 원칙과 관여성의 법을 훼손하는 행동이고, 그 결과 순식간에 이들 사이의 지위체계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는 행동이다.

도처에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 돈 루이(Dom Louis)는 다소 긴 훈계를 하는데, 처음부터 ‘회피하는 말 듣기’를 하던 돈 주앙은 훈계가 끝나자 “아버지, 앉으셨더라면 말을 더 잘 하셨을 텐데요(Monsieur, si vous étiez assis, vous en seriez mieux pour parler)”(4막 4장)라고 말한다. 이 말에 아버지 돈 루이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데, 그것은 돈 주앙의 ‘회피하는 말 듣기’와 함께 훈계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여성이 없는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돈 주앙의 말은 분명히 정중했겠지만 내용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관계를 뒤흔

드는 말이었다.

케르브라-오레키오니는 소통행위 중에 교환되는 담화에 따라서 지위의 체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체면 이론(théorie des faces; Face-treating theory)’¹⁹⁾과 언어행위이론(théorie de l’acte de langage)을 결합하여, 발화자와 발화상대자의 체면이 훼손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담화(발화행위)들을 분류해 내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1) 화자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화행(=청자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화행)

- ① 청자의 수동적 체면 훼손: 명령, 청원, 금지, 허락, 제안, 충고 등, 발화상대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종류의 «지시하는(directifs)» 화행들
- ② 청자의 능동적 체면 훼손 : 비판, 욕설, 조소, 놀림, 모든 불일치(반론, 이의제기, 반박, 거부, 명령거부), 비난과 질책

2) 화자 자신의 지위를 하강시킬 수 있는 화행(=청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화행)

- ① 화자 자신의 수동적 체면 훼손 : 약속(화자가 약속에 구속되어 자

19) ‘체면 이론’은 그라이스(Grice)가 제안한 ‘예절의 법(loi de politesse)’의 연장선에서,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이 고프만(Goffman)의 영역(territoire)과 체면(face)의 개념을 보완·확장시킨 이론이다. 브라운과 레빈슨의 ‘체면 이론’과 고프만(Goffman)의 ‘영역과 체면’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offman	Brown et Levinson	내용
영역(territoire)	수동적 체면(face négative)	침해받고 받고 싶지 않은, 방어하기를 원하는 자아의 영역
체면(face)	능동적 체면(face positive)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미지

20)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I, Paris, Armand Colin, 1992, pp.94~95를 보시오. 줄고, “돈 주앙의 유혹의 담화전략 II - 샤를롯트에 대한 유혹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 49집, 한국기호학회, 2016, 236쪽을 보시오.

신의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 설(Searl)의 약속들(promissifs).

- ② 화자 자신의 능동적 체면 훼손 : 감사, 용서를 빌기, 고백, 위축(화자의 신뢰감이나 수사적 태도에 손상을 일으킴), 자기비판, 자기고발, 자기저평가, 자기비하행동

“사랑해”는, ①주체가 대상에게 정념을 전하는 경우, 주체는 자기의 ‘수동적 체면(face négative)’이 훼손될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된다.²¹⁾ 수동적 체면이란 요리사에게 주어진 식당의 조리 공간 같이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주체가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을 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대상이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을 한다면 대상도 자기 영역의 문을 연 것이 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동등해진다. 하지만 ‘대답 없음’일 때 주체는 지위체계에 있어서 대상 보다 열등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그 대답이 있기 전까지 대상에게 종속되고 만다.

②주체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자는 청원일 경우, 주체는 자신의 ‘능동적 체면(face positive)’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능동적 체면이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나 어떤 상황에서의 드레스 코드와 같은 것이다. 요리사는 많은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소비하면 그의 능동적 체면은 상승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없고 그래서 음식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그의 능동적 체면은 훼손된다. 돈 주앙은 돈느 엘비르가 자신을 찾아 왔을 때, “미친 것 아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

21) 케르브라-오레키오니는 <고백(aveu)>은, 화자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청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처하는(*LI est mis ou se met en position basse lorsqu'il subit un FTA, ou lorsqu'il s'inflige à lui-même un acte menaçant pour l'une ou l'autre de ses propres faces*)”, 경우로, 이때 화자의 능동적 체면이 위협당할 수 있는 화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본인은 화자가 속마음을 토로하는 <고백>이 ‘약속’의 경우처럼 능동적 체면이 아니라 수동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이라고 생각한다. Catherine Kerbrat-Orecchioni, *ibid.*, p.95.

런 곳에 저런 시골뜨기 복장으로 오다니?”(1막2장)라고 하면서, “부인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니까요”(1막3장)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돈느 엘비르의 드레스 코드에 대한 비판, 즉 그녀의 능동적 체면에 대한 훼손과 동시에 자신의 영역(수동적 체면)이 침해당했다는 항변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애의 경우, 주체가 자신과 더 가까운 관계를 부탁하면서 주체는 우선 자신의 능동적 체면이 훼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때 대상이 “나도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기 원해”라고 대답한다면, 주체의 능동적 체면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대상의 수동적 체면은 하강하며, 주체는 대상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만약에 “나는 당신과 내연의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주체의 능동적 체면이 손상되고 상대적으로 대상의 수동적 체면은 상승하며, 지위 체계에 있어서도 주체는 대상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대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체가 차후에 다시 청원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주체의 능동적 체면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나 ‘대답 없음’의 경우에는 주체에게 “사랑해 ‘를 청원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체의 능동적 체면이 훼손되고 지위는 하강하며, 그 결과 대상에게 종속된다.

③ “사랑해”의 외침은 독백의 심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대답 없음’ 또는 이 외침을 듣지 못한 척 외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따라서 문장형식의 “사랑해”에 대한 ‘대답 없음’처럼 주체의 종속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외침의 “사랑해”에 대한 대답만이 사랑의 이중창과 같은 일체화된 발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교환, 증여, 절도(경제의 유일한 형태로 알려진 것들) 등과 같이 대상의 이질성과 시차를 함축하는 것들 L'échange, le don, le vol (seules formes connues de l'économie) impliquent chacun à sa manière des objets hétérogènes et un temps décalé”(p.179)이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계산도 이해타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지배나 종속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선택가능의 일루전(illusion du choix possible)과 이중제약(double contrainte)

문장형식의 “사랑해”에 대한 ‘회피하는 말 듣기’는 지위체계에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주체를 대상에게 극단적으로 종속시킨다. 비행기의 옆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이라면 이 종속의 상황은 일시적인 불쾌함 정도로 그친다. 하지만 서로 아는 관계이고 또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된 관계 사이라면, 이 종속 상태는 주체를 자기 비하의 감정 속에 빠뜨리고, 나아가 일종의 결정 장애-바르트가 “결정의 고뇌(une angoisse de décision)”라고 한-의 심연 속에 빠뜨린다. 바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회피하는 말 듣기”로 인해 주체가 “의기소침 해져서(découragé)” 말을 멈추자 숨 막힐 것 같은 “긴 정적이 흐른 후(au bout d’un long silence)”, 대상이 주체에게 “듣고 있어, 계속해(Continue, je t’écoute)”(p.199.)라고 말한다. 그러자 주체는 “그럭저럭 이야기의 끈을 찾아 이야기를 붙잡아 보는데(on reprenait alors tant bien que mal le fil d’une histoire)” 결국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une histoire à laquelle on ne croyait plus)”(p.199.)임을 깨닫는다.²²⁾

이때 주체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무런 반향 없는 허공에 뿔어대는 낯두리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열한 상념 속에 빠진다(Cette écoute fuyante /.../ m’engage dans une pensée sordide).”(p.199.) ‘비열한 상념’이란 우선 무력감이다. 대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 “미칠 듯이(éperdument)” 대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든 감정과 학설과 지식과 섬세함의 흥분, 내 자아의

22) 이 인용문은 바르트의 원문에 본인이 설명을 붙였음을 밝힌다.

모든 광채(toute une excitation d'affects, de doctrines, de savoirs, de délicatesse, toute la brillance de mon moi)"(p.200.)를 발휘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무기력한 공간 속으로 희미해져가고 무디어져 가고s'assourdir, s'amortir dans un espace inerte)"(p.200.), 물거품이 되어 버린 느낌, 자신의 재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느낌 말이다.

“지금까지 그를 유혹하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미칠 듯이 애를 쓰는 나는, 그에게 말을 하면서 재치의 보물들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물들이 무관심하게 받아드리지고, 내 «재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낭비되었다(attaché éperdument à séduire, à distraire, je croyais, en parlant, étaler des trésors d'ingéniosité, mais ces trésors sont appréciés avec indifférence; je dépense mes «qualités» pour rien)"(p.199.)

‘비열한 상념’과 무력감 속에서 주체는 스스로를 탓하고(pensée coupable) 이제 바르트가 말하는 “결정의 고뇌(une angoisse de décision)"(p.200.), 즉 ‘선택 가능의 일루전(illusion du choix possible)’ 또는 ‘선택의 역설(paradox de décision)’에 빠지고 만다. 선택가능의 일루전이란 소통행위 중에 만날 수 있는 ‘화용론적 역설(paradox pragmatique)’의 상황들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선택의 역설(paradox du choix)’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망설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결과-상과 벌-를 감수한다. 모든 ‘고대 그리스 비극(tragédie antique grèque)’에서 주인공이 처하는 상황, 즉 우리가 문예학에서 ‘비극적 상황(situation tragique)’이 바로 이것, 모순적이 두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들(schizophrènes)은 두 개의 가능한 선택 중에서 하나의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둘 중 그 어느 것도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선택이 이들에게는 이중제약

(double contrainte)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²³⁾이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벌을 받고, 하지 않아도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배타적 선택(réelle alternative)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일루전이다.”²⁴⁾

이중계약이란, 절대적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부모와 생존을 위해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나, 군대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그 예이다. 소통행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권력에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모순적 명령을 내릴 때, 하급자는 자신이 받은 명령이 모순명령이기 때문에 수행이 불가하다는 메타-소통행위(méta-communication)를 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차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중계약이다. 군대에서 어느 병사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병사를 면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병사를 면도한 후, 자신의 긴 수염을 보고 면도를 하고자 한다. 바로 이때 이 병사는 모순에 빠지고 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면도하는 병사를 면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면도를 멈추면 또 다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병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병사가 명령을 내린 장교에게 자신의 모순적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데, 즉 메타-소통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장교가 명령불복종이라는 이유로 병사를 처벌하게 되면, 이 병사는 완전한 이중계약 상황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답 없음’이 왜 이중계약의 상황인가? 생각 또는 상념 속에서는 가능한 선택이 무한대. 이 상황은 이중계약의 상황과 같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선택 못함. 다른 가능성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거리를 둔 말 듣기(écoute distante)’ 또는 ‘회피하는 말 듣기’는 주체를 선택 가능한 역설 속에 빠뜨린다.

23) P. Watzlawick et al., *op.cit.*, p.234.

24) P. Watzlawick et al., *ibid.*, p.234.

“이런 ‘사막 속에서’ 계속 말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건 사랑의 감성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고, 그렇다면 말하기를 단념하고 그만둘까? 그렇게 되면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말다툼’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텐데(dois-je poursuivre, discourir «dans le désert»? Il y faudrait une assurance que précisément la sensibilité amoureuse ne permet pas. Dois-je m’arrêter, renoncer? Ce serait avoir l’air de me vexer, de mettre en cause l’autre, et de là donner le départ d’une «scène».”

주체는 이런 끝나지 않는 선택 가능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념의 ‘수렁(piège)’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3. 존재의 무효화(annulation)

대상의 ‘대답 없음’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철저하게 종속화된 주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선택가능의 일루전 속에 갇히고 만다. 그리고 ‘대답 없음’으로 인해 “사랑해” 자체 또는 소통행위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그 소통행위의 주체가 지워지고, 나아가 주체의 존재가 말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바르트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명명하고, 프랑수와 발(François Wahl)의 “전락(Chute)”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지각해 왔던 것으로부터의 장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말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마치 죽어가는 것 같다.(<tout ce qui a été vu, aura été vu pour rien. Deuil de ce que nous avons perçu> Dans ces moments brefs où je parles pour rien, c’est comme si je mourais.)”(p.200.)

그렇다. 우리가 열정을 바쳐 사랑하는 상대방이 “사랑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마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절대적 허무와 고독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베르테르가 샤를롯트에게 키스를 하며 마지막 고백을 하자, 샤를롯트가 그를 밀쳐내면서 “더 없이 차분한 어조”로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어요”²⁵⁾ 하고 나서 옆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을 때, 베르테르가 느낀 감정과 동일한 감정일 것이다. 물론 샤를롯트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자신에게 밀착하여 키스를 퍼붓는 베르테르를 밀쳐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고, 또 “차분한 어조”라는 표현을 보면 그녀의 태도가 ‘대답 없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냉정했고 또 단호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대답 없음’이 어떻게 주체로 하여금 죽음을 느끼게 하는지 보도록 하자. «피에르가 담배를 끊었다(Pierre a cessé de fumer)»²⁶⁾는 다음의 내용들을 전제(présupposition)한다.

- ① /피에르가 존재한다/
- ② /담배가 존재한다/
- ③ /과거에 피에르가 담배를 피웠다/

전제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정이 되면, 발화의 성립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을 말한다. 왜냐하면 ① 피에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가 담배를 피운다는 행위가 있을 수 없고, ② 피에르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25) 괴테, 앞의 책, 190쪽.

26) 이 예문은 뒤크로(O. Ducrot)와 케르브라-오레키오니(Kerbrat-Orecchioni)에 의해서 유명해진 예문이다. Oswald Ducrot, *Le dire et le dit*,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1984, p.231.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implicite*, Armand Colin, Paris, 1986, pp.6~7을 보시오. 명시내용과 함축내용에 대한 구분은 Kerbrat-Orecchioni, *ibid.*, pp.19~20을 보시오. 줄고 “화용론과 극텍스트의 대화분석” in 『한국언급학』, 한국언급학회, 1998, 제10호, 213~215쪽을 보시오.

이 세상에 ‘담배’라는 것이 없다면, 피에르가 이것을 피운다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으며, ③ 이 발화는 피에르가 과거에 담배를 피웠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만약 피에르가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다면, 피에르가 과거에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역설의 말이다. 즉 이 말은 /과거에 피에르가 담배를 피웠다/와 /과거에 피에르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가 동시에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는 “할아버지 용(dragon)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그럼, 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당연히 있지.”라는 할아버지의 년센스의 대답과 같다.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글자가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역으로 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지시체도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랑해”도 마찬가지이다. 문장형식의 “사랑해”의 경우, ① 이 말을 하는 주체의 존재성, ② 대상(청자)의 존재성, ③ 정보를 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는 주체가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다/이고 ③’ 관계의 청원인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이다. 물론 “사랑해”가 진실한 말이어야 하는 것도 전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제는 부분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속마음을 전하는 “사랑해”는 질과 정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전제되는 것이 맞지만, 관계의 청원인 “사랑해”는 양과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다.²⁷⁾ 그리고 단어형식의 “사랑해”는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의 외침(profération)이며 실재의 드러남이다.

27) 문장형식의 “사랑해”가 정보성의 법(loi d’informativité)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 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전달 차원의 “사랑해”는 반복적 발화가 불가하다. 그러나 청원차원의 “사랑해”는 반복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 이전의 “사랑해” 보다 더 내밀한 관계를 원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원의 “사랑해”는 진실성 보다는 성공가능성(félicit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줄고,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에서 «사랑해(Je t’aime)»에 관한 연구”, 위의 책을 보시오.

여하튼 문장형식의 “사랑해”는 ①, ②, ③, ③’가 모두 동시에 인정되어야 하나의 발화로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해”에 대하여 대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은 말의 내용에 대하여 화답한 것이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해”의 발화자, 즉 주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든가 “너의 청원을 받아줄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도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인 것은 같다. 부정의 대답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주체의 말(내용)을 부정한 것일 뿐, 주체가 “사랑해”를 말했다는 사실, 즉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요구하는 거라면, 나는 기다렸다 다시 갱신하고 다시 재안할 수도 있을 것pour la demande, je puis attendre, la reconduire, la représenter de nouveau”(p.178)이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 내용이 부정되었지만 주체의 존재는 인정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거나, 청원을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랑의 주체에게 다시 “사랑해”를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보된 셈이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시도해 볼 여지가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답은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희망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답 없음’이 부정하는 것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통행위의 차원에서 주체가 대상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말(parole)’ 자체의 실재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무효화는 말하는 주체, 즉 “사랑해”의 전제인 주체의 존재성도 무효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르트는 언어는 인간 존재의 마지막 흔적이고 주름인데, 바로 이 언어가 부정됨으로써 존재도 부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무효화되는데, 그것은 더욱 확실하게 청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말하는 주체<그런 나는 최소한 형식은 조정할 수 있겠는데>로서도 거절된 것이며, 부인된 것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내 실존의 마지막 수단인 내 언어 자체

이다(*je suis annulé plus sûrement si je suis rejeté non seulement comme demandeur, mais encore comme sujet parlant <comme tel, j'ai du moins la maîtrise des formules>; c'est mon langage, dernier repli de mon existence, qui est nié, non ma demande*)”(p.178.)

이렇게 무효화된 주체는 “사랑해”를 분명히 말하였으나 마치 말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리는 모순 속으로, 즉 발화라는 양의 것(+)이 발화의 지움이라는 음의 것(-)이 되는 모순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다. 주체는 이 모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이 모순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말이 부인되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겼기(*chassé du pouvoir de questionner*)”(p.178) 때문이다. 프루스트(Marcel Proust)가 언급한 “연인의 집 수위에게 문전박대 당한 <그 소녀>(la <fille> repoussée par le concierge de son amant)”(p.178)도 바로 이것, 연인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잠들기 전 어머니로부터 키스를 기다리던 어린 프루스트는 바로 이 소녀에게 자신을 동일시 하는데, 이때 프루스트는 프랑스와즈로부터 어머니의 ‘대답 없음’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언어’를 빼앗긴 주체는 그가 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다. 이 가혹한 이중계약의 상황 속에서 주체는 “마치 영원히 죽은 것(*comme mort à jamais*)”(p.178)처럼 된다. 산자가 죽은 자가 되는 상황. 그런데도 이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 이중의 제약 속에서 주체는 광인이 되어버린다. 광기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중계약의 상황 속에서 지워진 자신의 존재성을 항변하는 것, 즉 대상의 ‘대답 없음’에 대하여 주체가 “사랑해”를 다시 외치는 것이다. 다만 이 외침이 광기로 분류되는 것은 그의 “사랑해”는 분절된 언어의 외침이 아니라 뭉크(Munck)의 그림 <절규>처럼, 마치 짐승의 포효와 같은, 분절되지 않은 소리의 다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답 없음’의 대답을 들은 어린 프루스

트는 “어머니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배제된 것이기에, 나는 광인이 된다 (la Mère n’est pas interdite, elle est ferclose et je deviens fou).”(p.178).

IV. 나가는 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사랑보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사랑의 소중함에 대하여 종교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할지 잘 알지 못한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도 “사랑은 절대의식의 가장 근거 없으면서도 가장 자명한,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²⁸⁾고 했다.

롤랑 바르트가 『사랑의 단상』에서 시도한 것은 바로 이 질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바르트가 취한 방식은, 기존에 그가 문학작품이나 다양한 문예작품에 대하여 행했던 분석적이고 논증적인 방식, 즉 저자가 직접 개입하여 설명을 가하는 “메타-언어(pas de métalangage)의 방식이 아니고”(p.7), 사랑의 주체인 ‘나’의 “발화행위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 방식(mettre en scène l’énonciation)”(p.7), 즉 마치 연극 무대에서 한 인물이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바르트는 ‘대답 없음’의 문형에서, 사랑의 주체가 대상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역으로 대답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대답 없음’도 일종의 대답으로, 주체의 요청에 대한 대상의 ‘거부’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부’이다.

28) 칼 야스퍼스, 라하르트 다비드 프레히트, 『사랑, 그 혼란스러운』, 박규호 역, 21세기 북스, 2009, 8쪽에서 재인용.

그 이유는 대상의 ‘대답 없음’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 떨어뜨리고, 이런 종속적 관계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모든 자질들을 발휘하여 대상의 관심을 끌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의 무관심과 무시로 인해 결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 딜레마는 소통학에서 소위 ‘선택 가능한 일루전’에 의한 ‘이중계약’의 상황을 말한다. 나아가 주체는 ‘대답 없음’으로 인하여 “사랑해”를 말했으나 말하지 않은 자, 대상 앞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다시 말해서 존재가 지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존재의 지워짐을 당한 주체로 광기 속을 헤매게 되는데, 바르트는 어머니의 키스를 기다리다가 ‘대답 없음’의 대답을 들은 어린 프루스트가 처한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랑해”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가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주체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음으로써 땅 위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삶의 허무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사랑해”의 대답은 우선 주체를, 그리고 다시 대상을 삶의 허무로부터 구출해내는 구원의 십자가와도 같은 것이다. 또 “사랑해”에 대한 대답은 마치 공명(résonnance)이 잘 되는 콘서트장과 같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조화(harmonie)를 이루면서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 이는 이중창의 경우와 같이 서로 의존적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으로써 존재론적 고독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런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와 대상은 모두 자신들이 보유한 자질들을 인정받음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

바르트도 “오늘날 사랑의 담화는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le discours amoureux est aujourd’hui d’une extrême solitude)”(p.5)고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랑은 “무시되고, 혈뜰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 왔으며, 권력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카니즘(과

학, 지식, 예술)과도 단절된[ou ignoré, ou déprécié, ou moqué par eux, coupé non seulement du pouvoir, mais aussi de ses mécanismes(science, savoirs, arts)]”(p.5) 주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완전한 자율적 감정이라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한다. 또 운명 같았던 사랑이 어느 덧 삶의 여정 중의 하나로 남아버리고, 여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숙명이 되기도 한다. 바르트는 주체의 “사랑해”의 말에 대한 대상의 ‘대답 없음’의 의미를 말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서명수, 「유혹의 담화의 연극적 전략 : 돈 주앙의 돈느 엘비르에 대한 유혹을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제25집, 한국연극교육학회, 2014, 273~307쪽.
_____,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에서 «사랑해(*Je t'aime*)»에 관한 연구」, 기호학 연구, 제41집, 한국기호학회, 2014, 167~195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터의 고뇌』, 홍성광 역, PENGUIN 카페, 2014.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 역, 동문선, 2004.
라하르트 다비드 프레히트, 『사랑, 그 혼란스러운』, 박규호 역, 21세기 북스, 2009.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implicite*, Paris, Armand Colin, 1986.
_____,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I, Paris, Armand Colin, 1992.
J. Cosnier et A. Brossard (dir.),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Delachaux & Niestlé, Neuchâtel et Paris, 1984.
J. Cosnier et C. Kerbrat-Orecchioni (éds.), *Décrire la conversation*, Lyon, P.U.L., 1987.
John Austin, *Quand dire, c'est faire*, traduction et introduction de Gilles Lane, Paris, Edt. du Seuil, 1970.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aris; collection de "Tel Quel", Edt. du Seuil, 1977.
P. Grice, "Logique et conversation" in 『COMMUNICATIONS』, Paris, Seuil, N° 30, 1979.
P. WATZLAWICK et al., *Une logique de la communication*, traduit de l'américain par Janine Morche, Paris, Edt. du Seuil, 1972.

Study on 'no answer' in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by Roland Barthes

Suh, Myung-Soo

When the subject in love says or utters “I love you (or I-love-you!)”, He wants to be heard say the positive response. But very often the loved object responds sparingly or does not. According to Barthes this is the real rejection, that “there is no answer”. Barthes refers to the various paradoxical situations in which the subject falls due to this “no answer”. The ‘no answer’ transf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into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by making the subject distraught, attached to seducing and distracting the object; his indifference, however, puts the subject in the dilemma of not being able to decide what to do. In this dilemma, the subject becomes a person who has said “I love you” and who has not said it at the same time, and a person who both exists in front of the object and who does not exist; he is a person whose existence is canceled. Speaking of these situations of the subject in love before the object’s ‘no answer’, Barthes also talks about the meaning of the response to “I love you”; it is a recognition of the subject’s existence and saves him from the emptiness of life. The response creates a strong sense of togetherness as if two lovers were singing a duet, and this solidarity not only allows the subject and the object to overcome their loneliness, but also allows them to expand the value of life.

Keywords : Cancellation, Double bind, Illusion of possible choice, I love you,
Answer and no answer, Subordination

Etude sur 'sans réponse' dan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de Roland Barthes

Suh, Myung-Soo

Lorsque le sujet amoureux dit ou profère “je t’aime(ou je-t-aime!)”, il veut se faire entendre dire la réponse positive. Mais très souvent l’objet aimé y répond parcimonieusement ou n’y répond pas. Selon Barthes c’est le vrai rejet, ce qu’«il n’y a pas de réponse». Barthes fait référence aux diverses situations paradoxales dans lesquelles le sujet tombe en raison de cette «sans réponse». La ‘sans réponse’ transforme la relation entre le sujet et l’objet en une relation de subordination en rendant le sujet éperdu, attaché à séduire et à distraire l’objet; l’indifférence de celui-ci met pourtant le sujet dans le dilemme de ne pas pouvoir décider quoi faire. Dans ce dilemme, le sujet devient une personne à la fois qui a dit « je t’aime » et qui ne l’a pas dit, et une personne à la fois qui existe devant l’objet et qui n’existe pas; il est une personne dont l’existence est annulée. En parlant de ces situations du sujet amoureux devant ‘sans réponse’ de l’objet, Barthes parle aussi du sens de la réponse à «Je t’aime»; elle est une reconnaissance de l’existence du sujet et le sauve du vide de la vie. La réponse crée un fort sentiment de solidarité comme si deux amoureux chantaient un duo, et cette solidarité permet non seulement au sujet et à l’objet de surmonter leur solitude, mais leur permet également d’élargir la valeur de la vie.

Keywords : Annulation, Double contrainte, Illusion du choix possible, Je t’aime, réponse et sans réponse, Subordination

투고일: 2021. 11. 19./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분열증적 시대의 주체성(1)*

– 우엘벡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송태미*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분열증적 주체성
 - 1. 주체성 생산의 위기
 - 2. 사회적 예측과 기계적 종속
- III. 분열증적 시대를 그리는 우엘벡의 초상
 - 1. 소설 『세로토닌』의 분열증적 주체들
 - 1) 농업 전문가 플로랑클로드의 성공 또는 실패
 - 2) “기계”에 종속된 주체
 - 2. 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의 분열증적 주체들
 - 1) 신인류라는 거대기계
 - 2) 기계적 종속과 사회적 예측
 - 3) 인류라는 거대기계
- IV. 나오며

국문초록

미셸 우엘벡의 주요 소설 속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다. 세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는 곧 자기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가리키며 이것은 이른바 주체성의 위기로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그

* 본 논문은 2021년 프랑스학회-프랑스문화예술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발전시킨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과제번호2019S1A5B5A07106137)

** 송태미,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강사, taemi.song@gmail.com

에 적합한 주체성을 요구하며 이런 주체성을 매개로 그런 조건들이 인식되고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주체성 생산에 실패한다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회이든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우엘벡이 포착하는 시, 공간은 언제나 주체화의 수단이나 토대가 사라진 지점이다. 본 연구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무엇보다 주체성 생산의 위기로 본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비판 이론을 통해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2019)과 『어느 섬의 가능성』(2005)을 함께 읽기를 시도하였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 자본주의 문명은 그에 적합한 주체성 생산에 실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방식의 주체화 양식, 곧 사회적 예측과 기계적 종속이라는 모순적인 두 차원의 상보적 작용을 통해 개인들을 주체화시키며 자본주의 문명의 붕괴를 유예시키고 있다. 우엘벡의 인물들은 이 분열증적 주체화의 양상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열쇠어 : 미셸 우엘벡, 세로토닌, 어느 섬의 가능성,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사회적 예측, 기계적 종속, 분열증적 주체성, 자본주의, 거대기계

I. 들어가며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류가 겪은 고통의 주요 요인들이 사라진 세상. 굶주림도, 질병도, 전쟁도, 범죄도,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빈부격차도, 신분의 위계도 없고, 노동도, 경쟁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며 정신의 고양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 육체의 노화도, 죽음도 겪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젊은 육체로 영원히 사는 세상. 이것은 미셸 우엘벡의 장편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2005)에 등장하는 미래다. 전작 『소립자』(1998)에서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인류 종말에 대한 상상은 『어느 섬의 가능성』(2005)에서 본격화되어 인류의 종말과 그 대안으로 출현하는 미래 사회를 묘사한다. 이와 같은 줄거리는 유토피아 문학의 전통적인 문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안으로 출현한 미래 사회의 삶이 또 다시 권태와 무력감으로 점철되면서 작품의 메시지는 모호해진다. 미래 인류는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감정과 유사한

슬픔, 우울감, 무기력을 고백한다.

[...]cette routine solitaire, uniquement entrecoupée d'échanges intellectuels, qui avait constitué ma vie, qui aurait dû la constituer jusqu'au bout, m'apparaissait à présent insoutenable. [...]c'est au contraire la tristesse, la mélancolie, l'apathie languide et finalement mortelle qui avaient submergé nos générations désincarnées.

내 삶을 구성했던, 그리고 틀림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그 고독한 일상을 이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 세대들을 집어삼킨 것은 슬픔, 멜랑콜리, 치명적이기까지 한 무기력이었다.¹⁾

우엘벡이 상상한 미래가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에 관해서는 비평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우엘벡을 두고 노게는 유토피아 옹호자라고 평한 반면,²⁾ 베제마엘은 우엘벡을 “반-유토피아의 왕자”라고 불렀고 스위니는 우엘벡의 문학을 “절망의 문학”이라고 규정했다.³⁾ 이러한 모호성은 디스토피아 소설로 알려진 『복중』(2015)에서도 나타난다. 이슬람정당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변화되는 프랑스의 미래 사회를 상상한 이 소설은 “자유를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삶이 참을 수 없이 불행하다면 이슬람 권위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주인공이 결국 이슬람 권위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끝을 맺는 이 소설은 권위주의 체제의 복귀를 옹호하는 것인지 우려하는 것인지 그 모호성을 증폭시킨다. 이 모호성은 2019년에 발표된 작품 『세로토닌』과 함께 읽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현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서구 현대인의 삶을 얼마만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 작품은 자유주의 체제에 희

1) M. Houellebecq, *La possibilité d'une île*, 2005, pp.405-406.

2) Noguez, D., *Houellebecq. en fait*, Paris : Fayard, 2003, p.16.

3) Sweeney, C., *Michel Houellebecq and the Literature of Despair*, London: Bloomsbury, 2013, p.181.

망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묘사하거나 또는 미래의 삶을 상상한 우엘벡의 주요 작품들에서 작품 속에 묘사된 삶의 조건, 곧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다. 작품의 모호성은 어쩌면 작가의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작품에는 매번 분열증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며 작가는 그들의 분열증적인 의식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호한 것은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작가가 묘사하는 현실의 특징인 것이다. 우엘벡의 주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자아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한편으로 현실 공간을 살며 동시에 현실을 초월한 공간 이른바 메타 현실의 공간에서도 산다. 그리고 그 두 공간에서 그들의 자아는 동일하지 않다.⁴⁾ 분열증적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세계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리키며 이른바 주체성의 위기로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그에 적합한 주체성을 요구하며 이런 주체성을 매개로 그런 조건들이 인식되고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주체성 생산에 실패한다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회이든 유지될 수 없다.⁵⁾ 우엘벡이 포착하는 시, 공간은 언제나 주체화의 수단이나 토대가 사라진 지점인데 흥미로운 점은 적절한 주체성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인물들의 삶도 유예된 듯한 양상을 보인다. 주체화의 수단과 토대를 상실할 때 흔들리고 붕괴되어야 할 사회가 유예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어

4) 우엘벡 작품에 나타난 분열증적 주체화 양식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 :

- 송태미, 「‘파상력’ 개념을 통해 본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 『프랑스어문교육』 72, 2021, 203~226쪽.
- 송태미, 「미셸 우엘벡의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난 자아의 해리성 연구」, 『프랑스학연구』 90호, 2019, 67~97쪽.

5) 마우리치오 랏자라토, 『기호와 기계』, 신병현·심성보 역, 갈무리, 2017, 14쪽.

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무엇보다 주체성 생산의 위기로 보는 철학자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이론을 통해 우엘벡 읽기를 시도할 것이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 자본주의 문명은 그에 적합한 주체성 생산에 실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방식의 주체화 양식을 통해 그 붕괴를 유예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2019)과 『어느 섬의 가능성』(2005)을 함께 읽으며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분열증적 주체성의 문제를 재고찰하고자 하며 랏자라또의 이론을 통해 분열증적 주체성과 유예 상태의 사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II. 분열증적 주체성

1. 주체성 생산의 위기

이탈리아 출신 철학자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주체성 이론은 1980년대 미셸 푸코,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가 각자 상이한 경로로 도달한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른 무엇이 아닌 주체성 생산의 위기라는 진단이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랏자라또는 주체성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들뢰즈, 가타리의 공동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대안으로서의 주체화, 이른바 ‘미적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타리의 ‘미적 패러다임’과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을 함께 수용한다. 여기서는 푸코의 담론을 통해 주체성 생산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이해해보기로 하겠다.

60년대와 70년대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비판을 선보이면서 학계와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80년대에 돌연 그는 ‘자기 배려’, ‘자기 문화’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⁶⁾ 고독한 주체의 내면적 수행을 연상시키는 이 개념들은 당시에 전반기 푸코의 연구 맥락에서 벗어나 보였고 “실망스러운 전향”⁷⁾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동료 지식인과 독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푸코가 이야기하는 ‘자기를 배려하는 삶’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내면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푸코의 후반기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푸코 일생의 연구가 일관되게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음이 점차 확인된다. 요컨대 전반기 푸코가 권력과 지식의 상호보완적 메커니즘에 의해 권력에 예측되는 주체, 이른바 ‘근대적 주체화’ 유형을 분석한 것이라면 후반기 푸코는 권력의 주체화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자기 배려’ 개념을 소환한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의 취약점은 그 속성상 자유주의가 구축하는 ‘개인’의 주체성을 해체시킨다는 데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화폐나 금융이 우리 각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을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화폐와 금융은 개인의 직업, 가족 관계, 신념이나 사상, 즉 모든 종류의 ‘인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세계에서 우리 각자는 금융 시스템의 작동에 기여하는 요소, 숫자와 데이터로 환원되는 초개인적 요소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활동, 투자, 부채 상환과 같은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주체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개인을 주체화시키는 데에 최적화된 장치가 된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개별 주체를 해체시키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개별 주체를 시스템 작동의 필수적

6)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81~82』, 심세광 역, 동문선, 2001.

7) Descombes V., “Je m'en foucault”, in *London Review of Books*, vol. 9, n°5, 1987.

인 요소로 취하는 모순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개체로서의 주체가 해체되는 속도만큼 부지런히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체성을 충실히 생산해왔다. 가타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는)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동차 라인을 출시하듯이 새로운 (주체성) 모델을 출시한다.”⁸⁾ 서구 18세기, 19세기 주체성 생산의 방식을 푸코는 ‘규율사회’로 명명하고 이 사회에서 학교, 공장, 정신병원, 감옥 등의 장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생산해왔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오랫동안 학교, 공장, 정신병원, 감옥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국인, 노동자, 서민, 여성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들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러한 규율 사회société disciplinaire는 통제 사회société de contrôle⁹⁾로 이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전에 매우 중요한 주체성 생산의 역할을 수행했던 학교, 공장, 병원, 감옥 등이 해체된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바와 같다. 푸코는 이 장치들이 해체되는 속도로 개인의 주체성 또한 해체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견한다.¹⁰⁾

들뢰즈와 가타리는 푸코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주체성이 생산되는 양식을 ‘사회적 예속subjectivation sociale’과 ‘기계적 종속assujettissement machinique’이라는 두 차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¹¹⁾ 이 설명은 자본주의가 적절한 주체성 생산에 실패하면서도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붕괴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계적 종속’이라고 부른 두 번째 차

8) 펠릭스 가타리, 『분자혁명』, 윤수종 역, 푸른숲, 1989.

9) 푸코는 통제 사회를 뜻하는 다른 말로 ‘생명 관리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10) 미셸 푸코,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 심세광 역, 난장, 2012.

11) 역자는 subjectivation sociale 을 ‘사회적 복종’으로, asservissement machinique을 ‘기계적 예속’으로 번역했으나 본 논의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일으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를 ‘사회적 예속’으로, 후자를 ‘기계적 종속’으로 바꾸어 번역한다.

원인데, 이 부분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은 ‘사회적 예측’의 차원만을 중요하게 고려한 다른 정치비평 이론들과 차별화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랏자라또의 해석을 통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사회적 예측과 기계적 종속

랏자라또는 『기호와 기계』, 『정치실험』, 『부채인간』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통해 주체성 생산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유예시키고 있는가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푸코가 이야기한 21세기 ‘통제사회’에서 이른바 ‘기업가형 주체’를 생산했다. 이 사회에서 각 개인은 1인 기업가가 되어 스스로를 마치 하나의 기업체처럼 개발,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기업가형 주체’ 모델은 완전히 실패한다. 이후 자본주의는 ‘기업가형 주체’를 대체할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서 일부 자본가 주체와 다수 ‘부채 인간’ 사이에서 개인을 포획함으로써 그 붕괴를 유예시키고 있다. 랏자라또는 부채인간으로 전락해가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종속 상태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주체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것은 랏자라또의 작업에서도 그리고 그의 작업을 수용한 우리의 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는 본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¹²⁾

사실 ‘주체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 랑시에르, 바디우, 지젝, 버틀러 등 많은 철학자들이 주체성을 이야기해왔다. 랏자라또가 보기에 이들의 이론들은 “경제”와 “주체성”을 무관한 것

12) 본 논문은 총 두 편의 논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진단’편으로, 두 번째 ‘전망’편이 될 후속 논문과 함께 구상되었다.

으로 볼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근본적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며 제한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체성은 어디까지나 “상부구조”에만 속한 것이며 따라서 철저히 담론적인 차원에서 논해야 할 주제가 되는 반면 랏자라또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체화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두 차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들뢰즈, 가타리가 ‘사회적 예측’과 ‘기계적 종속’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한 주체화의 메커니즘을 수용한 랏자라또는 담론적인 것과 비-담론적인 것이 맺고 있는 역설적 관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주체화의 도식적 모델을 제안한다.

자본주의는 이중의 냉소주의를 눈앞에 가져온다. 첫째, “인간적” 냉소주의는 개체성individuality과 사전에 규정된 역할(노동자, 소비자, 실업자, 남성/여성, 예술가 등)을 우리에게 할당한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은 소외상태를 일종의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둘째, “탈인간적” 냉소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대상, 말과 사물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특정한 배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간다.(랏자라또, 2017)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예측”의 장치들이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종속”의 장치들이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성을 해체시키는데 두 작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체성 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체화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대기계megamachine”¹³⁾를 위해 생산되며 이 “거대기계”의 동력으로 이용된다.

“사회적 예측”의 차원은 언어, 담론을 통해 의미화와 재현의 망을 구

13) 루이스 멍포드는 고대 피라미드를 만든 거대기계의 부품이 10만명의 인간들이었듯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이후 등장하는 거대기계는 핵폭탄, 우주로켓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무수한 인간들은 거대기계의 부품이 되어 자본주의 사회를 작동시킨다 : 루이스 멍포드, 『기계의 신화 I』, 유명기 역, 아카넷, 2013.

성함으로써 “개체화된 주체”, 즉 특정 정체성 - 성, 직업, 민족 등 - 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분업 속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개체화된 주체의 전형은 “기업가형 자아” 모델로서 우리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기업가형 개인으로 주체화된다. ‘자율적으로 사고하라’, ‘스스로 선택하라’, ‘인생을 주도하라’는 자본주의의 명령에 따라 1인 기업가가 된 자아는 모든 실패에 대해 100%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투자금의 원천인 부채에 묶여 있다. 사회적 예측은 인격화된 자본을 생산하며 이들의 기능은 자본의 흐름에서 유래한다. 부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개인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인격 자본’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예측과 나란히 자본주의가 주체성에 작용하는 전혀 다른 포획 과정이 진행되는데 랫자라또는 이것을 “기계적 종속”이라고 부른다. 기계적 종속은 사회적 예측을 통해 주체화된 개인을 탈주체화시킨다. 사회적 예측이 언어, 담론, 재현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기계적 종속은 숫자, 데이터, 다이어그램과 같은 비재현적이고 비기표적인 기호를 동원한다. 기계적 종속에서 개인들은 더 이상 ‘인간’, ‘시민’ 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기업, 금융, 미디어, 복지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하나의 기어, 톱니바퀴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기술적 도구들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하나의 공장을 기계로 볼 수 있다. 거기서 인간과 각종 기술적 기계들은 공장의 구성 요소나 부품이 될 것이다. 공장은 인간과 기술적 기계들의 배치, 물질적인 동시에 기호적인 배치이며 현실적인 동시에 잠재적인 배치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 기관, 미디어, 복지국가 등도 모두 “기계”들로 간주할 수 있다. 100년 전만 해도 기계장치들은 소수였지만 오늘날 기계 장치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전등을 켜다. 나는 전력망을 켜는 촉매가 된다. 만일 우리가 거대한 전력망을 따라 전류를 쫓아간다면, 결국에는 핵 발전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일련의 기계를 작동시킨다(레인지, 냉장고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가사노동을 벗어나게 해준다. 적어도 가사노동의 효율이 좋아진다.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나는 라디오 스위치를 올린다. 라디오는 말과 음성을 “기계적” 변환에 완전히 종속시킨다. 그 결과 소리의 일상적인 시공간 차원이 중단된다. 소리 지각의 중추를 이루는 인간의 감각-운동 도식이 무력화된다. 말, 음성, 소리는 탈영토화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체, 장소, 영토, 상황과의 모든 관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전화를 건다. 이 대화는 어떤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외출한 다음에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다. 현금인출기는 명령을 하달한다(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카드를 받으세요. 돈을 받으세요!). 내가 실수를 하면 기계는 지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카드를 “먹어버린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자동장치, 즉 티켓 발매기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매표소에서 직원들을 아예 치워버렸다. (...) 나는 위성에 연결된 휴대폰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낸다. (...) 슈퍼마켓에서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자동계산기 앞에서 진땀을 흘린다. (...) 이제는 지역도서관에서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대출과 반납”을 처리한다. 인간은 (기계의) 고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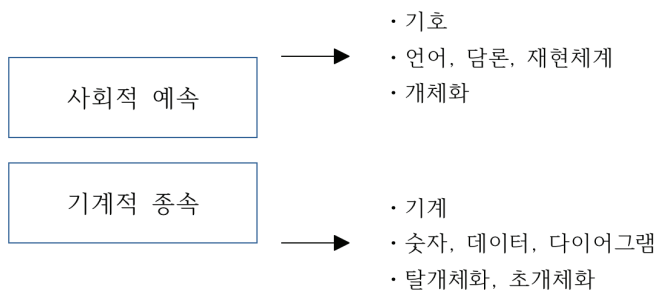
들뢰즈는 “사회적 예측”과 “기계적 종속”의 이중적 권력 장치가 주체성의 형태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개체’와 ‘가분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사회적 예측은 개체들individuals을 생산하고 기계적 종속은 개체들을 가분체dividuals, 즉 ‘분할가능한 것’으로 만든다.¹⁵⁾ 분할가능한 것이 된 대중들masses은 표본, 데이터, 시장, 은행이 된다. 우리는 자주 인간

14) 마우리치오 랫자라토, 같은 책, 131~135쪽.

15)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380~406쪽.

은 주체이며 “기계”의 이용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실제로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 속에 투입되고 산출되는 요소들이며, 연결conjunction이나 이절disjunction의 부품들에 불과하다.

기계의 부품과 같이 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곧바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이러한 인상과는 달리 ‘기계적 종속’의 과정은 중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계적 종속’에서 탈개체화된 개인들은 불행한가? (만약 그랬다면 그러한 기계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인간과 대화해야 했던 일들을 기계와 처리하면서 만족을 느끼곤 한다. 탈개체화는 일종의 자유와 해방감을 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 카페에서 직원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고 기계를 이용한 자동 주문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기계적 종속’에서 탈개체화되어 “자유롭게” 된 인간들은 ‘사회적 예측’을 통해 재인격화됨으로써 이른바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주체로서의 ‘개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직 ‘개인’만이 각종 욕망, 죄책감, 공포, 사적 책임을 느끼고 자본을 투자하고 이러저러한 생산 활동을 감당하며 세금을 지불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대기계”는 기계적 종속으로 탈주체화된 인간을 사회적 예측의 장치로 재주체화하면서 가동된다. 랏자라또는 ‘사회’도 ‘기계’도 모두 기호로 작동한다고 본다. 개체에게 각종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가 언어, 담론, 의미, 재현으로 이루어진 기표적 기호계라면 개체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기계’는 숫자, 데이터, 방정식, 다이어그램이 지배하는 비기표적 기호계가 될 것이다.



요컨대 21세기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로 규정되는 시·공간에 대한 랏자라또의 고찰은 자본주의 “기계”의 탈주체화와 재주체화의 모순적 작용 속에서 개인들이 더 이상 자기와의 안정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분열증적 시대라는 진단이다.

Ⅲ. 분열증적 시대를 그리는 우엘벡의 초상

1. 소설 『세로토닌』의 분열증적 주체들

본 소설은 ‘자발적 실종’¹⁶⁾을 선택한 프랑스 중년 남성 플로랑클로드의 이야기다. 객관적 기준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주인공은 정작 자신은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일과 사랑, 두 영역에서 모두 권태와 환멸만을 느낀다. 일과 사랑은 각각 ‘나’가 세계와 맺는 관계, ‘나’가 타자와 맺는 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때 주인공은 두 관계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것은 주인공의 호르몬 변화로 나타난다. 플로랑클로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문제로 병원을 찾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항우울제 캡토릭스를

16) ‘자발적 실종’이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가족, 친구, 직장과 연을 끊고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에서만 매년 만 이천 명 이상이 자발적 실종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멀리 떠나거나 혹은 같은 도시에서 새 삶을 시도하기도 한다.

복용한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은 한 사람이 세계로부터, 타자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 이른바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세로토닌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결국 자발적 실종을 통해 세계로부터, 타자로부터 사라지기를 선택한 주인공은 충동적으로 청년 시절에 교제했던 친구와 연인들을 찾아간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전체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공하지만¹⁷⁾ 본 논문에서는 주인공 플로랑클로드와 그의 옛 친구 에메릭의 직업활동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농업 전문가 플로랑클로드의 성공 또는 실패

플로랑클로드가 살아온 인생은 젊은 시절 꿈꿨던 이상을 따라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자 자신의 이상을 배반하는 과정이었다. 농업전문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농업대학에 진학한 주인공이 학업을 마치고 취직한 첫 직장은 다국적 생화학 제조업체 몬산토였다. 몬산토는 GMO(유전자변형식품)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 기업의 활동은 농업의 질적 하락에 기여했다.

진실은, 유전자 조작 식물이 장기적으로 끼칠 해악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으나, 내가 보기에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문제는 종자 생산자들과 비료 및 살충제 생산자들이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농업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량 수출 및 헥타르당 최대 수익 창출에 기반을 두는 이 집약적인 농업, 농업과 축산업의 분리와 수출에 전적으로 기반한 이 수출산업화된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적절한 발전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대로 품질을 우선시하고, 향토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17) 소설 『세로토닌』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분석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 : 송태미 (2021)

윤작법과 동물성 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토양과 지하수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¹⁸⁾

내가 이공과대학이나 경영대학 같은 일반적인 학교보다 농업대학을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요컨대 나에겐 이상이 있었고, 다만 그 이상을 배반하는 중이었다.¹⁹⁾

몬산토의 일에 회의를 느낀 플로랑클로드는 자신의 신념에 좀 더 부합하는 일을 찾다가 노르망디 지역 치즈 수출을 돕는 농산부의 프로젝트 위촉직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다. 노동 시장의 기준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고소득이 보장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부 위촉직 농업 전문가’의 존재 목적, 곧 프랑스 농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돕는다는 목표에는 결코 다가갈 수 없었을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명을 전면적으로 배신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는 농산부에 고용되어 있었고, 나의 주요 업무는 대개 유럽 행정부와 종종 더 넓은 범위의 무역협상 테이블의 교섭위원들에게 제시할 보고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농업의 위치를 규정하고 지지하고 소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나는 위촉직이었기에 현행법으로 허용된 공무원 연봉을 훌쩍 넘는,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 나의 보고서는 대체로 널리 인정받았다.²⁰⁾

그의 임무는 글로벌 자유무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프랑스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프랑스 농업의 붕괴는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18) 미셸 우엘베크, 『세로토닌』, 장소미 역, 문학동네, 2020, 126쪽.

19) 같은 책, 126쪽.

20) 같은 책, 32쪽.

프랑스 농업의 위치를 대변하는 임무에서 나는 놀라운 실패만을 연속적으로 맛보았으나, 이 실패는 기실 나의 탓이 아니었다.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은 교섭위원들에게 있었다. (...) 상업을 고등학문으로 다룬다는 자체가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으나, 어쨌든 교섭위원 자리에 상과대학 출신의 젊은이들을 앉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플로랑클로드느 농업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익혔고 농업의 발전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상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 직장을 옮겨보고 업무 방식을 바꿔보았지만 허사였다. 이 상황에 환멸을 느낀 주인공은 자발적 실종 상태에서 대학 시절의 친구 에메릭을 찾아간다. 거기서 농부의 길을 선택한 에메릭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자신이 프랑스 농업을 살리기 위해 수행한 업무들이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 속에서 프랑스 농업의 순조로운 죽음을 돕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2) “기계”에 종속된 주체

에메릭은 농과대학 졸업생 중 거의 유일하게 농부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 노르망디 지역에서 양질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 판매한다. 그러나 값싼 수입 우유가 쏟아져들어오는 시장에서 에메릭의 사업은 적자만 낼 뿐이다.

“(...) 난 유기농식품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해. 게다가 되도록 옥수수 사용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지. 소는 원칙적으로 풀을 먹거든. 사료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걸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 여긴 산업적인 축사가 아니야. 너도 봤겠지만 소들은 충분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매일 산책을 해. 심지어 겨울에도. 하지만 모든 걸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곤경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구나.”²¹⁾

파산의 위기 속에서 급기야 에메릭과 노르망디 인근 농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한다. 플로랑클로드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가 바로 이 농부들과의 협상이었고 협상은 언제나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했고 막을 의지도 없었음을 상기했다.

에메릭한테는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목축업자들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어보였다. 유럽연합에서 우유 쿼터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였다. 결국 이 결정은 수천 명의 프랑스 목축업자들을 가난과 파산으로 몰아넣을 터였다. (...) 2002년부터 유럽연합에 새로 온 10개국에 합류했고, 아테네 조약 이후 프랑스는 확연한 소수의 처지가 되어 규제 완화가 점차 불가피해졌다. (...) 내가 농부들에게 호의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엄연히 프랑스 정부의 편이었고 그들과 나는 더는 같은 진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²⁾

앞서 살펴본 분열증적 주체화 양식을 상기해보자. 플로랑클로드와 에메릭은 ‘사회적 예측’의 차원에서 각각 ‘농업 전문가’와 ‘농부(우유 생산자)’로 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농업의 활성화와 질 좋은 우유의 생산을 위해 젊음을 바쳐 일했다. 그러나 ‘기계적 종속’의 차원에서 이들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장이라는 “거대기계”의 부품으로 기능한다. 대량 생산되는 GMO 식품이 수입되는 시장에서 플로랑클로드는 프랑스 지역 농업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비율로 축소되는 것이 피해를 줄이면서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계산기라면 에메릭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 폐기되어야 할 부품인 것이다. 플로랑클로드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다.

21) 같은 책, 176쪽.

22) 같은 책, 177쪽.

“가끔씩 공장들이 문을 닫잖아. 생산제품 단위로 해외로 이전되기도 하고. 가령 그 때문에 노동자 칠십 명이 해고됐다고 치자. BFM에 온종일 보도 되고 피켓을 들고 파업도 하고 타이어도 붙태우겠지. 그 지역 정치인 한 두 명이 코빼기를 내밀기도 할거야. 어쨌든 시각적으로도 강렬한데다, 주제도 시사적이고 흥미로우니까. 철강이든 속옷이든, 다 마찬가지야. 눈길을 끌 화면을 뽑아낼 수 있어. 농업도 마찬가지지. 매년 농부들 수백 명이 농장 문을 닫잖아.”²³⁾

공장 폐업 또는 이전, 이후에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시위, 미디어를 통해 진행되는 시사 토론, 정치적 효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상과는 달리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라 정상작동의 과정이다. ‘기계’는 일정 데이터 입력값에 따라 작동하고 일정 데이터를 출력할 뿐이다. 개인은 이 데이터 속에서 가분체dividual 숫자가 된다.

“지난 오십 년 이래로 프랑스에서 농부들 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거야. 아마 유럽 표준(...)에 이르려면 아직 반이나 삼분의 일로 줄어야 할걸. (...) 말하자면 작금의 프랑스 농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어. (...) 그러니까 일단 유럽 표준에 도달해도, 승리한 게 아니야. 완전히 실패를 목전에 둔 거나 마찬가지야. 그땐 정말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될 테고, 전 세계 농수산물 전쟁에서 우린 절대 이기지 못할 테니까.”²⁴⁾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 『세로토닌』의 두 인물 플로랑클로드와 에메릭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왜 분열증적 주체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가를 간략하게 논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주체성의 위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고 이러

23) 같은 책, 287쪽~288쪽.

24) 같은 책, 288쪽~289쪽.

한 조건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나는 미래 인류의 분열증적 주체성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제도나 환경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한 문제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주체성의 문제가 되는가를 논할 것이다.

2. 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의 분열증적 주체들

소설 『어느 섬의 가능성』은 41세기를 사는 어느 미래 인간의 독서와 논평의 과정에 독자를 초대한다. 미래 인간은 21세기 인간의 자서전을 읽으며 논평을 하는데 이 논평에는 자서전의 내용에 나타난 선조 인류의 미개한 삶에 관한 사색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기록된다. 독자는 논평에서 41세기 미래인 서술자들 - 다니엘 24, 25 - 을 만나고 이들이 읽는 자서전, 즉 책 속의 책에서 독자와 동시대를 사는 21세기 서술자 - 다니엘 - 를 만난다. 현 인류 다니엘의 자서전에 기록된 21세기 서구 사회는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들이 기능하지 않는 가운데 점점 더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묘사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늙어가는 육체, 죽어가는 육체는 철저히 거부된다. 세계로부터, 타자로부터 소외된 고독한 삶 속에서 괴로워하던 다니엘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다니엘이 남긴 자서전을 읽는 41세기 신인류 다니엘 24, 25는 모든 면에서 21세기 인간 조건의 결함이 해결되고 극복된 조건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세기 신인류 다니엘 24, 25 역시 고독한 삶 속에서 괴로워한다. 결국 다니엘 25는 그 안전한 사회를 이탈하여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야생으로 떠난다.

1) 신인류라는 거대기계

서문에서 이야기한대로 우엘벡이 상상한 미래 사회는 굶주림도, 질병

도, 전쟁도, 범죄도, 폭력도 존재하지 않고 빈부격차, 신분위계, 노동, 경쟁도 없으며 독서와 글쓰기로 하루를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있는 세계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늙지 않는 청년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22세기 경 핵전쟁과 기후변화가 겹치면서 인류는 종말을 맞는다. 피폭된 자연 속에서 유일하게 복제인간들이 살아남았고 이때부터 클론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조성된다. 방사능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거대한 보호 구역에서 클론들이 생산된다. 클론들은 21세기 경 확보한 인간 유전자의 복제를 통해 생산된다. 클론들은 건장한 청년의 몸으로 태어나 각자 할당된 처소에서 일정 기간을 사는데 이들의 육체 기능이 퇴행하기 전에 동일한 유전자로 복제된 새로운 육체가 도착한다. 이전 클론은 환수되어 폐기된다. 복제된 육체로 생산된 클론이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의식 생산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는 ‘지고한 누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클론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미개한 과거와 구별된 존재로, 진보할 미래를 향해가는 중간 단계의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클론이 선조 인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뇌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만든다. 또한 클론 자신의 논평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클론의 기억이 계속해서 역사로 축적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새 클론은 원본 인간과 기존 클론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 기억장치에 자신의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 기억 보존은 거의 아무런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클론들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중요시되는 활동이다. 클론이 기록한 모든 논평은 중앙 데이터 장치에 저장된다.

우엘벡의 유토피아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연상시키는 기계 장치를 발견한다. 클론은 이 “거대기계”의 중요한 부품이자 동력처럼 존재한다. 소모성 부품 클론은 주기적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된다. 상품처럼 생산되고 폐기되며 그 사이 거대기계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클론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거대기계에게 종속된 탈개체화된 존재, ‘비인간’이다. 이 거대기계를 조작하는 지도부의 존재는 나

타나 있지 않다. 지도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거대기계가 자기조직력을 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론 인간들이 최소한의 삶의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만약 클론 인간이 존재하기를 포기하면 유전자의 재생산이 중단되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이 거대기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 작품에서 ‘신인류의 사회’라고 불리는 이 기계 장치는 무려 2000년 이상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클론의 삶의 의지는 독서와 글쓰기, 정신성을 추구하는 기도로 구성된 신인류의 삶의 양식과 무관하지 않다.

2) 기계적 종속과 사회적 예속

클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인간 육체와 정신이다. 육체의 생산은 21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자아의 형성, 즉 자의식의 생산이다. 신인류 사회는 자의식 생산의 문제를 선조인간의 기억 장치에 재부팅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피에르스의 제 1 법칙은 개성을 기억과 동일시한다. 개성 속에는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에르스의 제 2 법칙에 따라, 인지적 기억은 언어를 적합한 매체로 한다. 피에르스의 제 2 법칙은 우회적이지 않은 언어의 조건들을 정의한다. [...]피에르스가 한 작업들의 결과로 [...]신기하게도 예전에 <자서전>이라 불렀던 것과 아주 유사한 한 낡은 형식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²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서전 독서와 논평은 클론이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실천이 된다.

선조인류의 자서전을 독서하고 논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클론 인간

25) M. Houellebecq, *Op. cit.*, p.30.

의 자의식은 21세기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다니엘 1은 내 안에서 다시 살고, 그의 몸은 나를 통해 다시 현현된다. 그의 생각들이 내 생각들이며 그의 기억들 또한 내 기억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삶은 - 나는 이것을 자주 생각한다 - 그가 꿈꿨을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²⁶⁾

선조인류의 기억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자의식을 획득한다고 할 때 또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독서와 논평을 하며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일 것이다. 신인류 사회는 <지고한 누이>라는 일종의 종교를 통해 클론 인간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클론 인간들은 <지고한 누이>의 가르침을 따라 ‘완전한 정신성’을 가진 미래인의 도래를 준비하며 기다린다.

내 고행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안다. 미래인의 도래에 내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²⁷⁾

<지고한 누이>는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 그 격렬한 감정적 동요를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운 ‘해탈’을 지향한다.

지고한 누이에 따르면 질투, 욕망, 번식욕은 존재의 고통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 (...) 한 마디로 우리는 무관심의 자유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만이 완전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 신인류의 사회가 하나의 거대기계로서 한편으로는 기계적 종속을 통해 클론들을 탈개체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예측을 통해 탈개체화된 클론들을 다시 개체화하고 있으며 이 상보적

26) M. Houellebecq, *ibid.*, p.383.

27) *Ibid.*, p.157.

인 두 작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클론들이 주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서와 글쓰기, 기도와 묵상이라는 신인류의 삶의 양식을 언어, 담론, 의미, 재현으로 이루어진 기표적 기호계에만 속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실천들은 기계적 차원, 곧 비기표적 기호계에서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거대기계라고 부른 신인류 사회가 21세기 현대 사회의 주체화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3) 인류라는 거대기계

신인류의 논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신인류 사회를 거대기계와 같이 느끼거나 그들 자신을 거대기계의 부품처럼 느끼지 않는다. 시공간적인 외부의 낯선 시선으로 보면 그 거대기계의 작동 원리가 자명한데도 말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낯선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도 그러한 거대기계로 보일 수 있고 우리는 때로 아주 기꺼이 또는 권태로움을 느끼며 이 거대기계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엘벡이 상상한 미래 인류는 우리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신인류는 거울상처럼 모든 면에서 인류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임신, 출산, 양육으로 전개되는 현 인류의 삶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정신과 의식의 재생산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반면 현 인류의 고민은 노화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연약한 육체이며 언제나 관건은 육체의 재생산이다. 인류의 생식 행위는 ‘사랑’이라는 가치와 결합하여 ‘연애’가 된다.

신인류의 경우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육체는 언제든지 손쉽게 재생산된다. 이 사회의 관건은 정신, 의식, 자아의 재생산이다. 기억의 저장은 ‘도래할 정신성’의 가치와 결합하면서 ‘논평’ 행위가 된다. 요컨대 신인류 사회에서 ‘논평’이 담당하는 기능은 인류의 사회에서 ‘연애’가

담당하는 기능에 상응한다.

IV. 나오며

다음은 소설 『세로토닌』에 나오는 노르망디의 한 양계장에 대한 묘사다.

천장에 높이 매달린 조도 높은 할로겐등들이 축사를 환히 밝혔고, 그 속에서 서로의 몸이 닿도록 뻣뻣하게 들어찬 닭 수천 마리가 살아남으려 우글거렸다. (...) 털이 빠지고 야위고 붉은 진드기로 인해 피부가 상한 닭들이 썩어가는 동료의 시체들 속에서 짧은 생 - 길어야 일년 - 의 매 순간을 공포에 질린 채 연신 꼬꼬댁거렸다. (...) 양계장에 발을 들이면 우선 그 끊임없이 들려오는 꼬꼬댁 소리에 충격을 받고, 이어서 일상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는 닭들의 눈빛에 충격을 받는다. 공포에 사로잡힌 이해불가의 시선, 어떤 동정도 요구하지 않고, 그럴 능력조차 없으며 단지 영문을 몰라 하는 시선, 자기들에게 부과된 생존 조건에 영문을 몰라 하는 시선이었다. 산란에 쓸모없는 수컷 병아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놈들은 산 채로 한 움큼씩 분쇄기에 버려졌다. 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²⁸⁾

이것은 주인공 플로랑클로드의 연인이자 장차 수의사가 되어 양계장에 수의사로 취업할 수도 있는 카미유가 처음으로 양계장의 현실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카미유는 묻는다. 공중보건을 감독하는 수의사들은 어떻게 저런 양계장을 보고만 있는가? 어떻게 저런 공장이 가동되도록 내버려두고, 심지어 그 가동에 협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플로랑클로드가 농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사는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을 질문이며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다수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양계장의 동물학대도, 동물을 보호해야 할 수의사가 학대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28) 미셸 우엘벡, 같은 책, 2020, 196쪽.

이것이 수의사라는 직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랫자라또는 양계 산업이라는 ‘기계’ 속에서 누군가는 동물을 보호하는 수의사의 역할로 주체화되면서 동시에 동물학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는 기계 속의 수의사 부품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우리들 각각이 양계장의 닭 한 마리처럼 우리에게 부과된 생존 조건에 영문을 몰라 하며 공포에 질린 채 달걀을 생산하는 부품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랫자라또의 주체성 이론을 통해 우엘벡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분열증적 주체성을 고찰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분열증적 주체화의 시대에 왜곡된 주체화 양식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푸코, 들뢰즈, 가타리와 랫자라또가 새로운 주체성의 실험으로 제안한 ‘자기 배려’, ‘미적 패러다임’ 개념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송태미, 「‘파상력’ 개념을 통해 본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 『프랑스어문교육』 72,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1, 203~226쪽.
- 송태미, 「미셸 우엘벡의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난 자아의 해리성 연구」, 『프랑스학연구』 90호, 프랑스학회, 2019, 67~97쪽.
- 이수진, 「프랑스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과 문학적 재현 - 미셸 웰벡의 『어느 섬의 가능성』과 사색」, 『불어불문학연구』 93호, 한국불어불문학회, 215~239쪽, 2019.
- 가타리 F., 『분자혁명』, 윤수중 역, 푸른숲, 1989.
- 들뢰즈 G. · 가타리 F., 『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 랏자라또 M., 『기호와 기계』, 신병현 · 심성보 역, 갈무리, 2017.
- _____, 『정치 실험』, 주형일 역, 갈무리, 2018.
- _____, 『부채 인간』, 양진성 역, 메디치미디어, 2012.
- 멈퍼드 L., 유명기 역, 『기계의 신화 1』, 아카넷, 2013.
- 푸코 M.,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12.
- _____,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 심세광 역, 난장, 2012.
- _____, 『주체의 해석학: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81~82』, 심세광 역, 동문선, 2001.
- 하라리 Y., 『호모데우스』,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 Campbell, F., « Houellebecq à l'encontre ou au centre de l'utopie ? Une analyse de l'ambivalence utopique dans La Possibilité d'une île », ReS Futurae [En ligne], 8 | 2016, mis en ligne le 28 décembre 2016, consulté le 20 septembre 2021. URL : <http://journals.openedition.org/resf/896> ; DOI : 10.4000/resf.896
- Houellebecq M., *Les particules élémentaires*, j'ai lu, 1997.
- Houellebecq M., *La possibilité d'une île*, j'ai lu, 2005.
- Houellebecq M., *Soumission*, Flammarion, 2015.
- Houellebecq M., *Sérotonine*, Flammarion, 2019.
- Noguez, D., *Houellebecq, en fait*, Paris : Fayard, 2003.
- Sweeney, C., *Michel Houellebecq and the Literature of Despair*, London:

Bloomsbury.

Viard B., *L'Unité de l'œuvre de Michel Houellebecq*, Garnier.

Vieira F., « The Concept of Utopia », in Claeys Gregory (dir.),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3~27.

분석 대상 작품

Houellebecq M., *Sérotonine*, Flammarion, 2019.

_____, *La possibilité d'une île*, j'ai lu, 2005.

미셸 우엘벥, 『세로토닌』, 장소미 역, 문학동네, 2020.

_____, 『어느 섬의 가능성』, 이상해 역, 열린책들, 2007.

Subjectivity of the Current Schizophrenic Age(1): with the Characters of Michel Houellebecq

SONG, Tae-mi

The characters in Houellebecq commonly face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confirm their identity in relation to the world and in relation to others.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identify oneself in relation to the world and others refers to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oneself, which leads to a so-called crisis of subjectivity. As is well known, a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require an appropriate subjectivity, and such conditions can be recognized through this subjectivity. If the production of proper subjectivity fails, any society cannot be maintained. In our view, the time and space captured by Houellebecq is always the point where the means or foundation of subjectification has disappeared. This study attempted to read Houellebecq's novels *Sérotonine* (2019) and *La possibilité d'une île* (2005) together through Maurizio Lazzarato's critical theory, which viewed the crisis of the current civilization as the crisis of subjectivity production above all else. According to Lazzarato, the current capitalist civilization fails to produce an appropriate subjectivity, but nevertheless, it is subjectifying individuals through a distorted two-dimensional complementary action of social subjection and machinic enslavement and suspending the collapse of capitalist civilization. The characters of Houellebecq excellently show this aspect of schizophrenic subjectification.

Keywords : Michel Houellebecq, *Sérotonine*, *La possibilité d'une île*, Maurizio Lazzarato,
Social subjection, Machinic enslavement, Schizophrenic subjectivity,
Capitalism, Megamachine

투고일: 2021. 12. 10./ 심사일: 2021. 12. 16./ 심사완료일: 2021. 12. 17.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의 주체

—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을 중심으로

윤예영*

【 차 례 】

- I. 서론
- II. 구술 설화를 매개하는 문헌 설화
- III. 문헌 설화를 매개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 1. 네트워크의 항목들 - 노드와 링크
 - 2. 화자의 네트워크
 - 3. 설화의 네트워크
- IV.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재개념화
- V. 결론

국문초록

구비문학의 주체는 누구인가? 구비문학에서 작가는 가능한가? 이 논문은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의 전라북도 편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술 설화의 문헌화가 토대로 하고 있던 설화의 주체 문제와 이 주체가 기반한 윤리적 토대, 인식론적 토대를 반성하고 구술 문학을 재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하나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전집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사전 단계로 필요한지 모색하는 가운데 설화 연구에서 양적 연구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검토한다.

구비문학의 자료집은 일차적으로는 화자가 구술한 것을 조사자, 채록자, 편찬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여 문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는 음성 자료의 디지털화가 자유로워지면서 기술성의 재매개를 거치지 않은 구술 자료들을 직접 접할 수도 있으나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는 그렇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화 채록을 위해 현

* 충북대학교, 강사, yatanabe@hanmail.net

지 조사와 테이프를 이용한 녹음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채록된 자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문자 매체만으로 쓰인 설화집이다.

전집의 이러한 자료적 특수성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기 위해 먼저 구술 설화를 매개한 기술 설화에서는 전집의 체재를 구성하는 항목과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이용하여 설화와 화자의 세계를 어떻게 계량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문헌 설화를 매개하는 네트워크 시각화에서는 문헌화한 설화를 네트워크 시각화라는 새로운 매체로 재매개할 때 무엇을 그 단위로 설정할 것인지 주로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술 설화가 재매개되는 각 단계에서 소거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쓰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구비문학을 어떻게 재개념화할지 질문한다.

열쇠어 :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구비문학, 네트워크, 구술성, 기술성, 시각화, 재매개, 작가

I. 서론

본고는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이하 전집)의 전라북도 편을 대상으로 설화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개념이 구술 문학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구술 문학을 문자로 읽을 때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설화 지형도를 새롭게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구술 설화의 기록 방식이 토대로 하고 있던 설화의 주체 문제와 이 주체가 기반한 윤리적 토대¹⁾와 인식 론적 토대²⁾를 반성하고, 구술 문학을 재개념화는 데 목적이 있다.

이야기판에서 특정 화자가 다른 화자에 비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민중 속에 묻혀 있던 탁월한 이야기꾼의 존재를 드

1) 김영희, 「‘구비문학’ 현지조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상호주체적 만남’을 위한 모색」, 고전문학연구 제58집, 187~230쪽.

2) 클리퍼드 기어즈,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김병화 역, 문학동네, 2014, 169쪽.

러내는 사례인가? 구술 문학의 집단전승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인가? 이는 설화를 어떤 관점에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답할 수 있다. 연행론의 관점에서 보면 설화는 연행자에 의해 매번 새롭게 쓰이는 텍스트이며, 연행자는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연행자가 구술한 레퍼토리에서 형식이나 내용상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 공통점으로부터 연행자의 구술 능력이나 전수 지식, 구술 스타일 등을 발견하여 개별 화자의 개성이나 정체성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³⁾ 반면 구술 문학을 구비문학(口碑文學), 즉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문학’으로 정의한다면, 문학 작품의 생산 주체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익명의 집단이며, 화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⁴⁾

한편 사회학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하는가는 충분히 문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화자가 집단의 중심에 있는가 주변에 있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 이들 사이의 연결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답하고자 할 것이다.⁵⁾ 이처럼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비로소 문제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관점이 서 있던 토대를 드러낼 수도 있다. 문학 연구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문학 외부의 관점을 도입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트워크는 링크(link)와 노드(node)로 이루어진 연결망이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작가와 독자라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로 이루어진 선형적인 모델에 바탕을 둔 반면, 구술 문학에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

3) 연행물의 현장성을 문학성으로 해석하는 담론은 구비문학 연구사에서 특정 시기에 형성된 담론으로, 80년대 연행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텍스트의 연행성(현장성)과 문학성은 상반된 요소로 인식되기도 했다.

김정경, 「기호, 담론 그리고 구비문학 - 구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8권, 한국기호학회, 2014, 135~138쪽.

4)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2~3쪽.

5) 매슈 O. 잭슨, 『휴먼 네트워크』, 박선진 역, 바다출판사, 2021, 27~75쪽.

리가 있다. 구비문학의 집단 전승 개념은 복수의 발화 주체와 그로 인한 서사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설화의 전달과 전파, 집단성의 문제는 구술 문학을 기술 문학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3의 관점,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⁶⁾

문제는 문학은 구술된 것이든 기술된 것이든 양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즉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질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반면 네트워크 이론은 기본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대상을 다룬다. 문학이 곧 데이터는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구술 문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낱것으로서의 구술 자료를 일차적으로 전처리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즉 이미 한 단계 코드화된 텍스트라는 것이다.⁷⁾ 구술 문학 개념의 이러한 특수성은 구술 문학을 네트워크로 번역하기에 기술 문학보다 적합한 면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으로 구술 문학을 연구한 심우장의 연구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의 14,849편의 설화를 키워드, 지역, 유형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한국설화의 연구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연구이자 거의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계의 일차 텍스트인 화자와 설화 본문을 노드나 링크로 삼지 않고, 설화의 부텍스트(paratext)인 제목, 유형의 네트워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⁸⁾

6) 네트워크의 개념은 사실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데이터 과학, 소셜미디어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선과 점으로 구성된 연결망이라는 단순한 정의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네트워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데이터 과학으로서의 네트워크 이론은 매우 다르다. 이런 가운데 네트워크의 개념은 서로 연결된 요소(매듭)으로 이루어지는 그물, 조직의 메커니즘으로 모델화되는 수학적 그래프,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Vernetzung) 모두를 가리키는 등 다소 복합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코 모레티,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21, 309~311쪽.

7) 김성재, 「테크노코드와 커뮤니케이션 혁명 - 빌렘 플루서의 기술적 형상과 커뮤니컬로기」, 『현대 기술 ·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이광석 외, 그린비, 2016, 111쪽.

대계와 함께 한국 설화의 대표적인 자료집으로 이용되는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이하 전집)는 평안북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191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구전 설화를, 총 8년에 걸쳐 (1986년~1993년) 12권으로 출간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이다. 또한 구술 문학이 국문학의 하위 분과로서 편제되기 이전, 인류학과 민속학으로서의 구술 문학의 존재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임석재가 설화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부여한 ‘화자 정보’와 ‘책머리에’ 등의 부텍스트, 설화 배열의 방식, 유형 분류 등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데, 대계의 조사자, 채록자, 편자와 비교할 때 임석재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⁹⁾ 네트워크 개념과 시각화는 전집의 이와 같은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기에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비문학은 집단이 아닌 개별 화자나 작가를 구비문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술 설화를 조사, 채록, 문헌화 하는 주체는 집단의 목소리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옮기는 역할에 그칠 뿐 주체로서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최근 구비문학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8) 한편 이 연구가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키워드가 설화의 키워드가 아닌 설화 제목의 키워드이며, 설화의 유형 역시 연구자들이 구술과 채록 이후에 추가로 덧붙인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의 제목과 유형은 설화의 구술 주체인 화자 연행한 제목이 아니라 조사자, 채록자, 편찬자가 사후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일종의 부텍스트이다. 특히 제목의 경우 설화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설화를 듣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다시 쓴 주체의 인지적 과정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제목’을 붙이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성들이 침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링크 수 최상위에 있는 키워드(전체의 0.5%)만을 가지고 분석했기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편향성과 경향성이 누구의 것인지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심우장·김영원·황치욱, 「한국설화의 네트워크 지형 연구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37집, 2013, 73~105쪽.

9) 윤예영,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의 젠더와 매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1, 345~388쪽.

구비문학의 주체는 누구인가, 구비문학의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이다.¹⁰⁾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에서의 ‘입에서 입’, 즉 대상으로서의 주체에서, 이들을 호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로 논점을 옮겨보고자 한다. 네트워크의 개념이 구술 문학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가능한지 살펴보고, 호명된 대상으로서의 구비문학이 아니라, 이를 호명하는 주체인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주체화되는가 탐구하고자 한다.

II. 구술 설화를 매개하는 문헌 설화

전집은 구전설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헌화의 과정을 거친 설화를 전하고 있다. 화자의 입말을 청자가 단순히 채록, 즉 문자로 옮기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문자 매체와 인쇄 매체의 리터러시가 적극 개입한다. 따라서 전집의 체제는 작가가 구술성을 문자 매체와 인쇄 매체의 리터러시로 재매개한 결과이다. 즉 채록과 문헌화의 과정에서 구술 연행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낱것의 구체성이 증발하고 계량화될 수 있는 항목과 규격이 탄생한다.

즉 구술성을 기술성으로 재매개¹¹⁾한 결과가 바로 문헌 설화로서의 전집이며, 구술된 것을 작가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매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산 언어의 관점에서 자연언어는 낱것이지만, 우리가 다루는 문학 텍스트 역시 이미 코드화된 언어이다. 따라서 작가가 구술된 것을

10) 오세정, 「민속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향」,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103~133쪽.

김정경,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구비문학의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30, 실천민속학회, 2017, 73~96쪽.

송효섭, 『국문학과 탈형이상 : 언어학적 전화를 넘어서』, 태학사, 2018, 102~148쪽.

11)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역,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76~107쪽.

어떻게 기술했는지 기술성의 코드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설화의 세계를 네트워크로 번역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이다.

다음은 전집 본문에서 한 편의 설화를 제시하는 예이다.¹²⁾

고수레

옛날에 고씨네가 득세히각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괴롭혔ندی 이 사람한티 밥이며 먹을 것을 갖다 바치면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고시레란 말은 고씨네를 달랜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 1969년 8월 10일 茂朱郡 茂豐面 縣內里 河八元(50세, 男)

전집의 독자는 이야기의 제목으로부터 한 편의 설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고, 주석과 화자 정보가 나오면 한 편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화자 정보는 한 편의 설화를 다른 설화와 구별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를 개별 설화에 부속된 하위 항목으로 만든다. 설화의 하위 항목으로서의 화자는 다시 채록 시간, 장소, 화자 이름, 나이, 성별 등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화자 정보의 기술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¹³⁾

이처럼 작가는 설화를 채록하고 문헌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상을 항목화하고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는 작가가 설정한 항목과 그에 따른 분류로 이루어진 체계를 통해 설화를 접한다. 전집의 체제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제목, 화자 정보, 사투리의 뜻을 해설하는 주석이 개별 설화를 구별하는 시각적 요소이다.¹⁴⁾

12) 임석재 편,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7(전라북도 편·1), 평민사, 1990, 139쪽.
제목은 본문과 구별되는 진한 글씨와 큰 활자로 되어 있으며, 화자 정보는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의 요소는 같은 <고수레>라는 제목, 다른 내용, 다른 화자의 설화와 이 설화를 시각적으로 구별해주며, 이 설화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13) 윤예영, 같은 책, 351쪽.

각 항목을 부호화하면 작가가 구술성의 세계에 부여한 질서가 어떠한 형태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⁵⁾ 화자와 설화는 대등한 항목으로 기술되고 있지 않으며, 설화와 설화, 화자와 화자, 대등한 항목끼리는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이어진다. 이처럼 각 항목을 부호화하면, 전집의 작가가 구성요소들 사이에 부여한 질서, 계층적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보이

- 14) 전집의 체제는 ‘권 제목 - <책 머리에> - (지도) - 차례 - 설화 본문’의 고정 형식을 취하고, 개별 설화는 ‘제목 - 본문 - 화자 정보 - (각주)’ 형식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설화로 구별된다.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같은 책, 1~19쪽.

윌터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179~208쪽.

- 15) 설화를 상위 항목으로, 화자를 하위 항목으로 설정한다면 왼쪽 표처럼, 반대로 하며 오른쪽 표처럼 그려질 것이다. 만일 전집 전체의 각 항목을 숫자나 문자 부호에서 더 점과 선으로 더 단순화한다면 일종의 목록, 수형도가 될 것이다.

<7-176>	A
A	<7-176>
B	<7-188>
C	<7-223>
	<7-232>
<7-188>	B
A	<7-176>
B	<7-188>
D	
C	C
E	<7-176>
	<7-188>
<7-223>	D
A	<7-188>
F	
<7-232>	E
A	<7-188>
F	
G	F
	<7-223>
	G
	<7-232>

[표 1]

며, 이것도 일종의 시각화이다.

전집의 작가가 구술 설화를 문헌화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 이야기만 구술한 화자든 다수의 이야기를 구술한 화자든, 여러 사람이 구술한 설화든 한 사람이 단독으로 구술한 설화든 항목 사이의 질적인 차이가 사라진다. 개인 화자의 발화권의 차이, 독창성,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은 사라지고 양적인 차이로만 환원된다. 한 편의 설화에 여러 명의 화자 정보를 첨부함으로써 해당 설화가 다른 설화에 비해 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술되고, 그만큼 널리 퍼진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작가의 쓰기는 개별 화자를 특정 지역 설화 집단의 익명의 구성원으로 환원하고, 개별 설화 역시 집단 전승된 이야기의 표본으로 균질화한다. 다시 말해 구술 설화를 채록하고 편찬하는 발화주체, 즉 작가의 쓰기는 개별 화자와 개별 설화의 독특성과 일회성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환원한다. 즉 쓰기는 이미 일차적인 데이터 전처리이자 유형화이다. 전집은 구체적인 연행 맥락, 구체적이고 독특한 연행이 쓰기를 통해 항목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번역하기에 더 적합한 구술 성과 자료집이다.

Ⅲ. 문헌 설화를 매개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개별 화자는 작가의 쓰기로 특정 지역 설화 네트워크의 익명의 구성원으로 환원되고, 개별 설화 역시 집단 전승된 이야기의 표본으로 균질화된다. 이처럼 이야기 세계의 구성 성분이 실질이 없는 형식으로 규격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를 계량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석재 전집 7·8권 전라북도 편에는 총 701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 이를 구술한 화자는 148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자 ‘서치영’은 전라북도 편 전체에서 121회 등장한다. 총 74회

기록된 화자 ‘이 씨’(이 중 13회는 다른 화자와 공동 구술, 64회는 단독)가 그 다음으로 구술 편수가 많고, 전라북도 편 전체 설화 중 절반 이상이 십여 명에 의해 구술되었다. 반면 148명의 화자 중 나머지 136명(1회 106명, 2회 30명)은 한 편 혹은 두 편의 이야기의 화자로 기록되었다.

또한 항목 간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산술적 정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700여 편의 설화를 148명의 화자가 구술했다면, 1인당 평균 5~6편의 설화를 구술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화자별 구술 편수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전집의 다른 지역, 더 나아가 다른 시기나 다른 자료집과 비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편 다음으로 채록 편수가 많은 충청북도 편에는 총 341편의 설화가 실려 있으며, 화자 수는 167명이다. 전라북도 편과 비교할 때 화자 수는 더 많지만 채록 편수는 절반 정도이다. 따라서 더 다양한 제보자로부터 설화를 채록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편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구술한 화자 박태희는 총 22편의 설화를 구술했고, 그 다음으로 많은 편수를 구술한 화자 이석하는 총 11편을 구술했다.¹⁶⁾

비중으로만 본다면 전라북도에서 서치영 화자가 전체에서 1/7(약 15%)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에서는 341편 중 22편의 설화로 10%에 못 치는 비중을 차지한다. 충북 편에서 2편 이상의 설화를 구술

16) 박태희 - 6권, <당률>, 199쪽, <송구봉의 이율곡 아우평>, 254쪽, <김복선과 이율곡>, 271쪽, <김복선>, 273쪽, <꼬부랑 할머니>, 296쪽, <원숭이와 게>, 297쪽, <해와 달이 된 남매>, 298쪽, <괴사>, 320쪽, <메추라기의 꿈>, 322쪽, <수달과 호랑이와 토끼>, 327쪽, <빌린 복으로 잘산다>, 333쪽, <자귀하다>, 365쪽, <지아>, 378쪽, <상머느라>, 379쪽, <진정한 친구>, 400쪽, <효부에게 내린 하늘의 복>, 420쪽, <효자 노릇 할래도>, 433쪽, <메기의 꿈>, 436쪽,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다>, 439쪽, <사나운 처자>, 440쪽, <목천 군수>, 445쪽, <불이 내려는데>, 470쪽, <내 병 다 나았다>, 473쪽. 이석하 - 6권, <달래보지고개>, 220쪽, <장장군 묘>, 240쪽,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241쪽, <담대한 해미 영장 장지영>, 259쪽, <이토정>, 261쪽, <임경업>, 265쪽, <김복선>, 272쪽, <박문수 어사의 여러가지 사적>, 275쪽, <백정이 양반 되다>, 391쪽, <명당자리>, 398쪽, <김선달의 간지>, 460쪽.

한 화자만 꼽아보면 모두 54명으로 약 30%에 불과한 반면, 전라북도 편은 10편 이상 구술한 화자 13명이 50% 이상의 설화를 구술했다. 이처럼 항목과 항목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따라 데이터 변동의 추이나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설화를 항목화한다는 것은 설화를 규격화한다는 것이며, 규격이 생긴 후에야 설화를 정렬하거나, 설화의 구성 항목을 재정렬 할 수 있다. 항목화 했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하고, 규격을 재정렬하거나, 단위와 단위를 연결지을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화자가 누구인지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항목화, 계량화, 시각화의 각 단계를 기존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이러한 변환을 통해 기존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거나, 기존의 언어장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량화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여러 번 다른 장소에서 구술되었는지 단순히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그런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화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구술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표¹⁷⁾나 그래프¹⁸⁾([표 2와 [표 3])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각화로서의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1. 네트워크의 항목들 - 노드와 링크

구술 설화의 채록(문헌화)는 이미 구술성을 기술성으로 재매개한 결과이다. 전집은 이미 구술 설화를 등가적인 단위로 항목화하고 각 항목들 사이에 체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술성을 기술했다. 기술성의 항목들은 단순히 계량될 수도 있지만, 항목과 항목의 관계에서 일정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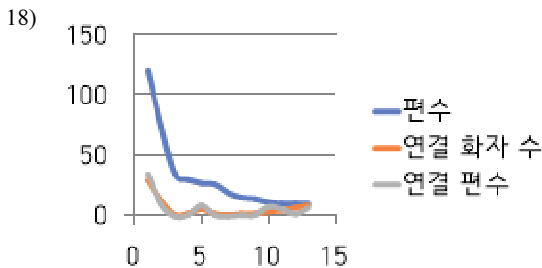
추이 등을 발견한다면,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도표, 그래프(<표 2>, <표 3>) 역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물로써, 구술성을 재매개한 기술성을 다시 그래프와 표로 재매개한 것이다.

네트워크 역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이라는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환원한 뒤, 시각적으로 재매개한 일종의 매체이다.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약호화이다. 문자 매체를 시각적 매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자 매체의 약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시각적 매체의 약호로 대응하는 과정, 약호

17)

	화자	설화의 편수			연결 화자 수
		전체	연결	단독	
1	서치영	121	35	86	29
2	이씨	74	10	64	12
3	임회정	35	0	35	0
4	이병렬	30	1	29	1
5	나씨	27	8	19	5
6	박기상	26	1	25	1
7	하천수	19	0	19	0
8	송상규	15	0	15	0
9	김영익	14	1	13	1
10	설삼쇠	11	8	3	3
11	김영호	10	6	4	4
12	유홍선	10	2	8	6
13	이종규	10	7	3	8
총		402	79	323	

[표 2] 전집 전라북도 편의 계량화 1



[표 3] 전집 전라북도 편의 계량화 2

화와 약호 해석의 과정이 중요하다. 재매개되기 이전의 매체, 즉 기술성의 항목 가운데 무엇을 노드와 링크로 변환할지가 중요하며, 새로운 매체를 코드화하는데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매체와 코드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을 노드로, 무엇을 링크로 설정하는가에 이미 주관성이 개입된다.

먼저 전집의 기술성의 중요한 단위인 ‘화자 정보’에 주목하여 화자를 노드로 설정해 보자. 화자와 화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실체는 바로 설화이다. 아래의 예와 같이 같은 설화에 네 명의 화자 정보가 기록된 경우를 보자. 즉 4명의 화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 네 명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링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화자를 노드로 설정한다면 전집의 화자와 화자의 관계를 링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집의 기본 구성단위인 개별 설화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는 없을까? 만일 개별 설화를 노드로 본다면, 각각의 설화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여기는가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네트워크의 지형도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라는 기존의 구비문학(口碑文學)의 개념에 착안하여 설화를 노드, 링크를 화자로 설정할 수 있다.

각 姓에 대한 놀리는 말

우리나라 사람은 姓氏 가지고 놀리는 수가 많다. 李哥보고는 살가지라고 허넌디 살가지 狸자허고 李字옛허고 품이 같기 땀으로 李哥보고 살가지라 허고 짐1)哥보고는 도채비2)라 허지. 김가보고 왜 도채비라는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짐가보고 도채비라고 놀려. 朴哥보고는 바가지, 鄭哥보고는 당나구, 徐哥보고는 쥐라고 허. 쥐 鼠字허고 徐字허고는 音相似히서 그러지. 張哥보고는 핏이라고 허넌디 장끼 핏아 핏핑크허고 울기 땀시로 장가보고 핏서방이라고 험서 놀리지.

- ※ 1915년 5월 남원군 대강면 박종대
 - ※ 1924년 5월 순창군 순창면 은행정리 김영호
 - ※ 1923년 8월 고창군 고창면 월곡리 유흥선
 - ※ 1969년 8월 23일 익산군 금마면 용진리 김영익(66세, 남)
- 1) 金 2) 도깨비

위의 예가 화자 ‘박종대’를 통해 ‘김영호’에게, ‘김영호’를 통해 ‘유흥선’, ‘유흥선’을 통해 ‘김영익’으로 전승되었다고 가정할 때, 노드는 <각성에 대해 놀리는 말>, 네 명의 화자는 링크가 된다.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

<설화>--<설화>--<설화>--<설화>--<설화>
 화자 1 화자 2 화자 3 화자 4

문제는 전집에 실질적으로 한 번만 기록(표시)된 설화가 네트워크상에서 네 개의 노드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 명의 화자가 여러 편의 설화를 구술한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불투명하다. 특정한 화자 여러 편의 설화를 구술한 것은 일종의 사건이다. 그런데 전집의 작가가 개별 설화를 선형적,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설화에 화자 정보를 종속적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술하면서 사건으로서의 구술성은 시간성이 박탈되고, 2차원 평면에 동일한 문자열로 산발적으로 반복되었다. 문헌 설화의 화자와 설화를 각각 링크와 노드로 재매개할 경우, 재매개 이전에 기술성의 재매개로 성취한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를 노드로 설화를 링크로 설정했을 때와 차이가 없으며, 링크가 항목과 항목의 관계를 드러내기보다는 조형적인 선으로 환원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따라서 설화를 노드로 설정하는 경우, 화자를 링크로 삼아서는 안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 이외에 전집에서 설화와 설화를 연결하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전집에서 각각의 설화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되어, 비슷한 이야기끼리 인접하여 배열되었다. 즉 설화와 설화의 내용상의 유사성이 설화와 설화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링크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설화를 노드로 삼을 때 링크는 설화와 설화 간의 공통된 내용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 설화의 내용 단위의 분석이 불가피하다.¹⁹⁾

위와 같은 추론을 통하여 노드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링크도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재매개한 시각화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네트워크가 펼쳐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화자의 네트워크

먼저 화자를 노드로, 공유한 설화를 링크로 변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화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전집의 화자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가장 많이 구술하고 다른 화자와 연결이 많이 되는 화자

서치영 화자는 전라북도 편에서 설화 구술 편수도 가장 많고(121편), 다른 화자와 같은 설화를 구술한 횟수도 총 35회로, 다른 노드와 링크도 가장 많은 노드이다. 그런데 반드시 다른 화자와 한 번만 연결되는 것은

19) 이를 위해 전집 전체의 설화를 줄거리로 요약해서 각각의 줄거리를 일정한 단위로 분절한 후 이 분절의 총합을 전집의 서사적 매트릭스로 보고, 개별 설화마다 각 단위 중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 계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학 텍스트를 네트워크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인 방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인문학적인 조망이 하나로 결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이론적 분석의 단계는 미가공 데이터를 전산 언어로 코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문학적 조망의 단계이며, 이미 스티스 톰슨에서부터, 블라디미르 프롭, 레비스트로스에 이르기까지 정통 인문학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해온 일이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구성 요소로 분석, 다시 계열화하는 작업은 데이터 과학이나 디지털 인문학을 기술로 시키는 단축할 수 있을지언정 단계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심우장·김영원·황치욱, 같은 책, 30쪽.

아니다. 예를 들어 화자 서양례의 경우에는 전체에서 총 6회 구술했는데 6회 모두 서치영 화자와 연결된다. 이처럼 중복되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연결 노드는 35개가 아닌 29개이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링크 혹은 진하기로 표시할 수 있다.²⁰⁾

2) 한 편만을 구술하고 다른 화자와 연결되지 않은 화자

서치영 화자의 경우에도 121편의 설화 중 연결 횟수는 35회인데 반해 86회의 설화 구술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편에서 세 번째로 구술 횟수가 많은 화자 임희정 경우, 35회 모두 단독으로 구술했다. 이처럼 한 명의 화자가 한 편의 설화를 한 번씩만 구술한 경우, 링크가 생성되지 않으며 노드, 즉 네트워크상의 위치만으로 표시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치영 화자의 구술 중에서 단독으로 구술한 경우 역시 링크 없는 노드, 위치, 노드의 면적 등으로 표시한다면, 한 편만을 구술하고 다른 화자와 연결되지 않는 화자는 네트워크상에서 분산되어 표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치영과 같은 화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관점에 따라서는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인 경우에는 유사한 이야기가 수십 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3) 여러 편을 구술했으나 특정 화자(1명)와 항상 함께 나타나는 화자

서치영 화자와 서양례 화자는 총 여섯 편의 이야기에서 화자로 함께 기록되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치영 노드와 서양례 노드 사이의 링크는 여섯 번, 혹은 진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화자의 중요도를 구술 설화의 편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치영 화자가 서양례 화

20) 예를 들어 <물새 메뚜기 개미>(<7-151>)는 김영호, 서양례, 이종성, 이두영, 김관동, 서치영 모두 여섯 명의 화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구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동일한 설화를 링크로 하여 화자들로 연결된 하위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자보다 구술 편수가 많기 때문에 서치영 화자가 서양레 화자보다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노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양레 화자를 서치영 화자에 종속된 화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화자의 종속 관계와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의 크기, 연결선의 길이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서양레 화자는 서치영 화자의 위성처럼 시각화될 것이다.

그런데 서양레 화자가 서치영 화자의 위성처럼 시각화된다고 해서 서양레 화자가 서치영 화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덜 중요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과로서의 시각화와 이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 학우>(7권의 175번째 설화²¹⁾)의 화자는 각각 이씨, 서양레, 서치영이다. 그런데 이씨가 1923년 5월, 서양레 화자가 1938년 8월, 서치영은 1940년 10월에 각각 구술했다. 공통의 설화를 링크, 세 명의 화자를 노드로 볼 때, 각각의 노드에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으므로, 링크에는 방향성이 생긴다. 서치영에서 서양레가 아닌, 서양레에서 서치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서치영 화자가 구술한 설화 중 대부분이 1940년, 1편이 1941년, 1편이 1945년에 구술되었고, 서양레 화자의 경우 구술 편수는 적으나 구술 시기가 모두 이보다 이른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물론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구술된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설화들이 반드시 이씨에서 서양레, 서양레에서 서치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서치영 화자가 구술 편수가 많다고 해서 화자의 네트워크에서 더 중요한 화자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즉 서치영 화자를 허브로 볼 때 허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한다.

21) 7권, 167쪽.

4) 여러 편을 구술했으나 다른 화자와 연결되지 않는 화자

2)에서 한 편의 이야기를 단 한 번만 구술한 106명의 화자는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링크없는 노드, 위치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 임회정처럼 총 30편의 설화를 구술했으나 모두 단독으로 구술한 경우, 한 사람의 화자가 한 편의 설화를 구술한 것을 개별 노드로 표시할 경우, 임회정 화자의 30편의 설화는 링크가 없는 서른 개의 노드로 표시되고, 설화의 구술 시기, 지역, 내용이나 유형 등 제3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 상에서 흩어져 표시될 것이다. 서른 개의 노드가 동일한 화자의 구술임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화자의 설화 구술의 횟수는 한 명의 화자가 구술한 설화의 편수를 계량한 뒤 전체 설화 편수(노드의 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환산하여 2차원 평면으로서의 네트워크상의 주변/중심(중심도)로 시각화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히 각 화자의 구술 횟수를 계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자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전체 이야기판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명 유래담과 역사 인물 전설의 양이 많다.²²⁾ 그런데 이를 전라북도 설화 지형도의 특징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설화와 유형의 양에 비하여 지명 유래담과 역사 인물 전설이 얼마나 많은지 비중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의 설화가 대부분 임회정 화자의 단독 구술이라는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작가(채록자)가 임회정 화자와 접촉 빈도가 높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회정 화자의 구술 연도와 이에 따라서 추정되는 채록 방법, 채록 장소가 다른 화자의 채록 장소와 겹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회정 화자의 화자로서의 정체성이 다른 화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

22) 윤예영, 같은 책, 369~375쪽.

는 측면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개별 화자의 특징인지, 전체 지역의 특징인지 구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별 화자의 정체성이든,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이든, 화자와 화자의 관계에 견주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화자를 노드로, 화자들이 공통으로 구술한 설화를 링크로 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화자 네트워크를 점층적으로 추상해 보았다. 기존의 구비문학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구술 설화의 화자를 화자 개인이 구연한 레퍼토리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에 따라서 설명해왔다. 그러나 전집을 네트워크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야기판 안에서의 화자의 위치, 중요성, 영향력 등 보이지 않는 특징을 수량화한 뒤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전집 안에서 지역별 네트워크의 양상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편은 ‘서치영’, ‘이 씨’ 등 특정 화자에게 구술 편수와 화자 네트워크가 편중됐지만, 다수의 화자가 비교적 균등하게 이야기를 구술하는 충청북도 지역은 다른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는 채록 연대와 그에 따른 채록 방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설화의 네트워크

반대로 설화를 노드로, 설화와 설화의 연결을 링크로 삼는 경우이다. 이러한 설화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설화의 내용 전체를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를 계량화한 뒤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해야 한다. 문제는 내용을 규격화된 단위로 변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집에서 작가는 채록 이후 개별 설화를 인쇄 매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채록된 설화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우 넓은 틀로 분류, 배열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틀은 개별 설화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었는가, 각각의 설화에 어떤 제목이 붙었는가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느슨한 틀에 불과하다. 작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화를 분류, 배열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설령 전집을 편찬한 작가가 살아있어서, 그를 인터뷰하여 어떤 기준에서 설화를 분류하고 배열했는지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사의 유형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구술 화자나 청자, 채록자, 편찬자에 의해 인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설화를 노드로, 이들 설화 사이의 관련성을 링크로 하는 네트워크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설화 네트워크는 각각 설화의 내용과 형식이 어느 정도로 가깝고 어느 정도로 먼지를 우선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설화가 비슷하고 어느 정도로 다른지 질적인 측면을 양으로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다음은 전라북도 편 198번째의 설화에서부터 205번째 설화, 총 여덟 편의 설화이다.²³⁾ 이들은 각각 별도의 제목, 화자, 채록 장소와 시간으로 구별되는 개별 설화들이다. 작가는 이를 유사한 이야기로 인식하고 인접하여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작가가 유사한 이야기로 인식하여 인접 배열한 적은 편수의 설화 안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슷한 이야기로, 어디서부터 다른 이야기로 판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설화와 설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표 4]처럼 설화를 몇 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뒤 각 항목이 모두 대등한 값을 지니는 규격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 즉 설화 네트워크에서 규격화된 내용 단위를 찾아내야 한다.

23) 8권, <선생의 나쁜 장난에 앙갚음한 제자>, 284쪽(<8-198>), <거짓말하면 똥 먹는다>, 285쪽(<8-199>), <오성이 똥 먹다>, 286쪽(<8-200>), <오성과 정녀>, 288쪽(<8-201>), <장가들기 전에 신부될 처자를 본 오성>, 288쪽(<8-202>), <오성 내외의 수작>, 289쪽(<8-203>), <오성과 한음 장난>, 291쪽(<8-204>), <오성과 대장장이>, 292쪽(<8-205>)

	화자	서사적 행위	인물	소재
a 8-198	이병렬	속이기 복수	선생과 제자 신랑과 신부	첫날밤, 거짓말, 속이기, 복수, 똥
b 8-199	이병렬	속이기 복수	한음과 오성 오성과 오성 부인	친구 아내와 간통, 거짓말, 속이기, 복수, 똥
c 8-200	나씨	속이기 복수	오성과 오성의 친구 오성의 친구와 부인	친구 아내와 간통, 거짓말, 속이기, 복수, 똥
d 8-201	나씨	속이기 속기 속지 않기	오성 오성의 부인 부인의 친구들	아내 친구의 간통, 거짓말, 속이기(변신), 정숙, 부정
e 8-202	나씨 서치영	속이기 속기 복수	오성 처남감 오성의 친구들 오성의 신부감	아내감의 부정, 거짓말, 속이기, 복수(망신), 정숙, 부정
f 8-203	서치영	속이기 속이기 반복 복수 시비 가리기	오성과 부인 오성과 장인 부인과 시부	거짓말, 속이기, 복수, 첫날밤, 똥, 코, 냉찜, 입, 수염, 수캐의 성기
g 8-204	나씨	속이기 속이기 반복 속이기 반복	오성 한음	도깨비, 화장실, 문안, 거짓말, 속임, 성기
h 8-205	나씨	속이기 복수 복수에 대한 복수 도움 도움을 거부 처벌	오성 대장장이	대장간, 징, 향문, 상늬, 양반, 살구, 똥, 지갑

[표 4] 설화 〈8-198〉~〈8-205〉 내용 분석과 항목화

이처럼 여덟 편의 설화를 기준이 되는 항목에 따라 분석하고 각 항목을 일정한 값으로 환원할 수 있을 때에 이들 사이의 관계, 즉 링크도 계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소재 차원의 차이는 1로 표시한다면, b와 c 사이에서 소재 차원의 차이는 0, b에서 c로의 변이는 구조나 소재의 변이는 0인데 인물 형상의 변이를 1(오성과 한음 → 오성과 그의

친구)로 보는 등 각각의 설화를 매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곧 네트워크 시각화이다.

설화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번역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한 유형의 최초의 이야기로부터 마지막 이야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이야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유형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화의 네트워크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오히려 모호하다.

예를 들어 위의 b-h까지의 설화는 모두 ‘오성’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편 a에는 ‘오성’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이름, 즉 고유명사만 다를 뿐 b, c와 동일한 소재,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a는 b-h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들을 몇 개의 링크로 가까이 혹은 멀리 연결한 그물망을 볼 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설화의 내용과 형식을 항목화, 규격화하고, 이를 다시 계량화하여, 설화와 설화의 관계를 수량화하는 모든 과정이 모두 순조롭고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설화와 설화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시각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화자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설화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해서라거나, 그를 위한 사전 전처리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성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첫날밤을 똥으로 더럽히게 만들어 꿀탕 먹이는 이야기와 오성이 친구의 부인과 간통했다는 거짓말로 친구 부인에게 오명을 씌우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로 비슷하고 어느 정도로 다른가? 이러한 질적 차이를 양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질적인 차원을 양적으로 환원할 때 뒤따르는 정보의 손실과 잉여는 어떻게 할지, 이를 연구자의 해석으로 보완한다면, 이는 과연 네트워크 시각화의 역행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Ⅳ.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재개념화

이상으로 전집의 전라북도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화자를 노드로 하는 화자의 네트워크와 개별 설화를 노드로 하는 설화의 네트워크를 어떤 과정으로 그려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집을 이와 같은 절차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전집의 전라북도 편(전집 7·8권)은 다른 편들에 비하여 작가가 유년 시절에 자신의 주위 사람에게 들은 옛날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회상하여 기록한 설화의 비중이 높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회상하여 채록하는 방식은 경기도 편(1989년 간행)에서도 발견되지만, 작가의 고향 전라북도 지역의 설화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전라북도 편에도 현대적 방식(현지조사와 녹음 후 채록)으로 채록한 설화들이 없지 않으나,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기록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임석재’ 개인이라는 필터를 통해 집대성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전집의 특수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편이다. 이런 특수성은 1980년대에 민속학계와 국문학계의 주도하여 『구비문학대계』를 편찬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도 구별이 된다. 전집의 전라북도 편을 네트워크로 번역할 때 완성되는 지도는 아직 미완성의 단계라 할지라도 ‘입에서 입으로 직접 전달되는 문학’이라는 구비문학의 개념으로 시각화되는 선형적이거나 계통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집의 전라북도 편을 네트워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전라북도 편을 화자의 네트워크로 번역할 경우 가장 많은 이야기를 구술한 화자가 서치영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중심성은 서치영 화자의 구술 연도(채록 연도)를 모두 균질적인 공간(점과 위치)으로 환원할 때 가능하다. 즉 구술의 연행성이 손실된 결과이다. 서치영 화자의 이야기는 1920년대 4편, 1930년대 19편, 1940년 1월 46편, 5월 2편, 10월 44편, 1941년과 1945년에 각각 1편이 구술했다.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설화를 구술한 것이 아니라 1940년 한 해에만 96편의 설화를 집중적으로 구술했다.

화자별 설화 채록 연도가 특정 시대에 편중되는 경향은 서치영 화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집에서 구술 편수가 많은 화자 대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채록이 이루어지지만, 특정 시기에 편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⁴⁾ 이러한 특이한 지형도는 『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대계 역시 한 명의 화자가 여러 편의 설화를 제보한 경우는 많으나, 전집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편의 설화를 구술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두 자료집이 설화를 조사, 채록한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집의 작가 임석재의 주도로 이루어진 집집과 달리 대계는 연구 집단(대계의 전라북도 편의 경우 채록자는 세 명, 지역마다 다름)이 집집마다 이야기를 해줄만한 할머니를 구해서 찾아다니거나,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방문해서 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채록 장소에 들린 다른 가족이나 이웃, 친척들이 끼어들어 즉석에서 채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동 과정에서 만난 지역 주민이 구술을 자청하기도 한다.

대계는 채록 전반에 대한 기록과 서지 사항이 전집에 비해 보다 자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구술 설화가 매체별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짐작하기에 더 쉬운데, 부텍스트들을 참고할 때 조사와 채록 과정이 문헌화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4) 예를 들어 서치영 화자 다음으로 구술 편수가 많은 이 씨의 경우 74편의 이야기를 채록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1913년, 가장 나중에 채록된 이야기가 1988년에 채록된다. 1910년대 7편, 1988년 1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920년도에 채록되었다. 특히 1923년에 45편이 채록되어 가장 비중이 높다. 단독 구술로 세 번째로 양이 많은 임회정 화자의 경우도 35편 모두 20년대 초반, 그 뒤를 잇는 이병렬 화자의 경우 30편 모두 1977년과 1988년에 채록되었다. 26편을 구술한 박기상 화자의 경우 1969년 8월 5일~20일에 채록이 되었는데 19일에 채록 편수가 가장 많다.

조사자들이 해당 지역에 조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서 설화가 배열되었고, 개별 화자 안에서는 화자가 각편을 구연한 순서로 실려 있다. 설화 앞에는 지역과 일련 번호(예. ‘고산면 설화 00’)가 붙어 있어 설화가 개별적으로 채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의 화자가 여러 편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구술한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화자의 연행 순서 그대로 문헌화되어 있다.²⁵⁾

연구 집단에 의한 현지 조사,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과 문헌화 과정의 특수성은 화자의 특징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 기록자들의 연행까지 그대로 포함된다. 그 결과 조사자 집단과 화자 집단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만남, 사건으로서의 구술과 청취는 이미 녹음 단계에서 조사자의 행적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계는 화자가 설화를 구술한 순서대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녹취 순서이자 조사자들의 이동 경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채록의 결과물만을 볼 때에는 화자 중심이지만,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틀은 다수의 조사자들이 한정된 지역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다수의 화자와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이며 표준적, 공적인 틀 안에서 진행된다. 대계의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서치영’처럼 다수의 설화 목록을 보유한 개인을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대계의 틀에서는 이를 모두 담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25) 설화를 배열할 때 우선 지역을 위주로 배열하고, 그 다음 화자 순으로 배치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고산면 완주군 고산면에서 채록된 설화는 조사 당일 설화를 녹음한 순서대로 녹취를 풀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고산면 설화 11~14까지 정명자 화자의 총 네 편의 설화가 연속되며, 같은 테잎(고산 4잎) 바로 뒤에 다른 화자 김현녀의 고산면 설화 15~24까지 총 10편의 설화가 테잎 고산 5 앞면까지 이어진다. 디지털 음성 자료, 테잎 위치, 서지사항을 비교해보면 채록 당시 녹음된 순서대로 문헌화 했음을 알 수 있다. 단, 동일한 화자가 한 자리에서 부른 민요(노래)는 대계의 뒷부분 민요 편에 별도로 채록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집 2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16~553쪽, 610~613쪽.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국구비문학대계 권책별 항목을 함께 참고했다.

http://yoksa.aks.ac.kr/jsp/ur/List.jsp?gb=3&cd=kh2_je_d_502

따라서 대계에서 대략 화자별로 설화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 중에서 다른 화자와 비교하여 다수의 설화를 구술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난 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계의 틀 자체가 개별 화자의 존재를 해당 지역의 제보자 중 일원으로만 표준화할 뿐 고유성을 부여하거나 개별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전집에 비하여 설화들이 화자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개별성이 더 강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계와 비교해서 구술 연행의 맥락을 더 많이 생략하고, 기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매개한 전집은 더욱 그렇다. 대계가 조사의 과정이 반영된 덕분에 한 명의 화자의 연속된 이야기를 특별히 유형 분류를 하지 않고도 쉽게 목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반해, 전집의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것처럼 기술된 것을 항목화, 수량화, 재배열한 후에야 화자별 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계와 비교해서만이 아니라 전집 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전집의 전라북도 편처럼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의 화자가 양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없다. 즉 전집의 전라북도 편의 이야기판을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면 소수에 의해 이야기판이 독점된 형상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지역마다 수록하고 있는 설화 편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지역별 전체 편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라북도 편처럼 특정 화자(서치영, 임회정, 이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드물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편의 이런 특징은 전집을 문헌 그대로 접할 때에는 쉽게 인식할 수 없다. 자료집의 볼륨으로 전라북도 편의 설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양이 많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전집의 작가는 대계에서처럼 한 명의 화자의 구술 목록을 이어서 기술하기보다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유형에 따라 설화들을 배치했고, 그 결과 ‘서치영’ 171편의 구술 목록은 흩어졌다.

임희정 화자는 특정한 유형의 설화를 집중적으로 구술했기 때문에 만일 독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다른 화자들에 비해 많은 설화를 구술했음을 눈치챌 수도 있다. 그러나 임희정 화자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화를 구술한 서치영 화자나 이씨는 다양한 유형을 구술했고, 이들의 목록은 작가가 부여한 체재와 보이지 않는 분류에 따라 흩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한 화자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집에서 화자의 정보는 단지 특정 설화가 실증적인 과정에 따라 채집, 채록되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만 작용할 뿐, 그 설화를 구술한 화자가 누구인가, 화자의 정체성으로 응집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작가가 첨부한 화자 정보는 문헌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는 각각의 설화를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설화가 떠도는 이야기에 불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성명과 연령, 성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에 의해 제보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자 증거로만 작동한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기술성의 전략들은 계량화와 네트워크 시각화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시 헤쳐 모임으로서 ‘서치영’, ‘이씨’, ‘임희정’이라는 단독 화자의 존재로 구성된다. 작가가 실증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소로 사물화했던 개별 화자의 정체성이 네트워크의 시각화에 의해 오히려 재구성되는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 상에서 서치영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구술했는지 질적인 측면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목과 함께 각각의 설화를 구별해주는 이름표에 불과했던 화자 정보가 노드로 환산되는 순간 채집된 식물의 학명, 사물의 일련 번호처럼 존재하던 문헌 설화의 화자 정보는 화자의 고유명사, 개별 화자의 이름표가 된다. 특정 화자가 특별히 많은 설화를 구술하고, 이처럼 비중이 높은 화자들의 구술 목록이 서로 겹치기보다는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양상이 전라북도 편에서만 발견된다면, 전집의 전라북도 편만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화자의 출현 빈도, 화자 사이의 연결 관계, 양상이 설화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계를 화자의 네트워크로 번역한 뒤 동일한 지역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전집의 전라북도 지역의 설화 701편 중 서치영, 임회정, 이씨의 구술 편수가 200편(서치영과 이씨가 공통으로 구술한 설화를 제외한)이라면 전체에서 삼분의 일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면, 즉 특정 지역의 설화의 삼분의 일을 특정 화자들이 구술했다면, 이들이 구술한 설화가 개인 화자가 아닌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서치영, 임회정, 이씨는 누구인가? 전체 지형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러스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일 200편의 설화가 세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200명에게서 채록되었다면, 전집 안에서 각각의 설화가 자료로서 가지는 의미는 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작가의 문헌화 전략은 개별 화자를 주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구술 설화를 채록, 배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화자의 정체성, 전집의 전라북도 편으로부터 주목할만한 화자를 찾아내는 것은 전집의 작가가 아닌 전집을 읽고 번역하는 이 연구가 다시 쓴 새로운 텍스트이자 일종의 해석이다.

시간적인 반복이 반복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준거점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화자의 연행이 반복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관점(perspective)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전집 전체를 통해 구성되는 작가의 존재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상의 노드와 링크는 전집 전체를 통해서 구성되는 작가의 생애주기 안에서 발생한 설화의 ‘청취’이며, 이는 일종의 사건이며, 이러한 통시적인 사건이 기술 매체와 인쇄 매체로 재매개되는 과정에서 증발된 시간성이다.

이 씨처럼 집중적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채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채록자)와 특정 화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해야

한다. 반면 서치영 화자의 경우에는 구술 편수나 연결 화자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특정 시기(1940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채록자이자 편자인 작가(‘임석재’)의 생애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자 ‘이 씨’와의 관계, 작가와 화자 ‘서치영’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기록과 재배열에 의해 추상화²⁶⁾ 되었던 생애사적 사건으로서의 구술과 청취는 네트워크로 시각화됨으로써 양으로 번역된다. 결과적으로 작가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서 복원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개념이 기술성과 구술성이 한몸이 된 구비문학으로부터 기술성을 탈각했다는 사실이다. 전집의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구비문학(口碑文學)이 부인하는 개인으로서의 작가의 개념, 구술 설화를 문헌 설화로 채록, 배열, 하나로 묶어낸 담론적 주체이자 생애사의 인용을 통해 구성되는 비균질적인 주체, 쓰는 주체이다.

만일 모든 이야기의 모든 층위가 완벽하게 똑같다면 구비전승의 복수성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동일한 이야기의 복제에 불과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이야기가 전제될 구비문학(口碑文學)의 개념이 가능하다. 시간적 간격과 공간적 거리를 두고 발생하는 유사한 이야기는 기술 문학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 문학에서 A와 유사한 B는 원본과 모방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이 전제하는 것은 A와 B가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믿음, 고정된 실체로서의 주체를 전제한다.

반면 전집의 작가는 하나의 이야기에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 서로 다른 화자 이름을 일렬로 기술함으로써, 복제와 창작의 중간, 개인과 집단의 중간을 반영한다. 창작은 아니지만 복제 또한 아닌 집단 전승의 개념을 수사학적으로 발명했다. 따라서 전집의 작가가 쓰기를 통해 성취한

26) 빌렘 플루서, 『코뮤니콜로지』,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83~251쪽.

수사학적 전략은 대계의 작가에 비해 훨씬 불투명하며, 훨씬 고유한 것이다.

전집에서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구체적이고 통시적인 맥락으로서의 청자는 자신이 들은 것을 썼다. 텍스트 연행을 통해서 작가로 다시 태어난다. 화자와 화자를 연결하는 이야기,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화자의 개념에서 소거된 것은 바로 청자이자 작가이다. 이때의 작가는 기술 문학의 작가와는 다르다. 기술 문학은 자립적인 정체성이나 고정된 실체로서의 정체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작가는 고정된 실체나 자립적인 원자가 아니라 ‘여러 조각을 모아 만든 정체성’이자 ‘함류하는 실타래들의 매듭’으로서의 정체성을 전제한다.²⁷⁾ 따라서 전집의 세계를 …-화자-설화-화자-설화-…가 뒤엎힌 네트워크로 옮길 때 청자이자 작가는 소거되거나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 연결망 전체이다. 기술 문학의 관점에서 작가나 청자는 이 네트워크의 밖에 초월적으로 위치하겠지만 전집의 네트워크에서 작가나 청자는 네트워크 안에 위치하는 동시에 전체이다.

그렇다면 구비문학(口碑文學)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작가가 존재할 수 없는가? 작가가 없는 텍스트인 대계는 전집보다 더 구비문학의 이데아에 가까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집단 전승’은 주체 없이 대상으로만 투명하게 전파되는 사물에 가깝다. 화자와 청자, 작가와 독자를 지울수록 더 실증적이고, 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비문학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구축해온 표준 양식(사실, 귀납, 연역,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은 실증주의적 리얼리즘의 한계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집처럼 작가가 전체인 구비문학 텍스트도, 대계처럼 작가가 부재하는 (사실은 지나치게 투명한) 텍스트도 실재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 구축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27) 올리버 비들로,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의 철학(큰글씨책)』, 양우석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20, 106쪽.

것이다. 이제 그 열정으로 ‘이곳에 있기’와 ‘그곳에 있기’²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기록하는 문자와 구술된 말, 기록하는 주체와 기록된 대상을 잇기 위한 수사학, 다시 말해 구술성의 기술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V. 결론

집단 전승에서 두드러지는 개인의 존재를 문학은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이를 문학의 외부의 언어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성찰하기 위해 전집을 네트워크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실험해 보았다. 이는 설화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등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한 모색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구비문학이 토대로 해 온 인식론적 토대를 반성하고, 구비문학이라는 대상을 통해 구성되는 주체, 민족에서 민중을 호명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하나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전집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전집이 작가가 구술성을 기술성으로 재매개한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기술된 설화를 시각화라는 새로운 매체로 재매개한 결과이다. 따라서 2장 구술성을 매개한 기술성에서는 전집의 체재를 구성하는 항목과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이용하여 설화와 화자의 세계를 어떻게 계량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설화와 화자를 네트워크의 구성단위인 노드와 링크로 번역할 때, 즉 문헌 설화 자료집을 네트워크 시각화로 재매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문학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접근하는 최종 목적은 시각화라는 결과를 얻는 데 있지 않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언어이기에 해석이 필

28) 클리퍼드 기어즈, 같은 책, 178-179쪽.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술성의 언어, 기술성의 언어와 시각화의 언어를 나란히 놓고, 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섬세하게 따져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언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별 화자와 개별 설화의 구체성을 잃는다. 그러나 독자는 이미 ‘본바탕’의 세계를 작가가 상위와 하위, 종속과 분리 등 분류와 위계화를 적용한 세계, 문헌 설화의 자료집을 통해서 만난다. 번역을 손실로 본다는 것은 손실 이전에 보존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 기원이나 출발점이 없듯이, 전집을 네트워크로 번역하는 것은 전집에 담겨있는 고정된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집을 구술 문학의 언어와 네트워크 언어의 상호 경계면에 놓음으로써 양쪽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집의 전라북도 편이 화자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접속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완성의 단계이다. 그러나 이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자의 네트워크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되면서 소거된 청자이자, 작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집을 화자의 네트워크로 시각화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판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화자가 누구인가라기보다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받아 쓰고, 편집하고 다시 쓴 작가에 가까울 것이다. 화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비문학(口碑文學)의 개념이 소거했던 문헌 설화의 작가의 개념을 다시 불러들인다.

반면, 아무리 극단적으로 대상을 환원하더라도 설화의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는 현실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문학 작품을 데이터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서는 설화의 내용을 데이터화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날것(raw data)으로서의 설화를 전처리해야 한다. 문헌 설화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미 구술 설화를 전처리한 데이터이며, 설화의 유형 연구도 전처리 작업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설화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매우 많이 개입되었다. 따라서 설화의 네트워크, 주제의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전체 설화의 내용을 분석해야할 뿐만 아니라, 해석과 비평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설화의 네트워크는 설화 내용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 이론이 집단을 다루기 쉬운 이론인 만큼 연구 주체도 개인이 아닌 집단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문학 연구가 개인으로서 연구자 혹은 비평가, 개인으로서의 작가, 대상 텍스트의 개별성의 관계였다면 네트워크 이론은 집합으로서의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 주체의 집단과 제도를 전제로 한다. 즉 그 표준화된 내용이 누구‘의’ 표준인가의 문제이다. 구술 문학 연구가 개인으로서의 문학으로부터 집단으로서의 문학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다면, 문학 연구에 네트워크 이론의 도입은 문학 연구가 경계로 하고 있는 제도와 사회로서의 문학으로의 전환점이다.

우리는 구비문학을 어떻게 기술해 왔는가? 본고는 우리가 구술성을 매개한 방식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매개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말’ 이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 편의 설화를 이야기들의 형이상을 드러내는 토크이나 샘플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야기성에서 ‘그 이야기’를, 균질적이고 비정형의 집단으로부터 ‘그’를 기술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기술하는 ‘나’를 기술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구비문학의 수사학을 재검토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함으로써, 구비문학 쓰기의 윤리학을 요청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임석재 편, 『任哲宰全集 韓國口傳說話』 7·8권, 평민사, 1990-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집 2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 논저

- 권순궁, 「전래동화 <콩쥐 팥쥐>의 형성과정」, 『민족문학사연구』 52,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110~141쪽.
- 김영희, 「‘구비문학’ 현지조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상호주체적 만남’을 위한 모색」, 『고전문학연구』 제58집, 187~230쪽.
- 김정경,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구비문학의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30, 실천민속학회, 2017, 73~96쪽.
- _____, 「기호, 담론 그리고 구비문학 - 구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8권, 한국기호학회, 2014, 135~138쪽.
- 박기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부산지역 설화의 전승구조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26집, 동남어문학회, 2008.
- 송효섭, 『국문학과 탈형이상 : 언어학적 전회를 넘어서』, 태학사, 2018.
- 심우장·김영원·황치옥, 「한국설화의 네트워크 지형 연구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37집, 구비문학회, 2013.
- 심우장,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구비설화 이야기관의 구조와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오세정, 「민속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향」,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103~133쪽.
- 윤예영, 「임석재 전집 한국고전설화의 젠더와 매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1, 345~388쪽.
- 이인경, 「<한국 설화 분류 방안>의 쟁점과 전망」,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2003, 7~26쪽.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매슈 O. 잭슨, 『휴먼 네트워크』, 박선진 역, 바다출판사, 2021.
- 빌렘 플루서, 『코뮤니콜로지』,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월터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 올리버 비들로,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의 철학(큰글씨책)』, 양우석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이선북스, 2020.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 『재매개』, 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존 스콧, 『소셜 네트워크 분석』, 김효동 · 김광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클리퍼드 기어츠,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김병화 역, 문학동네, 2014.

프랑코 모레티, 『멀리서 읽기』, 김용규 역, 현암사, 2021.

The Network and the Author of *Part 7 • 8(Jeollabuk-do)* in
“*Collection of Korean Oral Narratives written by Lim Seok-Jae*”

Yun, Yae-Young

This paper explor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what methods and procedures are required as a preliminary step to network visualization of Part 7-8(Jeollabuk-do) in “Collection of Korean Oral Narratives written by Lim Seok-Jae”. Is quantitative research possible in oral narrative literature research? If possible, how can it be done? Based on these questioning, the aim is to see if the concept of the network is possible as a new methodology to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 of oral literature.

Network visualization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translating a language into a new one. The study of the col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is the result of the author’s remediation of orality to literacy, as is the case with the network’s remediation of literacy. Thus, in literacy mediating orality, we look at the items that make up the structure of the colle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ow to use these items to interpret the narrative and the speaker’s world from a quantitative perspective.

Chapter 3. explore how the lieteracy and orality of the collection can be remediate by network visualization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which of the oral narratives or speakers to be translate as nodes and links, and what is gained and lost in this process.

In conclusion, what does mean by translating the Jeollabuk-do Part of the collection to the network? The result we’ve got is not a map of the story world, which is conveyed directly from the speaker to the mouth in a narrative, but rather a spatializ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writer, which is discourse subject in the collection.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concept of oral literature is reflected again, and through this, oral literature is re-defined.

Keywords : *Collection of Korean Oral Narratives(韓國口傳說話)* written by Lim Seok-Jae, Oral lieterature, Network, Orality, Literacy, Visualizaion, Remediation, Author

투고일: 2021. 12. 10./ 심사일: 2021. 12. 16./ 심사완료일: 2021. 12. 17.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사상에 대한 재해석

– 산업, 기술, 노동, 자연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의진*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평가
- III.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재해석
- IV.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술관과 노동관에 대한 벤야민의 비판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발터 벤야민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완성하고자 한 연구프로젝트 『파사젠 베르크』는 결국 미완의 수고본으로 남았다. 『파리, 19세기의 수도』는 『파사젠베르크』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한 글이다. 이 글을 여는 첫 번째 소단락의 제목은 ‘푸리에 혹은 파사주’이다. 벤야민이 20세기 유럽 문명의 근대적 기원으로 간주한 19세기 파리의 역사는, 『파리, 19세기의 수도』에서 푸리에의 시대, 즉 1820년대를 시작점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는 파리 최초의 파사주가 포르-루와얄에 건립된 시대이다. 샤를르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기획 ‘팔랑스테르’는 파리의 파사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파사젠베르크』가 포괄하고 있는 19세기 프랑스사의 출발점인 푸리에의 유토피아 사상은, 사실 벤야민의 작업 전체에 걸쳐서는 부차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그런데 벤야민이 피레네산맥 국경 마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던 순간까지 간직하였던 단 하나의 원고 『역사 개념에 대하여』의 ‘XI번 테제’에서 푸리에가 다시 호명된다. 이 글에서 푸리에로 대변되는 19세기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자연 친화적 상상력’은, 파시

* 상명대학교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부교수, ejjung213@smu.ac.kr

즘의 확산과 2차 세계대전으로 대변되는 20세기 중반 유럽의 파국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제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히틀러의 집권과 전쟁을 막지 못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무기력한 패배의 원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당 이념의 왜곡 과정에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은 푸리에로 대표되는 19세기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사상적 전통을 망각하였다. 그 결과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단일한 낙관주의와 타락한 전근대적 노동관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나아가 당대 유럽 문명 전반의 진보 이데올로기의 좌초에 직면하여, 벤야민은 산업-기술-노동-자연의 새로운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푸리에 사상의 당대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열쇠어 : 발터 벤야민, 샤를르 푸리에, 역사철학,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기술과 진보, 자연과 문명

I. 들어가는 말

발터 벤야민이 자신의 사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거나 참조한 많은 사상가나 작가들 가운데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도 있다. 벤야민의 미완의 수고본 『파사젼베르크 *Passagen Werk*』의 원고 정리방식은 크게 연구주제 혹은 저자명에 따른 분류인데, 이 가운데 샤를르 푸리에에 관련된 원고도 별도의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다.¹⁾ 『파사젼베르크』는 벤야민 스스로도 완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한 방대한 규모

1) Cf. Walter Benjamin, “W. Fourier”,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 Le Livre des passages*, Paris, Cerf, 2006(1989), pp.635-664. 벤야민은 연구주제나 작가별로 분류한 원고에 순서대로 알파벳 대문자 A에서 Z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문자 Z 다음에는 다시 소문자 a부터 시작하여 r까지 부여하였다. 푸리에 관련 원고는 대문자 W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Passagen Werk*를 포함하여 본 논문이 기본적으로 참조한 벤야민의 텍스트는 프랑스어 번역본이다. 벤야민 텍스트의 프랑스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모두 독일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다. 그러나 본 논문작성자는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벤야민 연구의 권위자 최성만의 한국어 번역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파리, 19세기의 수도』 1935년과 1939년 판본, 『역사 개념에 대하여』 등의 한국어 번역은, cf.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길, 2008.

의 연구프로젝트이다. 20세기 유럽 문명의 역사적 기원으로 설정된 19세기 파리와 프랑스의 역사를 문학예술사, 이념사, 문화사, 사회사, 정치경제사 등을 포괄하면서 재구성하고자 한 이 작업을 벤야민은 ‘*passagen werk*’, 즉 파리의 ‘파사주(*passage*)’에 대한 작업이라고 명명해 두었다. 이러한 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파사주가 벤야민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상은 매우 크다. 『파사젠베르크』의 원고분류 순서상 첫 번째인 A의 주제 또한 ‘파사주, «최신 유행품 상점» «현수막»’이다.²⁾ 『파리, 19세기의 수도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는 ‘파사주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한 글인데, 이 글을 여는 첫 번째 소단락의 제목은 ‘푸리에 혹은 파사주(*Fourier ou les passages*)’이다.³⁾ 즉 벤야민은 19세기 유럽의 수도로서의 파리가 근대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시점을 1822년의 첫 번째 파사주 건설로 상정한다. 아울러 파리의 파사주가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사의 전개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매개체로, 벤야민은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및 이에 기초한 ‘팔랑스테르(*phalanstère*)’ 공동체 건설 구상을 제시한다.⁴⁾

2) Walter Benjamin, “A. Passages, «magasins de nouveauté(s)», «calicots””, *ibid.*, pp.65~87.

3) Walter Benjamin, “I. Fourier ou les passages”, *Paris, la capitale du XIX siècle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pp.44~49. 갈리마르 선집에 실린 벤야민의 글은 1935년의 독일어 판본이다. 한편 벤야민이 프랑스어로 작성한 1939년 판본은, cf. Walter Benjamin, *Écrits français*, Paris, Gallimard, 1991.

4) 샤를르 푸리에의 사상과 팔랑스테르 건설 구상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와 정리 및 분석은, cf. 줄고, 「산업화, 문학예술, 유토피아 : 샤를르 푸리에와 문학예술」, 『프랑스문학예술연구』 제75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21, 121~165쪽.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한정하여 푸리에에 대해서 논한다. 푸리에의 여러 저서 가운데, 푸리에가 자신의 사상을 총정리하여 일반에게 제시하고자 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cf. Charles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01. 19세기 초의 산업화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 특히 두드러진 푸리에의 저서로는, cf. Charles Fourier, *La fausse industrie, morcellée, répugnante, mensongère, et l'antidote, l'industrie naturelle, combinée, attrayante, véridique, donnant quadruple produit et perfection extrême en toute qualité*,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13. 한편 푸리에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입문서로는, cf. Jean Goret, *La Pensée de Fourier*, Paris, PUF, 1974.

이 정도면 벤야민의 연구 작업에서 푸리에가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리라는 짐작도 가능하지만, 정작 『파사젠베르크』에서의 노트들을 제외하고 나면 벤야민이 자신의 글들에서 푸리에를 언급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벤야민은 1940년 가을 스페인 국경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시점까지 직접 간직하고 있었던, 결과적으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글이 되어 버린 『역사 개념에 대하여 *Sur le concept d'histoire*』의 ‘XI번 테제’에서 푸리에를 다시 호명한다.⁵⁾ 벤야민이 푸리에를 재소환하는 맥락은, 망명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모든 원고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이던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에게 맡기면서도, 『역사 개념에 대하여』의 원고는 직접 간직하고 길을 떠난 맥락과 연동되어 있다. 『역사 개념에 대하여』는 2차대전 발발 초기인 1940년의 상황, 즉 파시즘이 전 유럽을 집어삼킬 기세로 약진하던 상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철학적, 역사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역사 개념에 대하여』라는 텍스트의 핵심 문제의식을 이렇게 규정할 때, 벤야민이 1820~1830년대에 활동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푸리에를 이 글에서 재론하는 이유는, 파시즘의 확장이 전쟁이라는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그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비판적으로 되짚기 위해서이다. 벤야민은 파사주 건설과 이에 연동된 푸리에 사상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되짚으면서, 푸리에로 대표되는 19세기 전반기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여전한 당대적 유효성을 강조한다. 당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극단적 위기 상황 속에서, 벤야민은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을 재소환하여, 산업-기술-노동-자연의 새로운 대안적 조직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진보 이데올로기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이 집약적으로 정리된다. 벤야민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재구성하여 그 현재적인 의미를 해명하고

5) Walter Benjamin, *Sur le concept d'histoire*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파리, 19세기의 수도』에서 벤야민이 개진한 푸리에 사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1939~1940년 시점에서 벤야민이 푸리에의 사상을 과학 기술과 자연, 노동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이 결국 파시즘의 권력 장악과 전쟁을 막지 못한 당대 독일 사회민주당의 왜곡된 역사관과 노동관을 비판하는 작업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해명할 것이다.

II.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평가

벤야민은 『파리, 19세기의 수도』를 1935년 독일어로, 1939년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1939년 판본은 1935년 판본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4년여 사이에 새롭게 심화된 문제의식의 일단 또한 엿볼 수 있다. 벤야민이 자신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유를 더욱 심화하는 과정은, 특히 이 시기 유럽 전체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변화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도 하다. 파시스트 정치세력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집권하고 있던 상황에서, 1936년 전반기에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좌파 연합이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그러나 1936~1939년의 스페인 내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개입으로 프랑코의 군부 파시스트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귀결된다. 세계 최초로 하루 8시간 노동 및 2주간의 의무 유급휴가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초기의 의미 있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민중전선 정부는 갈수록 내분에 시달리면서 파시즘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1939년 하반기에 독일과 이탈리아에 의해 유럽 전체는 결국 2차 대전의 참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파리, 19세기의 수도』 1939년 판본에는, 이러한 유럽 전체의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른 벤야민의 더욱 분명해진 문제의식과 이론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벤야민의 심화된 문제의식은 푸리에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935년과 1939년 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리의 파사주와 푸리에 사상의 연관관계에 대한 벤야민의 공통된 논지를, 이러한 논지에 대한 논문작성자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해제를 덧붙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벤야민이 이 두 판본을 작성하던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시점에서 보자면, 파리의 파사주는 이미 한 세기 전의 첨단 문물과 유행의 상징인 과거의 유산이다. 파리의 파사주들은 대부분 1822년 팔레-루아얌 파사주를 시작으로 이후 약 15년 사이에 건설된 것들이다. 이러한 파사주들의 탄생 조건을 벤야민은 두 가지로 파악한다. 첫 번째 조건은 섬유산업의 호황이다. 섬유산업의 호황에 따라 백화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 유행품 상점(magasin de nouveautés)’들이 빠르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이러한 최신 유행품 상점들을 파사주라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혹은 미래 도시의 축소판에 집결시키고자 하는 기획이 탄생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철조 건축술의 등장이다. 천장을 유리로 덮어서 낮 동안은 파사주 내부를 자연 채광으로 밝히고, 당대의 최신 조명기구이던 가스등으로 밤을 밝히는 등, 파사주 건축에 도입된 새로운 요소들을 지탱하는 열개 가운데 하나가 철조 건축술이었다.

파사주 건축과 관련하여 벤야민이 주목한 것은 이 두 번째 요소, 즉 철제 건축술의 시대적 의미이다. 19세기 내내 철이라는 소재가 점점 더 건축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결정적인 계기는, 182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기차의 상용화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기차가 오직 철재 선로 위에서만 운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철로는 동일한 규격의 철재를 이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정한 규격과 패턴의 철재를 조립하여 건축에 활용하는 방식의 원형은 이미 이때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건축의 모든 구성요소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철이라는 새로운 건축적 구성요소를 대하는

당대의 정치적이고 미적인 관점 때문이었다.

제정은 이 철조 건축술을 통해 고대 그리스적 의미에서의 건축술을 부흥 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제정기의 양식은 국가를 자체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인 테러리즘의 양식이다. 나폴레옹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도구라는 국가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시대의 건축가들 역시 철의 기능적 성격으로 인해 철재의 구성 원리가 건축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건축가들은 폼페이의 기둥을 모방해서 철근 장선을 만들고, 주택을 본떠서 공장을 짓는데, 이후에 최초의 역사들이 시골 별장처럼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⁶⁾

여기서 제정(l'Empire)은 나폴레옹 3세의 제2 제정(Le Second Empire, 1852-1870)을 의미한다. 1851년 12월 쿠데타로 제2공화정을 붕괴시키고 프랑스의 정치체제를 제정으로 되돌린 나폴레옹 3세는, 국가적 건축양식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는 프랑스 혁명기의 관념을 계승하고 있었다. 봉건적인 세습신분제 사회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지탱하던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혁명을 통해 들어선 공화주의 정부는 ‘국가(État)’와 ‘민족(Nation)’ 관념의 종교적 수준의 절대화를 통해 대체해 나갔다. 이러한 대체 작업의 이념적 원형은 로마 공화정, 예술적 양식의 뿌리는 그리스 문명이었다. 삼색기와 함께 전면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 혁명을 수호하는 상상의 여신 ‘마리안느’ 상은, 그리스의 여신상이 그 원형이었다. 이러한

6) “Cette technique, aux yeux de l'Empire, était l'un des moyens qui devaient permettre de renouveler l'architecture dans le sens de la Grèce antique.(...)Le style Empire est le style du terrorisme révolutionnaire, pour lequel l'État est à lui-même son propre but. Pas plus que Napoléon ne reconnut la nature fonctionnelle de l'État comme instrument de domination de la classe bourgeoise, les architectes de son époque ne reconnurent la nature fonctionnelle du fer, avec lequel le principe constructif établit sa domination dans l'architecture. Ces architectes copient la poutrelle métallique sur la colonne pompéienne, l'usine sur la maison d'habitation, de la même manière que plus tard les premières gares se donneront des allures de chalets.”, Walter Benjamin, *Paris, la capitale du XIX siècle* in *Œuvres III*, op.cit., pp.45~46.

미적 ‘프로파간다’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국가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사회통합 이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존재로서의 공화주의 국가는, 자신의 절대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혁명적 테러리즘’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폴레옹 3세의 제2 제정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과는 별개로, 이러한 프랑스 혁명 초기의 국가관 및 이에 연동된 정치적·미적 관념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었다.⁷⁾ 제2 제정은 이러한 관념에 입각해서 철조 건축술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19세기의 건축가들 또한 철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과거의 미적 원형과 이상을 당대적으로 부활시키는 도구로 간주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혁명 전쟁기에 생겨난 엔지니어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건축가와 장식가,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과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 사이의 투쟁이 시작된다.”⁸⁾ 이러한 투쟁이 전반적으로는 에콜 폴리테크닉의 승리, 즉 철의 기능적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었음은 오늘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⁹⁾

7) 최종적으로 쿠데타를 통해 제정을 부활시키고 황제로 등극하기까지, 삼촌 나폴레옹 1세의 실각과 사망 이후 해외를 전전하면서 여러 성향의 정치세력에 가담하였던 나폴레옹 3세의 이력은 복잡하다. 그는 한때 생시몽과 푸리에 등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그룹에 속하기도 하였다. 벤야민은 『파사젠베르크』의 푸리에 관련 노트에서 이 사실을 적시한다. “나폴레옹 3세는 1848년 푸리에주의 그룹의 일원이었다. Napoléon III fit partie en 1848 d’un groupe fouriériste.”, Walter Benjamin,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 Le Livre des passages, op.cit.*, p.655. 제1 제정이 그러하였듯이 제2 제정 또한 서로 모순되는 정치적 원칙이나 요소들을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하였다. 파사주 및 푸리에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벤야민은 역사적 시간성의 복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제2 제정의 정치적이고 미적인 규준에 고대 그리스라는 과거와 최신 과학기술의 요소들이 혼재되어있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8) “Le concept d’ingénieur, issu des guerres révolutionnaires, commence néanmoins à s’imposer, et la rivalité s’allume entre le constructeur et le décorateur, l’École polytechnique et l’École des beaux-arts.”, Walter Benjamin, *Paris, la capitale du XIX siècle in Œuvres III, op.cit.*, p.46.

9) 19세기에 철의 기능적 활용을 극대화한 건축적 사례로 벤야민은 다음의 현상을 언급한다. “사람들은 철을 주거용 건물에 쓰는 것을 꺼렸다. 그 대신 파사주, 전시회장, 역사 등 사람들이 임시로 머무는 모든 건축물에 철을 사용했다. On évite d’utiliser le fer dans les habitations, on le réserve aux passages, aux halls d’exposition, aux gares – tous édifices qui servent à des fins transitoires.”, *ibid.*

19세기의 철조 건축술에 투영된 과도기적 관념, 새로운 재료와 건축술이 과거의 원형적 이상에 복무하는 상황을, 벤야민은 마르크스를 빌려 정식화한다. “새로운 생산수단의 형식은 초기에는 과거 형식의 지배를 받는데(마르크스), 이는 새로운 것이 항상 과거의 것과 뒤섞여 집단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들에 조응한다.”¹⁰⁾ 이렇게 형성되는 이미지는, 새로운 사회적 생산물을 통해 미완의 과거를 완성하고 현재의 결함을 메꾸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자극한 이러한 환상은, ‘집단 무의식’의 층위에서는 ‘본원적 과거(*passé originel*)’로까지 소급되는 꿈, 즉 ‘계급 없는 사회’의 이상과 연동되어 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들과 새로운 것이 상호침투할 때,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상이 활성화된다.¹¹⁾ 이러한 현상의 흔적은 과거의 건축물과 유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것이 부상하는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것에 투영된 유토피아적 이상,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상의 활성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¹²⁾

10) “À la forme du nouveau moyen de production, qui reste d’abord dominée par la forme ancienne(Marx), correspondent dans la conscience collective des images où s’entremêlent le neuf et l’ancien.”, *ibid.*, p.47. 한편 관련된 마르크스의 문장은, cf. Karl Marx, *Le Capital* in *Œuvres. Économies 1*, Paris, Gallimard, 1965, p.927.

11)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분석을 특히 꿈, 무의식 등의 범주와 관련하여 연구한 한국어 선행연구로는, cf. 고지현,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수용에서 드러나는 ‘꿈’의 범주 (I) - 『파사주』 프로젝트에서의 푸리에 역사철학 수용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4집, 한국뷔히너학회, 2005, 177~199쪽 ;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수용에서 드러나는 ‘꿈’의 범주 (2) - 『파사주』 프로젝트에 나타난 푸리에 사상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5집, 한국뷔히너학회, 2005, 267~292쪽.

12)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터넷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급격한 기술 변화 상황에 또다시 투영되는 유토피아적 전망과 디스토피아적 전망의 교차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석의 일정한 타당성은 인정할만하다는 생각이다. 인터넷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활성화된 ‘전자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새것에 투영된 오랜 유토피아적 이상의 최신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원적 과거’라는 다분히 신학적인 개념 혹은 관념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융에게서 기원하는 ‘집단 무의식’ 개념의 타당성 또한 마찬가지로 논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1935년 판본과는 달리, 벤야민은 1939년 판본에서 집단 무의식 개념의 사용에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 개념을 파시즘이 인종주의적, 국수주의적, 전체주의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이러한 분석 내지 가정을 전제하면서, 벤야민은 19세기로 접어들어서 새로운 것이 활성화한 유토피아적 전망, 그러한 전망이 내포하는 ‘복고적’ 양상 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푸리에의 사상과 기획을 제시한다. “푸리에의 유토피아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추동력을 기계에서 얻었다.”¹³⁾ 그런데 근대적 기계문명이 촉발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은, 푸리에에게서 전형적으로 과거의 이상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푸리에에는 자신이 구상한 팔랑스테르(phalanstère)의 건축학적 규준을 파사주에서 보았다. 파사주를 반동적인 방식으로 변형한 것, 이것이 푸리에의 관점의 특징이다. 즉 파사주들은 원래 상업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인데, 푸리에 는 이것을 거주지로 변형한다. 팔랑스테르는 파사주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된다. 푸리에에는 제정 시대의 미적 양식을 특징짓는 형식적 엄격함 속에, 비더마이어(Biedermeier)의 이상화된 목가적 분위기를 도입한다.¹⁴⁾

벤야민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상은 역사의 과도기적 전환기에 종종 발견되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1760년대의 영국을 시발점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전 유럽적 확산이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며,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새로운 근대문명의 상징은 ‘기계’이다.

분명히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용은 파시즘으로 기울었다.

- 13) “Celle-ci trouve son ressort le plus profond dans l’apparition des machines.”, Walter Benjamin, *Paris, la capitale du XIX siècle* in *Œuvres III*, op.cit., p.48.
- 14) “Dans les passages, Fourier a vu le canon architectural du phalanstère. Caractéristique est la transformation réactionnaire qu’il leur fait subir : alors qu’ils servaient primitivement à des fins commerciales, il en fait des maisons d’habitation. Le phalanstère devient une ville faite de passages. Dans la rigueur formelle qui caractérise le style Empire, Fourier introduit l’idylle colorée du Biedermeier.”, *ibid.* 비더마이어(Biedermeier)는 1815~1848년 사이에 독일 남동부 지역에서 유행한 가치관, 풍속, 문학예술 양식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벤야민의 논지와 관련하여서는, 복고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을 기본으로 자연에서 취한 다양한 모티브들을 활용한 양식이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왕정복고기에서 7월 왕정으로 이어진 동시대의 프랑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벤야민이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상황과 푸리에에 대해서 논하면서 굳이 동시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푸리에의 사상 체계, 그리고 이러한 사상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공동체 ‘팔랑스테르’의 작동방식은, 수학적 논리와 근대적인 기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¹⁵⁾ 그런데 산업적인 조직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팔랑스테르는 농업이 주요 산업인 공동체로 설계되었으며, 근대 자본주의적 상업시설인 파사주에서 영감을 얻은 팔랑스테르 건축물의 핵심 용도는 주거 공간이다. 푸리에에 팔랑스테르에 다분히 전근대적인, 가령 이상적인 전원적 삶을 주제로 한 문학이나 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목가적 분위기를 불어넣으려 하였다. 그래서 벤야민은 푸리에의 팔랑스테르를 “파사주를 반동적인 방식으로 변형한 것”으로 규정한다.¹⁶⁾ ‘반동적인(réactionnaire)’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15) 가령 12개의 근본 정념(passion)에 기초하여 남녀 각각 810개로 세분화한 총 1620 가지의 정념들을, 정념의 끌림과 운동법칙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로 조합해 나가는 방식이 팔랑스테르의 기본적인 조직화 방식이자 작동방식이다. 이를 벤야민은 『파사젠 베르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팔랑스테르를 인간 기계장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난이 아니며, 어떠한 공학적인 것도 팔랑스테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팔랑스테르의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규정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 팔랑스테르는 인간들로 구성된 기계이다. On peut qualifier le phalanstère de machinerie humaine. Ce n'est pas une reproche et rien de mécaniste en lui n'est visé. Seulement une façon de qualifier la grande complication de sa structure. Le phalanstère est une machine faite d'hommes.”, Walter Benjamin,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 Le Livre des passages*, op.cit., p.641.

16) 푸리에의 ‘반동성’에 대한 벤야민의 평가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가령 푸리에가 공유하던 영국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당대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에 대해서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푸리에에 국수주의자였다. 그는 영국인과 유대인을 증오하였다. 그는 유대인을 문명인이 아니라, 가부장제적인 풍속을 유지하고 있는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였다. Fourier était chauvin : il haïssait les Anglais et les Juifs. Il voyait chez les juifs, non des civilisés mais des barbares qui ont conservé les mœurs patriarcales.”, *ibid.*, p.661. 벤야민의 이 노트에서도 드러나듯이, 푸리에가 유대인을 혐오하는 주된 이유는 유대인 공동체의 ‘가부장제’이다. 실제로 당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속이 어떠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푸리에의 유대인 혐오의 이유는 ‘진보적’이다. 생시몽과 달리 푸리에에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의 많은 ‘진보적’ 사상가들이 그러하였듯이, 20세기의 민주주의와 보편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푸리에의 사상 또한 진보적 관점과 전근대적인 반동적 관점이 혼재하는 대목들이 있다. 푸리에의 경우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시각, 그의 사상에 내재하는 신학적 요소의 비합리성 등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가 행한 영국과 프랑스의 비교분석에서 노출되는 국수주의적 시각도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산업화와 기술문명의 진전에 자극받은 푸리에의 미래적인 기획 팔랑스테르가, 다른 한편으로 전근대적인 목가적 공동체의 이상을 재소환하는 계기로도 작용하는 일종의 역설에 대해, 벤야민은 이를 19세기라는 전환기, 나아가 인류사 전체의 모든 역사적 전환기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규정한다. 이상이 『파리, 19세기의 수도』 1935년과 1939년 판본에서 큰 수정 없이 제시된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분석의 공통점이다.

Ⅲ.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재해석

벤야민은 『파리, 19세기의 수도』 1939년 판본 1장의 푸리에에 대한 분석에서, 1935년 판본의 내용을 3분의 2 이상 지점까지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다. 새로 작성된 후반부의 내용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1장 말미의 새로운 평가이다.

푸리에적 유토피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기에 만연하게 될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낯설다는 점이다. 푸리에가 보기에 기술은 오히려 자연의 화약에 불을 붙이는 불뚝 같은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공동체가 스스로 ‘폭발을 통해’ 널리 확산된다는 그의 기이한 발상을 해명해주는 열쇠가 아닐까 싶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라는 훗날의 개념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 의한 인간의 실제적 착취를 반영한다. 사회적 삶 속으로 기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좌초하였다면, 잘못은 이러한 착취에 있다.¹⁷⁾

그러하다. 유사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영국의 로버트 오언(Robert Owen)에 대한 그의 비판에도 논리를 넘어 노골적인 감정적 적대감이 배어있다.

- 17) “Un des traits les plus remarquables de l’utopie fouriériste c’est que l’idée de l’exploitation de la nature par l’homme, si répandue à l’époque postérieure, lui est étrangère. La technique se présente bien plutôt pour Fourier comme l’étincelle qui met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위의 평가에서, 푸리에의 ‘반동성’, 즉 19세기의 과학기술과 파사주라는 근대 자본주의 상업 문명에 대한 ‘전근대적 재해석’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푸리에적인 유토피아의 모델로 제시된 팔랑스테르에 입혀진 ‘이상적인 목가적 분위기’는, 사실 전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푸리에 사상의 근본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푸리에가 상상하고 기획한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자연의 만개에 복무한다. 다종다양한 꽃과 식물과 과일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또한 전적인 상호공생의 관계로 전환한 상태가 푸리에가 상정한 새로운 이상 사회의 모습이다. 인간들 각자의 다양한 자연적 본성을 극도로 세분화된 계열체들(séries)로 조직하고, 이러한 계열체들이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푸리에의 이상 사회에서, 노동의 조직화와 사회적 활동은 과학기술과 자연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회 안으로 통합시키는 경쟁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2차 세계대전 발발에 직면한 당대의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성된 벤야민의 1939년 판본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푸리에의 자연 친화적 사상은 동시에 전적으로 ‘평화 지향적’이다. 푸리에 사상의 특징적 단면 중 하나는, 그가 인간의 ‘욕망과 경쟁심’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과 사회의 새로운 조직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욕망과 경쟁심이라는 동력이 정교하게 설계된 노동과 사회 활동의 조직화를 통해 전개되고 수렴되는 방향은, 인간-사회-자연의 조화로운 공생과 번영이다. 이러한 지향성에 더 크게 부합 하면 할수록, 특정 사회구성원이나 그룹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도 더 큰 방식으로 푸리에의 미래 사회는 설계되어 있다.

le feu aux poudres de la nature. Peut-être est-ce là la clé de sa représentation bizarre d'après laquelle le phalanstère se propagerait «par explosion». La conception postérieure de l'exploitation de la nature par l'homme est le reflet de l'exploitation de fait de l'homme par les propriétaires des moyens de production. Si l'intégration de la technique dans la vie sociale a échoué, la faute en est à cette exploitation.”, Walter Benjamin,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in *Écrits français*, op.cit., p.295.

물론 벤야민은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구상에서 두드러지는 다분히 농업 중심적인 노동과 사회의 조직화가 현실적인 구상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푸리에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벤야민은 그의 사상에 내재하는 전근대로의 회귀 양상을 ‘반동적’이라고 규정한 1935년의 평가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기는 하나 벤야민이 푸리에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9세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 양상이, 사실상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 의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 양상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효율성,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기술적 진보’가 자연을 일방적인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한, 이를 위해서 동원되는 인간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착취하는 것 또한 예정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삶 속으로 기술을 통합하려는 시도’, 즉 19세기 전반기 푸리에의 구상 속에서만 해도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도는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는 것이 벤야민의 분석 논지이다. 이와 같은 벤야민의 관점은, 그의 마지막 유고 『역사 개념에 대하여』의 ‘XI번 테제’에서 더욱 명료하게 정식화된다.

그러한 노동 개념은 자연 지배의 진보만을 고려할 뿐 사회의 퇴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한 노동 개념은 나중에 파시즘에서 나타나게 될 테크노크라트적인 특징들을 이미 보여준다. 1848년 이전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자연관과 불길하게 결별한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특히 그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안된 노동은 자연의 착취를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은 순진한 척 만족해하면서 자연의 착취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착취를 대립시킨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그토록 많은 조롱의 소재를 제공한 푸리에와 같은 인물의 환상적인 상상력은 놀랍도록 건강한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푸리에에 따르면, 사회적 노동이 잘 조직된다면, 네 개의 달이 지상의 밤을 밝힐 것이고, 극지방의 빙하가 물러갈 것이며, 바닷물 맛이 짜지 않고, 맹수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을 착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노동, 자연의 품속에 잠들어 있는 잠재적인 창조
성의 산물들을 출산할 능력이 있는 노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타락한 노동관
에, 그에 상응하는 사고방식으로, 디즈겐의 표현대로 “공짜로 제공된” 자연
이 상응한다.¹⁸⁾

위 인용문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언급된 1848년이라는 시점은 1848
년 2월 혁명을 의식한 시점일 것이다. 1830년 7월 혁명이 왕당파와 대부
르주아 세력의 결탁으로 루이 필립의 입헌군주정으로 귀결되면서, 프랑
스 공화주의 혁명사의 새로운 사상과 운동, 즉 사회주의가 서서히 형성
되기 시작한다. 후일 엥겔스에 의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얻게 될, 1830년 7월 혁명~1848년 2월 혁명 사이에 활성화되었던 다양
한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벤야민은 특별히 푸리에의 사상을 다시 언급
한다. 1848년 2월 혁명이 1851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지고 1852년
제2 제정이 들어선 이래, 사회주의 운동의 유토피아적 지향성은 점점 약
화 되었고,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크스의 사상, 즉 ‘유토피아적 사
회주의’에 대비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재편되게 된다.¹⁹⁾ 다

18) “Elle n’envise que les progrès de la maîtrise sur la nature, non les régressions de la société. Elle présente déjà les traits technocratiques qu’on rencontrera plus tard dans le fascisme. Notamment une approche de la nature qui rompt sinistrement avec les utopies socialistes d’avant 1848. Tel qu’on le conçoit à présent, le travail vise à l’exploitation de la nature, exploitation que l’on oppose avec une naïve satisfaction à celle du prolétariat. Comparées à cette conception positiviste, les fantastiques imaginations d’un Fourier, qui ont fourni matière à tant de railleries, révèlent un surprenant bon sens. Si le travail social était bien ordonné, selon Fourier, on verrait quatre Lunes éclairer la nuit terrestre, les glaces se retirer des pôles, l’eau de mer s’adoucir, les bêtes fauves se mettre au service de l’homme. Tout cels illustre une forme de travail qui, loin d’exploiter la nature, est en mesure de l’accoucher des créations virtuelles qui sommeillent en son sein. À l’idée corrompue du travail correspond l’idée complémentaire d’une nature qui, selon la formule de Dietzgen, «est offerte gratis.»”, Walter Benjamin, *Sur le concept d’histoire* in *Œuvres III*, op.cit., pp.436~437.

19)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의 구분에 대해서는, cf.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민석 역, 『반 듀링론』, 새길 아카데미, 2012. 엥겔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과

소 경멸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는 ‘유토피아적’이라는 수식어가 달릴 정도로, 19세기의 포괄적인 시대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학적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도 황당한 상상력과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지라도, 푸리에로 대표되는 1848년 이전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들은 적어도 매우 건강한 자연관과 노동관, 이에 기초한 미래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벤야민은 『파사젠베르크』의 푸리에에 대한 노트에서, 1837년 푸리에의 사망 이후 푸리에주의 공동체의 수장 역할을 한 빅토르 콩시데랑(Victor Considérant)의 철도건설 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록해 두었다. 이 또한 1848년 이전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이 상정한 기술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철도건설 방식은(…)인류를(…)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필연적으로 자연의 작용에 맞서도록, 골짜기들을 메우고, 산들을 깎고 뚫도록,(…)중국에는 일반화된 시스템으로서, 지질의 자연조건에 맞서 투쟁하여(…)자연조건을 **전반적으로** 이에 대립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도록 만들 것이다.²⁰⁾

콩시데랑이 이 글을 출판한 1838년은, 거듭된 실험과 검증 끝에 도출된 기차가 철도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영국을 필두로 유럽 전역에서 본격적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이어진 지 10여 년 남짓밖에 안 된 시점이다. 이때 이미 콩시데랑은 자연조건과 정면으로

학적 사회주의』는 이 저서의 제3부 「사회주의」에 서술된 사회주의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글을 발췌한 것이다.

- 20) “Le procédé des Chemins de fer(…)mettrait l’Humanité(…)dans la nécessité de combattre sur toute la Terre l’œuvre de la Nature, de combler les vallées, de trancher et percer les montagnes,(…)de lutter enfin, en système général, contre les conditions naturelles du sol de sa planète(…)et de les remplacer *universellement* par des conditions opposées.”, Victor Considérant, *Déraison et dangers de l’engouement pour les chemins en fer*, Paris, 1838, p.52, in Walter Benjamin, *Paris, capitale du XIX^e siècle : Le Livre des passages*, op.cit., p.650. 논문의 한국어 번역에서 ‘전반적으로’를 고딕체로 표기한 것은, 원문의 ‘universellement’이 이탤릭체로 강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대립하는, 즉 자연을 파괴하는 철도건설 방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콩시데랑은 이러한 철도 건설방식이 중국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 구도를 인류 문명 전반의 ‘일반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폭제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콩시데랑의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콩시데랑은 철도 건설사업 방식으로 대표되는 당대 문명의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simpliste)’ 성격을 ‘야만’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대안적 문명은 ‘복합적이고 입체적(composite)’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²¹⁾

IV.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술관과 노동관에 대한 벤야민의 비판

푸리에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대안적인 산업-기술-노동-자연의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사상은, 그렇다면 19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며 어떻게 그 사상적, 정치적 전통이 단절되었는가? 앞장에서 인용한 『역사 개념에 대하여』 제 XI번 테제에서, 벤야민은 ‘타락한’ 근대적 노동관이 ‘나중에 파시즘에서 나타나게 될 테크노크라트적인 특징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단 이 문장에서 파시즘과 테크노크라시를 연속선상에 놓는 벤야민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²²⁾ 일단 테크노크라시는 역사적으로나 이념적

21) *Ibid.* ‘단세포적인(simpliste)’ 사회와 ‘복합적(composite)’으로 설계된 사회의 대립 구도는 푸리에 사상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이다.

22) 이 대목뿐만이 아니라, 『역사 개념에 대하여』의 텍스트로서의 ‘완결성’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 개념에 대하여』는 벤야민의 사망 소식이 스페인 당국에 의해 공식 통보된 후 회수된 몇몇 유품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벤야민의 글 가운데 하나지만, 한나 아렌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다면 『역사 개념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출판되지 못한 채 ‘미완성 노트’로 분류되어 문서보관소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역사 개념에 대하여』를 ‘아포리아’적

으로나 파시즘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층위를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포괄적으로는 전문가, 좁게는 과학기술 관료의 사회지배를 의미하는 테크노크라시는, 정치학적 관점의 역사적 연원을 따지자면 최초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생시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다. 생시몽은 근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한 산업적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생시몽주의 운동의 주축은 실증주의로 무장한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다. 과학기술 관료 중심의 산업화 정책에 기초한 생시몽의 사회 대개혁 방안은, 이후 스탈린에 의한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산업화 정책, 가령 국가 주도의 5년 단위 경제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의 경제개발 정책, 2차 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 북한을 포함한 2차 대전 이후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발 정책,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개발 정책을 참조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 수립과 이를 그대로 실행한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 등, 테크노크라시적인 성격의 경제개발 정책은 사실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실행되었다. 벤야민이 생시몽이 아니라 푸리에의 사상을 1848년 2월 혁명 이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측면을 대변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이유도,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가속도가 붙은 근대적 산업화의 폐해들에 대한 대안적 사유가 푸리에에게서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벤야민은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착취하는 왜곡된 근대적 기술관과 노동관에 기초한 테크노크라시적인 산업화 양상이 파시즘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이는 현실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독재의 씨앗이기도 하였다.

인 성격이 두드러진 글로 그 자체로 일정한 완결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역설을 내포하는 사유의 한계지점을 간명하게 정식화하는 아포리아라는 글쓰기 형식 이야말로, 그로부터 출발하여 또 다른 논의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다.

아마도 벤야민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 개념에 대하여』 제 XI번 테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무기력한 패배의 근본 원인을, 당의 노동관과 경제관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회민주주의에 내재하던 순응주의는 그들의 정치적 전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순응주의가 이후의 붕괴를 가져온 원인이다. 자신들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아간다는 확신만큼 독일 노동자 운동을 타락시킨 것은 없다. 독일 노동자 운동은 자신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을, 기술의 발전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기술 진보의 흐름과 함께 하는 산업노동이 정치적 행동을 대변하고 있다는 상상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단 한 발자국이면 족하다. 해묵은 프로테스탄트적 노동 윤리가 세속화된 형태로 독일 노동자들에게서 부활하였다. 고타 강령은 이미 이러한 혼란의 흔적을 담고 있다. 고타 강령은 노동을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르크스는,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소유주가 된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혼란은 갈수록 확산되어 나갔고, 요제프 디츠겐은 곧이어 이렇게 선언한다. “노동은 현대의 메시아이다. (...)노동의 (...)개선 속에 (...) 부가 존재하며, 지금까지 어떤 구원자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인 이러한 노동관은, 노동자들이 부의 산물을 이용할 수 없는 한, 그 산물이 노동자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를 숙고하는 수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²³⁾

23) “Le conformisme dès l’origine inhérent à la social démocratie n’affecte pas seulement sa tactique politique, mais aussi ses vues économiques. C’est là une des causes de son effondrement ultérieur. Rien n’a plus corrompu le mouvement ouvrier allemand que la conviction de nager dans le sens du courant. À ce courant qu’il croyait suivre, la pente était selon lui donnée par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ique. De là il n’y avait qu’un pas à franchir pour s’imaginer que le travail industriel, qui s’inscrit à ses yeux dans le cours du progrès technique, représente un acte politique. Chez les ouvriers allemands, la vieille éthique protestante du travail réapparut sous une forme sécularisée. Le

여기서 벤야민은 기술과 생산력 발전에 대한 맹신, 노동에 대한 종교적 신성화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불가역적이고 필연적인 진보를 ‘역사의 발전법칙’으로 상정한 사회민주당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진보 이데올로기를 곧바로 정치적 이념 및 행동 지침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최종적인 역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 방향 자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 공적 관점에서 산업-기술-노동의 더 나은 민주주의적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벤야민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은 파시즘도 공유하는 기술관과 노동관, 즉 직선적인 진보 이데올로기와 노동의 전근대적인 종교적 신성화를, 갈수록 당의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그 결과는, 파시즘의 부상과 집권 과정 내내 드러난 사회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무기력함이었다. 1870년대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 강령 가운데 하나인 고타 강령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하였더라도, 사회민주당의 단선적 진보관과 타락한 노동관은 잉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는 것이 벤야민의 판단이다.

그런데 벤야민의 논지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와 ‘속류 마르크스주의’를 구분하는 지점에서 멈추었다면, 『역사 개념에 대하여』 제 XI번 테제는 오늘날 특별한 재해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다.²⁴⁾ 이러한 구분

programme de Gotha porte déjà les traces de cette confusion. Il définit le travail comme «la source de toute richesse et de toute culture». À quoi Marx, animé d'un sombre pressentiment, objectait que celui qui ne possède d'autre bien que sa force de travail «est nécessairement l'esclave des autres hommes, qui se sont érigés(…)en propriétaires.» Ce qui n'empêche pas la confusion de se répandre de plus en plus, et Josef Dietzgen d'annoncer bientôt : «Le travail est le Messie des temps modernes. Dans l'amélioration (….)du travail(…)réside la richesse, qui peut maintenant accomplir ce qu'aucun rédempteur n'a accompli jusqu'à présent.» Cette conception du travail, caractéristique d'un marxisme vulgaire, ne prend guère la peine de se demander en quoi les biens produits profitent aux travailleurs eux-mêmes, tant qu'ils ne peuvent en disposer.”, Walter Benjamin, *Sur le concept d'histoire* in *Œuvres III, op.cit.*, pp.435 ~ 436.

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한정되는 구분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생산력의 기술적 발전’ 그 자체는, 마르크스가 ‘생산수단의 공적 성격과 생산 관계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상정할 때, 그러한 모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즉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술 진보와 생산력 발전에 대한 맹신 또한, 마르크스의 사후에 종종 마르크스의 이름을 빌려서 표명되었다. 벤야민이 굳이 푸리에를 다시 소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조차도 부차화해버린 자연과 공존하는 발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까지 동시에 문제 삼는 푸리에를 재소환하는 지점이, 『역사 개념에 대하여』 제 XI번 테제의 새로움이자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왜곡을 넘어, 독일 사회민주당의 더욱 근본적인 역사적 오류는, 푸리에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가치를 완전히 망각한 데 있다는 것이 벤야민의 판단이다. 그러나 역으로, 푸리에에게는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대한 명료한 비판적 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벤야민은 푸리에와 마르크스 양자를 모두 필요로 하였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이상으로 벤야민의 푸리에에 대한 재해석에서 드러나는 벤야민의 역사관의 특징적인 단면, 나아가 그러한 역사관의 현재적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역사 개념에 대하여』가 파시즘의 약진과 2차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당대의 상황 속에서 가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

24)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술 진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벤야민의 본격적인 비판은 이미 1937년 출간된 『에두아르트 폭스, 수집가이자 역사가 Edouard Fuchs, collectionneur et historien』(*Œuvres III, op.cit.*, pp.170~225)에서 개진되었다. 한편 『역사 개념에 대하여』를 벤야민의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cf. Michael Löwy, *Walter Benjamin : Avertissement d'incendie. Une lecture des Thèses «Sur le concept d'histoire»*, Paris, Édition de l'éclat, 2018(2014).

가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기술-노동-자연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벤야민의 이론적 전망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는 점, 그러한 전망의 한 매개체가 푸리에의 사상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벤야민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L'Œuvre d'art à l'époqu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²⁵⁾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글에서도 사용하는 ‘역사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설사 마르크스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의 그것과는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 것도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본 논문의 결론은 사실 또 다른 시작점일 수밖에 없다. 벤야민이 푸리에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새롭게 설정한 방향은,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요구하는, 현재까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길인 것이 사실이다.

계급투쟁을 통해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자연적 요소들과 공생하는 행복한 삶과 존재의 개화를 설파하며 생산성 제일주의적 상상력과 명확하게 단절한 푸리에의 유토피아 사이에서, 길은 좁기만 하다.²⁶⁾

이러한 좁은 길을 확장하는 작업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층위에서 보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밀착한 작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좀 더 특수한 각론에 해당하는 연구를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25) Walter Benjamin, *L'Œuvre d'art à l'époqu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 in *Œuvres III*, op.cit., pp.269~316.

26) “La voie est étroite entre un marxisme positiviste qui veut libérer les travailleurs opprimés par la lutte des classes et l’utopie d’un Fourier qui rompt clairement avec l’imaginaire productiviste pour prôner le bien-vivre et l’épanouissement des êtres dans la symbiose avec les éléments naturels.” Agnès Sinaï, *Walter Benjamin. Face à la tempête du progrès*, Neuvy-en-Champagne, Le Passager clandestin, 2016, p.99.

참고문헌

- 고지현,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수용에서 드러나는 ‘꿈’의 범주 (I) - 『파사주』 프로젝트에서의 푸리에 역사철학 수용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4집, 한국뷔히너학회, 2005, 177~199쪽.
- _____, 「발터 벤야민의 샤를르 푸리에 수용에서 드러나는 ‘꿈’의 범주 (2) - 『파사주』 프로젝트에 나타난 푸리에 사상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5집, 한국뷔히너학회, 2005, 267~292쪽.
- 정의진, 「산업화, 문학예술, 유토피아 : 샤를르 푸리에와 문학예술」, 『프랑스문학예술연구』 제75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21, 121~165쪽.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길, 2008.
- 프리드리히 엥겔스, 『반 듀링론』, 김민석 역, 새길 아카데미, 2012.
- Walter Benjamin, *Écrits français*, Paris, Gallimard, 1991.
- _____,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 Le Livre des passages*, Paris, Cerf, 2006(1989).
- _____, *Le Surréalisme. Le dernier instantané de l'intelligentsia européenne* in *Œuvres II*, Paris, Gallimard, 2000.
- _____, *Paris, capitale du XIX siècle*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 _____, *L'Œuvre d'art à l'époque de sa reproductibilité technique*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 _____, *Edouard Fuchs, collectionneur et historien*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 _____, *Sur le concept d'histoire* in *Œuvres III*, Paris, Gallimard, 2000.
- Victor Considérant, *Déraison et dangers de l'engouement pour les chemins en fer*, Paris, 1838.
- Charles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01.
- _____, *La fausse industrie, morcellée, répugnante, mensongère, et l'antidote, l'industrie naturelle, combinée, attrayante, véridique, donnant quadruple produit et perfection extrême en toute qualité*,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13.
- Jean Goret, *La Pensée de Fourier*, Paris, PUF, 1974.

Michael Löwy, *Walter Benjamin : Avertissement d'incendie. Une lecture des Thèses
«Sur le concept d'histoire»*, Paris, Édition de l'éclat, 2018(2014).
Karl Marx, *Le Capital* in *Œuvres. Économies 1*, Paris, Gallimard, 1965.
Agnès Sinaï, *Walter Benjamin. Face à la tempête du progrès*, Neuvy-en-
Champagne, Le Passager clandestin, 2016.

Reinterpretation of Walter Benjamin on Charles Fourier's Thought: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New Social Relations between Industry, Technology, Labor, and Nature

Jung Eui-Jin

The research project *Passagen Werk*, which Walter Benjamin tried to complete by concentrating all his abilities, was ultimately left as an unfinished manuscript. *Paris, the capital of the 19th century* is an article summarizing the outline of the *Passagen Werk*. The title of the first sub-paragraph that opens this article is 'Fourier or Passage'. The history of Paris in the 19th century, which Benjamin considered as the modern origin of European civilization in the 20th century, in *Paris, the capital of the 19th century*, takes the Fourier era, that is, the 1820s, as the starting point. This was the period when the first passage in Paris was established at Port-Royal. Charles Fourier's utopian project 'Phalanstère'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Parisian Passage. Fourier's utopian thought, the starting point of 19th century French history encompassed in *Passagen Werk*, was actually mentioned at a secondary level throughout Benjamin's work. However, Fourier is called again in 'Thesis XI' of his only manuscript *On the Concept of History*, which Benjamin kept until the moment he died in the village on the border of the Pyrenees. The 'nature-friendly imagination' of 'utopian socialism' in the 19th century, represented by Fourier in this article, is a mechanism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catastrophic situation in Europe in the mid-20th century, represented by the spread of fascism and World War II. According to Benjamin, the cause of Hitler's rise to power and the helpless defeat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failed to prevent the war, lies in the process of distortion of party ideology from the late 19th century. In addition to the distortion of Marx's ideas, the Social Democrats forgot the ideological tradition of 19th century utopian socialism represented by

Fourier.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y were restless optimism about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at they had fallen pre-modern outlook on labor. Faced with the stranding of the progressive ideology of Germany and Europe's social democracy, as well as of European civilization at the time, Benjamin re-examines the contemporary value of Fourier's thought for a new social organization of industry-technology-labour-nature.

Keywords : Walter Benjamin, Charles Fourier, Philosophy of History, Utopian Socialism, Technology and Progress, Nature and Civilization

투고일: 2021. 12. 10./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조창연**

【 차 례 】

- I. 머리글
- II.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구조
- III.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 1. 기호로서 뇌파
 - 2. 뇌파기호의 유형
 - 1) 퍼스의 기호 유형론
 - 2) 뇌파기호의 기호 유형
- IV.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접근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신경과학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학문적인 지형도의 변화가 기호학의 영역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 탐색 작업은 특히 기존의 전통기호, 특히 언어기호를 대체하는 뇌파의 기호 가능성과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호로서 뇌파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의 의미생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뇌파커뮤니케이션(의미전달)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뇌파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하여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 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NRF-2017S1A6A4A01019581), 2021년 10월 23일 개최된 한국기호학회의 가을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前)서원대 교수, jo3378@daum.net

리고 이들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를 설명하고 이들 인터페이스의 융합을 통한 소통 가능성을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호(표현체)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는 대상체인 생각을 해석체인 뇌가 해석하는 삼원적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뇌파는 그 발생적 특성상 뇌의 구조·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쌍방향적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표현체인 뇌파와 해석체인 뇌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특징을 갖는다. 둘째, 뇌파기호는 정신적 존재와 그에 따른 정신현상학적 현상이기에 퍼스의 기호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파기호의 10가지 유형의 파악이 가능하다. 셋째, 뇌파기호의 의미생성은 뉴런(뇌신경)의 차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연역과 귀납의 논리 과정이 신경망의 프로세스 속에 내재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기호의 의미는 가추적 직관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감지된다. 넷째, 생각이 뇌파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뇌파기호를 토대로 하는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 기반의 대인커뮤니케이션 구축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뇌파의 기호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갖는 매개의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지평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나 영상과 같은 기호를 넘어서 뇌파나 혹은 텔레파시와 같은 것들이 일상적인 소통에 등장하는 포스트휴먼의 시대를 대비하는 기호학적 연구 방향을 시사한 점은 또 다른 의의로 볼 수 있다.

열쇠어 : 뇌파, 뇌파기호, 뇌파커뮤니케이션, 뇌파의 세미오시스, 퍼스기호학, BBI, BCI.

I. 머리글

기존의 전통적인 인간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나 문자, 혹은 영상과 같은 기호는 오랫동안 소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들 기호는 우리의 생각이나 대상을 대신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들 기호들의 기능과 역할은 매체의 과학적 발달에 따라 변화되었다. 소리에서 언어, 문자, 영상, 그리고 전파로 이어지는 일련의 매체 발달의 변천 과정에서 기호의 영역도 확장되고 정교화되었다. 이런 기호학적 현상은 기호학 경계 이론에서 기호학의 하위 범주의 확장으로 파악된다(Eco, 1976/2009). 이러한 기호학적 영역의 확장

은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최근에는 신경과학, 특히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학문 영역들이 이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영역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학문적인 지형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호학의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호, 특히 언어기호를 대체하는 뇌파의 기호 가능성에 대한 논의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뇌파의 기호적 역할 가능성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기호학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퍼스 기호학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퍼스 기호학이 뇌파와 같은 일반기호의 특성을 다루는 연구에 언어기호를 토대로 하는 소쉬르의 기호학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기호로서 뇌파의 가능성, 뇌파기호의 의미생성 과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전달 과정(커뮤니케이션)을 탐구함으로써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과 구조를 탐색한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근래 뇌와 뇌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즉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움트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뇌파를 토대로 하는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 brain-to-brain interface)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뇌파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소통 방식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소통 방식은 뇌파기반의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를 연결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두 유형의 인터페이스들이 통합됨으로써 송신자의 생각은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생각만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뇌파를 토대로 하는 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이 논문에서는 간단히 뇌파커뮤니케이션이라 하고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II장의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구조’는 뇌파를 기반으로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뇌-뇌 커뮤니케이션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BCI), 그리고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들이다. III장의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은 뇌파를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한다. 이 작업의 핵심은 퍼스기호학을 적용하여 뇌파를 기호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생성 가능한 기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의 표상적 측면, 재현적 측면, 그리고 해석적 측면을 분석하여 생성 가능한 기호들을 파악한다. 이로부터 10가지 유형의 뇌파기호가 생성된다. 이것은 뇌파가 언어와 유사한 기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장인 ‘뇌파커뮤니케이션의 세미오시스’은 뇌파기호의 기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의미생성과 의미전달의 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여기서는 의미작용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뇌파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논문은 기호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호 개념을 뇌파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호 이론의 정교화를 통하여 기존 기호학의 이론적 영역을 확장한 점이다. 둘째는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에 의한 의미생성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의미소통), 즉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보다 더 정교화 하였다. 이러한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정교화는 생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다가 올 포스트휴먼 시대의 소통 현상을 기호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II.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구조

뇌파커뮤니케이션은 뇌파를 토대로 하는 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언어나 문자와 같은 기존의 기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파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방식이다(조창연, 2015). 이 경우에 발화자인 송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은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 brain-brain interface)¹⁾를 통하여 수행되며 BBI 기반의 커뮤니케이션(brain-to-brain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뇌파로 전환된 인간의 생각이 송·수신됨으로써 생각이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다음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한다.

전통적인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기본모형²⁾은 송신자와 수신자, 메시지, 그리고 채널로 구성된다. 여기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프로세스는 인코딩과 디코딩의 기호화 과정이다. 즉 송신자의 생각을 기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채널(전달매체)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해석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서 뇌파를 토대로 하는 대인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시지의 토대가 되는 생각은 뇌파로 나타난다. 뇌파는 뉴런(뇌신경)들의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전기적 움직임으로 연구에 따르면 생각 등과 같은 사고 활동에 따라서 복잡하게 활성화되면서

1)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원래 공학, 특히 컴퓨터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자가 접촉하는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장치, 그리고 그 장치에 표현된 정보들을 가리킨다(김진우 2005, 125이하 494).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사물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사물의 보이지 않는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나 장치 사이에서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접점이나 경계면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정리해서 데이터 너머의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페이스는 기호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부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Manovich, 2001/2004, pp.112~114). 인터페이스는 공학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최근에는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2) 관련된 기본 모형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Fiske, 강태완·김선남 역(2001), 59~85 참조

나타난다. 신경생리화학적 분석에 따르면 뉴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기적 방향성들은 특정한 배열 형태로 정렬된다. 따라서 개개의 뉴런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파신호들을 모두 파악하지 않아도 정렬된 뇌파들을 분석하면 전체적인 생각 의도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Nicolelis, 2012). 이것은 생각에 의해서 활성화 되는 모든 유형의 뇌파들이 모두 파악되지 않아도 그 기본적인 패턴들이 파악되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뇌파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면 언어나 문자와 같은 매체를 토대로 하는 메시지화의 과정이 없이 생각 자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송·수신자의 요소는 뇌로 대체될 수 있고 메시지와 매체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인터페이스로, 그리고 송·수신자의 상호작용은 인터랙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뇌파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화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과 같이 두 시스템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며 미디어 속에 존재하는 가상세계와 물리적 현실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상호작용적 특징을 갖는 인터랙션이 발생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뇌파기반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페이스는 인터랙션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뇌파기반 인터페이스라는 단순화된 형태로 환원이 가능하다. 즉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그리고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를 토대로 하는 통합된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 기반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는 생체신호를 인식하는 장치를 통해서 일종의 생체 신호인 뇌파를 수용하는 과정과 이를

신호화하고 분석하며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즉 뇌 운동영역의 신경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실시간적으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한다. 이처럼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의 활동과 컴퓨터를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이로써 다양한 외부작업을 통제하는 데 직접 몸을 쓰지 않고 단지 뇌 활동, 예를 들면 생각을 표상하는 뇌파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CBI: computer brain interface)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컴퓨터에 수집된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들에 따라서 분류된 패턴화 된 신호를 재차 뇌파 형식으로 바꾸어 수신자의 뇌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즉 컴퓨터-뇌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에 디지털 신호 형식으로 저장된 뇌파 정보를 수신자의 뇌가 이해할 수 있게 펄스(pulse)형태로 전환하여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경두개를 자극하는 기기(경두개 자기자극기)나 뇌에 이식한 마이크로 칩을 통하여 수행되며 전환된 뇌파는 수신자의 뇌를 자극한다. 그 결과 송신자의 생각 정보를 담은 뇌파는 수신자의 뇌로 전달되어 수신자는 송신자의 생각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Kübler & Müller, 2007). 뇌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가 뇌파를 기반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창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 brain brain interface)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 뇌파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이로써 송신주체와 수신주체는 생각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뇌파가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뇌파가 생각을 대신하고 있는 점은 기호학적 관점, 특히 퍼스 기호학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뇌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대신하는 뇌파의 이러한 특성은 퍼스의 기호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1. 기호로서 뇌파

뇌파는 뇌의 움직임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으로 실재하는 뇌의 움직임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뇌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뇌파는 뇌의 움직임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퍼스 기호학에 의하면 기호는 어떤 것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정의되며,³⁾ 이를 기반으로 존재의 현상학적 양상이 기호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따라서 뇌파를 기호학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퍼스의 기호 현상학적 접근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파커뮤니케이션을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퍼스의 기호 현상학적 관점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들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기호적으로 파악된다(Hoopes, 김동식·이유성 역, 2008; Liszka, 이윤희 역, 2013 참조).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호 현상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존재의 현상은 기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퍼스의 기호 현상학은 인간의 인식과 사고가 본질적으로 기호로 구성된다는 기호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Peirce, 1931-58). 다시 말하면 인간은 기호를 기반으로 사고하며 이런 의미에서 생각도 일종의 기호이며 나아가서 인간도 기호적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는 기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호적인 것⁴⁾으로 특징된다. 생각으로서의 기호, 즉 생각기호는 존재가 인식을 통하여 기호화된 것이다.⁵⁾ 즉 모든 생각은 인지적 표상으로 특징되며 기호의 유기적인

3) “하나의 기호는 누군가에게 일정한 관계나 어떤 명목아래 다른 것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다. (...)” (CP 2.228)

4) 여기서 기호적인 것이란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기호도 포함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도 모두 함축하는 것이다(Strube ed. 1996).

연결 작용(Semiosis)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사고 혹은 생각이라는 고차적인 인식 작업은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신경, 즉 뉴런들의 협력적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초유 기체(Super-Organismus)인 뇌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에 의하면 생각은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이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파다(김도원 외, 2018). 여기서 생각은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대상을 보고 자극의 반응으로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이 뇌에서 뇌파를 생성한다.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뇌파는 생각을 대신하여 표현된 기호로 볼 수 있다. 즉 생각을 대상으로 한 표현체가 뇌파이고, 해석 주체인 뇌가 이를 해석함으로써 기호인 뇌파가 생성되는 것이다. 기호 생성의 이러한 기호학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기호로서 뇌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체인 뇌와 표현체인 뇌파 사이의 특수한 구조·기능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기호로서 뇌파

뇌파는 뇌의 작업 결과에 의한 것으로 뇌의 기능과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뇌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여 구조적 특성이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결과 표현체인 뇌파와 해석체인 뇌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위상에 있게 된다.⁵⁾ 이러한 뇌파와 뇌의 구조·기능적 연결은 구조접속(structural

5) 여기서 존재는 신경학적 존재일 수도 있고 실재적 존재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퍼스의 보편적 범주론을 참고할 것.

coupling)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구조와 기능이 서로의 환경으로 작용하고 상대적인 활동은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 결과 뇌파와 뇌가 구조 접속의 관계를 갖고(Maturana & Varela, 최호영 역, 1995; Schmidt, 박여성 역, 1995) 뇌파의 의미와 뇌에 생성된 생각의 의미가 같게 된다. 그 결과 표현체인 뇌파와 해석체인 뇌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즉 뇌파는 대상체인 생각과 같게 된다. 뇌파의 이러한 기호학적 특성에 의해서 뇌파는 의미전달과 의미생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이로서 뇌파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가능성이 열린다.

이 같은 논의는 존재적 현상이 기호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이고 그러기에 기호로서 뇌파도 정신적 존재인 생각을 퍼스의 기호 현상학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성 가능한 뇌파기호의 표상적, 재현적, 그리고 해석적 성격을 범주와 유형들을 살펴본다.

2. 뇌파기호의 유형

1) 퍼스의 기호 유형론

앞에서 우리는 기호로서 뇌파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기반으로 뇌파기호의 현상학적 존재 양상에 따른 기호 유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하여 퍼스의 기호 유형론과 분류방식을 기반으로 뇌파기호의 유형을 파악한다.⁷⁾

6) 이것은 소쉬르의 기호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호로서 뇌파는 기의인 생각과 기표인 뇌파로 구성된 기호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기호는 기의인 개념과 기표인 청각상의 결합으로 기호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의와 기표의 관계가 자의적이란 점이다. 그러나 뇌파기호의 경우는 언어기호와 다르다. 뇌파기호의 경우에 기표인 뇌파와 기의인 생각은 자의적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유사하고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 결과 기표와 기의는 의미론적으로 동일선 상에 놓이게 되어 뇌파는 생각이 되는 것이다.

7) 퍼스의 기호 유형론은 본래 유형론, 중간 유형론, 확대 유형론, 그리고 최종 유형론의 서로 다른 4가지의 기호 유형론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퍼스 기호학에 의하면 기호 유형은 표상적 차원, 재현적 차원, 그리고 해석적 차원들과 현상학적 존재 양상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현상학적 존재 양상은 가능성(1차성), 사실적 존재(2차성), 그리고 법칙적 존재(3차성)로 구분된다. 각각의 현상학적 존재 양상은 기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속성(가능성)을 나타내는 성질(속성)기호, 실체적 존재를 나타내는 실체(개별)기호, 그리고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법칙기호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호들은 물리적 실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추상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기호자체가 지시 대상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닳거나 유사한 도상, 물리적인 근접이나 인과 관계로 맺어진 지표, 그리고 관습이나 규칙에 따른 상징이 그것이다. 이 기호들은 기호와 지시대상의 연결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대신한다. 마지막으로 기호에 의해서 촉발되는 해석체의 현상학적 속성에 따라서 표징(날말), 사실(발화), 그리고 논증 등의 기호가 형성된다. 이것은 기호가 대상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식에 의해서 연상되는 해석체의 현상학적 속성에 따른 분류다(Gayle L., 1977).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9가지의 기호 범주가 생성된다(표 1 참조).⁸⁾ 여기서 각 기호들

현상학적 존재양상	1차성	2차성	3차성
기호유형적 차원	가능적 존재	사실적 존재	법칙적 존재
기호 자체 (표상적 차원)	성질기호 (Qualisign)	실체기호 (sinsign)	법칙기호 (Legisign)
지시대상과의 관계 (재현적 차원)	도상 (icon)	지표 (index)	상징 (symbol)
해석체와의 관계 (해석적 차원)	표징(날말) (rheme)	사실(발화) (dicent)	논증 (Argument)

[표 1] 현상적 존재 양상과 기호 유형적 차원의 범주(Liszka, 이윤희 역 2013과 박정순 2009를 토대로 정리)

내용은 Liszka, 이윤희 역(2013), 94~122를 참조.

- 8) 표 1에서 성질기호는 속성기호, 표징은 레마로도 표기하지만 우리 말 표기로 의미의 전달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우리 말 표기가 복수인 경우에 용어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표징(날말), 사실(발화)처럼 함께 표기하였다.

은 재현하는 정보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성질기호에서 논증으로 진행할수록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Sarbo, Farkas & Breemen, 2011).


기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표상적, 재현적, 그리고 해석적 특성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갖도록 9개의 범주에 속하는 기호들을 3항적으로 조합한다. 예를 들면 1차성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호는 표상적, 재현적, 그리고 해석적 특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해석적 차원의 표징(날말), 재현적 차원의 도상, 그리고 표상적 차원의 성질(속성)의 기호적 특성을 갖는 기호, 즉 ‘표징(날말)적 도상 성질 기호’가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현상학적 존재 양상들의 기호들을 표상적, 재현적, 그리고 해석적 차원에 따라서 조합하면⁹⁾ 이론상으로는 각 존재 양상별로 27가지의 기호들이 분류된다(표 2 참조). 이것은 존재적 양상이 이 27가지의 기호들로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범주상의 성질기호, 실체기호, 법칙기호 등은 물리적 실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표징(날말), 사실(발화), 그리고 논증도 기호로 인하여 촉발되는 우리의 정신적 관념이나 생각, 또는 느낌에 불과한 것이기에 감각적인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기능에 기반하는 기호 조합들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자격의 법칙이라고 한다(Savan, 1988).¹⁰⁾

자격의 법칙에 의해서 기호의 재현적 차원과 표상적 차원이 결합할 때는 표상적 차원의 현상학적 유형과 동등하거나 더 낮은 유형과 결합되며 기호의 재현적 차원이 해석적 차원과 결합 할 때 재현적 차원의 현상학적 유형과 같거나 더 낮은 유형과만 결합된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호는 10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10가지 기호들로 현실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어떤 존재의 양상들을 기호화 할 수


9) 이것을 구성의 법칙이라고 한다(Liszka, 이윤희 역, 2013, 110쪽 참조)

10) Liszka, 이윤희 역(2013), 111쪽에서 재인용.


현상학적 존재 양상	1차성	2차성	3차성
기호유형차원	가능적 존재	사실적 존재	법칙적 존재
표상적 차원 (기호자체)	①성질 기호 Qualisign	②실체 기호 Sinsign	③법칙 기호 Legisign
재현적 차원 (지시대상과의 관계)	④도상 icon	⑤지표 index	⑥상징 symbol
해석적 차원 (해석체와의 관계)	⑦표징(날말) rheme	⑧사실(발화) dicent	⑨논증 Argument



1	4	7
1	4	8
1	4	9
1	5	7
1	5	8
1	5	9
1	6	7
1	6	8
1	6	9



2	4	7
2	4	8
2	4	9
2	5	7
2	5	8
2	5	9
2	6	7
2	6	8
2	6	9



3	4	7
3	4	8
3	4	9
3	5	7
3	5	8
3	5	9
3	6	7
3	6	8
3	6	9

[표 2] 현상학적 존재 양상들에 따른 27가지의 기호유형들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10가지 기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표 2의 숫자로 표시한 표들에서 색칠한 기호 유형들을 참조). 가능적 존재와 관련하여 표징(날말)적 도상 성질기호(1, 4, 7), 사실적 존재와 관련하여 표징(날말)적 도상 실체 기호(2, 4, 7), 표징(날말)적 지표 실체기호(2, 5, 7), 그리고 사실(발화)적 지표 실체기호(2, 5, 8), 마지막으로 3차성인 법칙과 관련하여 표징(날말)적 도상 법칙기호(3, 4, 7), 표징(날말)적 지표 법칙기호(3, 5, 7), 표징(날말)적 상징 법칙기호(3, 6, 7), 사실(발화)적 지표 법칙기호(3, 5, 8), 사실(발화)적 상징 법칙기호(3, 6, 8), 그리고 논증적 상징 법칙기호(3, 6, 9)가 그것이다(CP 2.254~263). 이 가운데 성질기호는 항상 그 대상을 도상적으로 재현하고 표징(날말)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도상은 항상 표징(날말)적으로 해석되고 논증은 그 대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Liszka, 이윤희 역, 2013). 이로부터 존재의 모든 현상학적인 것들이 기호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2) 뇌파기호의 기호 유형

뇌파기호는 정신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측정을 통하여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현상학적 존재다. 따라서 뇌파는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는 측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적 존재로 볼 수 있고 뇌의 움직임에 따른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신적 존재와도 밀접하며 따라서 가능성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파는 존재적 특성을 법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법칙기호와도 밀접하다. 이런 의미에서 뇌파기호는 퍼스의 10가지 기호 유형들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파기호의 범주적 유형은 퍼스의 10가지 기호 유형들의 특성을 토대로 뇌파 특성들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추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다음에서 뇌파기호의 현상학적 존재 양상을 기호 유형적 차원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뇌파의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갖는 다양한 길이와 진폭을 가진 파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뇌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정신적 존재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속성이나 성질에 의해서 기호가 되며 성질적 측면에서는 표상적 성격이 강한 표징(날말)적 도상 성질 기호와 특징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뇌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범주적으로 표징(날말)적 도상 성질기호의 역할과 흡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뇌파 출현 부위는 뇌파의 움직임을 도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제적 뇌파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뇌파 출현 부위는 실제적 물질의 속성을 도상적으로 해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뇌파 출현 부위는 표징(날말)적 도상 실제기호의 범주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뇌파속도는 느리거나 빠른 특징을 보이는데 느리게 움직이면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것을, 반대인 경우는 정신적 활동이 활발한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뇌파의 속도는 인접성이나 인과 관계를 통하여 뇌의 물질적 속성을 나타낸다. 이 점은 실제적 물질의 속성을

물리적 인접성이나 인과 관계를 통해 대상과 관련을 짓는 표징(날말)적 지표 실체기호의 역할과 범주적으로 유사하다. 뇌파 진폭은 높음과 낮음으로 나타나며 실체적인 뇌파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실제적인 물질적 실체가 대상과 지표적으로 해석되는 기호의 역할과 밀접하며 이런 점에서 뇌파 진폭은 범주적으로 사실(발화)적 지표 실체기호로 간주될 수 있다.

뇌파의 주파수를 대역별로 도식화한 것이 뇌파 신호 형태인데 이것은 대역별 주파수를 규칙에 기반하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신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뇌파 신호는 기호 범주적으로 표징(날말)적 도상 법칙기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징(날말)적 도상 법칙기호는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 추락 경고의 도로표시 등과 같이 지시 대상이 도상적으로 재현되어 규칙 혹은 법칙과 같은 관습적 방식으로 해석되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뇌파 주파수와 병리적 현상은 기호학적으로 보면 지표적으로 관습화된 것이다. 이것은 지시대명사나 천둥을 알리는 자연의 법칙과 같은 역할을 하며 따라서 표징(날말)적 지표 법칙기호와 비견된다. 왜냐하면 뇌파 주파수와 병리적 현상의 관계는 1차적 속성을 통해 가능성이 지표적으로 작동하는 관습적인 기호인 표징(날말)적 지표 법칙기호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뇌파 신호의 특징은 대상체로서 뇌의 상태를 관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뇌파 신호의 특징은 지표적으로 뇌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엔진의 과열을 나타내는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핫도그를 사라고 외치는 외침 등과 같은 사실(발화)적 지표 법칙기호와 범주적으로 유사하다. 사실(발화)적 지표 법칙기호는 지표로 작동하는 관습 기호와 이 관습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체)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뇌파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뇌파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보통 명사 같은 언어의 문법적인 법칙을 기반으로 표징적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것은 법칙을 통하여 상징을 표징적으로 해석하는 기

호인 표징(날말)적 상징 법칙기호와 범주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동의 정도를 뇌파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파악되며 정신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 특성은 실제적인 물질적 특성이 규칙이나 관습의 법칙에 의해서 해석되는 사실(발화)적 상징 법칙기호와 범주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뇌파 진동수는 퍼스 기호학적으로 사실적 상징 법칙기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뇌파 시스템은 뇌의 움직임을 통제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의 통제는 논증적 법칙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처리된다. 퍼스 기호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논증적 상징 법칙기호의 역할과 유사하다. 논증적 상징 법칙기호는 대상에 대한

번호	기호자체	지시대상과의 관계	해석체와의 관계	기호 유형	뇌파기호
1	성질기호	도상	표징(날말)	표징적 도상 성질기호	주파수 스펙트럼
2	실체기호	도상	표징(날말)	표징적 도상 실체기호	뇌파 출현 부위
3		지표	표징(날말)	표징적 지표 실체기호	뇌파 속도
4			사실(발화)	사실적 지표 실체기호	뇌파 진폭
5	법칙기호	도상	표징(날말)	표징적 도상 법칙기호	뇌파 신호 형태
6		지표	표징(날말)	표징적 지표 법칙기호	주파수와 병리적 현상
7			사실(발화)	사실적 지표 법칙기호	뇌파 신호의 특징
8		상징	표징(날말)	표징적 상징 법칙기호	뇌파 유형
9			사실(발화)	사실적 상징 법칙기호	뇌파 진동수
10			논증	논증적 상징 법칙기호	뇌파 시스템

[표 3] 퍼스의 10가지 기호 유형에 기반한 뇌파기호의 유형들

해석을 상징을 통한 논증 시스템, 예를 들면 삼단논법 등에 기반하는 법
칙적 특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퍼스 기호학의 10가지 기호 유형들을 토대로 뇌파기호의 기
호학적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기호로서 뇌파가 소통
에서 기호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뇌파
기호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뇌파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뇌파커뮤니케이션이다. 다음에서 대
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V.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접근

기호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고가 기호적이기 때문이고(CP 5.283), 그리고 인간이 기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CP 5.309). 즉 기호 대행체들, 예를 들면 송신주체인 발화
자와 수신주체인 해석자가 대화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해 기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뇌파커뮤니케이션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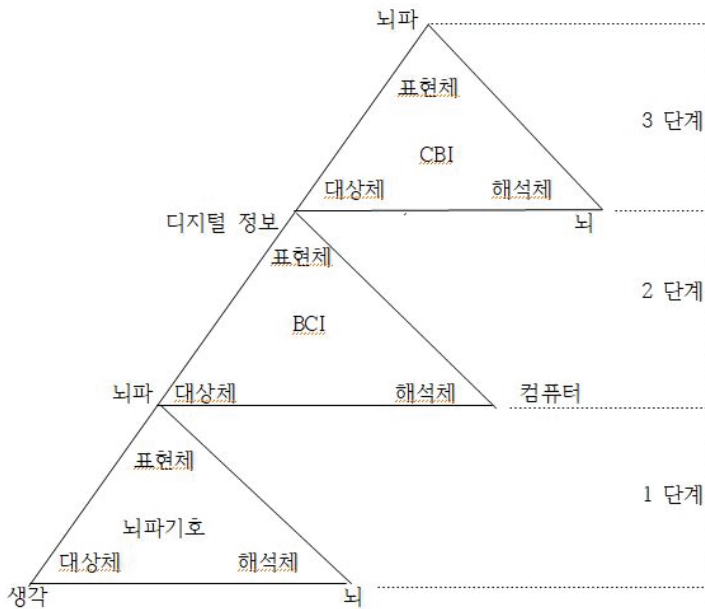
뇌파커뮤니케이션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송신주체와 수신주체가
뇌파를 통하여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 brain-brain interface)를 기반
으로 하는 소통 방식이다. 뇌파커뮤니케이션을 기호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접근은
뇌파기호의 세미오시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기호생성과 이를 토대로
의미생성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전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경우를 사례로 뇌파커무
니케이션의 의미생성 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전달, 즉 커뮤니케
이션 과정을 살펴본다.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해석과 의미생성의 작업 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해석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즉 기호의 의미는 기호가 해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해석 과정은 인지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 과정으로 특징된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퍼스 기호학의 비판 논리의 관점이다. 이에 의하면 의미생성, 즉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 흐름이다(CP 2.623; 2.270; 2.776; 5.171 참조). 이 논리적 흐름은 가추(abduction), 연역, 그리고 귀납이라는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되어 순환적으로 연결된다(Deely, 1982). 이 순환적인 논리 과정의 단초는 새로운 생각(가설)에서 출발된다. 이것이 가추적 논증이다. 새로운 생각으로의 가설은 연역적 논리로 정립되고 이것은 참이 되는 여러 경우들을 관찰하는 과정들을 종합하는 귀납적 논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도출되고(CP 2.622; 2.624) 타당성이 입증된다. 이로서 하나의 가설이 사실화 되는 것이다(CP 2.96). 이 결과가 재차 가추적 과정에 연결되면 순환적인 의미생성의 흐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연속적인 의미의 생성과 전달로 특징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는 것이다.

뇌파커뮤니케이션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rain-Brain Interface) 기반의 소통 방식이다. 이 방식은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와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omputer-Brain Interface)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송신주체로 볼 수 있고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는 수신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뇌파커뮤니케이션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려면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의 생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BCI)와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이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프로세스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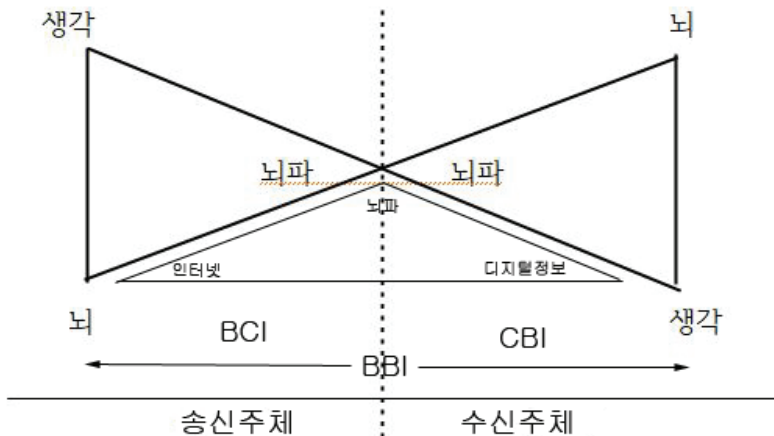
이다. 1단계는 뇌파기호의 생성 단계, 2단계는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BCI)의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의 단계를 나타낸다. 1단계에서 표현체로서 뇌파기호가 생각을 대상체로 하여 해석체인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2단계에서 뇌파기호는 대상체가 되고 해석체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표현체인 디지털 정보가 된다. 3단계에서 기호로서 디지털 정보는 대상체가 되고 해석체인 뇌에 의해서 표현체인 뇌파로 재현된다. 그 결과 송신주체의 생각을 나타내는 뇌파가 수신주체에게 전달되고 이해된다. 이 전체적인 과정은 뇌파기호가 다른 기호주체의 직관적 해석 과정을 통해 다른 기호가 되는 의미생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뇌파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BCI)와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CBI)의 통합을 통하여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 기반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그림 2] 뇌파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BBI)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즉 생각이 뇌파로 기호화 되고 이 뇌파기호가 수신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생각은 뇌파로 표현되는데 표현체인 뇌파와 해석체인 뇌가 의미론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고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어 뇌파는 대상체인 생각과 같게 된다. 따라서 생각은 뇌파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생성 과정을 살펴본다. 인지 차원의 의미생성에는 가추, 연역, 그리고 귀납의 논리적 추론 과정이 관여하지만 뉴런(뇌신경) 차원에서는 연역과 귀납의 논리 과정이 내재화되고 가추적 직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호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파악된다(조창연 2021). 기호학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생성을 기반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뇌파커뮤니케이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기호학적 도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송신주체의 생각은 뇌파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호화 되며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생각과 뇌파는 의미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수신주체는 뇌파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된다.



[그림 3] BBI 기반의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도식

이 때 의미작용은 직관적 논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뇌파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송신주체의 생각이 전달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최근 신경과학, 특히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학문적인 지형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변화는 기호학의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기존의 전통기호, 특히 언어기호를 대체하는 뇌파의 기호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호로서 뇌파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호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의 의미생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뇌파커뮤니케이션(의미전달)의 프로세스를 살펴본 것이다. 이 작업은 퍼스 기호학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뇌파라는 일반 기호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퍼스 기호학이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호(표현체)로서 뇌파, 즉 뇌파기호는 대상체인 생각을 해석체인 뇌가 해석하는 삼원적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뇌파는 그 발생적 특성상 뇌의 구조·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구조적 특성이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도 작용한다. 그 결과 표현체인 뇌파와 해석체인 뇌는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게 되어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특징을 갖는다. 이로서 생각은 뇌파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 둘째, 뇌파기호로는 정신적 존재와 그에 따른 정신현상학적 현상이기에 퍼스의 기호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파기호의 유형이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뇌파기호가 의미론적으로 일반 기호의 역할을 범주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일반적으로 인지적 차원의 의미생성 과정은 가추, 연역, 그리고 귀납의 논리 순환적 추론 과정을 토대로 하지만 뇌파 차원의 의미생성은 뉴런(뇌신경)의 차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연역과 귀납의 논리 과정이 신경망의 프로세스 속

에 내재화되어 가추적 직관에 의존한다. 그 결과 뇌파기호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감지된다. 넷째, 생각이 뇌파로 전달되기 때문에 뇌파기호를 토대로 하는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 기반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즉 표현체로서 뇌파기호가 생각을 대상체로 하여 송신주체의 뇌(해석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대상체가 되고 해석체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표현체인 디지털 정보가 된다. 기호로서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대상체가 되고 수신주체의 뇌(해석체)에 의해서 표현체인 뇌파로 재현된다. 그 결과 송신주체의 생각은 뇌파를 통하여 수신주체에게 전달된다.

이 연구 결과의 의의는 퍼스의 기호 인식론을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 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호로서 뇌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뇌파기호의 관점에서 의미생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미전달) 현상을 분석한 점도 추가적인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기존의 언어기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갖는 매개의 문제의 해결에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도 부수적인 의의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언어적 모델에서는 메시지가 매체에 의해서 매개되고 이것이 수용자의 의식적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됨으로서 메시지가 이해되었다. 이 방식은 수용자의 의식적 성향과 기호를 매개하는 매개체가 갖는 제한적 특성 때문에 생각을 완전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뇌파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뇌파기호는 특성상 그 자체가 매체이면서 동시에 메시지 자체이기에 메시지의 의미는 의식적 해석 과정이 없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으로 감지된다. 그 결과 의미전달의 매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왜곡이 최소화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추적 직관에 기반한 의미전달(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도 부수적인 소득이다. 뇌파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학적 코드에 기반한 직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메시지의 부호화나 해독 과정이 없이 의미를 생성·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비해 메시지의 전달이나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뇌파기호에 의한 소통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뇌파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방식에서는 동의나 이해와 같은 문제는 아직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도 전무한 상태다. 퍼스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합의는 전달된 기호를 통해서 송·수신주체가 유사한 해석체, 즉 공통 해석체를 생성함으로써 가능한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공동 해석체의 형성은 뇌파기호가 송·수신주체의 뇌에 공진과 공조 현상을 발생시켜서 뇌가 동조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이론에 기반한 양자 의식 이론의 발달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¹¹⁾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내용적 제한 때문에 뇌파기반의 소통 방식이 우리의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뇌파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의식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여 주체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결과 인간을 종속시킬 수 있는 위험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기회에서라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포스트휴먼의 시대는 전통적인 언어나 영상과 같은 기호를 넘어서 뇌파나 혹은 기술적 텔레파시와 같은 것들이 일상적인 소통에 등장함으로써 전통 기호학의 하위영역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보다 정교하고 확장된 기호학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1) Pérez, Carreiras & Duñabeitia(2017)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들이 언어적 교환을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자율적인 뇌는 동조 형상으로 표현되는 신경적 진동을 통하여 상호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Hameroff(1987)는 양자 의식이론을 생물학적 근거를 통하여 가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원 외, 『뇌파의 이해와 응용』, 학지사, 2018.
- 김진우,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사람과 컴퓨터의 어울림』, 인그라픽스, 2005.
- 박정순, 『대중 매체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조창연, 『뉴로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 「신경기호학: 이론의 태동과 발달, 그리고 현황」, 한국기호학회 역음, 『한국기호학의 최전선』, 한울, 2021, 91~120쪽.
- Eco, U., *A Theory of Semiotics*,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 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강태완·김선남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Gayle L., Ormiston, Peirce's 3 Categories: Structure of Semiotic, *Semiotica,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1977, Vol. 19(3/4): pp.209~231.
- Hameroff, S.R., *Ultimate computing: Biomolecular consciousness and nanotechnology*, Elsevier-North Holland, 1987.
- Hoopes, J.(ed.), *Peirce on signs: Writings on semiotic by Chr. Sanders Peirce*, 『퍼스의 기호학』, 김동식·이유성 역, 나남, 2008.
- Kübler, A., & Müller, K.-R., An Introduction to brain-computer interfacing. In Dornhege, G. et al.(Eds.). *Toward brain-computer interfacing*(pp.1~25). Cambridge(MA.) & London: The MIT Press, 2007.
- Liszka, James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세미오시스 번역 총서 01,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3.
- Manovich, L., *The Language of New Media*,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역, 생각의 나무, 2004.
- Maturana, H.R. & F.J. Varela, *Der Baum der Erkenntnis: Die biologischen Wurzeln des menschen Erkenntnis*, 『인식의 나무: 인식활동의 생물학적 뿌리』, 최호영 역, 자작아카데미, 1995.
- Nicolelis, M., *Beyond Boundaries*, 『뇌의 미래』, 김성훈 역, 김영사, 2012.
- Pérez, A./ M. Carreiras & J. A. Duñabeitia, Brain-to-brain entrainment: EEG interbrain synchronization while speaking and listening. *Scientific Reports*

- 7, 4190(2017)| DOI:10.1038/s41598-017-04464-4.
- Peirce, C.S. (1931-1958), *Collected Paper*(약어: CP), ed. by Hartschorne, Ch.; P. Weiss(1931-35), ed. by Burks, A. W. (1958), bds. 7-8, Cambridge(Mass): Harvard Univ. Press.
- Sarbo, J.J.; J.I. Farkas & A.J.J., Breemen, *Knowledge in Formation: A Computational Theory of Interpretation*, Berlin: Springer, 2011.
- Savan, D., Decision and Knowledge in Peirce,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1 (2), 1965: pp.35~51.
- Schmidt, S.J.,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구성주의』, 박여성 역, 까치, 1995.

A Semiotic Study of Brainwave-based Communication: Focused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Jo, Chang-Ye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le impact on the field of semiotics brought about by the change in the contours of various neuroscientific spheres, particularly brai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It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brainwaves functioning as signs that substitute for existing conventional signs, particularly linguistic. In addition to this possibility, the study examines the signification of such signs, and their communicative meaning transfer process. Brainwave-based communication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s of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computer brain interface (CBI), and brain brain interface (BBI), which is constituted by combining BCI with CBI. Finally, the study looks at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otential of BBI-based communication.

Some of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 brainwave sign is generated in the triadic relation of the Object of thought, the brain as Interpretant, and the brainwave sign as Representamen. These generative elements are interdependent, as the brainwave as Representamen and the brain as Interpretant are equally semantically significant. Secondly, a brainwave sign is a mental phenomenon, so it can be approached through the prism of pheneroscopy, which can identify 10 classes of sign. Thirdly, because the signification of a brainwave sign is executed on the level of the neuron, and given the logical process of induction and deduction inherent in neural networks, the meaning of a brainwave sign based on these neural traits can be intuitively detected in the abductive process. Fourth, thinking is the process of transmitting thoughts in the form of brainwaves, and a brainwave sign that is produced on the basis of such brainwave transfer enables us to construct the Brain-Brain Interface on which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s possible.

The study's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brainwave signs, of developing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such signs, and of elaborating a perspective through which the mediation problem of existing semiotic communication systems can be resolved in a productive way. It is also important to formulate a form of semiotic training to prepare us for the posthuman era, in which brainwaves or technical telepathy, beyond the language or images on which traditional forms of communication are based, would be used for ordinary communication.

Keywords : Brainwave, Brainwave as Sign, Communication of Brainwave, Semiosis of Brainwave, Peirce Semiotics, Brain-Brain Interface(BBI), Brain-Computer Interface(BCI)

투고일: 2021. 10. 28./ 심사일: 2021. 12. 16./ 심사완료일: 2021. 12. 17.

들뢰즈와 퍼스

–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

최용호**

【 차례 】

- I. 들어가며: 들뢰즈와 퍼스
- II. 이미지와 기호
- III. 사이-차성
- IV. 순수한 기호학
- V. 나가며: 들뢰즈와 엘름슬레우

국문초록

들뢰즈는 영화 연구에 할애된 두 권의 저서에서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학적 유형학을 참조하여 이미지와 기호에 대한 분류 작업에 착수한다. 주지하다시피 들뢰즈는 철학사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구축한 철학자다. 그는 때론 스피노자주의자로, 때론 라이프니츠주의자로, 때론 니체주의자로 간주된다. 이런 사상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들뢰즈가 퍼스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이다. 들뢰즈는 존재동사 ‘이다’와 등위접속사 ‘와’ 사이의 투쟁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논지에 따라 위의 질문을 등위접속사를 사용하여 ‘들뢰즈와 퍼스’로 다시 쓴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우리 작업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기호모델과 기호 유형학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들뢰즈와 퍼스를 번갈아 가며 마치 교차편집하듯이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는 퍼스가 구상한 순수한 문법, 순수한 논리학, 순수

* 이 연구는 202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yhchoi@hufs.ac.kr

한 수사학으로서의 기호학적 기획이 들뢰즈가 제시한 순수한 기호학과 맺고 있는 동음이의어적 관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열쇠어 : 들뢰즈, 퍼스, 이미지, 기호, 세미오시스, 유형학, 순수한 기호학

I. 들어가며: 들뢰즈와 퍼스

『시네마 I』(1983/2002)¹⁾과 『시네마 II』(1985/2005)에서 질 들뢰즈 Gilles Deleuze는 『프루스트와 기호들Proust et les signes』(1964/1997)에 버금가는 이른바 ‘퍼스와 기호들’로 압축될 방대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²⁾의 성격을 띠고 전개될 이 작업이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에 전적으로 빚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들뢰즈는 퍼스가 기호학에서 이룬 분류학적 업적을 이룰테면 린네가 생물학에서 그리고 만델레예프가 화학에서 이룬 업적에 빚대며 상찬하는 것으로 『시네마 I』을 시작한다.³⁾ 퍼스의 기호학 사상이 프랑스 지성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찰스 샌더스 퍼스의 논문집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1931~1958) 총 8권이 완간된 1960년대 이후로 보인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사상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퍼스의 수용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 탈구조주의적 혹은 화행론적 - 움직임이 전개될 때마다 퍼스가 소환됐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그라마톨로지De la grammatologie』(1967)에서 초월적 기의에 대한 해체를 자기보다 앞서 시도한 사람으로 기호학자 퍼스를 소개한다.⁴⁾ 『시네마 II』에서 들뢰즈가 소쉬르의 구조주

1) 슬래시 앞에 적힌 연도는 원전의 출간 연도이며 뒤에 적힌 연도는 한국어 번역본의 출간 연도이다. 앞으로 이런 방식은 원전과 번역본의 출간 연도를 구별하고자 한다.

2) 질 들뢰즈, 『시네마 I 운동-이미지』, 유진상 역, 시각과 언어, 2002, 7쪽.

3) 같은 책, 7쪽.

4) 데리다는 퍼스의 기호학 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퍼스는 우리가 앞에서 초월

의 언어학에 기초한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의 영화 기호학을 비판하기 위해 퍼스의 기호학을 동원한 것은 이런 논쟁적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그동안 - 데리다, 라캉Lacan⁵⁾, 레카나티Récanati 등에서 - 삽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심도 있게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78년 제라르 들르달Gérard Deledalle의 『찰스 샌더스 퍼스, 기호에 관한 수기Charles S. Peirce, *Ecrits sur le signe*』의 출간과 무관하지 않다. 이 책에서 들르달이 퍼스의 미완의 기호학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수고들을 엄선하여 프랑스어로 옮기고 이에 관한 꼼꼼한 주석을 덧붙인 덕분에 퍼스의 수용이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시네마 I』과 『시네마 II』에서 들르달의 이름이나 저서가 언급되거나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들뢰즈의 퍼스 이해에 그의 책이 미친 영향은 향후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⁶⁾

들뢰즈의 철학이 철학사와의 대결을 통해 형성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주의자이거나 라이프니츠주의자이며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니체주의자일 것이다. 영화 연구에서 그는 철저하게 베르그송주의자로 자처한다. 이런 사상사적 맥락에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해보는 것도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는 않는다. 들뢰즈는 퍼스주의자인가? 「질 들뢰즈: 퍼스 기호학을 넘어서Gilles Deleuze: Beyond Peirce's Semiotics」

적 기의의 해체라고 부른 방향으로 매우 멀리 나아간다. 초월적 기의는 어느 한 순간 혹은 다른 순간에 기호에서 기호로의 참조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게 할 것이다.”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9, p.71.

-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캉이 인간적 실존의 3원적 구조로 제시한 상상계, 실재계, 상징계는 퍼스가 현상학적인 3원적 범주로 제시한 1차성, 2차성, 3차성에 각각 상응한다. 라캉은 퍼스의 기호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일찍부터 인용하고 있는데 1970년대 진행된 세미나에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퍼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 6) 미티아스 지렐Mathias Girel은 「퍼스의 프랑스 수용Pierce's Reception in France」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호에 관한 수기』는 들뢰즈가 영화에 대한 그의 두 권의 책을 위한 영감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이다.” Girel Mathias, ‘Pierce's Reception in France’, in *European Journal of Pragmatism and American Philosophy*, Vol VI, 2014, p.4.

에서 엡세이아이Fsayi와 애크래미Akrami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다음과 같은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 철학자는 퍼스의 기호학에 토대를 두고 철학적 체계를 창조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때론 고전 영화의 시기를 퍼스의 범주에 기대 분류했고, 때론 시간-이미지를 퍼스의 방법론에 따라 그의 혁신적 기호학에 기대 분류했다.⁷⁾

요컨대 들뢰즈는 퍼스주의자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혹은 사상사적 평가를 잠시 유보하고 이 대답을 먼저 프랑스어로 옮겨보자. ‘Deleuze est peircien.’ 이 논문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어 동사 ‘est’를 등위접속사 ‘et’로 대체하여 ‘Deleuze et Peirce’라는 정식을 생성할 때 수반되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언어에는 언제나 동사 ‘être’와 접속사 ‘et’ 사이의, ‘est’와 ‘et’ 사이의 투쟁이 있다. 이 두 단어는 발음이 같고 스펠링이 비슷하지만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다.”⁸⁾ 『시네마 II』에서 들뢰즈는 “‘l’Être = est로서의 영화에 모반을 꾀한 그리고ET의 방법론’⁹⁾을 제안한다. ‘est’가 두 단어 - 주부와 술부 - 를 연결하는 계사(繫辭)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et’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전자가 동일화 작용을 이루고자 한다면 후자는 이 작용에 저항하는 변주나 모반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그 둘 사이에 투쟁의 역사가 비롯되는 것이다. ‘들뢰즈는 퍼스주의자다’라는 명제가 ‘들뢰즈와 퍼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제목을 통해 우리가 의도하고자 한 바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들뢰즈에서 퍼스로, 그리고 다시 퍼스

7) Fasayi Golnaz M. and Akrami Musa, ‘Gilles Deleuze: Beyond Peirce’s Semiotics’, in *Journal of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Vol 6, No. 11, University of Tabriz, 2012, p.36.

8)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190쪽.

9) 질 들뢰즈, 『시네마 II 시간-이미지』, 이정하 역, 시각과 언어, 2005, 352쪽.

에서 들뢰즈로 카메라의 초점을 이동하면서 이들이 수행한 이미지와 기호의 분류에 대한 수기를 “그리고의 방법론”으로, 다시 말해 평행교차의 방식으로 편집하는 작업이 전개될 것이다. 이 작업의 대상이 들뢰즈가 영화 이미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 퍼스적 관점에서 보기에 다소 이상한 - 기호들의 목록과 퍼스가 10개의 유형으로, 나아가 66개의 유형으로 세분한 - 들뢰즈가 보기에 역시 다소 이상한 - 기호들의 목록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이들의 일치와 불일치를 성토했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도록 하자. 들뢰즈가 퍼스의 가장 깊은 기호학적 사유에 도달하려는 순간 ‘그리고’가 일으킨 변주나 모반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러한 ‘est’와 ‘et’ 사이의 투쟁을 그 한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해석학적 전략이 될 것이다. 기호학적 과제는, 한편으로 기호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형학을 확립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퍼스가 유고로 남긴 10만 쪽에 달하는 미완의 기호학적 성찰은 이 두 주제를 주변으로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 우리가 편집하고자 하는 ‘그리고’의 장면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미지와 기호 그리고 사이-차성(次性)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기호모델과 관련되고 후자는 기호학적 유형학과 관련된다. 이 두 장면이 들뢰즈가 “순수한 기호학 *sémiotique pure*”¹⁰⁾이라고 부른 기호학적 기획에서 차지하게 될 의미의 윤곽을 - 혹은 윤곽의 붕괴를 - 그리는 것이 평행교차편집을 통해 우리가 담고자 하는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II. 이미지와 기호

들뢰즈는 『시네마 I 운동-이미지』와 『시네마 II 시간-이미지』에서 기호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이미지와 기호’를 동시에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피 퍼스의 기호학은 - *idéoscopie*, *phénoménologie*, *phanéropscopie* 등으로

10) 같은 책, 516쪽.

불리는 -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퍼스는 현상^{pheneron}을 “실제적인 혹은 실제적이지 않은 무엇인가에 상응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정신에 현전하는 모든 것의 집합적 총합”¹¹⁾으로 정의한다. 주지하다시피 퍼스가 구분한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은 현상학적 범주이며 바로 이러한 현상학적 범주에서 출발해 삼원적인 기호학적 모델이 확립된다. 들뢰즈는 퍼스의 현상이 이미지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가 이미지와 기호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우선 상당히 퍼스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퍼스도 들뢰즈도 현상 곧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래 인용한 문구에서 들뢰즈는 퍼스의 현상학적 사유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른다.

퍼스는 이미지, 현상 혹은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퍼스에게 이미지는 세 종류 - 그 이상이 아닌 - 나타난다. 즉 시원성(일차성) (자기 자신으로만 환원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너는 너의 붉은 옷을 입지 않았다’ 혹은 ‘너는 붉게 입었다.’와 같은 명제 속에서, 자기 자신에 즉각적으로 동일시되는 붉음과 같은 특질^{qualité} 혹은 역량^{puissance}, 혹은 순수한 가능성^{possibilité}), 이차성(다른 것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것, 실존^{existence}, 작용-반작용^{action-réaction}), 노력-저항^{effort-résistance}), 삼차성(어떤 것을 또 다른 것과 관계 맺어줌으로써만 그 자신으로 환원되는 것, 관계^{relation}, 법칙^{loi}, 필연적인 것^{nécessaire})이 그것이다. 이 세 종류의 이미지는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서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수적이라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둘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차성 내에는 하나의 일차성이 존재하게 되며, 세 번째 이미지에는 셋이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가 완료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세 번째 이미지를 이원자^{dyade}들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

11) 본 논문에서 퍼스에 대한 인용은 들뢰즈가 『기호에 대한 수기』에서 프랑스어로 옮긴 번역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위 인용문과 관련된 프랑스어 판본은 다음과 같다. “la totalité collective de tout ce qui, de quelque manière et en quelque sens que ce soit, soit présent à l’esprit, sans considérer aucunement si cela correspond à quelque chose de réel ou non” Deledalle G., *Charles S. Peirce, Ecrits sur le signe*, Paris, Editions du Seuil, 1978, p.67.

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삼원자triade적인 조합 혹은 또 다른 양태들과 삼원자적 조합들은 무한히 다양한 다수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시 말해 ‘이미지와 기호’라는 짝패에서 들뢰즈 ‘와’ 퍼스 사이에 투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퍼스가 현상에서 출발한 것은 그가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라고 부른 현상학적 범주로 그의 기호모델, 이른바 세미오시스를 논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미지와 기호라는 짝패에서 기호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들뢰즈는 김호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화기호학이라기보다 영화이미지학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¹³⁾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시네마 I』과 『시네마 II』에서 퍼스의 기호학 사상의 중핵으로 간주되는 ‘세미오시스semiosis’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들뢰즈는 퍼스의 유형학을 참조하면서도 이러한 유형학의 토대가 됐던 기호모델, 다시 말해 세미오시스라는 퍼스의 가장 독창적인 사유를 건너뛴 것이다. 들뢰즈에게 기호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시작해서 『안티 오이디푸스L'anti-Oedipe』(1972/1997)를 거쳐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1980/2001)에 이르기까지 들뢰즈는 기호나 기호 체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 교육학적이거나 정치학적인 - 모델들을 천착해왔다.¹⁴⁾ 문제는 이러한 모델들이 퍼스의 세미오시스 개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들뢰즈는 『시네마 I』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앞으로 영화 이미지 연구를 지배하게 될

12) 앞의 책, 70쪽.

13) 김호영, 『영화이미지학』, 문학동네, 2014 참조.

14) 기호에 대한 교육학적 모델은 『프루스트와 기호들』의 핵심 주제이다. 여기서 들뢰즈는 “배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호들과 관계한다”고 적는다.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1997, 23쪽. 『천개의 고원』에서는 기표작용적 기호계, 전-기표작용적 기호계, 반-기표작용적 기호계, 후-기표작용적 기호계 등 네 가지 기호학적 체제를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함의를 천착한다.

자신의 기호모델을 정식화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기호란 한 유형의 이미지를 그 구성적 관점에서나 그 발생 및 형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심지어 소멸의 관점에서) 재현하는 특수한 이미지인 것 같다. 이미지의 유형마다 적어도 두 개에서 여러 개의 기호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제시하는 이미지와 기호들의 분류법을 퍼스의 거대한 분류에 대응시켜보려 한다. 어쩌서 그것들은 명백한 이미지들에 대해서조차 일치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중에 펼쳐질 이러한 분석에 앞서 우리는 퍼스가 때로는 의미를 유지시키면서 때로는 그것을 수정하거나 아예 완전히 바꾸어버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세세히 다룰 것이다) 특정한 기호를 지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¹⁵⁾

위에서 들뢰즈가 제시한 기호에 대한 정의는 전형적이면서도 비전형적이다. 전형적인 이유는 그가 여전히 재현의 개념에 기대 기호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기호는 “*aliquid stat pro aliquo*”(무엇인가를 재현하는 무엇)로 정의된다. 위에서 들뢰즈는 이 정의의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이유는 기호가 재현하는 대상이 다른 야닌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들뢰즈는 기호가 이미지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한다. 요컨대 기호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이미지인 것이다. 여기서 들뢰즈의 기호모델은 - 소쉬르적인 - 이원적인 것도 아니고 - 퍼스적인 - 삼원적인 것도 아니며 일원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일원적 기호모델에 두 가지 벡터가 존재한다. 하나는 구성적 벡터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적 벡터다. 즉, 기호는 이미지를 한편으로 구성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발생적으로 재현하는 특수한 이미지인 것이다. 운동-이미지에 속한 모든 이미지들은 두 유형의 기호로 구조화된다. 구성기호와 발생기호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15) 질 들뢰즈, 『시네마 I』, 앞의 책, 132-133쪽.

“영화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카메라가 바라볼 경우”¹⁶⁾에 형성되는 지각-이미지는 한편으로 고체적인 명제기호dicisigne와 액체적인 리움reum이라는 두 개의 구성기호와 다른 한편으로 기체적인 엔그램engramme이라는 하나의 발생기호에 의해 구조화된다.¹⁷⁾ 일원적인 기호모델이 이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는 삼원적 기호모델을 제시한 퍼스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가 한 명이라면 현대 기호학의 아버지는 두 명이다. 소쉬르와 퍼스가 현대 기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는 이들이 한 명의 조부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기호와 대상과의 외적 관계를 내부화함으로써 외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적 단위라는 새로운 기호 개념을 정립한다.¹⁸⁾ 즉, 기호와 대상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쉬르는 기호의 내적 관계를 구성하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마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호의 내부는 텅 비게 된다. 요컨대 기호는 ‘근원적으로 radicalement’ 자의적인 것이다.¹⁹⁾ 결과적으로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의 소극적이고 차별적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식

16) 질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74쪽.

17) 이 세 종류의 기호에서 곧바로 드러나듯이 들뢰즈는 퍼스의 유형학을 참조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전혀 다른 종류의 기호 목록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퍼스의 기호 목록 중 하나인 것처럼 제시한다. 이 세 기호 중에 퍼스의 기호 목록에 속한 것은 명제기호 하나뿐이다. 더군다나 이 명제기호는 3차성이 아니라 퍼스의 범주론에는 존재하지 않은 영차성에 속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네마 I』에서 들뢰즈가 제출한 이미지와 기호들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구성기호	발생기호
지각-이미지	명제기호, 리움reume	엔그램engramme
감화-이미지	도상(성질, 역량)	성질기호qualisigne, 능력기호potisigne
충동-이미지	(선과 악의) 페티시	징후syntôme
행동-이미지	공기호syntsigne, 지표indice	흔적empreinte
반성-이미지	(견인 혹은 역전의) 형상들	담론적 상황/행동
관계-이미지	표지와 습관의 정황	상징

1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민음사, 1990, 83-85쪽.

19) 같은 책, 85-88쪽.

화된다. 소쉬르는 이처럼 - 외적 관계는 끊어내고 내적 관계는 텅 비우는 - 이중의 자의성 개념으로 전통적인 기호 개념과 단절한 것이다.²⁰⁾ 퍼스는 비록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하나의 활동 속에 통합함으로써 기호학적 전통을 넘어선다. 여기서 활동은 그가 세미오시스라고 부른 생산 활동이다. 퍼스에게 기호는 말하자면 기호를 생산하는 기호와 다른 것이 아니다. 기호가 대상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호가 생성된다. 비로 이 새로운 기호가 그가 ‘해석체interpretant’라고 부른 것이다.²¹⁾

‘세미오시스’라는 기호 생산 과정에서 재현의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와 지위를 부여받는다. 퍼스의 기호학에서 재현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재현이 대상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무엇보다 인식,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새로운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세미오시스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혁신하는 기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들뢰즈의 말로 이러한 퍼스의 기호학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란 그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다른 기호 속에서 자신의 대상의 인지를 전제하고 거기에 해석체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인식을 덧붙인다.²²⁾

해석체가 또 하나의 기호인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대상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상체 곧 기호다. 기호는 해석체가 대상과 재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개로

20)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용호, 『소쉬르는 이렇게 말했다』, 세창출판사, 2017, 121~136쪽 참조.

21) 가장 많이 인용되는 퍼스의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호 혹은 표상체 representamen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또는 특정한 자격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표하는/재현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되며, 말하자면 이 누군가의 정신 속에 동등한 기호, 혹은 아마도 더 발전된 기호를 창출한다. 그것이 창출한 기호를 나는 첫 번째 기호의 해석체라고 부른다.” Deledalle G., *op.cit.*, p.121.

22) 질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71쪽.

서 개입한다. 퍼스의 세미오시스에서 재현은 이처럼 기호에서 대상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체에서 기호를 거쳐 대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구성한다.

세미오시스의 작동 방식에는 이러한 재현의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이 존재한다. 결정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들르달의 『기호에 대한 수기』에 등장하지 않은 퍼스의 기호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기호를 대상이라 불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며, 이어서 누군가에 대한 하나의 효과를 결정하는 무엇인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효과는 내가 해석체라고 부른 것으로 이 해석체는 결과적으로 대상에 의해 매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²³⁾

위 정의에서 논리적 출발점은 기호나 해석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대상이 기호를 결정하고 이어서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대상은 기호를 매개로 해석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용어는 가장 느슨한 의미에서 생성의 조건을 구성한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강미정이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에서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²⁴⁾ 퍼스의 삼원적 기호모델에는 두 가지 벡터가 존재한다. 하나는 ‘해석체 -> 기호 -> 대상’으로 이어지는 재현의 벡터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 ->

23)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I define a sign as anything which is so determined by something else, called its Object, and so determines an effect upon a person, which effect I call its interpretant, that the later is thereby mediately determined by the former.” Peirce Ch. 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II, edited by Nathan Houser and Christian Kloesel,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p.478.

24) 강미정에 따르면 “퍼스는 종종 해석체에 대한 대상의 작용을 ‘매개적 결정’(EP 2: 492)이라 하고, 해석체를 대상에 대한 ‘매개적 재현’(CP 1: 553)이라고 한다. (.....) 그렇다면 세미오시스는 재현 벡터와 결정 벡터로 구성된 매개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강미정, 『신미술사의 철학을 위하여,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이학사, 2100, 146~147쪽.

기호 -> 해석체'로 이어지는 결정의 벡터다. 세미오시스가 무한히 전개 되는 기호학적 과정인 것은 무엇보다 결정의 벡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기호를 매개로 해석체의 무한한 생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재현의 벡터는 일단 세미오시스 과정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해석체를 생성하는 대신 방향을 바꾸어 대상을 향한 움직임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해석체의 대상에 대한 매개적 재현이 퍼스가 역동적 대상²⁵⁾이라고 부른 대상 자체와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긴장이 결정의 벡터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세미오시스의 과정이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들뢰즈의 일원적 기호모델은 상술한 퍼스의 삼원적 기호모델과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분명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용어상의 유사성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들뢰즈는 기호가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벡터, 즉 구성의 벡터와 발생의 벡터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성적 벡터는 이미지를 구조화하는 것이고 발생적 벡터는 구조화된 이미지를 탈구조화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의 일원적 기호모델 속에서 역동적인 이미지의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이 두 벡터의 긴장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방금 살펴본 것처럼 퍼스의 세미오시스는 재현 벡터와 결정 벡터의 상호 교차 덕분에 무한한 움직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들뢰즈의 일원적 모델이 이원적으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스의 삼원적인 모델도 이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용어상의 유사성이 개념상의 유사

25) 퍼스는 직접적 대상과 역동적 대상을 구분한다. 직접적 대상은 세미오시스의 작동 속에 포착된 대상을 가리키며 거기서 벗어난 대상, 다시 말해 대상 그 자체가 역동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Deledalle, *op.cit.*, pp.53-54 참조.

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퍼스의 세미오시스는 항상 대상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으로 모델링되는 반면에 들뢰즈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계기를 상정한다. 지각-이미지에서 엔그램은 - 고체적이거나 액체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 자유로운 분자적인 움직임을 향유하는 기호로 상정된다.²⁶⁾ 들뢰즈는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대상을 향하는 기호학적 움직임을 객관주의의 유혹으로 규정하고 주체를 향하는 기호학적 움직임을 주관주의의 유혹으로 규정한다.²⁷⁾ 예술의 기호는 이 두 유혹을 극복하고 가장 고상한 기호학적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들뢰즈의 기호가 대상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른바 거짓의 역량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퍼스의 세미오시스는 대상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에서 무한한 인식을 길러내고자 한다. 들뢰즈와 퍼스가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III. 사이-차성

들뢰즈가 퍼스의 유형학적 용어법을 참조하면서도 이 유형학의 토대로 작용한 세미오시스 개념을 제거한 것은 그의 퍼스 수용에 커다란 균열을 초래한다. 균열의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상학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호학적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퍼스의 기호학적 건축물은 그가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라고 부른 현상학적 범주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26) 예를 들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총괄적인, 또는 인간적인 지각) 단단한 상태에서 분자들이 이동하고 서로의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액체상태로 넘어갔다면, 결국은 각 분자들의 자유운동으로 정의되는 기체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베르토프에 따르자면 물의 유동성을 넘어 여기, 즉 물질의 입장 또는 기체적 지각에까지 도달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질 들뢰즈, 『시네마 I』, 앞의 책, 161쪽.

27) 질 들뢰즈, 펠릭스 가카리, 『안티-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83~84쪽.

그의 범주론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일차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향으로 표시될 수 있다. ‘a는 빨강이다.’²⁸⁾ 이처럼 감각 또는 감정이 일차성의 범주를 대표하며 이 범주는 순수한 가능성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정식화된다. 이차성은 다른 것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향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이 이차성의 전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준다. ‘a가 b와 부딪힌다.’ 작용과 반작용, 힘과 저항, 충돌 등이 이차성을 대변하는 개념들이며 이들은 현실성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규정된다. 삼차성은 하나와 다른 하나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퍼스가 제시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향을 포함하고 있는 ‘주다’라는 행위다. ‘a가 b를 c에게 주다.’ 이는 a가 b를 놓치고 c가 b를 잡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 삼차성은 이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삼차성 이상은 모두 삼차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를 c와 d 사이에 놓는다’는 네 개의 향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차성에 속한 것이다. 이 사차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삼차성으로 환원 가능하다. 하나는 ‘a가 b를 e에 놓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e는 c와 d 사이에 있다’이다. 삼차성을 대표하는 것은 이처럼 개념, 관계, 법 등으로 삼차성은 필연성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정의된다. 상술한 현상학적 세 범주를 퍼스의 기호모델에 적용하면 ‘기호’ 곧 ‘표상체’는 일차성에, ‘대상’은 이차성에, ‘해석체’는 삼차성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들뢰즈는 퍼스가 이처럼 공들여 세공한 현상학적 범주 구분을 교란한다.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에 이른바 ‘사이-차성’을 도입한 것이다. 들뢰즈는 감화-이미지, 행동-이미지, 관계-이미지를 각각 퍼스의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에 속한 것으로 제시한다. 『시네마 I』에서 퍼스의 유형학이 적실하게 적절하게 적용된 사례가 바로 이 대목이다. 하지만 들뢰즈는 일차성과 이차성 사이에, 그리고 이차성과 삼차성 사이에 사이-차성을 도

28) 아래에 든 예들은 다음의 논문에서 차용한 것이다. Fasayi and Akrami, *op.cit.*, p.17.

입하여 충동-이미지와 반성-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전개한다. 다르게 말해 전자는 1.5 차성에 속한 것으로 후자는 2.5 차성에 속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들뢰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퍼스의 일차성 이전에 영차성*zéroïté*이 존재할 것”²⁹⁾이라고 가정한다. 『시네마 II』에서 삼차성을 넘어서는 n 차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 구분에 대한 이러한 의도적인 몰이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냐하면 들뢰즈는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는 다음의 사항을 강조한다. 만일 일차성이 그 자체로서 ‘하나’이고 이차성이 둘이라면 그리고 삼차성이 셋이라면, 둘 속에서도 역시 두 번째 항이 이차성을 확인하는 동안 첫 번째 항이 일차성을 ‘다시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셋 속에는 일차성의 대표자 하나와 이차성의 대표자 하나가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삼차성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1, 2, 3뿐만 아니라 2 안의 1, 2 그리고 3 안의 1, 2, 3이 있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변증법을 본다. 그러나 변증법이 이 모든 운동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오히려 변증성이 그 운동의 해석이라고, 매우 불충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⁰⁾

위에서 들뢰즈는 한편으로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의 변증법적 성격에 주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변증법적 해석의 불충분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불충분성에 대한 언급이 들뢰즈의 영화이미지학에서 사아-차성의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아-차성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불충분성에 대한 보완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29) 질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73쪽.

30) 질 들뢰즈, 『시네마 I』, 앞의 책, 359쪽.

사실 변증법적인 해석의 불충분성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퍼스 자신이다.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퇴행dégénération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개념이 흥미로운 이유는 들뢰즈가 제기한 사이-차성에 대한 문제를 퍼스식으로 제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들르달은 『기호에 대한 수기』에서 퍼스의 현상학에서 퇴행 개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³¹⁾ 그에 따르면 퍼스는 현상학적 범주에서 본래적 등급degré authentique과 퇴행적 등급degré dégénéré을 구분한다.³²⁾ 위 인용문에서 들뢰즈는 이차성을 설명하면서 “둘 속에서도 역시 두 번째 항이 이차성을 확인하는 동안 첫 번째 항이 일차성을 ‘다시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적고 있다. 들뢰즈의 말로 퍼스의 퇴행 개념을 설명하자면 두 번째 항이 확인한 바가 이차성이 아니라 일차성일 때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다. 들르달이 든 예들로 들뢰즈의 설명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본래적 이차성이다.³³⁾ 여기서는 두 번째 항이 이차성(아벨)을 확인하는 동안 첫 번째 항이 일차성(가인)을 다시 취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다르게 “루쿨루스가 루쿨루스 집에서 식사한다”는 이른바 퇴행적 이차성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째 항(루쿨루스)이 이차성으로 다른 아닌 일차성(루쿨루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차성은 더 이상 퇴행할 단계가 없기 때문에 퇴행적 일차성이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다르게 이차성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의 본래적 이차성과 하나의 퇴행적 이차성을 지닐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차성은 하나의 본래적 삼차성과 - 이차성으로 퇴행이 이루어진 것과 일차성으로 퇴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면 - 두 개의 퇴행적 삼차성을 지닐 수 있다.

31) Deledalle, *op.cit.*, p.24, pp.27-29, pp.143-144, pp.210-211.

32) *Ibid.*, p.210.

33) 아래 제시된 예들은 모두 다음에서 차용한 것이다. *Ibid.*, p.210.

여기서 들뢰즈가 제안한 사이-차성이라는 등급과 퍼스가 상정한 퇴행이라는 등급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충동-이미지는 행동-이미지가 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이미지는 관계-이미지가 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퇴행적 이차성은 1.5 차성으로, 퇴행적 삼차성은 2.5 차성으로 재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들뢰즈의 개념을 퍼스의 용어로, 퍼스의 개념을 들뢰즈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뢰즈가 영차성을 설정한 것은 이 둘의 이러한 점점의 가능성에 분명한 한계를 부과한다.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퍼스의 세계는 크게 정량적인 수학적 세계와 정성적인 경험적 세계로 나뉜다.³⁴⁾ 정량적 세계 속에서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 구분되고 이러한 정량적 구분이 정성적 세계 속에서 실현될 때 실현 양태에 따라 다시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 구분된다. 그 결과 일차성이 다시 일차적 일차성, 이차적 일차성, 삼차적 일차성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다소 용어가 복잡하지만 앞의 숫자는 실현 양태와 관련된 범주 구분을 나타내고 뒤의 숫자는 존재론적 범주 구분을 나타낸다. 일차성과 마찬가지로 이차성도 일차적 이차성, 이차적 이차성, 삼차적 이차성으로 분화되며 삼차성도 일차적 삼차성, 이차적 삼차성, 삼차적 삼차성으로 분화된다. 이를 기호모델에 적용하면 일차성에 속한 ‘기호’ 곧 ‘표상체’가 다시 성질기호qualisign, 개별기호sinsign, 법칙기호lesisign로 나뉘고, 이차성에 속한 ‘대상’이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나뉘며, 삼차성에 속한 해석체가 술어rhema, 명제dicisign, 논증argument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퍼스의 기호학적 유형학에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34) 퍼스는 과학적 인식론을 크게 수학과 실증과학으로 구분하는데 수학은 정량적인 분야이며 실증과학은 정성적인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저서 참조. 제임스 아쿱 리슈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HUINE, 2019.

첫째, 위에서 열거한 여러 종류의 기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항들은 하나의 세미오시스를 구성하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 삼원적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하나의 기호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질기호’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성에 속한 ‘도상’과 삼차성에 속한 ‘술어’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의 기호 유형, 다시 말해 ‘술어적 도상적 성질기호(rhematic iconic sinsign)’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삼원적 관계가 형성될 때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실현 양태의 관점에서 일차적인 것은 이차적인 것을 포함할 수 없고 이차적인 것은 삼차적인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일차적 일차성에 속한 성질기호는 일차적 이차성(도상)과 일차적 삼차성(술어)과 세미오시스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이차적 이차성이나 이차적 삼차성과는 세미오시스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현 양태는 실현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눈 것인데 하나의 단계가 이후에 전개될 후속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차적 일차성이 맺을 수 있는 세미오시스적 관계는 모두 세 가지다. 이차적 일차성(개별기호)-일차적 이차성(도상)-일차적 삼차성(술어), 이차적 일차성(개별기호)-이차적 이차성(지표)-일차적 삼차성(술어), 이차적 일차성(개별기호)-이차적 이차성(지표)-이차적 삼차성(명제)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10개의 기호 유형이 확립된다.

1. 술어적 도상적 성질기호
2. 술어적 도상적 개별기호
3. 술어적 지표적 개별기호
4. 명제적 지표적 개별기호
5. 술어적 도상적 법칙기호

6. 술어적 지표적 법칙기호
7. 술어적 상징적 법칙기호
8. 명제적 지표적 법칙기호
9. 명제적 상징적 법칙기호
10. 논증적 상징적 법칙기호

셋째, 위 도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호는 성질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 등 세 가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술어, 명제, 지표, 도상 등은 이 세 기호의 유형적 특성을 서술하는 용어들인 것이다. 이 세 기호가 세미오시스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10개의 기호 유형이 도출되는 것이다.

들뢰즈의 기호모델 속에 상술한 세미오시스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퍼스적 관점에서 볼 때 치명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들뢰즈는 지각-이미지를 구성적으로 재현하는 기호의 대표적인 사례로 ‘명제 기호’를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피 퍼스의 유형학적 용어법에서 명제 기호는 이차적 삼차성에 속한다. 들뢰즈의 기호 유형학에서 그것이 영차성에 속한다는 것은 퍼스적 관점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명제 기호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영화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카메라가 바라보는 장면은 명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표적이고 개별적이다. 다시 말해 이 지각-이미지는 ‘명제적 지표적 개별기호dicent indexical sinsign’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다. 세미오시스의 작동 원리가 배제된 기호학적 유형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퍼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퍼스적인 용어법을 대거 차용한 들뢰즈의 기호학적 기획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IV. 순수한 기호학

『시네마 II』 2장 「이미지와 기호의 요약」에서 들뢰즈는 메츠의 영화 기호학이 구조주의 언어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가 소쉬르의 기호론 *sémiologie*이 아니라 퍼스의 기호학 *sémiotique*을 택한 이유는 기호론이 기호를 언어를 모델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그는 퍼스의 기호학과도 결별을 예고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퍼스는 기호학자인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기호학적 요소들이 아직 언어적인 특권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이미 기호 자체는 언어적 특권을 함축하고 있으며, 어쩌면 단지 언어적 기호들만이 유일하게 순수 인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의식 혹은 출현으로서의 이미지의 모든 내용을 흡수하고 다시 재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언어적 기호들은 언표로 환원되지도 않는 질료들이 살아 남게 하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기호학은 다시 랑그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퍼스는 자신이 출발했던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현실의 묘사 과학’(논리학)으로서의 기호학을 구축하기를 포기했던 것 같다.³⁶⁾

퍼스 기호학의 기원은 중세 교부철학의 교육학적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중세 교부철학적 전통에 따라 기호학적 탐구를 3과목 *trivium*으로 구분한다.³⁷⁾ ‘순수한 문법 *pure grammar*’, ‘순수한 논리학

35) 『시네마 II』를 번역한 이정하는 ‘*sémiologie*’를 기호학으로 ‘*sémiotique*’을 기호론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국내 기호학계 번역 관행에 맞지 않을뿐더러 들뢰즈가 *sémiologie*가 아니라 *sémiotique*을 옹호한 이유가 언어와 무관한 기호까지 다루고자 했던 것임을 상기할 때 적절한 번역어라고 볼 수 없다. *sémiologie*의 *logie*가 *logos*에서 비롯된 말로 언어를 가리킨다고 할 때 말이 들어있는 *論*을 강조한 기호론으로 *sémiotique*의 번역어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6) 질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71~72쪽.

37) 퍼스 연구가 제임스 야콥 리슈카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 수사학, 논

proper logic’, ‘순수한 수사학pure rhetoric’이 그것이다.³⁸⁾ 퍼스의 기호학적 기획은 한마디로 순수한 기호학을 정립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중세 교부철학에서 3과목은 4과목과 함께 교양 교육의 중핵을 형성한다. 수학, 지리학, 기하학, 음악으로 이루어진 4과목이 수를 매개로 세계를 이해하는 분과 학문들이라면 문법, 논리학, 수사학으로 구성된 3과목은 언어를 매개로 세계를 이해하는 분과 학문들이다.³⁹⁾ 3과목에 기초한 퍼스의 순수한 기호학은 들뢰즈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적 특권을 함축”하고 있다. 퍼스가 해석체의 세 가지 양상으로 제시한 ‘술어’, ‘명제’, ‘논증’은 교부철학의 이러한 교육학적 모델이 그대로 투영된 개념들이다. 삼원적으로 작동하는 세미오시스가 해석체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할 때 들뢰즈가 세미오시스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 특권을 거머쥔 해석체가 “언표로 환원되지도 않는 질료들이 살아남게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네마 I』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도입됐던 퍼스의 기호학은 『시네마 II』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시네마 II』에서 들뢰즈의 기호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네마 I』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첫째, 이미지와 기호의 구분이 사라진다. 들뢰즈는 여전히 이 개념적 짝패를 사용하지만 마치 동음이의어인 것처럼 간주하고 사용한다. 예를 들어 들뢰즈가 꿈-

리학은 중세의 7개 교양과목 중 3개(trivium)를 지칭한다. 퍼스는 중세의 세 학문을 기호학적 용어로 재구성하려 하였다. 이는 존 로크가 기호학이 지금까지의 개념과 다른 논리와 비판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17세기의 비판의 개념은 오늘날의 인식론, 즉 지식의 이론과 상응한다. 퍼스는 스코틀랜드 스콜라 철학자 던스 스코터스(Duns Scotus)를 따라 세 과목을 사변적 문법, 사변적 수사학, 비판적 논리로 구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변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비판적이란 말은 인식론적 개념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 야콥 리슈카, 앞의 책, 48쪽.

38) 제임스 야콥 리슈카는 『퍼스 기호학의 이해』를 퍼스 기호학의 3과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기호문법’, ‘비판논리학’, ‘보편수사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퍼스의 기호학적 기획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 참조. 최용호, 「언어학적 전회와 그 이후」,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2020, 303~401쪽.

이미지라고 부른 것과 꿈-기호라고 부른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기억-이미지나 기억-기호 등도 마찬가지다. 둘째, 이미지와 기호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시네마 I』에서 기호가 이미지와 맺고 있는 재현의 두 가지 방식이 무의미해졌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시네마 II』에서는 구성 기호와 발생기호의 구분이 무효화된다. 이는 시간-이미지 혹은 시간-기호가 전적으로 자율적인 단위가 됐음을 시사한다. 『시네마 II』에서도 시각 기호, 음향 기호, 유리 기호, 기억 기호, 꿈 기호, 정신 기호, 가독 기호 등 여러 유형의 기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퍼스의 기호학과 무관하게 다루어진다.

『시네마 I』 1장 「서문」에서 퍼스를 인용하며 기념비적 작품의 서언을 고한 들뢰즈는 『시네마 II』 10장 「결론들」에서 퍼스가 아니라 루이 엘름슬레우 Louis Hjelmslev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종언을 고한다.

랑그는 이로부터 단위와 기표적 조작을 갖는 언어적 언표들을 이끌어내지만, 언표 가능한 것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의 이미지와 기호들은 다른 본성을 갖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엘름슬레우가 비-언어적으로 형성된 질료 *matière*라 부른 것이며, 반면에 랑그란 형태와 실체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다.⁴⁰⁾

『시네마 I』과 『시네마 II』, 다시 말해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를 관통하는 들뢰즈의 기호학적 기획은 결론에서 ‘순수한 기호학’⁴¹⁾으로 드러난다. 그는 이러한 기호학적 기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운동구조와 시간발생은 순수한 기호학이 펼쳐지는 두 연속적인 장들이다.”⁴²⁾ 그가 긴 여정의 끝에서 자신의 기호학적 기획의 전모를 드러낼 때 그는 다시 한번 퍼스의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서 환원 불가능한 간격이 이

40) 질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515~516쪽.

41) 같은 책, 516쪽.

42) 같은 책, 516쪽.

들 사이를 갈라놓는다. 데리다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순수한 문법, 순수한 논리학, 순수한 수사학으로 구성될 퍼스의 기호학적 기획은 “하나의 담화가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 말함의 의지를 위해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형식적 학설”⁴³⁾을 구축하는 것이다. 퍼스에게 순수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만 들뢰즈에게 순수한 것은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질료적인’ 것이다. “전(前)언어적인 이미지와 기호의 체계”⁴⁴⁾를 겨냥하는 기호학적 기획, 다시 말해 들뢰즈의 순수한 기호학은 질료의 기호학인 것이다. 그렇다면 들뢰즈는 엘름슬레우주의자인가?

V. 나가며: 들뢰즈와 엘름슬레우

표현expression, 내용contenu, 형식forme, 실체substance, 질료matière, 층위plan 등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에서 엘름슬레우의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영화의 기호학적 연구의 마지막 장에 그의 이름이 재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엘름슬레우의 언어학 사상에 대한 그의 지성사적 평가다. 주지하다시피 엘름슬레우는 가장 소쉬르적인, 가장 소쉬르주의적인 언어학자로 평가받는다. 들뢰즈는 이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는다.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발췌한 다소 긴 그의 지성사적 평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든 관점에서, 몇몇 외양에도 불구하고, 엘름슬레우의 언어학은 소쉬르 및 소쉬르 이후의 기획과 깊이 대립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학은 모든 특권적 준거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학은, 그 어떤 초월적 심급 - 설사 퇴각했을지라도 - 에 의해서도 조망되

43) Derrida, *op.cit.*, p.71.

44) 들뢰즈, 『시네마 II』, 앞의 책, 516쪽.

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대수적인 순수 내재장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학은 이 장에서 형식과 실체, 내용과 표현의 흐름들을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학은 기표-기의를 종속 관계를 표현-내용의 상호 전제 관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중 분절은 더 이상 언어의 위계 지어진 두 층위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고, 내용의 형식과 표현의 형식 간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 상호 전환 가능한 탈영토화된 두 면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기표의 효과들이 아닌, 기표의 벽을 뚫고 가로질러서 너머로 가는 분열들, 기호-점들 또는 흐름의 절단들인 형상들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요컨대 언어학에서 엘름슬레우의 매우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가 야기하는 반작용들은 우리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설명된다. 즉 그는 목소리-표기행위가 지배하는 이중의 놀이를 깨부수고, 욕망의 흐름들에 따라 형식과 실체, 내용과 표현을 흐르게 하며, 기호-점들 내지 분열-형상들에 따라 이 흐름들을 절단하는 순수하게 내재적인 언어활동 이론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⁴⁵⁾

위에서 들뢰즈는 우리가 ‘est’를 ‘et’로 대체하여 들뢰즈 ‘와’ 퍼스를 다시 읽은 것처럼 엘름슬레우 ‘와’ 소쉬르를 다시 읽고 있다. 이런 다시 읽기가 지성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유보하고 곧바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해보자. 들뢰즈는 엘름슬레우주의자인가? 퍼스에서 시작해서 엘름슬레우로 이어지는 들뢰즈의 순수한 기호학적 기획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한 평행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의 정식으로 갈음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들뢰즈주의적인 방식일지 모른다. 들뢰즈 ‘와’ 엘름슬레우.

45) 질 들뢰즈, 펠릭스 가카리, 『안타-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410-411쪽

참고문헌

- 강미정, 『신미술사의 철학을 위하여,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이학사, 2011.
- 김호영, 『영화이미지학』, 문학동네, 2014.
- 최용호, 『소쉬르는 이렇게 말했다』, 세창출판사, 2017.
- _____, 「언어학적 전회와 그 이후」,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2020, 303~401쪽.
- 앙리 베르크손, 『물질과 기억』, 최화 역주, 자유문고, 2017.
- 제임스 야콥 리슈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HUINE, 2019.
-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1997.
- _____, 『시네마 I 운동-이미지』, 유진상 역, 시각과 언어, 2002.
- _____, 『시네마 II 시간-이미지』, 이정하 역, 시각과 언어, 2005.
- 질 들뢰즈·펠릭스 가카리, 『안타-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1997.
- _____,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민음사, 1990.
- Deledalle G., *Charles S. Peirce, Ecrits sur le signe*, Paris, Editions du Seuil, 1978.
-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9.
- Fasayi Golnaz M. and Akrami Musa, 'Gilles Deleuze: Beyond Peirce's Semiotics', in *Journal of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Vol 6, No. 11, University of Tabriz, 2012, pp. 15~37.
- Girel Mithias, 'Peirce's Reception in France', in *European Journal of Pragmatism and American Philosophy*, Vol VI, 2014, pp.1~9.
- Peirce Ch. 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II*, edited by Nathan Houser and Christian Kloesel,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Deleuze and Peirce: An Attempt at the Classification of Images and Signs

Choi, Yong-Ho

It is well known that Deleuze elaborates his philosophical thought confronting himself with the history of philosophy. He is said to be a Spinozian or a Leibnizian or fundamentally a Nietzschean. In the two volumes consecrated to the study of the cinema, he reveals himself as a Bergsonist. In the preface of those monumental works he clarifies the fact that his intellectual adventure is greatly indebted to the semiotic works done by Charles Sanders Peirce. In this regards, a question deserves to be raised: is Deleuze a Peircean?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place the verb 'is' - in French 'est' - with the coordinate conjuncture 'and' - in French 'et' - to produce a phrase like 'Deleuze and Peirce'. According to Deleuze, there is a conflict in the history of the thought between the verb 'est' and the conjunction 'et'. So the replacement I have proposed will be focused on conflicts, contradictions, tensions between Deleuze and Peirce at the very moment when Deleuze seems to come close to the depth of Peirce's semiotic thought. The issues that I'd like to tackle in this paper is threefold: i) the semiotic model ii) the typology of signs iii) the 'pure' semiotic project. Dealing with those issues, my claim is that the thesis "Deleuze is a Peircean" becomes more and more problematic.

Keywords : Deleuze, Peirce, Image, Sign, Semiosis, Typology, Pure semiotics

투고일: 2021. 11. 12./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김유신 설화의 영웅성과 신화담론 구축의 기호학적 상징 질서 연구

표정옥*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꿈’을 활용한 시간 초월의 환상적 기호 구축
- III. ‘말’을 활용한 공간 초월의 의지적 기호 구축
- IV. ‘별’과 ‘빛’을 통한 천신의 현현으로서 영웅의 기호 구축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김유신 설화 전반을 대상으로 상징적인 신화 담론의 기호체계를 읽고자 했다. 김유신을 둘러싼 이야기에는 영웅성과 관련해서 일정한 신화 담론이 상징적 질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유신 이야기에 세 가지의 상징적 질서가 기호체계를 보이면서 등장한다고 보았다. 첫째, 김유신의 이야기에는 유독 ‘꿈’이라는 상징을 활용해서 시간 초월의 환상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유신 서사에서 꿈은 전생과 현생과 내세를 이어주는 시간 초월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호체계이다. 꿈을 통해 탄생의 신비가 고구려와 가야와 신라에 걸쳐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김유신이 후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된다는 의미의 기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김유신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말’의 상징성에 주목해 보았다. 꿈이 시간을 초월하는 상징적 기호체계를 가진다면 말은 공간을 초월하는 상징적 기호체계를 가진다. 말은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김유신의 의지적 서사를 구축하는 상징적 질서를 구축했다. 말은 김유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로 작용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교수, pyowu@sm.ac.kr

했다. 김유신은 명장이었기 때문에 말은 늘 동반되는 용맹함의 상징체이자 의지적 인물의 상징체로도 활용되었다. 따라서 김유신의 말 서사는 의지적 기계를 더 강조하는 상징적 기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김유신 이야기에는 유독 별과 빛의 상징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33천의 한 신이 된 김유신을 상징화시키는 기호적 상징 장치로 보인다. 천신의 현현으로서 김유신은 유독 빛과 별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김서현과 만명 부인의 태몽에서부터 산신에게서 보검을 받은 부분, 비담의 난 때 별과 관련된 소문, 만파식적 이야기 속에서 33천의 등장 등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게 한다. 본 논문은 각 문헌 속 설화들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면서 어떻게 김유신의 영웅 서사 담론이 병렬적으로 상징적 기호체계를 획득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열쇠어 : 김유신 설화, 영웅성, 신화담론, 기호학, 상징, 꿈, 말, 별, 빛

I. 들어가며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영웅성을 획득한 현재형은 단연 김유신일 것이다. 조지프 캠벨의 분류로 정의하자면 김유신은 전사로서의 영웅에 속하는 인물이다. 우리 역사에서 전사로서 영웅성을 획득한 인물로는 장보고, 이순신, 을지문덕, 임경업 등 다수의 장군들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영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연 김유신이 최고로 추앙되는 이유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서사가 도처에 병렬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난세는 영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김유신은 자주 소환되곤 했다. 중국과의 사대를 존중해야 했던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김유신이 매우 긍정적으로 소환되곤 했다. 반면, 일제 강점기에 단재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의 <백제의 강성과 신라의 음모> 부분에서 김유신의 전공이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즉, 김유신의 패전은 가려지고 숨겨지고 조그만 승리들이 과장되어 기록된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리고 김유신이 지혜와 용기 있는 명장이라기보다는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라고 폄하하였다.¹⁾ 그 후 현대사 속에서 김유신의 평가는 단재 신채호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어 기억되는 김유신은 영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커뮤니케이션에는 초월자의 계시나 신비로운 해석들이 가끔 좌절되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체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는 논의²⁾는 김유신의 설화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김유신은 시대를 넘어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김유신을 기억하는 공간은 1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경주 김유신묘, 경주 재매정택 유적지, 출생지인 충북 진천의 길상사, 강원도 강릉의 화부신사, 서울 용산구 보광동 김유신 사당 등 다양한 김유신 기억 공간이 현재 진행형 문화재로 존재한다. 어떤 곳에서는 산신으로 존재하고 어떤 곳에서는 천신으로 존재하면서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영웅적 신화담론을 재생산하는 것에는 비슷한 의미의 기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유독 김유신의 서사는 일련의 신화 작용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화에서 영웅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기호학적 의미 체계를 설화 전반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웅의 출생은 대개 화려한 징후와 함께 서술된다. 김유신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스 신화의 태세우스와 한국 신화의 주몽만 보더라도 출생의 뿌리는 대개 왕족이나 천신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장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많은 시련을 동반한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고단한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성취 서사 구조를 가진다. 김유신의 출생 역시 가야의 12대 왕손으로서 신비한 꿈의 영험함을 가지고 탄생한다. 그는 신라 진골로 성장하지만 신라 주류 사회에서는 그다지 큰 세력이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골에서 진골로 좌천

1) 신채호, 『조선상고사』, 도디니, 2016, <12편>, 145~148쪽.

2) 송효섭, 『『삼국유사』 뮈토스의 기호학적 읽기』, 『시학과 언어학』 2, 시학과 언어학회, 2001, 138~139쪽.

윤예영, 「삼국유사설화의 인식적 차원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297쪽.

된 24대 사료왕 집안의 김춘추와 결탁하고 많은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시키는 태대각간 장군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죽어서 마침내 제 54대 경명왕 때 홍무대왕으로 봉해진다.³⁾ 전생의 이야기인 고구려 추남의 이야기에서부터 죽은 후 홍무대왕으로 봉해지는 기간까지의 김유신의 서사는 매우 긴 흐름을 보인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김유신을 열전 10권 중 3권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은 일통삼한(一統三韓)의 용지를 품은 전승무패(全勝不敗)의 전략가이자 전술가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김부식은 을지문덕이나 장보고도 중국의 역사책이 아니면 역사 속에서 매몰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독 사람들이 김유신을 칭송해서 잊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또한 김부식은 꼴배는 아이와 소먹이는 아이까지도 김유신을 알고 칭송했다고 말한다.⁴⁾ 김유신은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12대 손으로 9대 구형왕의 증손자이다. 신라 법흥왕에게 굴복한 가야의 구형왕은 신라의 진골로 영입되었고, 그의 막내 아들 김무력은 신라의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다. 그리고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은 진흥왕의 동생 숙흘종의 딸 만명과 눈이 맞아 야합하여 아들 김유신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유신은 진평왕 12년 595년에 신기한 탄생 설화와 함께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김유신 연구는 신격화 측면에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설화들이 텍스트 별로 따로따로 검토되어 왔다. 사후에 신격화되고 산신으로 모셔진 사례들을 통해 김유신의 설화성이 가지는 신성성이 검토되어 오기도 했다.⁵⁾ 또한 김유신이 영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영웅 이전의 미숙성, 세 여신의 조력으로 성장하는 독자성, 다양한 조력자들에 의

3) 『삼국유사』에는 54대 경명왕 때 홍무대왕으로 봉해졌다고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흥덕왕이 42대 홍무왕이라고 봉했다고 한다.

4) 김부식, 『삼국사기』,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03, <삼국사기 권 41~43>, 9~27쪽.

5) 박성주, 김수민, 「김유신관연 문헌사료와 설화의 비교」, 『신라문화』 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181~248쪽.

한 과업 성취라는 영웅신화적 구성을 찾는 연구도 그간에 이루어진 성과이다.⁶⁾ 이는 다분히 조지프 캠벨이 주장하는 입문-시련-귀환 하는 정형화된 구조로 바라본 영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의 설화들이 <본기>의 이야기와 적절히 교직되었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사실과 허구의 적절한 긴장 관계가 그려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⁷⁾ 또한 더 나아가 김유신 설화를 무관념과 천관념의 이원적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는 종교적으로 확장 가능한 논의로 보여지기도 한다. 고구려의 추남과 고구려의 멸망 부분에는 무(巫)관념이 등장하고 국가적인 문제로 논의될 수 있는 사후 미추왕릉 이야기는 천(天)관념의 발현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⁸⁾ 김유신은 천도를 이해하면서 인도를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할 정도로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⁹⁾ 이처럼 그간의 김유신 연구들은 영웅의 일대기와 영웅성에 맞추어져 있거나 세계관의 공존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유신의 영웅화에서 유불 사상의 개입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세계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¹⁰⁾ 다른 방향으로 김유신의 신채호 평가들과 비슷한 논의들도 다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신채호의 평가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논의들도 존재한다.¹¹⁾ 또한 김유신의 집안이 신라에서 주변부였다는 사고 방식에서 다소 벗어나서 집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존재

6) 이정훈,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 고찰 — ‘영웅-되기’의 조건과 영웅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9, 국어문학회, 2010, 253~275쪽.

7) 안영훈, 「『삼국사기』<김유신전>의 구성과 특징, 『인간과 문화 연구』 17,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10, 277~300쪽.

8) 박대복, 「『삼국유사』소재 김유신 설화의 무관념과 천관념, 『한국민속학』44-1, 한국민속학회, 2006, 169~203쪽.

9) 천인석, 「김유신의 생애와 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45, 한국유교학회, 2011, 69~92쪽.

10) 김승호, 「김유신 전기에 나타난 영웅화 방식과 유불사상의 개입, 『어문연구』94, 어문연구학회, 2017, 81~106쪽.

11) 주보돈, 「신라 금입택과 재매정택, 『신라문화』 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95~117쪽.

한다.¹²⁾ 본고는 여러 책에 등장하는 김유신 설화들을 하나의 병렬체 서사로 상정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화적 담론과 상징적 서사 질서를 기호체계로 구축해 읽어보고자 한다.

김유신은 탄생, 성장, 죽음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사에서 많은 신이한 설화들을 수반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신체호의 부정적인 평가와 학계의 그간의 다소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김유신이 신화적 영웅으로 인식되는 서사 장치의 기호체계적 질서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자료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3권과 일연의 『삼국유사』 속 김유신 관련 설화들,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김유신 관련 서술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이인로의 『파한집』에 실린 김유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등이다. 김유신을 둘러싼 이야기에는 영웅성과 관련해서 일정한 신화담론이 상징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김유신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상징적 질서가 기호체계를 보이면서 등장한다. 첫째, 김유신의 이야기에는 유독 ‘꿈’이라는 상징을 활용해서 시간 초월의 환상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유신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고구려 점쟁이 추남 이야기에서 죽은 추남이 대왕의 꿈에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라의 김서현과 만명 부인의 꿈이 등장한다. 그 꿈을 통해 김유신의 출생은 하늘의 기운이 인간에게 온 것임이 형상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꿈은 김유신 여동생 보희의 남산에 눈 오줌 이야기이다. 김유신은 이 꿈을 적극 활용해서 여동생 문희를 김춘추와 연결시킨다. 김유신 서사에서 꿈은 전생과 현생과 내세를 이어주는 시간 초월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호체계이다. 꿈을 통해 탄생의 신비가 고구려와 가야와 신라에 걸쳐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김유신이 후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된다는 의미의 기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12) 조범환,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술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11, 신라사학회, 2007, 35~71쪽.

둘째, 김유신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말’의 상징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꿈이 시간을 초월하는 상징적 기호체계를 가진다면 말은 공간을 초월하는 상징적 기호체계를 가진다. 말은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김유신의 의지적 서사를 구축하는 상징적 질서를 구축한다. 이인로의 『파한집』에 등장하는 천관녀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유신은 어머니의 반대로 천관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천관녀의 집으로 안내한 말을 단칼에 죽이게 된다. 말은 김유신의 나약한 의지라는 기의를 드러내는 기표이면서 상징적 희생물이 된 셈이다. 또한 신라와 백제의 대야성 전투에서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 외교를 떠날 때도 김유신은 김춘추에게 자신의 말발굽으로 의리를 맹세한다. 김유신과 함께 등장하는 말은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자신을 단죄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의리를 중시하는 의지적 표현의 기호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유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후손이 억울하게 죽자 혼령이 되어서도 말을 끌고 무덤에서 나와 미추왕 무덤으로 들어가 미추왕과 답판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기에서 말은 억울한 무장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시켜 주는 기호작용을 한다. 이때 말은 떠남을 의미하는 기의를 가진 기표가 된다. 김유신은 명장이었기 때문에 말은 늘 동반되는 용맹함의 상징체이자 의지적 인물의 상징체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김유신의 말 서사는 그의 의지적 기제를 더 강조하는 상징적 기호로 확대해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김유신 이야기에는 유독 별과 빛의 상징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33천의 한 신이 된 김유신을 상징화시키는 기호적 상징 장치로 보인다. 천신의 현현으로서 김유신은 유독 빛과 별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김서현과 만명 부인의 태몽에서부터 산신에게서 보검을 받은 부분, 비담의 난 때 별과 관련된 소문, 만파식적 이야기 속에서 33천의 등장 등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게 한다. 『화랑세기』에서도 김유신을 해와 달에 비유하

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에서 김유신은 별과 빛의 연관성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각 문헌 속 설화들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면서 어떻게 김유신의 영웅 서사 담론이 상징적 기호체계를 획득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꿈’을 활용한 시간 초월의 환상적 기호 구축

영웅의 탄생은 비범한 징후를 동반한다. 꿈에서 변신한 웅녀에게서 태어나 조선을 세운 단군, 알에서 태어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 역시 알에서 태어나 신라를 세운 혁거세,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나 가야를 세운 수로 등 모두 비범한 탄생을 보인다. 하늘의 기운으로 태어나는 천손 강림은 북방계 신화의 특징으로 알려져왔고, 알에서 탄생하는 난생계 탄생은 남방계 신화의 특징으로 정의되어왔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라는 문화적 결합 요소로 탄생한 김수로의 탄생은 북방계의 남방이주 설을 드러낸다고 해석되어왔다. 영웅들의 탄생은 하늘의 기운이나 알에서의 탄생이라는 전통적인 공식 이외에도 자주 ‘꿈’이라는 매개를 활용하기도 한다. 영험한 징후를 보여주는 꿈이 등장하고 나면 반드시 영웅과 같은 비범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다. 김유신의 조상인 김수로왕도 꿈이라는 상징적 모티프와 매우 연관이 깊다. 김수로의 부인 허황후는 부모들의 꿈만 믿고 머나먼 가야로 이주해오기 때문이다. 가야와 김수로와 김유신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꿈이라는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유신의 집안은 처음부터 꿈과는 뗄 수 없는 일종의 문화적 기호작용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김유신의 탄생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꿈은 고구려 추남의 이야기이다. 김유신은 화랑의 무리 중 백석이라는 사람과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 고구려를 미리 염탐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러나 내림, 혈

레, 골화 라는 3명의 호국신이 김유신에게 백석이라는 사람이 적국의 첩자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유신은 백석이 자기를 죽이러 온 고구려 첩자임을 알게 된다.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은 왕비의 단정치 못한 행실이 나라의 불행을 야기시킨다고 말하고 매우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추남은 자신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왕의 꿈에 나타나 “내가 죽은 후에 장군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신하들은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¹³⁾”라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때 왕은 보장왕이라고 『삼국유사』에는 나와 있다. 역사적으로 보장왕은 642년에 왕위에 올라 682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김유신은 595년에서 673년에 생존했던 사람이다. 보장왕이 집권하던 642년 이후의 일이라고 상정한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난 김유신에게 죽은 추남이 환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것에는 다소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추남이 죽어서 김유신으로 환생했다는 시간적인 합리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관심을 끄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추남이 신라 김서현 부인의 몸 속으로 들어가 후에 김유신으로 환생해서 고구려에 복수를 했다는 것에만 이야기의 축이 잡혀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 정확성이 아니라 복수의 서사가 실현되는지이다. 결국 김유신과 관련된 고구려 추남의 꿈은 복수라는 기의를 가지는 기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을 꿈이라는 기제를 활용해 통일을 정당화하고 신화화하는 이야기의 기호 장치이다. 즉 김유신이라는 기표는 민중의 억울함과 불합리함을 풀기 위해 존재하며 동시에 민중의 복수와 응징이라는 기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김유신과 관련된 두 번째 꿈은 아버지 김서현과 어머니 만명 부인의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서현은 길에서 만명 부인을 보고 한눈에

13)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2002, 107~110쪽.

반한다. 『삼국사기』에는 이들의 만남을 야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명은 진흥왕의 동생인 숙흘종의 딸로 매우 신분이 높은 진골이라고 할 수 있다. 숙흘종은 딸을 별채에 가두어두지만 난데없는 벼락이 쳐서 만명은 도망가게 되고 서현과 함께 산다. 『화랑세기』에도 서현과 만명이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정을 통해 임신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화랑세기』 <제15세 유신공>에는 “만노로 도망친 후 약 20개월 만에 낳았는데 꿈에 좋은 징조가 많았다”¹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와 비슷한 진술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서현은 경진일 밤에 꿈에 화성과 토성 두 별이 자기에게 내려왔으며, 만명이 또한 신축일 밤 꿈에 동자가 황금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방 가운데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¹⁵⁾라고 출생의 신기한 서막을 알린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하여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으니”라고 진술함으로써 『화랑세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김유신>조에는 20개월이라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고, “진평왕 17년 을묘년 생으로 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등에 북두칠성 무늬가 있었고,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¹⁶⁾라고 기록되고 있다. 김유신의 탄생에 신기한 꿈이 활용된 것은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이고, 북두칠성의 정기는 『삼국유사』에서 활용되고 화성과 토성과 황금 갑옷의 이미지는 『삼국사기』에서 활용되었다. 공식적으로 설화집이 아닌 역사책에도 신기한 꿈의 전조와 20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임신 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뫼토스 차원에서나 로고스 차원에서 모두 김유신의 탄생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유신은 인간의 아이라기 보다는 하늘의 자식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비상식적인 임신 개월 역시 신화화 되는 담론의 기호체계가 되고 있다. 하늘의 정기를 받아서 태어난 영웅이

14) 김대문,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여성구 역, 지만지, 2012, 22~24쪽.

15) 김부식, 위의 책, 9~11쪽.

16) 일연, 위의 책, 107쪽.

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적인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20개월은 꿈을 기점으로 한 설정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김유신과 관련된 꿈은 김유신 개인의 영웅성이 아니라 김유신 집안에 관한 것이다.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옥이 꿈을 믿고 떠나면 가야로 들어왔다면 김유신은 여동생의 꿈을 활용해서 신라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를 단행한다. 큰 여동생 보희가 남산 꼭대기에서 눈 오줌을 활용해서 김춘추와 축국을 하고 일부러 옷을 뵈아 옷고름을 찢고 자기의 집으로 춘추공을 데려간다. 그리고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인연을 맺어 임신을 하게 되며, 아들 문무왕이 태어난다. 제30대 문무왕은 가야와 신라가 결합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무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에게 제사를 지낸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의하면 문무왕은 661년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야국 시조왕의 9대손 구형왕이 우리나라에 항복할 때 데리고 온 아들 세종(世宗)의 아들인 솔우공(率友公) 아들 갑간 서운(庶云)의 딸 문명황후(文明皇后)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원군은 나에게 바로 15대 시조다. 그 나라는 이미 망했으나 장례를 지내는 묘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¹⁷⁾”라는 조서를 내린다. 여동생 문희가 언니 보희의 꿈을 산 행위는 김유신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철저히 김유신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유신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한 여동생을 장작더미에 올려 화형을 시키려고 야단을 떠난다. 이는 산책을 하던 선덕여왕에게 알리고자 한 계획이었고 김춘추는 여왕의 허락을 받고 문희와 결혼하게 된다. 동생 문희의 결혼은 꿈의 영험함을 믿고 계획을 짰 김유신의 가야와 신라의 결합 프로젝트였다.

김유신의 설화 속 꿈이라는 기표는 전생, 환생, 복수, 하늘의 뜻, 성공, 희망, 소원 등 다양한 기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유신과 관

17) 일연, 위의 책, <가락국기>, 240~241쪽.

련되어 읽을 수 있는 꿈은 김유신의 전생, 현세, 후생까지 영웅성을 확장시키는 기호체계로 확대되어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김유신에게 꿈은 가문의 시작에서부터 자기의 전생과 현생의 출생을 연결시키면서 미래 후손을 연결시키는 신화적 담론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동생의 꿈을 활용해 가야와 신라를 하나로 엮어 신라를 통일시킨 문무왕을 탄생시킨다는 지점에서 후생과도 연결되는 시간 초월의 환상성을 구축하는 기호가 되고 있다. 꿈에 의해 현몽되어 영웅성을 보이면서 성장하였고 꿈을 활용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결혼을 성사시키고 통일 왕인 문무왕을 탄생시킨다. 김유신 영웅 담론에서 꿈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연결시키는 시간의 초월성을 구현하고 있는 상징적 기호체계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김유신 설화 전반을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신화 담론의 기호체계를 읽었다. 꿈과 관련된 설화들은 의미의 동질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병렬체가 된다. 이러한 기능적 상관관계들은 이 논의가 김유신을 둘러싼 문화 기호학적 담론이 되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⁸⁾

Ⅲ. ‘말’을 활용한 공간 초월의 의지적 기호 구축

김유신의 탄생설화만큼이나 유명한 설화는 바로 천관녀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다. 이인로의 『파한집』에 따르면,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의 교육은 엄격했다고 한다.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장수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빠지지 않는 상징물이 바로 말(馬)이다. 말은 『삼국유사』 곳곳에서 등장하는 상징물이다. 이어령은 말의 한,중,일 상징성과 종교성과 신화성을 논의하면서 만리장성은 중국의 한족이 말을 탄 유목민들에게 느끼는 콤플렉스의 결과라고 말한다. 일본에서 말은 에마(繪馬)라는 의

18) 송효섭, 「삼국유사 피은편의 문화 기호학적 이해」,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118쪽. 송효섭은 다른 기호체계들 사이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문화기호학의 정의로 내세운다. 그는 설화 각 편들이 지향하는 의미가 동질하다면 하나의 병렬체가 된다고 보았다.

미로 주로 신사에서 기원과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다고 보았다.¹⁹⁾ 한국의 말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또한 말은 부귀와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중간 매개 전달자이기도 하다.²⁰⁾ 한국 문화 속에서 말이라는 동물은 신성성과 함께 속담에서 자주 회자되는데, “말 날을 길일이라 하여 장 담그기를 하고 우물을 파지 않는다”, “결혼할 때 신랑이 탄 말이 신부 집에 이르러 크게 울면 첫 아들을 낳는다”, “아침에 흰 말을 보게 되면 재수가 좋다” 등에서처럼 신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다.²¹⁾

김유신 설화 전반에서 꿈만큼이나 중요한 상징적 기호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馬)’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유신 설화 전반에서 윤리적 이념적 인간의 의지 발현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물로 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이인로의 『파한집』을 통해 드러난 말의 상징성과 기호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천관녀와의 사랑을 어머니가 매우 반대한 것으로 나온다. 어머니는 김유신에게 “나는 이미 늙었다. 주야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임금과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유희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리고 있구나.”²²⁾라고 하면서 울음을 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김유신은 천관녀와의 인연을 끊고자 맹세한다. 하지만 말이 김유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천관녀의 집에 데려가자 타고 온 말을 베어버린다. 여기에서의 말은 불효 극복의 의지적 상징물로 작용하는 기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유신은 자기의 마음 속의 나약함을 말이라는 상징물로 일체화시키고 그 말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한 것이다.

19) 이어령,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말』, 열린원, 2011, 9~36쪽.

20) 윤열수,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178~191쪽.

21) 정호완, 「말 토렘과 언어문화의 관계」, 『교육연구』, 대구대 사범대학 부설연구소, 2006, 113~128쪽.

22) 이인로, 『파한집』,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11, 48쪽.

둘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의 기능 역시 동료 사이에 가져야 하는 의리의 의지적 상징이라고 하겠다. 642년 선덕여왕 시절 백제의 운충 장군은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지키는 대야성을 침공한다. 이때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 요청을 하러 신라를 떠난다. 고구려로 향하는 전날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지금 내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려 하는데, 60일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은 어찌하겠소” 라고 묻는다. 이에 김유신은 “그렇게 된다면 내가 탄 말의 말발굽이 반드시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 왕의 정원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한다.²³⁾ 여기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의 유대의 강한 결속체로 말이 등장한다. 즉 말은 김춘추와 김유신 사이의 의리를 보여주는 의지적 상징체인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불효 극복이라는 의지적 측면에서 말이 기능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김춘추와의 의리 측면에서 말이 믿음의 의지적 이념의 실현이라는 기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 말의 등장은 제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희생양의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비담의 난>에서 등장하는 백말의 상징성이 그것이다. 647년 여자 군주에 대한 반발로 상대등 비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그것은 임금이 망할 징조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이에 두려워하는 왕을 향해 김유신은 “길하고 흉함은 일정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이 초래하는 것²⁴⁾”이라고 말하면서 왕을 위로한다. 즉 덕이 요망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별의 이상한 변은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유신이 표현하는 덕은 충과 의리일 것이다. 반란군을 진압한 김유신은 흰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우며 사람의 도리에서는 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다. 만약 혹시 그 질서가 바뀌면 큰 혼란

23) 김부식, 위의 책, 8쪽.

24) 김부식, 위의 책, 10쪽

이 온다”²⁵⁾라고 말한다. 김유신은 하늘의 위엄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착한 이를 착하게 여기고 악한 이를 미워하는 것이 신령으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비담의 난을 불충으로 정의함으로써 하늘도 응징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별이 떨어진 부분에 백말로 신성한 제사를 올렸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인간의 충과 의와 같은 덕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간의 의지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 의지적 제의의 희생양이라는 기의로 백말이라는 기표가 활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의 상징성은 김유신이 죽은 후 등장하는 말의 기능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등장하는 해공왕 시절의 이야기이다. 김유신이 죽은지 100여 년이 지났을 때 김유신 후손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해공왕 778년 4월에 회오리바람이 일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김유신이 무덤으로부터 나와 미추왕의 무덤으로 건너갔다고 『삼국사기』에는 전한다. 무덤 속에서는 슬퍼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해공왕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김유신 무덤에 제사 지내게 한다. 자세한 탄식 소리는 『삼국유사』 <미추왕과 죽엽군>조에서 더 자세히 전한다. 『삼국사기』에는 778년이라고 나오는데 반해 『삼국유사』는 779년이라고 기록한다. 김유신이 준마를 타고 무덤에서 나와 미추왕의 능으로 들어간다. 진동하고 소리내어 우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호소하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김유신은 “신은 평생을 시대의 환란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어 통일을 이룩한 공이 있고, 지난 경술년(해공왕6년)에는 신의 자손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 군주나 신하가 저의 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이제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으려 하니 원컨대 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²⁶⁾라고 호소한다. 그러자 미추왕은 김유신을 달래고 이것을 들은 해공왕이 두려워 김유신 묘

25) 김부식, 위의 책, 11쪽

26) 일연, 위의 책, <미추왕과 죽엽군>, 76~78쪽.

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준마를 타고 무덤에서 나와 다른 무덤으로 들어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 강렬한 이미지는 말이 가지는 공간 이동의 상징성과 결합된다. 미추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충성을 거두겠다고 한 것은 신라를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유신 서사에서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의지를 대리하는 복합적 상징물인 것이다. 김유신의 꿈 서사들이 일정한 병렬체를 이루었듯이, 많은 설화들 속에서 말(馬)서사들 역시 김유신이라는 의지적 인물을 창조해내는 병렬체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유신의 말(馬)이라는 기표에는 불효극복 의지, 의리를 지키는 의지, 인간의 덕에 더 방점을 찍은 신념에의 의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의지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기의를 형성하면서 말이라는 기표를 나타내는 기호확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IV. ‘별’과 ‘빛’을 통한 천신의 현현으로서 영웅의 기호 구축

꿈과 말과 함께 김유신 설화 전반에서 영웅성을 강화시키는 상징성은 별과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에 걸쳐 모두 별이라는 이미지 즉 ”빛난다“의 이미지와 여러 번 엮어진다. 『삼국사기』에는 토성과 화성의 기운이 김서현에게 들어오고 황금빛이 만명 부인에게 보이면서 김유신은 탄생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죽어서는 33천의 한 신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역사서인 『삼국사기』보다는 설화서인 『삼국유사』에서 김유신 설화에 등장하는 별과 빛의 상징을 통해 김유신이 천신으로서 영웅성을 획득하는 기호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빛과 관련된 영웅이 여럿 등장한다. 빛으로 잉태된 고구려 주몽과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의 등장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방안에 갇혀있었는데, 햇빛이 그녀

를 따라와 비추었고 주몽은 그 햇빛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혁거세의 등장은 번갯불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을 뒤덮었다고 나온다. 사람들이 큰 알을 깨뜨리니 몸에서 빛이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면서 해와 달이 맑아졌다고 한다. 주몽과 혁거세의 신비한 영웅성은 빛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빛의 이미지는 김유신의 여러 설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병렬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서사에서 등장하는 별과 빛의 김유신 설화의 신화성은 천신의 현현으로서 김유신의 영웅성을 상징화시키는 기호작용을 확장시키고 있다.

별과 빛의 첫 번째 상징은 『삼국유사』 <김유신>조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태몽에 있다. 토성과 화성의 기운으로 등장하는 김유신은 북두칠성의 정기를 이은 인물이다. 황금빛을 내는 김유신의 이미지는 김유신 집안의 <재매정택>이야기에서도 일맥 상통하는 이미지를 보인다. 『삼국유사』 <진한>조에 따르면 신라 전성기에 35개의 금입택(金入宅)이 있었다고 한다. 금입택이라는 말은 금이 드나드는 부유하고 운택한 집을 말한다. 여기에 신라의 김유신의 집인 <재매정택>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⁷⁾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이 곧 황금갑옷과 이미지가 겹치는 지점으로 김유신 집안은 매우 부유했다고 한다.

별과 빛의 두 번째 상징은 김유신의 보검에 관한 설화와 연결된다. 김유신은 화랑시절 수련을 위해 산에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난다. 노인에게 비법을 묻게 되고 헤어졌는데, 그 노인의 뒤에는 찬란한 오책 광채의 빛이 보였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그 후에도 신기한 일이 계속되는데, 김유신은 인박산에 보검을 가지고 깊은 골짜기에서 수련하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한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보검에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려준다. 사흘째에는 허성과 각성 두 별이 빛을 쏘아 칼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다.²⁸⁾ 이처럼 김유신의 보검은 하늘의 별의 기운

27) 일연, 위의 책, <진한>, 53~54쪽.

을 가진 것으로써 영웅의 중용한 상징물이 되고 있다. 이때 노인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일본 법사가 요사한 귀신을 꺾다>의 이야기와 겹쳐져 읽혀진다. 김유신은 어떤 늙은 거사와 사귀었다고 나온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일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김유신은 친척인 수천이 나쁜 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거사를 수천에게 보내 진단하게 한다.²⁹⁾ 일본은 선덕여왕의 병을 고치는 영험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신의 비범함은 일본과 같은 거사와 교류하고 겹에 빛을 받는 것으로 영험함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별과 빛의 세 번째 상징으로 『삼국사기』의 <비담의 난>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다. 한밤중 월성에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활용해 여왕이 패한다는 여론을 퍼트린 비담은 반군의 사기를 한층 높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유신은 허수아비를 커다란 연에 달아 불을 지피고 몰래 하늘로 띄운 뒤에 어제 밤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김유신은 비담의 반란군을 동요시키고 마침내 함락시키고 비담과 9족을 모두 죽인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덕여왕에 이어 진덕여왕을 새로운 별로 생각하도록 한다. 김유신은 별을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 설화는 별의 기운을 타고 난 김유신과 떨어진 별을 다시 만들어 쏘아 올릴 수 있는 신성성을 가진 김유신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의미 작용을 하고 있다. 『화랑세기』의 <제 16세 보종공>편에는 형인 보종공이 아우 김유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등장한다. 김유신이 형이 아우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보종공에게 묻자 보종공은 자신은 인간 세상의 티끌이고 김유신은 해와 달과 같다고 평가한다.³⁰⁾ 이 이야기 곳곳에 김유신을 별과 빛의 상징으로 이어지도록 설화들은 병렬체로 진술되고 있다. 이는 하늘의 기운과 김유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28) 김부식, 위의 책, 7쪽.

29) 일연, 위의 책, <일본 법사가 요사한 귀신을 꺾다>, 449~502쪽.

30) 김대문,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여성구 역, 지만지, 2012, 23~24쪽.

주고 있으며, 김유신이 곧 별의 현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서려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징적 기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김유신의 별과 빛의 상징성은 33천의 한 신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삼국유사』 <태종춘추공>편에 의하면 당나라는 김유신을 의리를 지키는 성신(聖臣)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김유신을 33천 중 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그가 신라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³¹⁾ 김유신의 천신으로의 상징성과 영험함은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대에도 이어진다.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에 따르면 돌아가신 문무왕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고 김유신은 33천의 한 아들이 되어 신라에 내려와 대신(大臣)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두 성인은 이견대에서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는 대나무 한그루를 활용해 피리를 만들어 준다. 신문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옥으로 답례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한다. 그 피리 소리는 세상의 근심을 잠재우는 신비한 힘을 가진다. 천신 김유신은 별과 빛으로 하늘의 상징성을 나타내며 대나무 피리인 만파식적으로 육화되어 소리로 인간세계를 감흥시키는 기호작용을 한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피리의 한쪽이 김유신 천신의 현현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내는 소리는 국가의 안녕을 나타내는 기호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 관습이 된다는 지점에서 상징기호로도 읽을 수 있다.³²⁾ 김유신 설화에서 별과 빛의 기표는 하늘의 정기, 신성성, 하늘의 뜻, 태평성대, 운명 등 다양한 기의를 가지는 기호체계로 확대된다.

별과 빛의 상징으로 탄생한 김유신의 일대기는 영웅성의 면모를 과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까지도 김유신의 영웅성은 드러난다. 김유신이 죽기 전 군복을 입은 병사 수십 명이 울면서

31) 일연, 위의 책, <태종춘추공>, 126쪽.

32) 송효섭, 『『삼국유사』 뮈토스의 기호학적 읽기』, 『시학과 언어학』 2, 시학과 언어학회, 2001, 164~165쪽.

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³³⁾ 김유신은 자신을 지키던 음병이 자신의 복이 다함을 알고 떠나간 것이라고 예언한다. 『삼국유사』의 <지기삼사>조에는 선덕여왕이 자신이 죽을 날을 예언하는 영험함이 등장한다. 선덕여왕은 “내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勿利天) 가운데 장사지내라.”³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후에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 사천왕사를 짓고 나서야 비로소 여왕의 무덤은 도리천이 된다. 죽음을 예언한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여왕이 된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부분을 등장시킴으로써 김유신의 비범함을 강조한다. 죽음을 예언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김유신 아들 원술의 이야기 역시 아버지의 비범함을 부각시키는 일화로 등장하고 있다. 살아생전 김유신은 아들 원술이 전장에서 후퇴한 것을 두고 그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원술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마저도 보지 못한 채 675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벼슬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이는 원술의 효심과 충절을 넘어서 김유신의 영웅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의미작용을 하고 있다. 김유신의 설화는 탄생전부터 죽은 후까지 모든 설화들이 촘촘하게 김유신의 영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잘 수렴되어 있다.

V. 나오며

본 연구는 역사 속 실존 인물들 중 영웅으로 신격화된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 많은 영웅 중에서 살아생전 신하로 살다가 죽어서 마침내 왕으로 추앙되는 인간은 김유신이 유일하다. 김유신이 활동

33) 김부식, 위의 책, 22~23쪽.

34) 일연, 위의 책, <선덕여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알>, 106~108쪽.

을 한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이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봉해진 것은 10세기의 일이다. 죽고 나서 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 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부식의 말대로 당나라의 문헌에 의지하지 않고도 사람들은 김유신을 칭송하며 잊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끝배는 아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유신 관련 설화가 도처에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현대에도 문화 곳곳에서 향유되는 김유신의 사당들을 보면서 여전히 김유신의 신화성은 발휘되고 있다고 보았다. <강릉단오제>의 경우에 대관령국사성황으로 범일국사가 추앙되고 있긴 하지만 허균의 <성소부부고>에는 강릉에서 김유신을 대관령 산신으로 추앙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강릉의 화부산사는 김유신을 모시는 사당인데 1884년에 창건한 사당이다. 이 역시 김유신의 설화가 매우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었음을 짐작케한다.

김유신의 설화에 작용하는 영웅 담론의 질서는 매우 느슨하면서도 병렬적이면서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은 전생에서부터 목적이 분명한 출생담을 가진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고구려의 영혼이 몰락한 가야 왕국의 후손인 김유신을 선택한 것이다. 김유신은 출생하면서부터 고구려 추남의 원한도 갚아야 하고 가야의 사라져가는 역사도 일으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 본고는 김유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질서를 꿈, 말, 빛 등의 기호체계로 읽어 보았다. 그러한 상징적 질서가 구현되는 기호화 과정을 살핌으로써 김유신의 영웅성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민중의 마음에 영웅이라는 기호작용을 거치게 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서 김유신은 여전히 유효한 신화담론을 양산해 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형, 「만파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171~194쪽.
- 김명옥, 「『가락국기』를 통해본 가야 건국주체세력 출자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641~662쪽.
- 김문태, 『현대인의 삶이 투영된 삼국유사 인문학 즐기기』, 페르소나, 2017.
- 김상현, 「일연의 일통삼한 인식」, 『신라문화』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223~249쪽.
- 김선풍,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장군」, 『강원민속학』 20,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6, 9~24쪽.
- 김승호, 「김유신 전기에 나타난 영웅화 방식과 유불사상의 개입」, 『어문연구』 94, 어문연구학회, 2017, 81~106쪽.
- 김영주, 「『김유신』 이야기의 전승유형에 따른 특징과 그 의미」, 『문화와 융합』30, 한국문화융합학회, 2008, 51~76쪽.
- 김의숙, 「강릉단오제의 근원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16,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2, 63~77쪽.
- 박대복, 「『삼국유사』소재 김유신 설화의 무관념과 천관념」, 『한국민속학』 44(1), 한국민속학회, 2006, 169~203쪽.
- 박성주, 김수민, 「김유신관연 문헌사료와 설화의 비교」, 『신라문화』 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181~248쪽.
- 박지향, 『영웅만들기 -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휴머니스트, 2005.
- 송효섭, 「『삼국유사』 뫼토스의 기호학적 읽기」, 『시학과 언어학』 2, 시학과 언어학회, 2001, 137~202쪽.
- 송효섭, 「삼국유사 피은편의 문화 기호학적 이해」,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117~137쪽.
- 신정훈, 「신라 신문왕대 만파식적 설화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인문과학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83~107쪽.
- 신재호, 『조선상고사』, 도드니, 2016.
- 신화아카데미,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 심형준, 「강릉단오제 主神 교체 문제에 관한 고찰」,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259~298쪽.
- 심혜경, 「윤희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의 의미」, 『동악어문학』, 동악어문학회, 2013, 5~38쪽.

- 안영훈, 「김유신설화의 전승양상」, 『한국의 민속과 문화』 3,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101~133쪽.
- 윤열수,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 윤예영, 「삼국유사설화의 인식적 차원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297~324쪽.
- 이강엽, 『신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미래엔아이세움, 2011.
- 이문기, 『『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의 재음미』,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8, 1~43쪽.
- 이어령,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말』, 열린원, 2011.
- 이재호, 『삼국유사를 걷는 즐거움』, 한겨레출판, 2009.
- 이정훈,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 고찰 — ‘영웅-되기’의 조건과 영웅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9, 국어문학회, 2010, 253~275쪽.
-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기원의 문화 콘텐츠화 길찾기」,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장성재, 「김유신 문화콘텐츠 기획」, 『신라문화』 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331~363쪽.
- 정진원, 「삼국유사를 통한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시론」, 『한국학연구』 5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정호완, 「말 토법과 언어문화의 관계」, 『교육연구』, 대구대 사범대학 부설연구소, 2006, 113~128쪽.
- 조범환, 「金庾信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 11, 신라사학회, 2007, 35~71쪽.
- 주보돈, 「신라 금입택과 재매정택」, 『신라문화』 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95~117쪽.
- 천인석, 「김유신의 생애와 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45, 한국유교학회, 2011, 69~92쪽.
- 최광식,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 신화인가? 역사인가?』, 세창출판사, 2018.
- 김대문,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여성구 역, 지만지, 2012.
- 김부식, 『삼국사기』,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03.
- 이인로, 『파한집』,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11.
-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2002.
- 조지프 캠벨, 『신화와 함께하는 삶』, 이은희 역, 한숲, 2004.
- 질베르 뒤랑, 『신화 비평과 신화 분석』, 유평근 역, 살림, 1998.

A Study on the Semiotic Symbol Order of Establishing Mythical Discourse and the Heroism of Kim Yu-shin's Story

Pyo, Jung-Ok

This paper tried to read the semiotic system of mythical discourse symbolically for the entire story of Kim Yu-shin. The mythical discourses regarding heroism form a symbolic order in the story surrounding Kim Yu-shin. This study saw that three symbolic orders appear in the story of Kim Yu-shin, showing a symbolic system. First, it can be seen that in Kim Yu-shin's story, the symbol of "dream" is used to acquire fantasy beyond time. In Kim Yu-shin's narrative, the dream is a symbolic system that plays a role in transcending time that connects past and present and afterlife. Through the dream, it was confirmed that the mystery of birth spans Goguryeo, Gaya, and Silla. It also forms a symbolic system that Kim Yu-shin will later make a huge contribution to unifying the three kingdoms. Second, we paid attention to the symbolism of 'horse' appearing in the stories of Kim Yu-shin. If dreams have a symbolic system that transcends time, horse have a symbolic system that transcends space. Horse have properties that transcend space and at the same time have established a symbolic order that builds Kim Yu-shin's willful narrative. Horse acted as a symbolic sacrifice that revealed Kim Yu-shin's will. Since Kim Yu-shin was a master, horses were always used as symbols of bravery and willful character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Kim Yu-shin's narratives of horses are used as a symbol that further emphasizes his willful machine. Third, many symbols of stars and light appear in the story of Kim Yu-shin. It seems to be a symbolic device that symbolizes Kim Yu-shin, who has become a god of 33 heavens. As the manifestation of heaven, Kim Yu-shin has many parts that are connected to light and stars. From the conception dream of Kim Seo-hyun and Mrs. Manmyeong to the part of receiving a complementary examination from

the mountain god, rumors related to the stars during the tragedy, and the appearance of 33 heavens was seen in the Magic flute Manpasikjuk 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y in the stories in each literature, and attempts to examine how Kim Yu-shin's hero narrative discourse acquires a semiotic system.

Keywords : Kim Yu-shin's story, Heorism, Symbolic system, Semiotic, Dream , Star, Light

투고일 : 2021. 12. 10. / 심사일 : 2021. 12. 17. / 심사완료일 : 2021. 12. 23.

프랑스 아폴리네르 시 「행렬」과 「나그네」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홍정표*

【 차 례 】

- I. 머리말
- II. 언어적 시간
- III. 발화
 - 1. 발화체와 발화행위
 - 2. 발화실천
- IV. 『알코올』
 - 1. 시집 『알코올』에 대하여
 - 2. 담화 기호학적 관점
 - 3. 「행렬(Cortège)」 분석
 - 4. 「나그네(Le voyageur)」 분석
- V. 맺음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언어적 시간>, <발화>, <『알코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집 『알코올』에 수록된 「행렬」과 「나그네」를 담화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화 기호학은 담화를 발화체 뿐 아니라 활동 중인 담화 곧 발화행위의 관점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체계와 의미를 파생시켰다. 이 기호학은 생성 중인 문학적 담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화행위를 일종의 발화실천행위로 간주하며, 담화를 역동적인 발화실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발화행위의 순간은 바로 현재가 된다는 점에서, 발화행위로부터 현재 범주의 설정이 나오고 현재 범주로부터 시간 범주가 생긴다. 벵베니스트는 시간을 물리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언어적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외래교수, cafecreme@hanmail.net

중에서 언어적 시간은 주관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화자의 내부 세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아폴리네르는 상징주의가 끝나가고 초현실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20세기 초에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로운 시도의 실험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전위 시인이면서도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수호하고자 노력했다. 시인의 시집 『알코올』은 매우 특이한 작품으로 발화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발화의 주체는 두 현동태 ‘나’와 ‘너’로 분리되는데, ‘나’는 주관적 인물, ‘너’는 비주관적 인물이다. 위치 행위소로 말하자면, 텍스트가 청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주관적 인물이 기점 현동태, 주관적 인물은 목표 현동태일 뿐이다. 우리가 선택한 시 「행렬」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네 가지의 ‘나’, 즉 ‘나’, ‘너’, ‘새’, ‘기움’이 번갈아 나오면서 각기 생각과 감수성을 드러내는 독백적 대화로 이루어졌다. 시 텍스트의 전반부에서는 시인의 상상적 정체성이, 후반부에서는 현실적 정체성이 표현되었다. 특히 시인은 후반부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데, 과거의 문화 전통이 그의 내면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나그네」는 분리작용과 재연동작용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로서 과거의 삶에 현재의 삶을 겹쳐 놓아 공존하게 하여 독자가 일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며, ‘나’의 회상과 한탄이 시의 두 축을 이룬다. 본 논문은 적용 사례의 확장을 위해 프랑스 작품에 담화 기호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열쇠어 : 발화, 발화행위, 비주관적, 인지적·정념적 차원, 주관적, 지시관계, 청자.

화자, 화용적 차원

I. 머리말

1960년대 그레마스(A. J. Greimas)에 의해 창시된 서사 기호학은 정념 기호학을 거쳐 1999년 담화 기호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호학의 창시자 풍타닐(J. Fontanille)은 구조 기호학(서사와 정념 기호학)의 단점과 이 이론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에 새로운 조명을 비추었다.

구조 기호학은 인물들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하는 발화체(énoncé), 곧 발화 내용의 연구이다. 반면에 담화 기호학은 담화를 발화체 뿐 아니라 활동 중인 담화인 발화행위(énonciation)의

관점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체계와 의미를 파생시켰다. 문학 텍스트의 연구는 발화체 만으로는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발화행위 차원으로의 조명이 불가피하여, 그때까지 발화체 주변에 남겨져 있던 복합적 의미를 발화행위 차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발화행위의 순간은 바로 현재가 된다는 점에서, 발화행위로부터 현재 범주의 설정이 나오고 현재 범주로부터 시간 범주가 생긴다. 현재는 원래 시간의 근원이며, 발화행위만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의 현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는 발화가 나타내는 시간으로 규정되는데,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순간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마다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선택한 시작품은 아폴리네르(G. Apollinaire, 1880~1918)의 시집 『알코올』(*Alcools*, 1913)에 수록된 「행렬」과 「나그네」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아폴리네르는 20세기 초에 관념적인 상징주의 시의 흐름에서 벗어나 일상적 현실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여 삶의 평범한 모습을 포착한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인은 그 당시 새로운 경향의 시를 규정짓기 위해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이런 이유로 그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칭된다.

초현실주의는 관행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하려는 문학운동이며, 시의 규칙을 무시한 자유시를 많이 썼고 구두점을 모두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시인은 초현실주의 시적 기법과 시론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차후에 등장한 브르통(Breton) 등의 초현실주의 문학운동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첫 시집 『알코올』은 20세기 예술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의 서정적 사실주의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시는 『알코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시집은 자유주의적이고 전위적인 첫 작품이다.

프랑스에서 아폴리네르 시의 담화 기호학적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연

구자가 선택한 두 편의 시는 아직 담화 기호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특히 「행렬」은 시인의 시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나그네」는 여전히 힘겨운 삶에 시달리는 시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읊은 시이다.

본 연구는 <언어적 시간>, <발화>, <『알코올』>에 대해 살펴보고, 담화 기호학 이론을 아폴리네르의 시 두 편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언어적 시간

시간만큼 탐구하기 어려운 것도 드물고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격과 양상을 띠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 분석에 필요하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벵베니스트는 시간을 물리적 시간(*temps physique*), 연대기적 시간(*temps chronique*), 언어적 시간(*temps linguistique*)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은 일률적이고 무한하며 선적이고 임의대로 분할할 수 있는 연속체이다.”¹⁾ 연대기적 시간은 달력의 시간을 말하는데, 인간 삶의 필수조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며 영구불변성과 고정성을 지닌다.

언어적 시간은 시간에 대한 인간 경험을 표현하는데, 파롤의 실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화행위를 할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기준 시점을 말한다. 시간의 중심은 파롤 현동태(*instance de parole*)의 현재에 있으며, 현재는 파롤의 실행에 내재하는 다른 순간들(과거와 미래)과 분할선을 이룬다. 즉, 사건이 현재에서 벗어나 기억을 통해 상기되어야 하는 순간(과거)과 사건이 아직 현재가 아니지만 곧 현재가 될 것인 전망 속에 나타나는 순간(미래)과의 분할을 한다.

언어는 하나의 축으로부터 시간을 정돈해야 하며, 언어 고유의 유일한

1)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Gallimard, 1974, p.70.

시간은 담화의 축에 위치하는 현재이다. “현재는 연장될 수 없고 (...) 분할될 수 없는 순간”²⁾인데 두 가지 다른 시간적 지시관계(référence)를 결정한다. 두 가지 지시관계는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뒤로(이미 현재가 아닌 것) 혹은 앞으로(곧 현재가 될 것) 투영되는 시간에 관한 시각을 지시한다. 이렇게 언어적 시간성(temporalité linguistique)은 지시적(référentiel)³⁾이며 그것의 세 가지 변별적 분절에 있어서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 등 고유한 구분을 지니는데, 연대기적 시간과는 무관하므로 달력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시간을 이 같은 어휘들에 덧붙여야 한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자신의 담화와 동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그 담화에서 표현하는 ‘나’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이렇게 “인간의 시간성은 언어의 실행 시에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여 내재하는 주관성(subjectivité)을 드러내는데”⁴⁾, 화자의 시간이 청자의 시간이 될 수 있어 상호주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시간화되는 회고적 시간성(temporalité rétrospective)과 경험의 예상으로만 시간화되는 전망적 시간성(temporalité prospective)이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삽입되는 방식은 중요하다. 내가 나에게 일어난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시하는 과거는 단지 나의 파를 현동태의 현재를 기점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파를 현동태가 나로부터 생겨나고 이 시간과 관련되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일 것이며, 이 시간은 나의 경험에만 국한될 것이다. 그래서 “언어적 시간성은 주관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화자의 내부 세계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⁵⁾

2) P. Ricoeur, *Temps et récit I*, Seuil, 1983, p.30.

3) 화자와 청자 간에 서로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대상을 가리킬 때 지시적이라 하며, 이것, 여기, 지금, 저것, 어제, 내일 등 어휘들이 이에 속한다.

4)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p.263.

5) E. Benveniste, *Op. cit.*, 1974, p.76.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간의 근원은 현재이고, 현재는 발화행위만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의 현존이다. 다음에는 이 발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발화

1. 발화체와 발화행위

주지하다시피 소쉬르는 파를을 순수히 개인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 체계(랑그)에 대립시키고 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를이 아니라 랑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20세기 최대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인 바흐친은 언어외적 현실, 사회적·역사적 계기들, 평가의 가치적 맥락과의 연관을 담지한 발화가 언어학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발화는 개개인이 행하는 개성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파를에 근접한 개념이다.

바흐친의 발화는 기존의 파를보다 폭넓은 개념이며, 그는 소쉬르와 달리 랑그와 발화를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보충적으로 상호 연관된 관계로 상정하였다.⁶⁾ 바흐친 이외에 벵베니스트, 리쾨르, 메를로-퐁티도 모두 파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화는 주체 중심의 의미 연구로서 개인적이므로 화자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발화는 개성적 문체를 지닐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로, 즉 하나의 언어 단위로도 구성될 수 있는데, 문장이 표현적 측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어 단위로서의 문장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발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감정, 가치평가, 표현성은 구체적인 발화 속에서 단어를 생생하게 활용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담화는 발화체를 말하며, 발화체는 일종의 활동의 결과이다. 우리는

6)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역, 도서출판 길, 2007, 358쪽 참고.

랑그의 의미작용과 담화의 의미작용을 구별해야 하는데, 전자는 가치론적인 세계와 관련이 없는 반면, 후자는 발화체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발화체의 가치평가적인 차원은 중요하며, 어떤 발화도 가치 판단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모든 발화는 가치 판단에 의한 지향이며, 생생한 발화 안의 각 요소는 의미만이 아니라 가치도 포함한다. 예컨대 발화의 어조는 가치가 만들어낸 소리에 해당되는데 동일한 말이 특수한 어조에 따라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발화는 가치에 있어서 차이점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발화체는 단지 한 사람의 발화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 상대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모든 복합적인 사회적 상황의 결과이다. 발화체 전체의 의미는 발화체를 구성하는 언어적 형식들(단어, 형태적, 통사적 형식들, 소리, 어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황의 언어외적인 국면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의 국면들을 생략한다면 이는 발화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생략한 것과 같아서, 우리는 그 발화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⁷⁾.

“모든 발화는 담화적 소통이라는 사슬의 한 고리이다. 우리가 발화를 화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고립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담화적 소통 사슬의 한 고리로, 그것과 관련된 다른 발화들과의 관계 내의 한 고리로 파악한다면, 담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임이 드러난다”⁸⁾.

2. 발화실천

“발화행위는 랑그를 담화로 개인적인 전환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⁹⁾ 이 행위는 하나의 실천에 불과할 수 있으며, “발화실천 시에는 활동 중

7) T. Todorov, *Mikhaïl Bakhtine, le principe dialogique suivi de Ecrits du Cercle de Bakhtine*, Seuil, 1981, pp.72~74 참고.

8)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392쪽.

9) E. Benveniste, *Op. cit.*, 1974, p.81.

인 담화와 내재된 체계가 상호작용한다. (...) 발화실천 덕분에 담화는 체계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고, 용법으로 고착되고 가능화된 형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담화 기호학은 생성 중인 문학적 담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화행위를 일종의 발화실천행위로 간주하며, 담화를 역동적인 발화실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발화가 연구의 중심이 되고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자 한다.

IV. 『알코올』

1. 시집 『알코올』에 대하여

아폴리네르는 상징주의가 끝나가고 초현실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20세기 초에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집은 형태와 주제가 서로 다른 50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20세기에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한 시집 중 하나이고 전 세계에 다수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아폴리네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에서 따온 것으로서, 시인의 필명이며 본명은 빌헬름이다. 시집의 제목 ‘알코올’은 복수로 사용되어 시인의 목이 타는 듯한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의 삶과 문학의 원동력은 사랑과 새로움의 추구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시도의 실험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전위 시인이면서도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존중했다.

시집의 첫 시는 「변두리Zone」인데 155행에 이르는 장시이며, 현대적 기법과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도시 안에 시인의 고독한 변두리의식을 전개시킨 방황의 시이자 자전적 시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이

10)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267.

시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과거 경험들을 모두 동시에 현재 속에 펼쳐 놓는데, 과거의 일들이 현재 속에 용해되어 모두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 시는 「포도월(Vendémiaire)」이며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입체과로부터 영향 받은 동시적 기법을 원용한 시이다. 포도월은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의 첫 번째 달을 지칭하는데, 구두점 없이 발표된 시인의 첫 작품이다. 이 시도 174행으로 된 긴 시로서, 시인이 마시는 포도주 안에 온 세계가 녹아들어 통합됨을 표현하고 있으며 포도 수확과 포도주의 이미지가 짙게 깔려 있다. 더불어 이 시는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적 이질성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인은 자신의 문학예술관 혹은 미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예술이 환상, 감정, 상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술은 가능한 한 자연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술은 자연과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라신, 보들레르, 랭보의 예술이 그러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¹¹⁾.

위에서 지적한 대로 그는 일상적 삶과 자연을 재현하지 않고 과감하게 변화시켜 상상이나 환상, 감정의 문학을 창출함으로써 풍요로운 예술을 추구했다. 달리 표현하면, 시인이란 일상적 삶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추상적인 요소들을 차용해 새로운 모습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고난에서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문학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이 같은 힘겨운 삶의 순간들이 모두 시집의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그의 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슬픈 삶의 기록’이라 일컬어진다.

11) 이진성, 『파리의 보헤미안 아폴리네르』, 아카넷, 2007, 147쪽에서 재인용.

2. 담화 기호학적 관점

『알코올』은 매우 특이한 작품으로 발화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locuteur)가 아니라 청자(allocutaire)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발화의 주체는 두 현동태 ‘나’와 ‘너’로 분리되는데, ‘나’는 주관적 인물(personne subjective)이고 너는 비주관적 인물(personne non subjective)이다. 전자는 파를을 책임지므로 담화를 실제로 생산하는 발화의 화용적 차원과 관계되고, 후자는 심적 상태인 감정, 기대, 추억, 재현, 형상소를 책임지므로 발화의 인지적·정념적 차원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시 작품들에서 우리는 영역 안에서 인물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나’의 분리작용으로 ‘너’가 생기게 되고, ‘너’는 직시 중심 밖에 자리 잡는다. 영역 밖에 있는 ‘그’는 연동작용으로 인물 영역 안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종류의 ‘너’가 생기게 된다.

시적 담화 『알코올』에 나오는 수사학적 형상소들(figures)의 출현과 전개는 주관적 인물 ‘나’가 아니라 비주관적 인물 ‘너’를 기반으로 한다. ‘너’가 발화 현동태(instance d'énonciation)의 심적 상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인지적, 감각적, 정서적 특성을 갖춘 형상소들은 심적 상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형상소들은 ‘너’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 행위소로 말하자면, 텍스트가 청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형상소들이 비주관적 인물 ‘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너’가 기점 현동태(instance source)이고 주관적 인물 ‘나’는 목표 현동태(instance cible)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집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발화의 변형적 역할인데, 각기 발령자 혹은 화자, 수령자 혹은 청자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 역할들 전체는 기점(‘너’)과 목표(‘나’)인 위치 행위소의 분배로 방향지어진다.¹²⁾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2) J. Fontanille, *Sémiotique et littérature*, PUF, 1998, pp.106~108 참고.

	주관적 인물 ‘나’	비주관적 인물 ‘너’
변형 행위소	화자(화용적 차원)	청자(인지적·정념적)차원
위치 행위소	목표	기점

3. 「행렬(Cortège)」 분석

아폴리네르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물려받은 재산, 생계를 위한 일자리, 국적마저 없었으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시는 6연 73행으로 길게 구성되어 있다. 시 텍스트의 1~3연에서는 시인의 상상적 정체성이, 4~6연에서는 시인의 현실적 정체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시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시인인 주체는 지금 시를 쓸 백지를 앞에 놓고 있으며, 그의 상상계는 광활한 우주 공간이다. 이 시의 난해함은 모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네 가지의 ‘나’, 즉 ‘새’, ‘너’, ‘나’, ‘나’, ‘기욤’이 번갈아 나오면서 각기 생각과 감수성을 드러내는 독백적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시의 첫 대목 세 연을 구성하는 18줄의 시구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시간,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 1연을 인용하면,

1연 거꾸로 나는 새 평온한 새야
허공에 둥지를 트는 새야
우리의 땅이 벌써 빛나고 있는 그 경계에서
너의 두 번째 눈꺼풀을 내리 감아라
네가 고개를 들 때 지구가 눈에 부시니 (1~5행)¹³⁾

13) Apollinaire, *Oeuvres Poétiques*, Gallimard, 1965. pp.74~76.

1행 발화행위 주체는 ‘새’와 ‘너’에게 말을 거는데, ‘새’와 ‘너’는 ‘나’로부터의 분리작용¹⁴⁾으로 생긴 내재적 비주관적 인물이다. 여기서 ‘새’는 발화행위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절되는 의인화(personnification)(272쪽 참고)에 의해 ‘나’로 되며, 이 같은 의인화를 통해 인간과 조류의 경계는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나는 새 평온한 새’는 하늘을 땅으로 여기며, 반대로 (지구의) 땅을 하늘로 간주한다. 새는 지구가 별 만하게 보일 정도로 높이 날아올라서 지구를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로 생각한다. 발화적 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는 추락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평온한’의 반대라 할 수 있다. ‘거꾸로’와 ‘평온한’ 두 형상소는 전자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후자는 안정감을 나타내어 서로 모순되고 있다. ‘거꾸로 나는 새’는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조용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의 모습에 대한 은유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은유적 전의를 표준수사도식 3단계로 분석하면, 첫 단계 대치(confrontation)는 각기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가 되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새는 /조류/ 영역에 속하고 주체인 시인은 /인간/ 영역에 속하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대치가 일어나며, 전자와 후자의 공유된 특성 ‘불안감’을 바탕으로 대응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단계 지배(domination)는 발화행위에 의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인데, /조류/ 영역인 새보다 오히려 /인간/ 영역인 시인에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마지막 단계 해소(résolution)는 유추의 형태를 띤다. 담화는 해석자에게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조류/ 영역에서 /인간/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2행 새가 <텅 빈 공중>인 ‘허공에 등지를 트는’ 것은 시인이 아무런

14) 담화 기호학의 수사학적 및 현상학적 차원의 분석도구에 대해서는 「황순원 단편소설 「그들」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in 『한국 기호학의 최전선』, 한울, 2021, 185~212쪽 참고.

인맥도 없는 사회에 정착하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즉, <인맥이 없는 사회>를 <텅 빈 공중>에 은유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 ‘허공’은 기점 현동태인 반면, <인맥이 없는 사회>는 목표 현동태이다. 양자는 공유된 특성 <비어있음(없음)>을 바탕으로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허공’과 <인맥이 없는 사회> 중 후자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기점 현동태 ‘허공’은 목표 현동태 <인맥이 없는 사회>의 감각적, 직관적 특성을 부여받아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행 ‘우리의 땅이 벌써 빛나고 있는 그 경계’에서 경계는 공간적 경계를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앞으로 나올 3연 3행의 경계는 시간적 경계를 말한다.

4~5행 ‘지구가 눈에 부시니’는 지구에 날이 밝아오는 것을 나타낸다. ‘너의 두 번째 눈꺼풀’이란 내면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눈꺼풀을 감는다’는 것은 외부와 일상을 완전히 차단하여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2연 그리고 나 역시 가까이에서 우울하고 활기가 없노라
 이제 막 초롱들을 가린 안개 한 자락
 갑자기 눈앞에 놓인 손 하나
 그대들과 모든 빛 사이의 궁륭 하나
 그래서 나는 그림자들과 줄지어 선 눈들 한가운데서
 빛을 말하며 사랑스런 별들로부터 멀어지노라 (6~11행)

6행 1연 ‘너’의 연동작용으로 ‘나’가 생기는데, ‘가까이’는 ‘새’와 별들이 있는 밤하늘 가까이를 말하며, ‘나’의 정신 상태는 지금 막연한 불안감으로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다.

7행 ‘초롱들을 가린 안개’에서 초롱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킨다.

8행 주체는 지금 백지를 앞에 놓고 시를 쓰고 있으며, 신체에서 분리

된 부분인 ‘손’은 주체의 심적 상태를 뒷받침하는 분신의 형태로 인물 영역에 통합되어 있다.

9행 ‘그대들’은 시인의 두 눈을 가리키는데, <가운데는 높고 주위는 낮은 하늘같은 형상>인 ‘궁륭’은 <두 눈 사이에 높이 비치는 빛>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10~11행 지금 주체의 상상계는 빛과 그림자의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빛을 받으며’는 주체가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는데 이윽고 동이 트는 것을 표현한다. 그는 서서히 사라지는 사랑스런 별들을 상상하며 빛과 그림자와 더불어 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3연 거꾸로 나는 새 평온한 새야
허공에 둥지를 트는 새야
나의 기억이 이미 빛나고 있는 그 경계에서
너의 두 번째 눈꺼풀을 내리 감아라
태양 때문도 아니고 지구 때문도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져 어느 날
유일한 빛이 될 이 길쭉한 불 때문에 (12~18행)

12, 13, 15행은 1연 1, 2, 4행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4행 ‘경계’라는 시어가 등장하는데 ‘나의 기억이 이미 빛나고 있는’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적 경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억은 기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곧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간의 경계에 선 ‘나’의 모습이 보인다.

1연 3행의 공간적 경계에 시간적 경계가 개입하는데 이 두 경계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시간은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않는 반면, 공간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공간과 달리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전진하며 지나가 버린다. 즉, 전자는 부동성, 후자는 유동성을 나타내며 서로 모순 없

이 공존하고 있다.

15행 앞 행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이 상상의 ‘새’는 양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지난날의 시간과 공간을 비축하고 앞날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의 상태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눈꺼풀을 감는’행위는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18행 주체는 ‘길쭉한 불’인 자신이 ‘유일한 빛’이 되기 위해 ‘어느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그날을 기다리고, 불안감과 기대감을 지니고 날아다니는 새에 자신을 은유하며 두 번째 눈꺼풀을 내리 감는 이유를 ‘태양 때문도 아니고 지구 때문도 아니라 ... 이 길쭉한 불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다.

‘길쭉한 불’은 저명한 시인을 은유한 것이다. 시인인 주체는 아직까지 ‘유일한 빛’인 저명한 시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날이 강도가 점점 증가할 불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불은 시적 발화행위에 의해 인물 영역이 사물 영역으로 변형된 것이다. 즉, 발화행위는 인물 영역의 심적 상태 자신감이나 포부를 비인물의 물적 상태(état de choses) ‘길쭉한 불’에 불어 넣어 의인화가 이루어져 있다.

4연은 1~3연과는 달리 47행으로 이루어진 긴 시구이다. 주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는데, 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행렬이 주체의 내면에 펼쳐지면서 모든 지난날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48행부터 인용하면,

4연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속으로 말했어. 기욤 이제 네가 올 때라고
그러자 서정적인 발걸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아갔어
그들 가운데 나는 없었어

해초로 덮인 거인들이 그들의 해저 도시를 지나갔어
 그 곳에선 탑들만이 섬들을 이루고 있었어
 그리고 이 바다는 그 심연의 빛과 더불어
 내 혈관의 피되어 흘러 가슴을 고동치게 해
 곧이어 땅위로 수천 백인 부족들이 왔는데
 저마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도중에 발명한 언어를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배웠고 지금도 그 언어를 말해
 행렬이 지나갔고 나는 거기서 내 몸을 찾아 보았어
 갑자기 나타난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이들이
 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가져왔어
 마치 탑 하나를 건축하듯이 나를 조금씩 쌓아 올렸어
 민족들이 쌓이고 나는 모든 육체와
 인간사로 형성된 나 자신으로 나타났어

(48~65행)

48~51행 ‘나’는 분리작용을 하여 ‘기움’, ‘너’가 되며, ‘네가 올 때’는 네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나’가 ‘너’로 표현됨으로써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서정적인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시인들>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는 없었어’는 나는 아직 서정시인들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52행~53행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내가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해저 도시’를 지나가는 ‘해초로 덮인 거인들’은 과거 나의 수많은 분신들 혹은 나의 전생(前身)으로 간주할 수 있다.

54~55행 ‘바다’는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습득한 지식의 보고(寶庫)를 상징한다. ‘내 혈관의 피되어 흘러 가슴을

고동치게 해’는 지식의 보고가 나의 정신과 몸에 녹아들어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56~60행 발화작용 주체에게 그의 자아는 ‘해초로 덮인 거인들’과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온 수천 백인 부족들’의 ‘행렬’로 파악되는데, ‘나’는 선인(시인)들의 행렬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나는 거기서 내 몸을 찾아 보았어’). 실로 현대의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긴 행렬 끝에 존재하며, 선인(시인)들의 언어를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

61~62행 ‘나’라는 존재의 해체와 재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거기서 내 몸을 찾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해체된 내 몸의 조각들을 하나씩 가져와 나는 재구성되었다.

63행 탐을 나의 몸에 비유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라고 볼 때, 나의 지난날 시간들이 겹겹이 조금씩 쌓여 ‘마치 탐 하나를 건축하듯이’ 나 자신을 구축했음을 나타낸다.

64~65행 앞 행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내가 과거 선인들(‘민족들’)뿐 아니라 지난날의 일상이 쌓여 이루어진 것, 즉 과거에 겪은 온갖 일들(‘인간사’)이 쌓여 나 자신이 형성되어 정체성이 확립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5~6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현대의 한 복판에서 무한한 과거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새롭게 부각시킨다.

5연 지나간 시간들이여 사자(死者)들이여 나를 형성한 신들이여
그대들이 지나간 것처럼 나도 지나가면서만 살아가노라
그리고 저 텅 빈 미래로부터 나의 눈을 돌려
나 자신 속에서 모든 과거가 커가는 것을 보노라

6연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죽지 않았다
 빛나는 과거에 비해 내일은 생기가 없노라
 노력과 결과를 모두 동시에 완성하고 보여주는 것 옆에서
 내일은 형체마저도 없노라 (66~73행)

66~67행 현재는 언제나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 나를 지금의 모습대로 만들어 준 것은 사라져버린 과거와 사자들과 신들이다. 나의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체화되어 있으며, 이 지나간 시간들이 바로 현재의 나를 창조한 신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 녹아 있다. 현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경험 전체이며 나에게 보존되어 있는 기억 전체이다.

68~69행 현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미래는 보존하고 있는 것이 없어 텅 비어 있다. 미래는 과거에 비해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므로, 나는 다시 과거로 눈을 돌린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현재의 시간 속에 펼쳐지면서 나의 모든 과거가 확대되는 것을 본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상이한 지난날의 경험들이 동시에 지금 여기에 펼쳐진다.

70행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소멸하지 않으며, 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렬의 일원으로 남는다.

71~73행 미래는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색깔도 형체도 없으며,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창의성이 솟아 나오는 빛나는 과거를 기반으로 노력하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를 시점으로 하여 미래는 무색, 무형이어서 유색, 유형의 과거 속으로 편입되어 형체조차도 없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안목과 지혜를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4. 「나그네(Le voyageur)」 분석

이 시는 17연 5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텍스트에서는 감상적이고 개인적인 낭만성이 순화되어서 하나의 운명이 일시에 표현되고 있다. 시적 화자인 ‘나’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과거의 일들이 장소의 구애 없이 전개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공간과 경험들이 표현되는데, ‘나’의 회상과 한탄이 시의 두 축을 이룬다. 이 시도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의 처음 1~2행을 인용하면,

1연 울면서 두드리는 이 문을 열어주오 (1행)¹⁵⁾

2연 삶은 에우리포스해협¹⁶⁾ 만큼 변화무쌍하네 (2행)

발화행위 주체의 삶이 에우리포스 해협처럼 변화무쌍하지 않고 평탄하다면 이 문이 열릴 것이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하며 우여곡절이 많다. 그는 열리지 않는 문을 울며 두드리는 나그네가 되어 유럽의 여러 도시를 가족과 함께 떠돌아 다녔다.

이 시의 끝부분도 같은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전히 고독하고 궁핍한 삶의 연속이며, 시 텍스트의 처음과 끝의 두 연은 같은 시구일지라도 동일한 문일 수는 없다. 첫 두 연과 마지막 두 연에서 주체가 울며 문을 두드리면서 지각하고 느끼는 의미는 서로 매우 다르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 시는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과거지향(rétention)으로 주체의 지나간 일에 대한 회상인 반면, 후자는 미래지향(protention)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삶도 변화무쌍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시는 끝

15) Apollinaire, *Op. cit.*, pp.78~80.

16) 에우보이아(Euboiia)섬과 그리스를 가르는 너비 40미터의 좁은 해협. 하루에도 물길의 방향이 열두 번 내지 열네 번 바뀐다.

난다. 3연부터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주체는 인생이란 변화가 많다면
서, 과거의 사건으로 분리작용(débrayage)을 한다. 이렇게 이 시는 분리작
용과 재연동작용(réembrayage)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3~5연 3~10행을 인용하면,

3연 너는 바라보았지 구름장이 외로운 배를 타고
미래의 열기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아쉬움 그 모든 뉘우침을
너는 기억하겠지

4연 바다 물결 등 굽은 물고기들 수면에 떠다니는 꽃들
어느 날 밤 바다였어
강물이 거기로 흘러 들었지

5연 난 그걸 기억하네 아직도 기억하네 (3~10행)

2행에서 ‘삶은 에우리포스 해류만큼 변화무쌍하다’면서 주체의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구름장이 외로운 배를 타고 미래의 열기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본 일’이다. 여기서 인칭대명사 ‘너’는 청자로 전환된
다. 이렇게 기억의 힘은 ‘삶이~변화무쌍하다’는 생각에 의해 촉발된 무
의식적 기억으로 주체를 과거와 대면하게 한다.

다시 말해 발화 현동태(instances énonçantes)는 첫 번째 활동으로 최초
의 기호학적 분절인 위치 결정을 한다. 표현면은 ‘삶이~변화무쌍하네’
이고, 내용면은 ‘너는 구름장이~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았지’로 위치를
결정하여 현존(présence)의 장을 세운다.

그 다음 발화 현동태는 두 번째 활동인 분리작용으로 ‘구름장이~내려
오는 것을 바라본 일’을 회상한다. 그리고 이 작용에서 벗어나 원래 위
치로 복귀하는 재연동작용을 하면서 ‘그 모든 아쉬움 그 모든 뉘우침을

너는 기억하겠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일을 회상하자 그 일에 대한 아쉬움과 뉘우침이 의식의 표층에 떠오르는 것이다.

아쉬움은 과거의 일에 대한 안타깝고 서운한 기분을 가리키며, 뉘우침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꾸짖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둘 다 회상적 형상소라고 할 수 있으며, '외로운 배를 타고 미래의 열기를 향해 내려온다'는 시구를 통해 주체는 외로운 심적 상태로 인해 사랑을 지향했지만 현재 회상해 볼 때 많은 아쉬움과 뉘우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텍스트에서 과거 의식과 현재 의식이 동시에 현존하는데, 과거의 삶에 현재의 삶을 겹쳐 놓아 공존하게 하여 독자가 일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3행과 6행 '너'로부터 10행 '나'로 인칭대명사가 이동하는 것은 주체 자신의 정신적인 혼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너'는 과거의 '나'이며, 나의 과거 회상이 '나'와 '너'로 분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7행 의식의 흐름이 다시 분리작용을 하여 시간이나 공간이 다른 의식으로 옮겨가는데, 추억 속의 어떤 밤풍경이 떠오른다. 물고기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모두 여성명사로서 여성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기억이 의식의 표면에 솟아오른다. 즉, 발화 현동태는 또 다시 '바다 물결 등 굽은 물고기들 수면에 떠다니는 꽃들'의 이미지로 분리작용을 한 후 다시 '난 그걸 기억하네 아직도 기억하네'로 재연동작용을 하고 있다.

7연에서는 정거장이 고아원에 비유되고 있다.

7연 그 긴 고아원 같은 정거장들을 너는 기억하는가
우리는 지나갔어 하루 종일 돌리다가
밤이면 낮의 태양을 토해내는 도시들을
오 선원들 오 어둠의 여자들 그대들 내 동반자들이여
그걸 기억해 주게 (18~22행)

18행 정거장이 고아원에 비유된 은유를 표준수사도식 3단계로 분석하면, 첫 단계 대치는 기점과 목표가 되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점 현동태 정거장은 /역(驛)/이고 목표 현동태 고아원은 /시설/이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대치가 일어난다. 둘째 단계 지배는 발화행위에 의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인데, /역/보다 오히려 /시설/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마지막 단계 해소에서 해석자는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역/에서 /시설/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는 그들의 속성을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역/과 /시설/은 위치 행위소가 되었으므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역/은 /시설/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고아원은 깊은 고독감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체의 깊은 고독감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19~20행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다가 밤이면 낮의 태양을 토해내는 도시들’에서는 의인화가 이루어져 있다. 의인화는 외부에서 지각된 비인물의 물적 상태를 내부에서 지각된 인물의 심적 상태로 변형시켜 생명을 불어 넣는 작용을 말한다. 이것은 발화행위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절되는데, 무생물 ‘도시’에 인지적이고 감정적 활동을 부여하고 있다. 비인물의 물적 상태 ‘도시들’은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연기를 뿜어 내는데, 하루 종일 빙빙 돈 나머지 밤에 어지럼증으로 구토를 하는 인간으로 의인화되고 있다.

21행 주체의 의식에는 지난날 함께 했던 과거의 인물들(선원들, 여자들(그대들, 동반자들))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다.

10연 너는 변두리 동네들과 탄식하는 풍경들의 무리를 기억하느냐 (31행)

11연 사이프러스나무들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네
여름이 저물어 가던 그날 밤 나는 귀 기울이고 있었지

활기 없이 늘 짜증부리는 한 마리 새의 소리와
드넓고 검푸른 어느 강¹⁷⁾의 변함없는 소리에 (32~35행)

10연의 ‘탄식하는 풍경들’, 11연 34행의 ‘활기 없이 늘 짜증부리는 새’에서는 앞서 설명한 의인화가 이루어져 있다. 비인물 ‘풍경들’과 ‘새’에 ‘탄식하는’과 ‘활기 없이 짜증부리는’이라는 인간의 감정적 활동을 부여함으로써 ‘풍경들’과 ‘새’는 의인화되고 있다.

33~35행 활기 없이 늘 짜증부리는 새의 소리는 주체 자신의 목소리이다. 주체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어떤 방향성과 지속성을 감지하기 위해 드넓고 검푸른 강의 변함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13연 그 때 살아 있는 것 아무 것도 볼 수 없는데 소리 없이
생생한 그림자들 산에 기대어 지나갔네
옆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희미한 얼굴을 돌리며
그들 창들의 그림자를 앞으로 치켜들었네 (40~43행)

41행 산은 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생생한 그림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산 그림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3행 풍경은 고요한데 창은 투쟁적인 공간을 암시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여 자연과 화해하지 못하는 시인은 모든 풍경에서 자신을 향한 적의를 발견한다. ‘창들의 그림자를 앞으로 치켜들었네’는 시인의 고통스런 감정이 창에 스며들어, 창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7) 아폴리네르 시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라인 강을 말하며, 시인은 젊은 시절 독일 라인 지방에서 프랑스어 가정교사로 1년을 보냈는데 매우 아름다운 주위 경관 속에서 보낸 이 시기가 시인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연 이 낡은 사진들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알아보느냐?
 한 마리 벌이 불 속에 떨어지던 날을 너는 기억하느냐?
 그건, 네가 기억하듯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
 한 번도 서로 헤어진 적이 없었던 두 선원
 형은 목에 쇠사슬을 걸고 있었고
 동생은 금발을 땅아 있었네 (48~53행)

발화 현동태가 낡은 사진들을 보자 나그네로서 초라하게 살았던 옛 시절이 의식의 표면에 솟아오른다. 어느 여름 날 주체는 생계를 위해 은행에서 일하는 동생 알베르(Albert)를 만나 둘이 세일러복을 입고 같이 찍은 사진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다.

즉, 분리작용이 작동되는데 발화 현동태는 기억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감각 가운데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옛 시절을 떠올린다. ‘낡은 사진들’은 외부세계를 가리키는 표현면이고, 의식에 보존된 기억인 ‘여름이 끝나갈 무렵’은 내부세계를 가리키는 내용면이다. 표현면과 내용면의 경계를 정하는 위치결정은 두 가지 활동인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두 선원이 찍혀 있는 ‘낡은 사진들’은 포착된 것이고, 감각능력을 통해 주체의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다.

‘한 번도 서로 헤어진 적이 없었던 두 선원’은 형과 아우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⁸⁾

16연 울며 두드리는 이 문을 열어주오 (54행)

17연 삶은 에우리포스 해협만큼 변화 무쌍하네 (55행)

앞서 언급한 대로 과거지향의 처음 두 연과 달리, 이 마지막 두 연은

18)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폴리네르는 1918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으며, 서로 우애가 매우 깊었던 동생 알베르도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래지향으로 앞으로도 시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을 것임을 예측하는 것으로 시는 끝난다.

V. 맺음 말

지금까지 <언어적 시간>, <발화>, <『알코올』>에 대해 살펴보고, 『알코올』에 수록된 「행렬」과 「나그네」를 담화 기호학적으로 분석했다.

언어적 시간은 시간에 대한 인간 경험을 표현하는데, 파롤의 실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화행위를 할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기준 시점을 말한다.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영구불변의 고정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적 시간에 연대기적 시간을 덧붙여야 한다.

발화는 주체 중심의 의미 연구이다. 발화체는 실현된 텍스트, 곧 발화 내용을 말하며, 발화행위는 텍스트의 언어적 생산행위를 가리킨다. 구조 기호학이 발화체 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담화 기호학은 발화체 뿐 아니라 발화행위의 관점으로도 고찰하면서 새로운 체계와 의미를 파생시켰다.

아폴리네르는 상징주의가 끝나가고 초현실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20세기 초에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전위 시인이면서도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수호하고자 노력했던 시인이다.

시집 『알코올』을 담화 기호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것은 특이한 작품으로 발화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발화의 주체는 두 현동태 ‘나’와 ‘너’로 분리되는데, ‘나’는 주관적 인물, ‘너’는 비주관적 인물이다. 위치 행위소로 말하자면, 텍스트가 청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주관적 인물이 기점 현동태, 주관적 인물은 목표 현동태일 뿐이며, 이는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우리가 선택한 「행렬」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네 가지의 ‘나’, 즉

‘나’, ‘너’, ‘새’, ‘기욤’이 번갈아 나오면서 각기 생각과 감수성을 드러내는 독백적 대화로 이루어진 시이다. 시 텍스트의 전반부에서는 시인의 상상적 정체성이, 후반부에서는 현실적 정체성이 표현되었다. 특히 시인은 후반부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데, 과거의 문화 전통이 그의 내면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나그네」는 분리작용과 재연동작용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로서 과거의 삶에 현재의 삶을 겹쳐 놓아 공존하게 하여 독자가 일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며, ‘나’의 회상과 한탄이 시의 두 축을 이룬다.

연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작품에 담화 기호학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적용 사례의 확장을 위해 프랑스 작품에 시도하여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이진성, 『파리의 보헤미안 이폴리네르』, 아카넷, 2006.
- 홍정표, 「동위성 이론을 통해 본 김수영의 시작품(「풀」, 「여름아침」) 분석」, 『기호학 연구』 제63집, 한국기호학회, 2020, 243~272쪽.
- _____, 「황순원 단편소설 「학」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연구』 제65집, 한국기호학회, 2020, 123~145쪽.
- _____, 「황순원 단편소설 「그늘」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in 『한국 기호학의 최전선』, 한울, 2021, 185~212쪽.
- 황현산, 『얼굴없는 희망 -아폴리네르 시집 『알콜』연구』, 문학과 지성 사, 1990.
- 바흐친, 미하일(Bakhtine Mikhaïl), 『말의 미학』, 김희숙, 박종소 역, 도서출판 길, 2007.
- Apollinaire, G., *Oeuvres Poétique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65.
- Bakhtine, M.,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1978.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김현권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1, 한울문화 출판』, 1988)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2』, 민음사, 1992)
- Décaudin, M., *Apollinaire, Le livre de Poche*, coll. références, 2002.
- _____, *Guillaume Apollinaire -Alcools*, Gallimard, Foliothèque, 1993.
- Fontanille, J.,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김치수·장인봉 역,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é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 Larose.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Fontanille, J., & Zinna, A., *Les objets au quotidien*, PULIM, 2005.
- Géninasca,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U.F, 1999.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 Ricoeur, P., *Temps et récit I*, Seuil, 1983.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 · 이경래 역, 『문학과 지성사』, 1999)
- Todorov, T., *Mikhaïl Bakhtine, le principe dialogique suivi de Ecrits du Cercle de Bakhtine*, Seuil, 1981. (『바흐친: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까치글방, 1987)

Discourse Semiotics Analysis of French Poet Apollinaire's Poems "Procession" and "The Traveler"

Hong, Jeong-py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inguistic Time>, <Utterance>, and <*Alcools*>, and discourse semiotically analyze the "Procession" and "The Traveler" in the poetry collection *Alcools*. Discourse semiotics examined discourses from the perspective of not only content of utterance but also active discourses, that is, speech acts to derive a new system and meaning. This semiotics regards speech acts as a sort of utterance practice behaviors in order to explain the literary discourses that are being created, and intended to identify discourses as the place where utterance practice behaviors are conducted. In that the moment of the speech acts is the present, the setting of the current category comes from speech acts, and the temporal category arises from the current category. Benveniste divides time into physical time, chronological time, and linguistic time. Among them, linguistic time is a subjective and non-transferable experience that is realized in the speaker's inner world. Apollinaire is known as the poet who best expressed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symbolism ended, and surrealism began to sprout. Although he is an avant-garde poet who sought a new spirit, he is also a poet who strived to protect the traditions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This poet's collection of poems, *Alcools* is a very unusual work, which is organized around the listener, not the speaker when seen from the point of view of utterance. The subjects of utterance are divided into two instances, 'I' and 'you', where 'I' is a subjective character, and 'you' is a non-subjective character. In terms of the position actant, since the text is centered on the listener, the non-subjective character is just the instance of source, and the subjective character is just the instance of target. The poem "Procession" selected by us is composed of monologue-like dialogues where four 'Is'

referring to the same person, that is, ‘I’, ‘you’, ‘bird’, and ‘Guillaume’ appear alternately to reveal their respective thoughts and sensibility. The first half of the text of the poem expresses the poet’s imaginary identity, and the second half expresses the poet’s realistic identity. In particular, in the latter part of the poem, the poet turns his eyes to the past to find his identity and root thereby showing that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past are still alive as they are within him. “The Traveler” is a poem where disassociation and re-interlocking occur in succession, which superposed the present life on the past life so that the two lives coexist thereby making readers experience two things simultaneously and ‘my’ recollection and lamentation form the two axes of the poem. In order to expand applicable cases, this paper attempted discourse semiotic analysis of French works and proved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Keywords : Utterance, Speech act, Non-subjective, Cognitive • passionate dimension,
Subjective, Reference, Listener, Speaker, Pragmatic dimension

투고일: 2021. 12. 10./ 심사일: 2021. 12. 17./ 심사완료일: 2021. 12. 17.

한국기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기호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발간
-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 4) 국제 기호학회와의 교류
- 5) 연구 문헌 수집
-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기호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4)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회칙 개정
- 3) 예산·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0명 이내
- 4)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중에서 총무·섭외·편집·학술·재무·정보이사를 둔다.

제15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섭외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진흥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1조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제22조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기호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23조 교육이사는 기호학 관련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사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기호학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섭외이사·편집이사로 구성된다.

제7장 학회지

제29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기호학 연구』라 칭한다.

제30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기호학 연구』를 발간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1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위원장은 7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3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제34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 제35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6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9장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 제37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8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임시 위촉위원을 둔다.
- 제39조 본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구성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직책임기를 따르고 임시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 제40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1조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과 연구 및 출판 관련 윤리 규정을 둔다.

제10장 연구분과

- 제42조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 1) 문학 기호학 8) 종교 기호학
 - 2) 언어 기호학 9) 철학 기호학

- 3) 연극 기호학 10) 신화 기호학
- 4) 음악 기호학 11) 문화 기호학
- 5) 시각 기호학 12)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 6) 건축 기호학 13) 영화 기호학
- 7) 광고 기호학 14) 기타

제43조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한다.

제11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조성비
- 4) 사업 수익금

제4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부칙

제4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8조 1) 본 회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편집위원회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기호학 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진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를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2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함)

3.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제13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가
- 2) 논문 제목은 내용과 부합하는가
- 3) 초록은 적절한가
- 4) 연구 목적과 방법,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 5) 연구 자료 및 인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 6) 논문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7) 내용 분석이나 해석에 응용된 방법론이 참신하거나 타당성이 있는가
- 8) 연구 내용은 독창성이 있는가
- 9) 연구 결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10)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제17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별첨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59점 이하

제18조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수정 논문에 대한 교정지 제출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사항 확인)를 거쳐 당호의 『기호학 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다음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편집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 후 다시 투고한다. 끝으로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4. 편집회의

제20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1조 편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기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제23조
-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6)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9) 본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1) 투고는 한국기호학회 회원에 한한다.
- 2) 한국기호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필자는 투고 가능하다. 단, 학회원의 자격인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혹은 전문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 3)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기호학과 관련된 분야로 이전에 다른 학술지, 저서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게재 조건

- 1)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 2) 다른 논문집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재수록은 허용치 않는다.
- 3) 2회 이상 연속 게재는 불허한다(2회까지는 허용). 단,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를 의뢰했거나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원고 규격

다음 사항들은 명시된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1) 편집구성

- ① 제목, 필자명, 국문초록(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주제어), 기타 외국어초록(기타 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구성한다.
- ②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150매를 넘지 못한다. 150매를 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용지 크기: A4(210×297)
- ④ 용지 여백: 위 20, 머리말 15, 왼쪽·오른쪽 20, 제본 0, 아래쪽 15, 꼬리말 15
- ⑤ 글자 모양: 바탕체, 장평 100, 자간 0
- ⑥ 글자 크기: 제목 15, 장 제목 12, 절 제목 11, 본문 10, 각주·인용 9
- ⑦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첫줄 보통, 본문 줄 간격 160, 각주·인용 줄 간격 130, 문단 위·아래 0
- ⑧ 주석은 각주로, K. L. Turabian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69쪽.
 - 이어령,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7, 109~110쪽.
 - 움베르트 에코,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23~24쪽.
 -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153.
 - Maire-Laure Ryan, “Possible Worlds and Accessibility Relations: A Semantic Typology of Fiction”, *Poetics Today* 12:3, 1991, p.555.
 -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7~12.

- 바로 앞 주와 동일한 논저일 경우, 같은 책(저서일 경우) 혹은 같은 글(논문일 경우), 외국 논저인 경우 Ibid.로 쓴다.
 - 이미 인용한 논저 사이에 다른 논저가 있는 경우, 앞의 책(저서), 앞의 글(논문), 외국 논저인 경우 Op. cit.로 쓴다.
- ⑨ 참고문헌에는 국내논저, 국외논저, 기타(각종 자료나 웹사이트 출처) 순으로 한다.
 - ⑩ 참고문헌에는 간행물에 실린 논문일 경우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밝힌다.
 - ⑪ 논문의 본문에서 소제목에 붙이는 번호 표시는 I, 1, 1), (1)의 순서로 한다.
 - ⑫ 국문초록과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에는 각각 5~10개의 주제어(Key Word)를 명시해야 한다. 국문초록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800~1,500자,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은 2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이때 국문초록은 초록과 주제어로 구성되며, 영문초록은 영문제목, 투고자 명(Hong, Gil-Dong의 형식에 따라 표기), 초록,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⑬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필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기타 외국어 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초록 검수 및 분량은 영문초록 작성 방식을 따른다.
 - ⑭ 논문의 첫 번째 각주에는 투고자의 역할(1명 이상의 투고자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을 반드시 표기한다), 소속(학교 및 학과, 단 학교 소속이 아닐 경우 단체명)과 직위(교수,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 구체적인 직위를 기록한다. 만약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록한다), 이름, 이메일을 기록한다.

2) 기타

- ① 논문 투고는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에 마감하며,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간행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와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통상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일 앞에 명기한 저자가 제1저자로 간주됨)
- ③ 기타 모든 체제는 최근호에 준하고, 기타 편집상의 사안은 편집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문의한다.
- ④ 게재가 확정되면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영문 초록에 대해 원어민 감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추가 편집비가 부여될 수 있다.
- ⑤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 될 수 있다.

4. 원고제출

- 1) 논문 게재 희망자는 투고 마감일 전까지 제출한다.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윈도용)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후 메일로 송부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년도 및 직전년도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투고와 동시에 다음 계좌로 심사비 6만원을 송금한다.

송금계좌: 송태미 (국민은행 758401-04-225383)

- 4) 마감일자: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
- 5) 발일행자: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6) 제출처: <https://semiosis.jams.or.kr>

편집이사 : 윤인선 (한밭대) storyforwish@gmail.com

편집위원회 : koreasemiotic@hanmail.net

- 5. 논문 게재료는 심사비 포함 편당 전임 15만원, 비전임 10만원이며 (단, 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편집용지 25매를 초과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게재료 (조판 기준으로 초과 쪽수 당 1만원)가 부과된다.

한국기호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

한국기호학회는 우리의 삶과 문화, 우리가 만든 예술 텍스트들은 물론 사회현상과 자연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분석하여 그 질서와 구조를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소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 및 출판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호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호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기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기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지가 출판되었을 경우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출판 윤리 규정 역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구 논문의 작성과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한 윤리를 확립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전직 회장이 상임위원은 전·현직 총무이사과 편집이사가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구성원은 직책 임기를 따르고, 임시 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출판 과정 및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논문에 표기된 저자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혹은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역할을 부여한 경우

(2)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한 경우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는 경우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

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및 출판 위원들은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4)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 는 있을지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론, 모델, 연구 결과 등을 원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그 중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변조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출판 관련 윤리규정

제1조 연구 결과물 작성에 관한 출판윤리규정

- 1)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의 역할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역할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연구와 무관한 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수행한 역할과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 3) 저자의 역할과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 4) 연구 및 논문 기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여가 없거나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나 서문 등에서 내용을 밝힌다.

제2조 연구 결과물 활용에 관한 출판윤리규정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다른 학회나 단체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는 안 된다.
-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나 전체 논문을 사용하여 다른 출판물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 학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시행지침

제1조(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개정)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기호학회 임원

고 문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명예회장 : 김치수(이화여대), 김현자(이화여대), 전성기(고려대),
신현숙(덕성여대), 송효섭(서강대), 박인철(연세대),
송기정(이화여대), 김성도(고려대), 박여성(제주대),
이도흙 (한양대), 오장근(목포대)

회 장 : 최용호(한국외대)

부 회 장 : 김기국(경희대), 신정아(한국외대)

감 사 : 송치만(건국대)

편집위원장 : 오세정(충북대)

총무이사 : 이수진(인하대)

분과 상임이사

섭외이사 : 태지호(안동대)

편집이사 : 윤인선(한밭대)

학술이사 : 김민형(한국외대)

재무이사 : 송태미(한국외대)

정보이사 : 황인순(덕성여대)

국제이사 : 윤나라(프랑스 파리8대학)

연구이사 : 김수환(한국외대)

교육이사 : 박영주(인하대)

비상임 이사 : 이윤희(한국외대), 이선화(영남대), 박수진(전남대),
김상원(인하대)

편집위원 : 고경난(한국외대), 김수환(한국외대), 김휘택(중앙대),
박여성(제주대), 이수진(인하대), 이윤희(한국외대),
이찬웅(이화여대), 오세정(충북대), 윤인선(한밭대),
전형연(목포대), 태지호(안동대)

해외편집위원

Lenone Massimo (이탈리아 토리노대학)

Anne Henault (프랑스 소르본대학)

Paul Cobley (영국 미들섹스 대학, 세계기호학회회장)

Hamid Reza Shairi (이란 테헤란 국립대학)

Jose Enrique Finol (베네쥬엘라 줄리아 대학)

연구 및 출판 윤리 위원회

위원장 : 오장근(목포대)

상임위원 : 송치만(건국대), 전형연(목포대), 이수진(인하대), 윤인선(한밭대)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Honorary Advisor>

Lee, O-Young (The Joongand Ilbo Daily)

<Honorary President>

Kim, Chie-Sou (Ewha Women's U)

Kim, Hyeon-Ja (Ewha Women's U)

Jeon, Seong-Gi (Korea U)

Shin, Hyun-Sook (Duksung Women's U)

Song, Hyo-Sup (Sogang U)

Park, In-Chul (Yonsei U)

Song, Gi-Jeong (Ewha Women's U)

Kim, Sung-Do (Korea 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Lee, Do-Heum (Hanyang U)

Oh, Jang-Geun (Mokpo National U)

<President>

Choi, Yong-H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Vice-President>

Kim, Gi-Gook (Kyunghee U)

Shin, Jung-A (Hankuk U of Foreign Studies)

<Internal Auditor>

Song, Chi-Man (Konkuk U)

<Chair of Editorial Board>

Oh, Se-Jeong (Chungbuk National U)

<Secretary General>

Lee, Soo-Jin (Inha U)

<Excutive Board>

– Public Relation

Tae, Ji-Ho (Andong National U)

– Journal Edition

Yoon, In-Sun (Hanbat National U)

– Research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Treasurer

Song, Tae-Mi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Information

Hwang, In-Soon (Incheon National U)

– Internal Affairs

Yoon, Na-Ra (Université de Paris VIII)

– Investigation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Education

Park, Young-Ju (Inha U)

<General Board>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Lee, Sun-Hwa (Yeungnam U), Park, Su-Jin (Chonnam National U),
Kim, Sang-Won (Inha U)

– Editor

Koh, Kyung-N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Hui-Teak (Chungang 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Lee, Soo-Jin (Inha U),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Lee, Chan-woong (Ewha
Women's U), Oh, Se-Jeoung (Chungbuk U), Yoon, In-Sun (Hanbat
National U), Jeon, Hyeong-Yeon (Mokpo National U), Tae, Ji-Ho
(Andong National U)

– Editor Abroad

Massimo Lenone (Università degli Studi di Torino, Italy)
Anne Henault (Université la Sorbonne, France)
Paul Cobley (Middlesex University, UK / IASS president)
Hamid Reza Shairi (National Univ. of Tehran, Iran)
Jose Enrique Finol (Universidad del Zulia, Venezuela)

– Research ethics committees

Chairman : Oh, Jang-Geun (Mokpo National U)
Standing member of committee : Song, Chi-Man (Konkuk U),
Jeon, Hyeong-Yeon (Mokpo National U), Lee, Soo-Jin (Inha U),
Yoon, In-Sun (Hanbat National U)

기호학 연구 제69집

2021년 12월 30일 인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용호

발행처 / 한국기호학회

편집 ·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007)

<http://www.kstudy.com>

학회지 표지·로고 디자인 / 박영원

한국기호학회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어문학관 532호 프랑스학과

☎ 031-330-4204

<http://semiotic.cafe24.com>